

## 장시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 장사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2007년 12월 10일 초판 1쇄 인쇄 2007년 12월 17일 초판 1쇄 발행

편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영렬 편찬위원 고혜령 김리나 노명호 노중국 이용조 이해준 정구복 조광  
편집위원 이영학 이철성 이현창 오성 정성일 정재정 기획책임 박홍갑 기획담당 고성훈 류주희

펴낸이 성낙양 편집국장 정동호 편집책임 민정홍 편집진행 김현태 최대현 본문편집 프리스타일  
영업김영익 이정주 김정무 홍보 유양희 제작 김종호 김용식 김대환 김동식

펴낸곳 (주)두산동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70

편집문의 2081-7852 영업문의 3670-5373 팩스 3670-5358 홈페이지 [www.bookdonga.com](http://www.bookdonga.com)

신고번호 제318-2005-000073호(1951.9.19)

© 국사편찬위원회, 2007

ISBN 9-788900-23797-9 04600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장시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편

**독산동이**

## 한국 문화사 간행 취지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우리의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 국가 건설을 역설하면서 한 말입니다. 백범 선생이 말씀한 대로, 21세기는 군사와 경제의 시대를 넘어 문화의 시대입니다. 다행히 우리 겨레는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찬란한 문화 자산을 풍부하게 쌓아 왔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계승하여 문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1970년대에 『한국사』 25권을 펴냈으며, 2002년에는 새롭게 『한국사』 52권을 완간함으로써 20세기 우리 역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21세기의 한국사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안 역사학계 안팎에서 우리 문화사 편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시대적 요구와 학계의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한국 문화사』를 편찬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하여, 2001년부터 관련 학회와 연

구 기관에 문화사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2002년부터는 학술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편찬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03년에는 「한국 문화사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를 완성함으로써 본격적인 편찬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 문화사』를 모두 60권으로 펴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편찬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겨레의 삶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창조적 문화 활동의 진행 과정을 구명한다.

둘째, 우리 문화가 지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역동성을 찾아내고 인접 문화와의 관계를 밝혀낸다.

셋째, 학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학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넷째, 21세기 나라와 겨레의 문화 역량 향상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다섯째, 우리 문화의 포용성을 구명함으로써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민족 화해에 기여하며 통일 한국에 대비한다.

『한국 문화사』의 편찬은 다양한 전공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성과와 이론을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읽는 문화사’에 머무르지 않고 ‘보는 문화사’를 지향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쉽게 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문화사』가 창조적 민족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합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학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독자 여러분의 역사 소양과 의식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영렬

## 장시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을 내면서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던 때가 있다. 우리 역사에서 경제적 측면, 특히 상공업의 발달이라는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 중 하나는 조선 후기였다. 그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변화의 모습이 이 시기에 들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물품이 상품화되었으며, 대외 교역도 전례 없이 활기를 띠었다. 상품 유통이 대량화·상설화되었으며, 본격적인 화폐 경제 시대가 열렸다. 또한 권력이 없더라도 부(富)를 소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관념도 바뀌었다. 19세기 후반에 조선을 여행한 서양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한 인물을 가리켜 그가 곧 조선 최대의 상인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당시 경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양반 사대부가 본분을 잊고 천업(賤業)인 상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기존 양반 관료들의 비판과 개탄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이래 심화되기 시작한 경제관의 변화는 실로 이전 시대와 뚜렷하게 차별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아울러 시대와 상황이 바뀔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였는가를 추적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조선 후기-개항기-일제 강점기-광복 이후를 관류(貫流)하는 상공업 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 성행하기 시작한 장시(場市)의 성립과 발달상을 살펴보았다. 장시의 기본적 성격과 기능 및 그 변화의 과정을 계기적으로 검토하여 상업사에서 장시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동법(大同法) 실시에 따라 더욱 확산된 장시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이어 각 지방 장시들 사이에 나타나는 연계성의 강화와 시장권이 형성되는 배경을 살폈다.

한편 17세기 이후 장시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상업계의 변화 가운데 주목되는 포자(鋪子)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기본적인 성격을 살피고, 포자의 기능과 장시 발달과의 접합성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장시가 확산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전국의 유명 장시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통하여 해당 장시가 지니는 상업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약령시, 우시장과 같은 특수 시장의 상업적 특성도 검토하였다.

장시는 상업적 교역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컸지만, 각종 정보가 수집되고 홍보되는 사회적·문화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장시와 일반 백성들과의 관계가 비단 물화(物貨)의 교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끝으로 유형원, 유수원, 우하영, 정약용 등 대표적인 실학자들이 장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장시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당대의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장시, 나아가 상업에 대한 관념의 일단을 들여다보았다.

제2장에서는 조선 후기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다양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검토하였다. 쌀과 곡물, 인삼, 담배, 직물, 채소 등 상업적 작물의 생산과 상품화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상의 일면을 살폈다. 이어 민영화 과정을 통하여 발달해 가고 있던 수공업계의 변화상을 조선 전기를 비롯한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공장에서의 장인(匠人)의 이탈과 수공업의 민영화 개혁에 따른 수공업 제품 생산의 활성화 과정이 주된 검토 대상이었다.

상품 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 수로 같은 유통로에 대한 검토가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도로망의 상황과 여건, 이를 통한 물류의 이동 현상을 살폈다. 이어 수로의 관리 상태와 물자 운송을 위한 선박의 건조와 유지 및 확보를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 나루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신흥 도시의 발달 모습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물자의 보관을 위한 조창(漕倉)과 같은 창고의 설치, 물류 이동에 따른 지역 향촌 경제의 활성화 양상을 구체적 물종(物種)의 예를 통해 살폈다.

19세기 말 외국 열강과의 통상 조약이 잇따라 체결됨에 따라 상업계는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이 시기의 상업 발달과 대외 무역을 다루었다. 먼저 개항 이후 상업계의 동향과 상업관의 변화상을 살폈다. 이어 외국 상인의 침투가 본격화되기 바로 전 단계의 국내 시장의 발달 모습을 검토하고, 근대적인 상회사들이 설립되는 배경과 전개 과정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조선 후기 이래 발전해 오던 상업적 농업의 좀 더 진전된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 개성 지방 중심의 인삼 경작과 홍삼 가공업, 연초 제조업의 발달 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분야들이 일제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개항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발달하기 시작한 신흥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장권이 형성되고, 이를 근간으로 전개된 상품 유통의 양상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어 서울, 개성, 인천 등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에서 성장한 도시 거상(巨商)의 활동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한편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객주(客主)의 존재와 이들의 상업적 추이도 이 시기 상업사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고찰 대상이었다. 아울러 객주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국 상인의 활동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일제의 침투 과정의 특성과 이에 대한 객주들의 대응 방식과 형태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과 체결한 통상 조약의 성격과 이를 통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열강의 무역 경쟁 양상, 구체적인 품목별 수출입 현상 등을 살피고,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국내 산업 구조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조선의 전통적 상업계가 식민지 구조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광복 이후부터 산업화 단계에 이르는 시기의 현대 서울에서는 어떠한 시장 변화와 상품 유통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철도의 개통 등 새로운 교통 운송 체계의 등장과 시장 규칙(市場規則)의 반포 등으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의 상권과 지방 장시의 모습을 고찰하고, 다량으로 유입되었던 외국 상품의 거래 양상 등을 살폈다.

본격화되는 일본 상인의 침탈과 이에 맞섰던 민족 상인들의 상권 수호 노력은 이 시기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목의 대상이다. 시전(市廛) 상인들의 폐점, 철시 운동,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말까지 전개된 경제 자립 운동의 전개 과정과 특징,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성장해 가던 민족 상인들의 활동과 상회사 설립 운동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민족 상인들이 벌였던 항일의 움직임을 살폈다.

이어 남문 안장에서 남대문 시장으로의 변화 과정과 조선 상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동대문 시장의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함으로써 전통 시장의

변모 양상을 알아보았다. 또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으로 등장한 백화점의 경영상의 특성과 의미 등을 종로와 충무로에 자리 잡고 있던 조선인과 일본인이 운영하던 백화점의 예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광복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서울 상권의 변화상과 이전 시기에는 없던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거래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경영자와 체제, 운영 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은 백화점 업계의 경영사적 특징을 알아보고,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인한 상권과 유통 및 판매와 거래상의 특성 등을 살폈다.

요즈음 한국 사회에 열풍처럼 일고 있는 전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는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을 매개로 한 재테크 분야이다. 마치 재테크만이 현대 한국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늘려 나가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지나간 시대일 뿐만 아니라, 얼핏 보기에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조선 후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상업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거의 조상들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은 분명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부를 축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왜 그렇지 못하였는가를 보는 점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옛날의 부의 축적 방식이 지금에도 통할 수 있는가 하면, 질적으로 전혀 달라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항상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는 돈은 돈답게 벌어서 돈답게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방법과 수단의 정당성을 버려둔 채 부의 축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 돈은 무엇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한다는 속언도 있지만, 축재의 방법이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존경은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이는 평생 동안 힘껏 벌어서 아껴 쓰며 저축한 귀한

돈을 사회에 선뜻 기부한 시장의 할머니 같은 분들이었다. 근래에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중에도 사회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선행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자본을 축적한 큰 부자에게 감동받은 기억은 거의 없다. 내가 애써 번 돈을 무조건 남에게 내놓으라는 사회 파괴적 요구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선진국의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남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사례를 상기해 보았으면 한다.

과거의 상인들이 벌였던 상행위 중에도 상도(商道)에 어긋나는 예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과 정직, 근검과 봉사를 신조로 하는 상인다운 상인도 분명 존재하였다. 상당수의 개성 상인이 그러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업가로서의 몫을 다한 분들이 그랬다.

불과 50여 년 전 1인당 국민 소득 100불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문자 그대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우리는 실로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좀 더 성숙되고 격조 있는 지구촌의 일원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고, 또한 기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상도의와 기업 윤리가 유지·회복되고 기업가가 진정 존경받는 사회적 의식과 가치관이 형성된다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천민자본주의라는 비아냥거림에서 벗어나 선진 사회로 한층 진일보하지 않을까.

2007년 10월

세종대학교 교수 오 성

한국문화사 간행 취지\_4

장시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을 내면서\_6

부록\_296

## | 제1장 | ● 장시의 성립과 발전 ●

1\_ 장시의 성립과 농촌 경제의 변화\_16

2\_ 장시 개설의 확산과 시장권 형성\_24

3\_ 이룸난 장시의 발달 양상\_36

4\_ 약령시와 우시장\_63

5\_ 장시의 사회·문화적 기능\_73

## | 제2장 | ● 경제를 살린 상품 생산과 유통 ●

1\_ 상업적 작물의 생산과 상품화\_84

2\_ 수공업의 발달과 민영화\_118

3\_ 도로와 수로를 이용한 상품 유통\_138



### | 제3장 | ●개항기 상업 발달과 대외 무역●

- 1\_ 개항기 상업계의 변화\_166
- 2\_ 개항장의 발달과 도시의 거상들\_185
- 3\_ 객주의 활동과 외국 상인의 침투\_197
- 4\_ 대외 무역의 전개와 국내 산업의 변화\_204



### | 제4장 | ●근현대 서울의 상권과 상품 유통●

- 1\_ 일제 강점기 시장의 변화\_222
- 2\_ 민족 상인들의 상권 수호 노력\_238
- 3\_ 전통 시장의 변화와 백화점의 등장\_253
- 4\_ 현대 서울의 시장과 상품 유통\_271







## 제1장

# 장시의 성립과 발전

1\_ 장시의 성립과 농촌 경제의 변화

2\_ 장시 개설의 확산과 시장권 형성

3\_ 이름난 장시의 발달 양상

4\_ 약령시와 우시장

5\_ 장시의 사회·문화적 기능

# 1 장시의 성립과 농촌 경제의 변화

## 농촌의 정기 시장, 장시의 성립

장시는 상인, 그리고 각 지방의 농민·수공업자 등 생산자층에 의한 상품 생산과 이들 서로 간에 직접 교역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정기 시장이다. 조선 시대 장시는 15세기 후반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장시는 장문(場門) 또는 향시(鄕市)·허시(墟市)라고도 하였는데, 조선초기에는 장문으로 많이 일컬었다. 향시는 경시(京市)의 상대적인 뜻에서 붙인 이름이고, 허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마친 후 흩어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장시는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먼저 개설되었다. 장시를 개설하려고 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나주 목사가 장시 금압(場市禁壓)을 반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나주를 비롯한 인근의 몇몇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주는 장시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영산강을 가운데 낀 평야 지대에 위치한 나주는 농산물을 비롯하여 해산물도 풍부하여 남쪽 지방에서는 가장 큰 곳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다.

1472년(성종 3)에는 무안(務安) 등 여러 고을에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

다. 관찰사 김지경(金之慶, 1419~1485)은 장시가 개설된 이후 변화하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도내 여러 고을의 인민이 그 고을 거리에서 장문이라 일컫고 매월 두 차례씩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 비록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꾼다고 하나 근본을 버리고 말(末)을 따르는 것이며, 물가가 올라 이익은 적고 해가 많으므로 이미 모든 고을로 하여금 금지하라고 하였습니다.<sup>1</sup>

이전에는 없던 형태의 정기 시장이 열리고 물품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에서 상업으로 전업하는 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두 번씩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으로 보아 성립 초기의 장시는 한 달에 두 차례씩 개설되는 15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농민들의 교환 시장으로서 장시는 분명히 이전에는 없던 유통 기구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장시를 상업이나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성립한 것이 아니라 기근 등의 자연 재해나 군역(軍役)·조세의 부담 때문에 농촌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살아가고자 모인 곳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시는 소상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농민들은 점차 토지의 소유권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자신들의 잉여 생산물을 유리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장시의 성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15세기 말에 이르러 농민들은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소유 관계가 조성되어 갔다. 장시에서의 교역 물품이 토지 경제에 기반을 둔 생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라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시장 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였다. 종래의 자급자족 테두리에서 벗어나 물품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장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충청도에 이어 경상도 지방에도 설립되고 있었다.<sup>2</sup> 이 시기의 장시는 흉년과 같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민인들 스스로 유무교역(有無交易)하기 위해서, 또는 지방 수령들이 진휼책의 일환으로 개설하였다. 1518년(중종 13)에는 방방곡곡에 장이 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였고,<sup>3</sup> 2년 후에는 제도(諸道)에 장시가 개설되고 있다고 하여<sup>4</sup> 각 군현에 장시 개설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시의 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17세기 중엽에 크게 증가하였다.

장시 개설의 장단점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인들의 요청과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였다. 장시 개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대부분 상업 활동에 나선 민인들이 이곳만 추구하여 놓고먹는 자를 늘리는 반면 논밭은 황폐해진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장시가 처음 개설되었을 때도 지적되었듯이 농사에 종사하는 자는 줄어들고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상업은 이득이 많고 농사는 이득이 적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농촌에서 유리(流離)된 자들이 장시를 배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들이 도적의 무리가 된다는 우려에서 더욱 금압되었다. 몰락 농민이나 피역자들은 부득이 도적질을 일삼고 장시를 출입하며 훔친 물건을 팔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sup>5</sup> 이 때문에 도적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장시 개설의 확산을 억제하자는 주장이 빈번히 제기되었다. 결국 장시 개설의 억제와 함께 여러 폐단의 지적은 무엇보다도 농사에 힘을 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와는 달리 장시 개설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장시가 흉년을 극복하고 백성들을 진휼(賑恤)하는 한 방편이 되고 있으며, 유무교역을 통해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한 경우들이다.<sup>6</sup> 장시는 흉년과 같은 어려운 때를 계기로 민인들이 스스로 개설하고 있으며, 장시의 유용성을 인정

하고 있던 수령들에 의해 진휼책의 하나로도 개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구황책(救荒策)의 일환으로 허용되었지만 결국은 장시 금압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장시는 일부 지적된 폐단에도 불구하고 민인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장시를 일체 금압하면 민인들이 실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일체 금지시키면 가난한 자들의 생계가 걱정된다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장시의 사회 경제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장시 발달을 촉진시킨 요인들

장시가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정착하게 되는 것은 대동법(大同法) 실시와 더불어 더욱 탄력을 얻게 되었다. 대동법은 17세기 이후 조선 왕조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부세 제도이다. 농민들은 대동법 시행 이후 봉건 국가에 바치던 현물의 공납(貢納) 대신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해 미곡(米穀)이나 포목(布木) 또는 전화(錢貨)를 납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쌀을 납부하도록 정해진 지역에서 미곡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농민들은 무명이나 기타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미곡을 마련해야 하였다. 이와는 달리 포목을 납부하도록 정해진 지역에서 포목 생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곡물이나 기타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포목을 마련해야 하였다.<sup>7)</sup>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유통 경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각 지방의 장시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다.

대동법은 농업·수공업·광업 분야 등의 생산 활동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이앙법의 보급, 농업 기술의 발달 등과 함께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켰고, 곡물의 상품화도 촉진되었다. 면포나 마포 같은 작물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실물 화폐로 인정되어 장시에



#### 타작(원쪽)

단원 김홍도가 타작하는 장면을 그린 풍속화이다. 조선 후기에는 곡물이 상품 유통의 중요한 물목으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쌀은 대부분의 장사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 대장간(오른쪽)

김홍도가 대장간에서 화덕에서 달구어 낸 쇧덩어리를 메질을 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조선 후기에는 소규모 수공업장에서 도시 시장 판매를 위한 상품 생산이 증가하였다.

서 유통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배, 생산이 확대되었다.

한편 농민층 분해와 사회적 분업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수공업 및 광업이 발달하면서 임금 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농민들은 상품화를 위한 작물 재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다. 상업적 농업은 대체로 도시 주변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특정한 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각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여 상업적 이익을 늘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미곡이었고, 이 밖에 채소·목면·연초·인삼·대나무·닥나무·생강 등의 재배와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돈이 되는 작물의 재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 작물의 유명 생산지로 이름을 날리는 곳도 많이 나타났다. 즉 진안의 연초, 전주의 생강, 임천·한산의 저포, 개성·강계의 인삼, 한양을 비롯한 대도

시 부근의 채소 등과 같이 지역별로 특성화된 상품들이 생산되었다.<sup>8</sup>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의 변동은 수공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궁정이나 관아에 필요한 물품을 주로 생산하던 관영 수공업 체제가 점차 쇠퇴, 변화하여 민영 수공업이 점차 수공업 생산 분야를 주도하였다. 특히 관아가 필요한 물품을 장사에서 구매하면서 민영 수공업자들은 시장 판매를 위한 상품 생산과 판로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수공업 부문의 기술이 발전하고 농업 생산물의 상품화 과정이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자가 소비나 부업을 위해 생산하던 가내 수공업자들은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하였다. 이에 모시, 베, 명주 등은 자가 소비보다는 교환,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다.

광업 분야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화살촉·칼·창 등 각종 무기 제조와 일반 민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농기구·술·놋그릇 등의 제조가 증가하면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조선 후기 광산업이 크게 활기를 띤 것은 금·은·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수공업 분야의 급속한 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민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상품 생산의 증대와 유통의 활성화는 이 시기 각 지방에 개설되고 있던 장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 동전 유통의 활성화와 상품 작물 재배의 증가

동전의 유통 확대와 조세의 금납화(金納化)는 장시를 통한 유통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동전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화폐의 공급 부족과 동전 주조 원료의 부족 등으로 화폐 유통량의 부족 현상인 전황(錢荒)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동전을 매개로 한 상품의 매매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동전을 사용하도록 하여 동전의 유통 영역을 확대시켜 민인들에게 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 각종 상평통보

상평통보는 1678년(숙종 4)에 발행되어 조선 말기까지 통용되었다.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글자와 주조한 관청, 액면가가 새겨져 있다.

#### 저잣길

해원 신윤복이 생선 장수 아낙을 그린 풍속화이다. 동전 유통이 일반화되고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량의 채소나 생선을 파는 자들까지도 동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동전은 초기의 유통 보급 단계를 지나 가치 척도, 교환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저장 수단 등 화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소작료나 노임을 지불할 때도 동전을 쓰는 추세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토지·가옥·노비·가축의 매매와 장시 내에서의 자잘한 거래에도 동전을 매개로 하게 되었다.

동전 유통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반화되었다. 1718년(숙종 44)에는 채소를 파는 노파들이나 소금을 파는 아이들까지 곡식보다는 화폐를 더 요구하는가 하면, 동전이 없으면 교역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농민들이 혈값으로 곡식을 팔아 동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sup>9</sup> 1735년(영조 11)에는 여러 가지 물품을 돈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어서 비록 쌀이나 배가 있어도

반드시 동전으로 교환한 후에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sup>10</sup>

동전 유통 범위의 확대는 점차 조세와 지대(地代)의 금납화로 이어졌다. 조세의 금납화는 생산물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화폐의 유통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세의 금납화와 현물 소작료를 화폐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가자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팔아서 동전을 마련하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대부분 장시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었다. 금속 화폐가 주요한 유통 수단이 된 조건하에서 농민들은 화폐를 확보하기 위해 장시를 매개로 상업 활동을 영위하였다. 농민들의 생산물은 상품화되어 장시를 통해 판매되면서 각 지방의 장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장시는 통공 발매(通共發賣)를 계기로 더욱 성장하였다. 조선 왕조는 시전(市廛) 상인들에게 각종 국역을 부과하는 대신 그들의 상업 활동과 상업적 이권을 침해하는 여러 형태의 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종의 전매 특권인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금난전권을 허무는 조치가 내려졌다. 1791년(정조 15)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주장으로 통공 발매가 허용된 것이다. 이 조치가 신해년에 있었기 때문에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고 한다.

신해통공은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독점 매매권을 배제하고 30년 이내에 설립된 시전을 혁파하고 육의전의 전안(廛案)에 올라 있는 물품 이외의 상품을 통공 발매하기로 한 것이었다. 통공 발매의 시행은 앞선 시기에도 몇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신해통공은 특권적 전매 상업과 사상 도고들의 활동에 따른 물가의 폭등과 시전 상인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상업계에 있어서 일대 변혁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소상인·소상품 생산자층에게 영업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소상인·소생산자·소도시민층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채제공초상

채제공이 통공 발매의 허용을 주장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독점 매매권을 부정하는 신해통공이 단행되었다. 이는 소상인과 소상품 생산자의 자유로운 영업을 인정한 것으로 상업계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 2 장시 개설의 확산과 시장권 형성

### 지방 관아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던 장세

조선 정부는 17세기 중반 이래 상업계의 변동과 함께 장시 개설의 증가로 종래의 상업 정책을 보완하였다. 장시 개설은 인정하되 장시에 출입하는 상인들에게 일정한 장세(場稅)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장세는 지방 관아 재정 수입의 일부로 보충되는 잡세(雜稅)의 일종이다. 잡세는 민고세(民庫稅)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방세와 중앙 정부로부터 용인된 일부 교부세를 일컫는데, 지방마다 종류나 징수 방법이 다르고 수세 내역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장세 징수의 본래 목적은 지방 관아 재정을 보충하는 등 공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세 징수 절차와 방법에서 폐단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장세가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상인이나 장시를 드나드는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아전(衙前)이나 군관(軍官)이 자행하는 중간 수탈의 폐



#### 각종도량형기

조선 후기에 길이, 부피, 무게 따위를 재던 도량형기이다. 홑(合), 되(升), 자(尺), 저울(衡)이다. 초기에는 장세를 현물로 징수하였으나 18세기 이후에 대부분 금납화되었고, 징세 규정도 마련되어 갔다.

단도 만만치 않았다.<sup>11</sup>

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지방 수령들은 장세 징수를 혁파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대체로 장세가 상인들에게는 별 부담이 없지만 진휼 비용을 보충하거나 왕릉의 개보수나 사절의 접대 비용 등으로 써서 민역(民役)을 대신하는 등 공용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장세를 혁파하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장세의 징수와 혁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방 관아의 중요 재원이 되자 중앙 관아조차 장세 징수로 궁핍한 재정의 보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장세 징수가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아의 재정 형편을 이유로 쉽게 폐지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지방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장세는 징수 기구나 담당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장세 징수는 대개 지방 관아 육방(六房) 중에서 공방(工房)이나 고마청(雇馬廳), 장청(將廳) 등에서 관장하였다. 그리고 장세 징수를 실제 수행한 담당자는 지방 관아에서 임명한 도장(都將)·시장감고(市場監考)·시장감세(市場監稅) 등이었다.

장세는 18세기 중엽 이후에 대부분 화폐로 징수되었지만 이전에는 현물로 징수되었다. 따라서 아전들의 자의적인 징수는 또 다른 폐단을 발생시켰다. 현물의 경우 출하되는 물품에 따라 사기그릇으로 반 그릇 또는 손으로 서너 움큼 징수하는 등 정해진 규례가 일정치 않았다.

장세액은 각 지방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였다. 장세는 매시(每市)마다 일률적인 곳이 있는가 하면 계절별·분기별, 또는 농한기와 농번기를 구분하여 차이를 두는 곳도 있었다.

장세의 용도는 조선 후기 지방 관청의 세출 비목과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였다. 즉 장세는 지방관의 봉록, 군병의 식료 및 경·영주인(京營主人)의 역가(役價)와 기타 인건비, 관아 수축비, 종이·붓·먹 등의 사무용품과 쌀·소금·간장·기름·꿀·엿·닭·뿔나무·한약재 등 지방 관청 운영에 사용되는 물건의 조달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향교의 봄가을 제향, 산천제, 기타 지방 관청에서 거행하는 각종의 제사비, 신·구 수령의 영송(迎送)과 공무 수행자를 위한 고마가(雇馬價) 등의 운수 교통비, 관선(官船) 건조 수리비, 군기(軍器)나 병선(兵船)의 수리, 내의원(內醫院) 약재가를 비롯한 의료비 및 교육비, 진상물의 조달 상납비, 부의금(賻儀金) 등이 포함되었다.

## 장시의 증가와 시장권 형성

장시의 수적인 증가 및 장시 내부의 질적인 발달은 대부분의 장시가 5일 간격으로 열리게 하였고, 점차 지역마다 시장권이 형성되었다. 시장권이

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네다섯 개의 장시가 장날을 달리하며 개시함으로써 그 지역 내에서 상품 거래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향촌 사회의 물화 유통을 매개해 주는 장시는 대개 5일에 한 번씩 한 달에 여섯 번 열리며 인접한 장시와 서로 날짜를 달리하여 개설되므로 일정한 유통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권은 장시의 신설, 장소 이전, 폐지, 설장일 변경 등 장시의 질적인 발달과 상인들의 상권(商圈) 확대 등에 의해 더욱 넓어졌다.

조선 전기에는 서울·개성·평양 등 시전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는 정기 시장인 장시만이 개설되는 정도였다. 그런데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전주나 청주·공주·황주·원산 등 상업 도시로 크게 성장한 곳에도 시전이 설치되어 항시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곳이 늘어났다. 정기 시장인 장시 중에서도 상설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곳이 점차 증가해 갔다. 이와 함께 각 지방에서는 인접한 네다섯 개의 장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장이 서는 날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설장일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난다. 즉 한 지역의 읍내장(邑內場)이 2·7일에 개시하면 타원형을 이루면서 이로부터 30~40리 거리에 위치한 다른 장시들은 읍내장과는 다른 날에 개시하여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시장권 내 각 장시의 장날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각 군현의 읍내장이 먼저 2·7일에 정하고 그 이외 인접한 장시들이 나머지의 날짜를 택하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즉 음양오행설에 따라 오일장의 개시 일자를 음양수(陰陽數)에 의하여 다섯 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서 2·7일자가 음수와 양수의 합이 가장 큰 수인 9자(泰元: 임방(壬方)을 뜻한다고 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부여하였다고도 한다.<sup>12</sup>

지역 주민이나 상인 모두에게 인접한 지역의 개시일은 서로 달라야 편리하였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인접한 장시와의 개시 간격이 멀수록 다른 장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상인들은 그것이 짧을수록 장



#### 길쌈

김홍도가 길쌈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조선 후기에는 장시의 발달과 더불어 시장 판매를 위한 면포, 마포, 저포 등을 비롯하여 각종 자리를 짜는 수공업이 크게 촉진되었다.

시의 개시일을 따라 순력(巡歷)하기에 좋았다. 따라서 일정한 시장권 내의 장시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개시일을 상호 조정·보완하며 개설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시장권은 또 다른 인접 시장권과 연계하여 상품 유통을 더욱 활발하게 촉진시켰다.

시장권은 장시 수의 증가와 함께 인접한 장시 사이에 중복된 개시일을 상호 조정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가능하였다. 장시가 수적인 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던 17세기까지는 인접한 장시 사이에 개시일 중복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산골짜기의 외진 마을까지 장시가 개설되는<sup>13</sup> 18세기 이

후로는 설장일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읍치(邑治)나 물화 교역이 활발한 곳에 개설되는 장시를 중심으로 시장권이 형성될 때 이들 장시와 개시일을 같이하는 작은 장시는 개시일을 변경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장시에 흡수·통합되거나 소멸되었다. 그리고 시장권 형성을 위해 신설되는 장시는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거리상 가장 가까운 장시나 읍치 또는 물화 교역이 왕성한 장시와는 설장일을 피하여 개설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장시가 농촌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장시 간의 연계가 긴밀해지면서 18세기 이후에는 특산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시장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가운데 충청도에서는 모시 생산으로 유명한 부여·한산·비인·임천·홍산·남포·서천·공주 등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시장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장시는 개별적으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개시일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거리상으로도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모시라는 특산물이 생산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을 순회하는 상인이나 지역 주민들로서는 시장권

형성으로 날마다 장시가 열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포는 전국에서도 가장 이름난 것이었다. 그리고 해로와 수로가 연결되는 교통상의 이점이 있어 선박을 이용한 상품 교역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 곳이었다. 한산의 세모시는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택리지(擇里志)』 복거총론(卜居總論)의 생리조(生利條)에도 이름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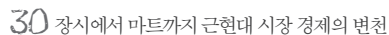
각 지방 장시들 사이에 연계 관계가 긴밀해지고 시장권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사상인(私商人)들의 활동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사상인들은 각 지방의 장시 발달과 더불어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고, 취급하는 물품도 다양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 양상은 이 시기에 편찬되는 읍지(邑誌)나 지리지(地理誌) 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7세기 말 이래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전국적 시장 형성의 요청이 일어나면서 상업 지리, 교통 지리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택리지』 · 『동국지도(東國地圖)』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같은 민간의 저술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었다.<sup>14</sup>

상인들은 대개 30~50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5일마다 개시하는 장시들을 순회하거나 서울의 시전과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며 상품을 유통시켰다. 상인들의 활발한 상품 유통 활동에 힘입어 각 지역의 장시는 군현의 읍치나 물화 집산지·포구 등지에서 개설되는 규모가 큰 장시를 중심으로 시장권을 형성하였다.

시장권은 곧 그 지역의 유통권이었다. 각 지방의 장시 발달과 그에 따른 시장권의 확대는 지역 간 상품 유통의 증대를 가져왔다. 더욱이 18세기 이후 각 지방의 포구(浦口)가 개발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상품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포구가 새로운 유통 중심지로 대두하였고, 더 나아가 시장권 내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포구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발달하고 있음은 선박을 이용하여 생업을

1872년경에 제작된 황해도 금천군의 지도로, 당시 개설되고 있던 장터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19세기에 제작되는 각종 지도에는 장시(場市), 점막(店幕), 진선(津船) 등의 상업지리 내용이 크게 보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국내의 상품 유통권이 크게 경상도의 동해안과 강원도의 영동 지방 및 함경도를 연결하는 유통권과 전라·경상도에서 서울·개성을 거쳐 황해·평안도로 이어지는 유통권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사이에 유통권이 형성되고 있음은 읍지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함경도 함산(咸山)의 연포장(連浦場)은 영남 지방과 물화 유통이 이루어져 영남의 각종 물화가 많이 교역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장시와 포구가 발달하면서 시장권 내는 물론 지역 간 물화 유통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대량의 상품을 신속하게 먼 거리까지 운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박과 해로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졌다.



포구의 화물선  
20세기 초에 촬영한 포구의 화물선 모습이다. 포구가 상업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대량의 상품을 신속하게 운반하는 데 주로 선박이 이용되었다.

## 정기 시장의 상설화 경향

보름 또는 열흘 간격으로 열리던 시골장이 17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시장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리고 읍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주민이 많지 않은 곳까지도 시장이 설립되었다. 1607년(선조 40)에는 한 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각 지역마다 장이 열리고 있었다.<sup>15</sup> 개시일은 점차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 주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시장 개설을 주도하는 상인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상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장시와 장시가 통합되거나 아예

폐지되기도 하였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위해 개시일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도 하였다. 인근에 있는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신설되던 장시들이 한 차례 정비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 것이다.

조선 시대 장시는 교통의 요충지, 많은 물화의 유통, 다수의 소비 인구 등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달하였다. 이 밖에 상인이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지방 나름의 특산물이 있을 때 더욱 발달할 수 있었다. 어떤 장시는 지역적인 장점을 이용하여 규모가 큰 장시로 성장하는가 하면, 운송 수단과 도로 사정의 변화로 소규모 장시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1809년(순조 9)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전국의 대표적인 장시로 15곳을 꼽고 있다. 이들 장시는 대개 읍치를 중심으로 개설되던 곳이 대부분이었고, 조선 최대의 소비 시장인 한양 인근의 장시, 그리고 수로와 해로가 연결되는 곳의 장시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장시가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었지만 어떤 곳은 19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인근 지역의 장시에 상권을 빼앗기고 보통 시장으로 전락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편 17세기 이후 장시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상업계의 변화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상설 점포라고 할 수 있는 포자(鋪子)가 설치된 점이다. 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규모와 취급 상품 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그런데 포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과 운영 방침에 대해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언급한 것이 남아 있어 대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사(鋪舍)를 지음에는 기와로 덮개를 하고 대청·부엌·그릇은 힘써 깨끗하게 하고 푸른 깃대와 음식상도 한결같이 그 제도에 의하고 그 꾸어 주는 미곡은 대동(大同)의 남은 쌀로 하든가 혹은 상평(常平)의 저축한 곡식으로 하되 사의(事宜)를 헤아려서 많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한다. 점포

내에서 관가와 팔고 사는 것은 모두 시가(時價)를 따르고 양반이나 아전의 무리들이 폐해를 끼쳐서 토색(討索)하는 것이 일문(一文) 이상이면 관에 고발함을 허락하여 엄중하게 다스리고 명백히 일의 조목을 세워 판자에 새겨서 문의 옷중방에 걸게 한다.<sup>16</sup>

조선 중기까지 상설점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개성, 평양 등지에 개설되는 정도였다. 지방에 상설점인 포자가 설치되는 것은 17세기 초에 이르러서였다. 포자가 설치되는 곳은 물화 집산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의 상업 중심지에 상설점인 포자가 광범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상품 유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포자의 설치는 곧 장시의 상설화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포자의 설치는 동전 유통을 확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1655년(효종 6) 영돈녕부사 김육(金堉, 1580~1658)은 경기도와 평안도,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포자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동전 유통을 활성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sup>17</sup> 김육의 건의에 따라 평안·황해도 지방에는 많은 포자가 설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sup>18</sup>

그런데 포자의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식리(殖利) 활동으로 인한 폐단이 지적되어 많은 지역의 포자가 혁파되었다. 포자는 관영(官營)과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나뉘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포자는 당연히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관영 포자는 물화 교역을 통한 동전 유통뿐만 아니라 식리 활동으로 지방 관아에서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지만 정책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운영 과

#### 김육초상

1655년 김육은 동전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안도, 황해도에 포자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상설 점포라 할 수 있는 포자의 설치는 17세기 이후 장시의 발달과 함께 상업계에 나타난 변화 가운데 주목되는 점이다.



### 상설점

노점이나 좌판과는 달리 가게에 과일과 건어물 등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다. 정기 장시가 상설화되려면 이와 같은 상설 가게가 있어야 했다.



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러한 포자의 설치와 운영은 각 지방의 시장권 형성과 장시의 상설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정기 장시 가운데 일부에서는 상설 시장화되는 모습을 띠는 곳도 나타났다. 정기 장시의 상설 시장화는 대체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5일에 한 번씩 열리던 정기 장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물화 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곳에서는 차츰 매일 열리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장터에 상설 점포가 설치되고 상인들이 점차 정착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새로운 장시가 개설되고 장시 상호 간에 밀접한 연계 관계를 맺으며 시장권을 형성하여 그 시장권 내에서는 장시가 매일 열리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였다.

18세기 이후 지방 장시가 발달하는 방향은 정기 장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곳에서는 장시가 신설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미 정기 시장이 개설되고 지방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물화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점차 상설 시장화의 형태로 발전해 갔다. 정기 시장만이 개설되던 곳에 상설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히 그곳을 중심으로 상업 도시가 발달하는 것이었

다. 그리고 이와 같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의 장시에 상설 점포가 설치되어 개시일이 아닌 날에도 늘 장이 열려야 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지방 장시는 개별적·분산적으로 개설되는 것에서 벗어나 장시와 장시 사이의 통합과 흡수, 개시일 변경, 장소 이전 등으로 수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탈바꿈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마다 물화유통이 활발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상호 연계적인 시장권을 형성하면서 상설 시장화 형태가 나타났다. 즉 한 지역 단위에 분산되어 기능하던 네다섯 개의 정기 장시들이 서로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좀 더 큰 지역 단위로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였다. 이 시장권은 또 다른 지역의 시장권과 연결되어 넓은 지역을 두고 본다면 장시가 상설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이름난 장시의 발달 양상

#### 시전 상인들에게 미움을 샀던 송파장

송파장(松坡場)은 『만기요람』에서 전국의 15대 장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고, 그 위치상 규모와 교역량이 적지 않았다. 송파장이 개설된 시기는 민진후(閔鎭厚, 1659~1720)가 광주 수어사(廣州守禦使)일 때 창설된 것으로 보아 17세기 말엽 또는 18세기 초인 듯하며, 처음에 개설된 곳은 남한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18세기 중엽에 송파로 옮겨 갔다.

송파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진보(鎭堡)와 창사(倉廩)를 설치하고 아병(牙兵)을 배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게 하는 한편 이곳에 장시를 개설하여 민인을 불러 모으고자 하였다. 그런데 송파장은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서울의 시전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예민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전 상인들로부터 폐지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도 도내에 있는 다른 장시들과는 달리 매월 6회씩 열리는 오일장이었으나 점차 상설 시장으로 바뀌어 시전의 이익을 중간에서 빼앗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파장의 존폐 문제는 조정에서 논의될 정도로 서울 시전인에게 끼치

는 영향이 대단하였다. 송과장의 혁파에 대해서는 시전 상인들이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향민(鄉民)의 보호와 함께 송과장의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

광주 유수 서명빈(徐命彬, 1692~1763)은 군사적 요충지의 장시는 결코 혁파할 수 없다며 환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 1702~?)는 서울 시전인은 전사(塵肆)를 열고 향민은 장시를 개설하여 각자 생업으로 삼게 하는 것이 온당하므로 시전인을 위해 서울과 가까운 곳의 장시를 혁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서울과 지방을 물론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보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다른 도보다 특히 장시 개설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서울에 각종 상품이 모여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시전에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경기 지역의 장시 개설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서울 근교에는 송과장 이외에 사평(沙坪), 광진(廣津), 검암(黔巖) 등의 장시가 있었다. 이들 장시는 한 달에 여섯 차례 교역하면서 경시전에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전인들의 반발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송과장은 이들 오일장과는 달리 거의 매일 개시하고 있어 상설 시장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송과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던 상인들은 서울 근교의 중도아배(中都兒輩)나 난전 상인들과 결탁하여 삼남과 북도·영동의 상인들을 모두 이곳에 모이도록 유인하였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매월 6회 열리는 오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각 시전의 물종을 쌓아 놓고 날마다 매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마다 시전 상인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송과장을 혁파하지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1758년(영조 34)에는 송과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시가 산성 근처에서 송과로 옮겨 온 후 잡류배(雜類배)로 인하여 경시민(京市民)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자 송과장



#### 이철보 초상

이철보는 서울과 가까워 서울의 시전과 상충하는 송파장의 존폐를 논의할 때 광주 유수로서 현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파장의 폐지나 이설을 반대하였다.

의 혁파를 허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성과 송파 사이에 개설되는 장시가 없으면 광주의 백성들이 불편하므로 송파장을 혁파하는 대신에 산성 근처의 옛터에 장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재개되었다.

이에 대해 광주 유수 이철보(李喆輔, 1691~1775)는 송파장의 폐지나 이설을 반대하였다. 송파에 장시를 개설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시전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지방의 장시를 갑자기 혁파함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설하는

위치도 송파에서 겨우 10리 정도 떨어져 있어 송파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로움이 없고 근근이 모아들인 백성들도 장차 흩어질 지경에 이를 것이므로 혁파든 이설이든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현지 수령으로서 장시 개설이 일반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데 매우 긴요하며,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좌의정 김상로도 장시의 개설과 함께 진보와 창고 등을 설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전국 각지의 우척(牛隻)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송파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역 내용이 경시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경시전이나 장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송파장에는 인근의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노복이나 무뢰배까지 모여들어 영남, 호남, 강원도 등에서 올라오는 상인들의 각종 상품을 중간에서 매점하여 경시전에 내다 팔아 시전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전인들은 송파장의 혁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였다. 송파장은 경시전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때 폐지되거나 이전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위치로 볼 때 경시전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여러 대신의 의견과 광주 유수 이철보의 강력한 옹호에 힘입고, 영조가 이를 인정하자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 삼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요지에서 성장한 안성장

안성(安城)은 언제부터인가 안성맞춤이라고 불려야 어울리는 지명이 되었다. 그렇게 불려 달라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렇게 불려 주었다.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지금은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의 특징을 홍보하기에 너도나도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그 지역 출신 유명 연예인이 홍보 대사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 특산물이나 명물을 지역과 연결하여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전혀 모르던 지역을 자연스럽게 한번 찾아가 보게 되고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

안성이라는 지역이 행정 구역 단위의 하나로 불리다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였다. 안성장은 전국에서 이름난 3대 시장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鑄器)가 널리 알려지면서 점차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다.

조선 중기 이래 크게 발달한 지방 장시 가운데 안성 장시는 서울의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달한 송파장이나 누원점(樓院店), 그리고 신도시의 건설로 인하여 번창하게 된 수원의 장시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안성장은 지리적으로 삼남의 각종 물화와 조세 등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또한 송파나 누원점 등과는 달리 서울의 시전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전 상인들의 견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박지원초상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안성의 지리적 이점에 대하여 경기와 호서를 연결하고 삼남을 통괄하는 입구가 된다고 하였다.

안성 장시가 번성할 수 있었던 지리적인 이점에 대해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안성이 경기와 호서를 연결하고 삼남을 통괄하는 입구가 된다.”<sup>19</sup>고 표현하였다. 이중환은 “안성이 경기와 삼남 지방의 사이에 위치하여 물화의 유통이 왕성하고 상인의 왕래가 빈번하여 한강 이남의 큰 도회를 이루고 있다.”<sup>20</sup>고 하였다. 당시 안성은 동래-대구-충주-용인-관교-서울로 이어지는 영남로(嶺南路)와 영암-나주-정읍-공주-수원-서울로 연결되는 호남로(湖南路)를 이어 주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안성장이 경기도 도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발달하고 있었음은 도내의 다른 장시들과 비교하여 장세를 월등히 많이 징수하고 있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 왕조는 금압책에도 불구하고 장시가 개설되는 곳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자, 장시 개설은 인정하되 장시에 출입하는 상인들로부터 일종의 매매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 관아의 재정에 보충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재정 형편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장세를 비롯한 각종 잡세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었다. 18세기 초의 기록에 의하면 안성에는 황주, 전주, 은진 등 규모가 큰 장시에서와 같이 ‘장세 징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부역실총(賦役實摠)』에 의하면 안성의 장세는 경기도의 32개 군현 가운데 가장 많은 720냥이 징수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서 안성장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큰 장시로 번성하였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도 장시 문제를 논의할 때 안성장은 전주, 황주, 은진 등과 함께 지방 장시의 본보기로 거론하는 예가 많았다. 18세기 중반

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시전보다 크다고 할 정도로 규모나 교역되는 물화의 양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크다는 표현에는 과장된 부분이 섞여 있지만 당시 안성장은 물화 교역량이나 드나드는 상인 및 일반인의 수가 서울 못지않았다.

안성 장시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이곳에서 유기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많이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제품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품질 면에서 뛰어났다. 안성 지방에 언제부터 유기가 생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안성에 유기가 생산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19세기 초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이다. 이에 의하면 안성읍장의 거래 품목으로 유기가 나와 있다. 이로 본다면 적어도 19세기 초엽에는 안성장에 유기가 상품으로 교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유기장수

20세기 초에 좌판에서 유기를 파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특히 안성에서 생산되는 유기는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품질에서도 뛰어났다. 안성장은 한양의 시전에 못지않게 거래 물품이 많고 할 정도로 대장시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안성에 유기 공업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좀 더 확실한 자료가 있다. 안성읍에는 1841년(헌종 7)에 건립된 군수정후만교영세불망비(郡守鄭侯晩敎永世不忘碑)가 있다. 이 공덕비는 10개의 수공업장에서 비용을 각출하여 세운 것으로 보인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안성에는 낚그릇을 만드는 수공업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여러 수공업장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고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다.

도광(道光) 21년 신축 12월 유점(鑪店) 주점(鑄店) 시점(匙店) 입점(笠店) 연죽점(煙竹店) 야점(冶店) 목수점(木手店) 피점(皮店) 혜점(鞋店) 마록점(馬鹿店) 세우다.<sup>21</sup>

여기서 유점은 낚그릇을 만드는 수공업장이고, 주점은 쇠를 녹여 쇠붙이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이었다. 그리고 시점은 낚순가락·낚젓가락 등을, 입점은 갓이나 망건을, 연죽점은 낚담배통과 낚물뿌리를, 야점은 야장간이고, 목수점은 각종 목제품을, 피점은 가죽을, 혜점은 가죽신을, 마록점은 짐승들의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장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안성에서는 19세기에 들어 유기를 비롯하여 각종 수공업품이 상품으로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성은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수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유기 이외에 한지와 가죽신도 유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성 유지(油紙)는 시집가는 새 아씨의 빗집(梳入)감에 마침이다.”라는 속요와 “안성 꽃신 반저름은 시집가는 새아씨 발에 마침이라.”라는 속요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연죽(煙竹)의 제작이나 갓 수선 기술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뛰어났다고 하였다.

## 포구의 장점을 이용해 대장시로 성장한 강경장

강경장(江景場)은 금강 유역의 곡창 지대를 배후지로 하고 있으면서 19세기에 큰 장시로 성장한 곳이다. 특히 수로와 해로가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상품 교역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강경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에는 포구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인근의 시진포(市津浦)가 은진현(恩津縣)의 관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상업 중심지로 떠올랐다.<sup>22</sup>

금강 유역의 원격지 교역은 은진의 강경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다시 공주·전주 등지로 상품의 집산이 이루어졌다. 즉 강경포는 금강 유역 유통권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원격지 교역의 창구가 되었다. 강경포 상류의 공주 위쪽으로는 물이 얇아 배가 다니기 어려웠고, 강경포에서 공주까지는 작은 배만 드나들 수 있었다. 해선(海船)들이 여유 있게 오갈 수 있었던 입지 조건이 인근 지역 유통권의 중심지는 물론 원격지 교역의 요지가 될 수 있었던 바탕이었다.

철도 같은 근대적 교통 기관이 발달하기 이전에 많은 양의 물품을 좀 더 빨리 운반하는 데에는 말, 소, 수레를 이용하는 육상 교통보다 선박이 훨씬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리고 해로와 수로는 육로보다 대량의 화물을 더욱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었다. 특히 원격지 교역은 대부분 해로와 수로를 이용하였으며, 육로는 이들을 통하여 교역된 상품을 지역적 유통권 내부에서 분배하는 기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3</sup>

포구가 상업 중심지 기능을 하면서 인근 포구 간에는 상권(商權)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금강 하구에서 강경포에 이르는 사이의 각 읍에는 소규모의 포구가 적지 않았다. 이들 포구 중에서 어느 정도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강경포와 대립하고 있던 곳으로는 임피(臨陂)의 서지포(西支

浦)·나리포(羅里浦), 함열(咸悅)의 웅포(熊浦)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통 독점을 두고 강경포와 경쟁하던 곳은 금강 하구와 강경포의 중간쯤에 있는 웅포였다. 19세기 중엽 웅포는 이미 강경포의 북어수세(北魚收稅)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여 용동궁의 북어수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강경포 상류에 위치한 포구는 대부분 작은 선박만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경포의 유통권 내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경포와 이웃한 상류의 논산포(論山浦)는 상황이 달랐다. 논산포는 포구의 소속처 또는 장대(場臺)의 소속처를 두고 은진과 노성(魯城)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던 곳이다. 논산에 근거지를 둔 상인들로서는 강경포에 상인들이 물러가는 것에 대해 항상 불만이였다. 이들은 때로 강경포로 왕래하는 선박들을 유인하여 논산포에 강제로 정박시키기도 하였다.

홍수로 인해 논산 포구의 수심이 깊어지면서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강경포와 논산포의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이를 둘러싸고 영읍(營邑)에 글을 올려 호소하며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24</sup> 결국 두 곳의 포구가 은진현에 소속되면서 자연스레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이 시기에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강경장은 18세기 중엽 이후 신흥 상업 중심지로 성장한 곳이었다. 이곳에는 17세기 후반 포자가 설치되면서 상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강경장은 금강을 통해 각 지역의 상품이 선박을 통해 집산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은진 강경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은진의 강경 한 마을만은 충청도 전라도의 바다와 육지 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남안의 평야 가운데에서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룬다. 어민 및 산간



**강경장**  
일제 강점기에 찍은 강경장의 모습이다. 강경장은 수로와 해로가 연결되는 이 점을 이용하여 조선 후기 대장시로 성장하였다.

농민들이 모두 이곳에서 물건을 내어 바꾸어 간다. 매년 봄·여름 동안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을 때면 비린내가 마을에 가득하고, 큰 배와 작은 배들이 밤낮으로 몰려들어 항구에 담 같이 가득히 늘어선다. 한 달에 여섯 번씩 크게 장이 서는데, 먼 곳 가까운 곳의 화물이 이곳에 모였다가 실려 나간다.<sup>25</sup>

강경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799년(정조 23) 강경 일대를 돌아본 암행어사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은진은 호서에서 제일가는 도회지로서 민호(民戶)가 1,400~1,500호가량 된다고 하였다. 은진의 강경포는 삼남에서도 으뜸이 되는 도회지로 성장하였다.

한편 강경장에서 거래되던 주요 상품 가운데 하나가 주로 함경도에서 생산되던 북어(北魚)였다. 상인들은 동북 해안에서 잡히는 북어를 주로 육로를 통해 한양과 인근 지역으로 운송하여 판매하였다. 그러던 것이 전국적으로 시장권이 확대되는 19세기 이후에는 동해안과 창원의 마산포(馬山浦) 등지를 거쳐 은진의 강경포까지 해상 운송하였다. 상품 교역의 중심지가 된 강경장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중개 매매 또는 위탁 판매나 매점 활동을 벌이고 있던 물화 주인들도 많았다.

## 북어 생산지로 유명하였던 원산장

함경도 덕원부(德源府)에 속해 있던 원산장(元山場)도 『만기요람』에 기록된 전국 15대 장시 중 하나였다. 원산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평범한 작은 어촌이었다. 그러던 곳이 점차 지역 간 상품 유통이 활성화되고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교통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상업 거점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곳에서 개설되던 원산장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업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영조대에는 원산에 크고 작은 각종 형태의 선박이 집결되어 마치 서울의 한강에서도 상품 유통이 가장 활발하던 한강·서강·용산강 같은 풍경이었다고 하였다. 원산장이 규모는 작으나 수도 한양의 상업 분위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정조대에는 원산에 사방의 물자가 모여들고 시전과 점포가 화려하게 늘어서고 상인이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인구도 크게 늘었다고 하였다. 원산이 신흥 상업 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산이 상업 유통의 중심지로 떠오른 까닭은 관북 지방과 영남의 상품

이 교역되는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산물의 유통 범위 확대와 수요 증가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명태는 일반 부식물로서 뿐만 아니라 제사용으로도 수요가 많았다. 이규경(李圭景, 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

### 명태건조모습

함흥 서호진에서 명태를 건조하는 모습이다. 원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북어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한양 근처에 근거지를 둔 상인들이 북어를 매점하여 공급량과 가격을 조종하여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다.





설중향시(雪中向市)

이형록이 그렸다고 전하는 풍속화이다. 상인들이 소와 말을 이용하여 짐을 싣고 장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다량의 상품을 먼 거리까지 운반하는 데 소와 말은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箋散稿』에 “북쪽 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을부터 북어가 많이 이르는데 한 번 잡으면 배에 차서 산처럼 쌓인다.” 고 한 것이나 “북어가 온 나라에 차 넘친다.”<sup>26</sup>는 표현은 당시 북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원산에서 나는 북어는 사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육로를 통해 강원·황해·평안도를 비롯하여 서울로 공급되었다. 그리고 해로를 통해 멀리 경상도와 충청도 강경장까지 운반하여 전국에 공급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시 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상인들은 북어를 주로 말에 실어 서울까지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상인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이익을 많이 남기고 못 남기는 것은 상품 운송의 대량화와 신속성에 달려 있게 마련이다.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원산에서 말에 미역과 건어를 싣고 사흘에 돌아오면 조금 이익이 생기고, 닳새 동안 걸리면 무해무득(無害無得)하고, 열흘이나 유숙하게 되면 큰 빚을 지고 돌아오게 된다.”<sup>27</sup>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새로운 교통로의 개설이나 지름길이 개척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함경도의

안변·덕원·문천 지역의 민인들은 말을 고용하여 원산에서 어물을 대량으로 싣고 한양이나 인근의 안성 등지에 판 다음 쌀을 사서 가기도 하였다.<sup>28</sup> 그리고 포상(布商)들은 배를 수백 포씩 말에 싣고 한양에 들어와 판매하기 때문에 포전(布廐)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sup>29</sup> 호소하기도 하였다.

함경도의 상인들이 한양이나 인근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간 것처럼 시전 상인이나 경강 상인들도 함경도를 오가면서 활발하게 상품 교역에 참여하였다. 원산장은 지리적인 장점과 지역 생산물의 특수성에 힘입어 동해안 지역에서 대장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 박천군의 재정을 좌지우지하였던 진두장

평안도 박천군(博川郡)의 진두장(津頭場) 역시 서북 지방에서 새롭게 부상한 조선 후기 15대 장시 중 하나였다. 진두장이 상업 도시로 성장한 것은 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진두장은 교통 운수의 중요한 요충지인 대령강 나루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진두는 청천강과 연결되고, 다시 바다를 통한 상품 운송이 가능한 곳이었다. 따라서 주위의 안주·평양·개성을 비롯하여 정주·선천·용천·의주 등지와 통하는 교통상의 요지였다. 이곳은 17세기 이후 중국으로 가고 오는 사신들이 지나는 길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왕래도 많아졌다.

1656년(효종 7)경에는 이곳에 포자가 설치될 정도로 상업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포자의 설치는 장시가 매일 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인근의 상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을 근거지 삼아 안주나 강계 등지로 상권을 넓혔다.<sup>30</sup>

진두장은 5·10일장으로 매달 여섯 차례 장이 열렸다. 19세기 전반에 진두장 주변에는 500~600여 호의 인구가 모여 들어 큰 상업 도시로 발전

하였다. 이러한 인구수는 1842년(헌종 8)에 대홍수로 진두 지역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인가 500여 호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31</sup>

행정 중심 도시가 아니면서 이와 같이 많은 인구가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상업 도시로서 주민들의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두장의 상권은 영변, 가산, 정주, 안주는 물론 용천, 의주, 평양 등 광범한 지역을 아우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었다. 다음의 가사는 당시 번성하는 진두장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판자와 삼이 모여들어  
저자에 산 같이 쌓였고  
고기와 자라를 실은 배들의  
왕래하는 모습이 불만 하구나<sup>32</sup>

짊막한 내용이지만 진두장이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는 이점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진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아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진두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장세는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많아 박천군 관아의 재정을 충당할 정도였다. 한낱 장시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지방 관아의 재정을 충당한다고 할 만큼 액수가 많았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보여 준다. 장시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상인을 비롯한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그런데 1845년(헌종 11) 대홍수로 인해 진두장이 인근 지역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때 가산군(嘉山郡)에서는 진두장이 있던 가까운 곳에 장시를 새로 설치하고 상선을 유인해 갔다. 이에 재정적으로 진두장에 크게 의

존하던 박천군은 자립할 기반을 잃게 되었다.<sup>33</sup> 결국 박천군과 가산군 사이의 추도(楸島)에 장시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상권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진두장은 박천군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고, 장시의 성쇠가 한 지역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화성 건설과 함께 성장한 수원의 장시

수원(水原)은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면서 상업 중심지로 성장한 곳이었다. 수원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였다. 특히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 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기면서부터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 이전까지 수원은 강화·광주·개성과 같이 유수가 파견되는, 행정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정조가 양주 배봉산 기슭에 있던 사도 세자의 묘를 수원의 화산으로 옮길 것을 정한 때는 1789년(정조 13) 7월이었다. 화성(華城)을 이장지로 결정한 이후 정조는 수원 읍치(邑治)의 이전, 상업 부양책의 추진, 장용영 외영의 주둔, 화성 축조 등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수원이 새로운 읍치로 적당하고 상품 유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는 실학자인 유형원도 훨씬 앞선 시기에 이미 지적하였다. 그는 읍내외에 1만 호 정도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수원의 번성을 예견하였다. 수원은 읍치를 옮기면서부터 크게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수원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 조치를 내렸다.

• 10만 냥을 하사하여 옛 수원을 주민들이 신읍으로 이전하는 비용에 충당케 할 것



화성전도(華城全圖)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실린 화성 곧 수원 그림이다. 남북으로 긴 버들잎 모양의 화성 성곽을 통해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정조는 수원을 대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모민과 생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다.

- 수원부에 구금되어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특별 사면을 내려 석방할 것
- 수원 읍민으로서 유배 중에 있는 자는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모두 특별 사면하여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할 것
- 광주부에 속한 일용면과 송동면을 수원부 관할로 이속시킬 것
- 새로이 신읍에 거주하게 될 농민에게는 앞으로 10년 동안 면세할 것

현릉원(顯隆園)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읍민과 관아를 새로운 읍치로 건설하는 팔달산 아래 지역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행궁, 관아, 민가 등이 들어서면서 수원의 도시 기반이 하나 둘 갖추어졌다. 화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종래처럼 부역군(賦役軍)을 강제로 징발하지 않고 고가(雇價)를 지불하는 고군(雇軍)을 모집하여 공사한 사실이다. 이때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매일 2전 5푼씩 계산하여 품삯을 지불하였다.

신읍의 건설로 주민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읍치로 이전이 시

작된 지 2년 후인 1790년(정조 14) 이곳의 민호는 63호에서 719호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군교·아전·하리 등 각급 관아의 관속(官屬)들도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점차 대도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으며, 상권(商圈)도 형성되어 갔다.

정조는 수원이 대도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민(募民)과 생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좌의정 채제공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이 수원 번영책을 강구하여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시가를 번영시키기 위해 전방(廩房)들을 조성하고 서울의 부호 20~30호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무이자로 1,000냥을 빌려 주어서 신읍에 집을 짓게 하여 상업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만 냥 정도의 자금을 수원부에 보조

하여 기와를 구워 원가에 팔아 기와집을 쉽게 짓도록 하였고, 읍치 부근에 장시를 개설하여 사방의 상인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 전주나 안성에 못지않은 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수원을 번영시키기 위한 채제공의 생각은 조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대여해 주어 자연스럽게 상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채제공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울의 부호들을 수원으로 유치할 경우 서울 상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노론계(老論系)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후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 1740~1799)가 읍치 부양책을 올렸고, 그 안이 채택되었다. 조심태가 올린 부양책은 서울의 부유한 상인들의 유

#### 조심태 초상

조심태는 수원을 대도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수원 부민을 육성하자는 읍치 부양책을 올렸다. 정조가 이를 시행하자 수원의 인구가 늘어나고 상품 거래도 활발해졌다.



치를 일단 유보하고 먼저 수원 부민을 육성하자는 것이어서 노론계의 반대도 없었고, 앞서 의견을 올렸던 채제공과 우의정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의 전폭적인 찬성에 힘입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수원 부양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민인들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는 멀리 해남에서 살던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후손인 해남 윤씨들이 천릿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사를 왔다. 조심태는 이들에게 1,000냥을 따로 떼어 주어 집을 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수원에는 점차 주민의 수가 늘어났고 상품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초에 기대하였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수원이 좀 더 정비된 도시적 기반의 조성과 경제적 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정조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화성이 축조되면서부터였다. 화성은 1794년(정조 18) 2월에 착공하여 1796년(정조 20) 9월까지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

이후 정조는 수원에 거주하는 상인들로 하여금 서울의 시전 상인들에게 부여하였던 난전을 금지시키는 권한과 비슷하게 특정 물품의 전매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특정 물품은 관모(官帽)와 가삼(家蔘)이었다. 즉 관모와 가삼 판매의 독점권을 수원에 이주한 상인들에게 부여하여 수원을 상품 유통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한편, 정조대에 화성의 축조로 한양과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확장되었다. 수원까지의 도로가 새롭게 정비된 것은 노량진에서 수원까지가 임금이 거동하는 어로(御路)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상품 유통의 발달에 따른 교통의 편리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이래 전국적으로 도로망과 상품 유통로가 새롭게 개설되거나 정비되었다. 이 시기에 도로망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간 경제적 연결이 긴밀해지면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 수원의시장과곡물전

1920년대에 수원 장안문 밖의 시장과 곡물전을 찍은 사진이다. 수원의 장시는 정조의 화성 건설과 함께 지리적으로 삼남(三南)을 연결하는 요충지의 이점을 이용하여 크게 성장하였다.

수원은 화성의 축조와 도로의 정비 등으로 이전과는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수원에는 북문외장(北門外場)과 남문외장(南門外場)이 개설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개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인근에서 개설되던 장시는 오산장(4·9)·안중장(2·7)·오매장(1·6)·석현장(2·7)·사사곶장(4·9)·팔탄장(5·10)·세랍장(1·6) 등이었다. 장이 열리는 날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접한 장들과 될 수 있는 대로 개시일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수원의 장시가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멀지 않은 거리에 안성장이 개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안성장은 삼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상품이 거쳐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보다 상품 거래가 훨씬 많았다. 따라서 수원은 서울과 안성-삼남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상품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수원의 우시장은 조선 후기 이래 전국적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장날이면 각지에서 소 장수와 농민들이 몰려들어 언제나 성시를 이루었다. 수원의 우시장은 일반 시장과 함께 섰는데 성내 시장은 열흘 간격으로 9·19·29일에, 성외 시장은 열흘 간격으로 4·14·24일에 열렸다. 시장의 성황은 우시장이 활기를 띠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 소의 거래는 다른 어떤 물품의 거래보다 많은 돈이 오갔기 때문이다.

## 동북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성장한 누원점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최대의 소비지인 한양 주변에 있던 여러 지역이 상품 교역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양주의 누원점(樓院店)이었다. 이곳은 장시가 아니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다. 누원은 한양에서 관서와 동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도 처음에는 한양과 강원도·함경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한적한 원촌(院村)에 지나지 않았다.

누원은 18세기 이래 한양과 동북 지방의 물화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곳은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한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쉼터로서 물품의 거래 동향과 가격 등을 점검하는 정보 교환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시전 상인들의 직접적인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사상인들의 자유로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상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근거지를 칠패·이현·용산 등지로 삼았는데 점차 그 영역을 누원을 비롯하여 송파 등 한양 근교에 위치한 물산의 집산지로 확대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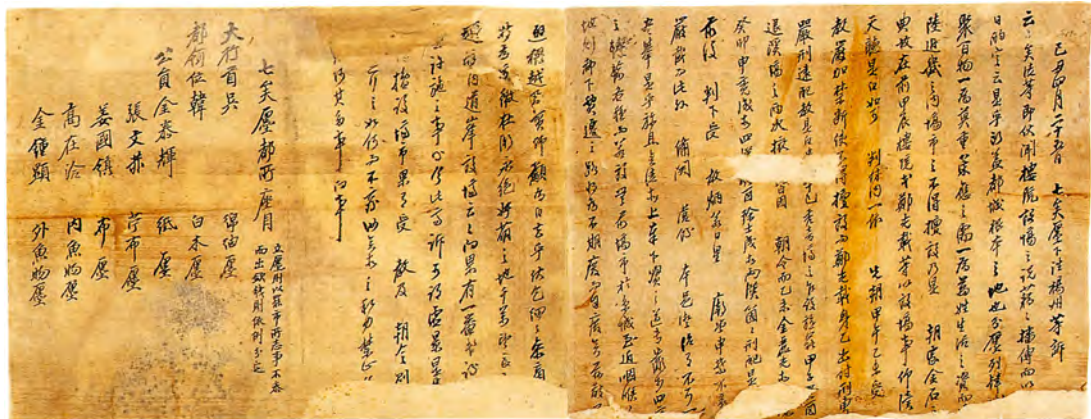
누원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교통로의 개발과 새로운 지름길 등이 개척되면서 함경도 지역과 물화 교역이 크게 활성화된 것이 한 요인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동북 해안 지방에서 나는 북어의 유통과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다. 함경도 원산에서 수합된 북어는 칠령을 넘어 한양 쪽으로 오다가 누원에 이르게 된다. 이 때문에 사상인들이 누원에서 북어 등을 매점한 후 도성 내로 반입하여 차익을 챙기고 있었다. 누원의 사상인들은 시전 상인의 간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동대문의 이현 상인과 접촉하거나 뚝섬·송파 상인과 연결하기도 하고, 한강을 경유하여 바로 용산으로 가기도 하였다.

누원점은 주로 동북 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물과 배 등이 집결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삼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포 등 직물류와 동북 지방의 어물·마포 등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누원을 통과하는 상품량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곳에 장시가 개설될 경우 시전인들이 입게 될 상업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18세기 초 누원점민들의 장시 개설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전 상인들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양의 포전(布廩)과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廩)의 상인들은 누원점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는 상인들이 동북 지방에서 반입되는 어물과 포를 근기(近畿) 100리 내에서 도고하는 폐단을 일체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도성과 가까운 곳에 장시 개설을 억제한 이유는 대체로 국역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시전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누원점민들의 장시 개설 시도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칠의전인(七矣廛人)들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비변사에서 누원장이란 명칭은 예전부터 없었던 것이고 외방의 장시는 경솔하게 허락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원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상인들은 주로 동북 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물을 중간에서 사들여 이를 어물전에 넘기지 않고 직접 판매함으로써 많은 차익을 남기고 있었다. 누원점의 중도아(中都兒)들은 각종 어물을 한양의 칠패와 이현 근처의 난전인들과 결탁하여 거래하였다. 이로 인해 한양의 어물 공급량과 값이 조절되기도 하고 어물전이 파산할 지경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누원점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던 상인들은 ‘건방(乾房)’이라고 부르는 곳에 어물 등을 매점해 놓고 거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누원점은 18세기 말 인근에 동촌여점(東村旅店)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상업적 이익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동촌여점인들은 조정에서 특별히 배려하여 동북 어상들에게 연세(煙稅)를 받도록 해 주었는데도



오히려 작당하여 누원과 흥인문·혜화문에서 상인들을 기다려 자신들의 집으로 몰아넣어 어물을 염가로 매입하는 등 도고를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이곳을 왕래하는 동북 지방의 상인들이 점차 줄어들어 이곳 상인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양의 물가도 오르게 하므로 의정부에서 절목(節目)을 제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다.

누원 주변에는 마석우장·동두천장·신천장·송우장·차탄장 등이 있었고, 이들은 멀리 철원·원산과 연결되었고, 가깝게는 송파·용산·뚝섬 등과도 연결되었다. 누원의 상인들은 송파 등지의 상인들과 자금을 합자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면서 대규모로 매점 활동을 전개하였다. 누원이 상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이곳에서 시전의 특권적 상업 활동과 경쟁하는 사상인들이 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지에서 한양으로 반입되는 상품을 매점하는 도고 행위가 가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전 상인들의 보호와 원활한 상품 유통을 위해 한성부와 경기 감영·평시서(平市署) 등에서 누원점민들의 난전 도고 활동을 신칙(申飭)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철의전인등장(七矣廬人等狀)

양주 누원점 상인들이 장시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개 개 시전 상인이 이를 허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이다.

## 내륙 산간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였던 목계장

조선 시대에는 충청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장시라고 할 만큼 크게 성장한 장은 없었다. 다만 충주의 읍내장이 행정 군사 기능의 중심으로서 나름대로 상품 유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 시대 상품 운송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검토할 때 해로와 수로를 빼놓을 수 없다. 충청북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다와 접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강이라는 수로가 수도인 한양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남한강 줄기 여러 곳에는 크고 작은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충주의 목계(牧溪)는 공물(貢物)이나 세곡(稅穀)이 집중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각종 물산이 집산되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장시가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남한강 하류 지역은 수로 사정이 좋아서 언제나 선박이 운항할 수 있지만 상류로 올라갈수록 항행(航行)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계절에 따라 수량, 수심, 풍향 등의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물살을 타고 내려오는 것에 따라 목적지에 다다르는 시간이 달라졌다.

용산을 기점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수는 양근까지 사흘, 이포까지 나흘, 여주까지 닷새, 목계까지 이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강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일수는 이보다 빨랐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영춘에서 한양까지 닷새 반, 단양에서는 닷새, 충주에서 나흘, 여주에서 이틀, 이포(梨浦)에서 하루가 소요되었다.<sup>34</sup> 그런데 이러한 소요 일수도 비가 내려 수량이 크게 늘어난 시기에 힘 좋고 기술이 좋은 사공을 만나면 더욱 단축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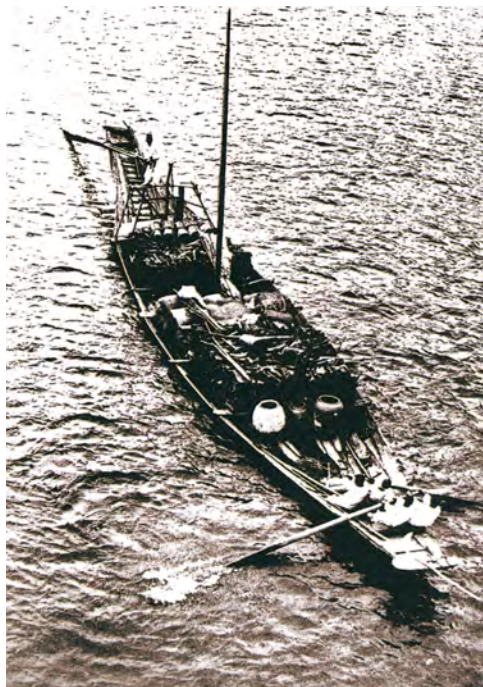
목계에 장시가 개설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7세기 전후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는 각 지역의 읍치나 교통의 요충지 등에도

장시가 개설되고 있는 시기로서, 목계에도 자연스럽게 시장이 개설되었을 것이다. 목계는 조선 초기부터 남한강 조운(漕運)의 요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충주의 가흥창(可興倉)은 충청도 16개 고을과 경상도 7개 고을의 세곡이 집중되었다가 한양으로 운송되는 집산지였다. 이곳에는 배에서 일하는 수부만도 400~500명이 머무르기도 하였다. 인근 고을에서 거두어들인 쌀·배·특산물의 운송과 하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모여들면서 취락의 규모도 더욱 커져 갔다.

물화 집산지가 되면서 이 지역에 상주하며 상품 교역에 종사하는 상인, 객주들이 늘어났다. 객주는 취급 상품과 소유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물상객주(物商客主)와 여각(旅閣)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목계에도 많은 객주가 들어섰다. 목계에는 주로 미곡, 참깨, 어물, 소금, 청과물, 우마, 석유, 담배를 취급하는 객주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충주 관내에 위치한 금천(金遷)에 대해 이중환은 “그 중에서도 금천과 가흥이 가장 번성하다. 금천은 두 강이 마을 앞에서 합친 다음 마을을 둘러 북으로 돌아 나가므로 동남쪽으로 영남의 화물을 받아들이고, 서북쪽으로는 한양에서 생선 및 소금을 교역하기 때문에 민가가 준비하여 한양의 여러 강마을과 비슷하다. 배의 고물과 이물이 서로 닿아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룬다.”<sup>35</sup>라고 하였다. 가흥이 한창 번성할 때의 모습이 경강 주변의 나루와 흡사하다고 할 정도였다.

한편 남한강 변에는 크고 작은 포구가 50개 이상 있었다. 이들 포구가 운데 충주의 목계나 여주의 이포 등 거상(巨商)들의 관심이 미치는 곳에는 창고가 들어서 인근 지역의 생산물을 집하시키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들



한강의운반선

한강을 오르내리며 상품을 운송하던 선박의 모습이다. 한양과 연결된 수로인 남한강 줄기에는 5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포구에서 배가 들어올 때마다 부정기 시장이 열리곤 하였다.

지역에서는 배가 들어올 때마다 열리는 ‘갯벌장’이라는 부정기 시장이 열려 거래가 이루어졌다. 배가 들어오는 날이 일정하지 않았고 배에 실린 상품이 하루 만에 다 팔려 나가기도 어려웠다. 부정기장이었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기타 뱃길이 막힐 때는 오랫동안 장이 서지 않기도 하였다.<sup>36</sup>

이러한 갯벌장은 1910년대까지도 이어졌다고 한다. 갯벌장이 열릴 때는 들놀이, 윷놀이, 줄타기 등 손님을 모으는 각종 놀이가 행해지고 들병장수들이 활개를 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갯벌장이라고 해서 전혀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난장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교역 장소인 도가(都家)를 두어 이곳을 통해 소금이나 해산물이 팔려 나가도록 하였고, 곡식 바리를 감독하는 말감고도 두었다고 한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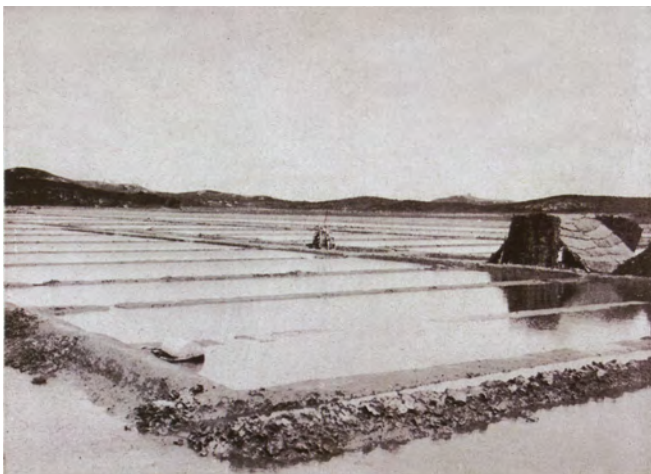
목계는 조선 후기 5대 하항(河港)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남한강 변에 서는 이름난 곳이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소금배나 기타 다른 배가 들어올 때면 장이 섰고, 장이 서면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하였다. 한창 전성기 때에는 가구 수가 800호에 달하고, 드나드는 배도 100여 척에 이르렀다고 한다. 가구당 네 명씩만 계산해도 3,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회지’인 셈이다. 이중환도 이런 모습을 보고 “목계는 강을 내려오는 어염선이 정박하며 세를 내는 곳이다. 그리고 동해의 생선과 영남 산간 지방의 화물이 집산되며 주민들은 모두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다.”<sup>38</sup>고 하였다.

남한강 유역의 생산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토지가 비옥한 이천·여주·죽산·음죽·충주 일대에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주로 생산되었고, 상류 지역으로 갈수록 밭곡식과 임산물, 담배, 약초 등이 주 생산물이었다. 이러한 산물 중 잉여물은 대부분 뱃길을 이용하여 한양으로 운송되어 판매되었다. 그리고 서해안의 해산물과 조선 시대 최대의 소비지인 한양에서 확보한 각종 잡화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박에 실려 남한강 유역의 각 고을로 공급되었다.

한양과 서해 바다의 산물들이 배에 실려 오면 상인들은 등짐이나 봇짐

으로, 또는 달구지에 실어 충청도는 물론이고 강원도나 경상도의 산간 지방으로 운반하여 교역하였다. 특히 마포에서 올라온 새우젓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원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 물길을 통해 충청도와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식생활에 필수적인 소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내륙 지방 사람들에게 한강 뱃길이



중요한 것은 바로 소금이 공급되는 통로였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에 한강의 상류 지역에 공급된 소금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택리지』에 “원주는 동해의 어염이 모여든다.” 라고 한 것이나 “목계는 동해의 소금을 실은 배가 염세를 내는 곳이다.”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남한강 수로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서해안의 소금 공급량이 늘어났다. 배에 실려 올라온 소금은 가흥, 목계, 금천, 조둔, 황강, 청풍, 상진 나루 등에 내려져 새재와 죽령을 넘어 영남으로 가기도 하고, 원주를 경유하여 강원도로 가기도 하였다. 특히 영남 지역의 경우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그나마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남한강 수로였다.

돈이 되는 일을 상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리는 없었다. 충청도 보은, 청안 일대에는 금강에서 공급된 소금이 팔리고 있었다. 소금 판매를 둘러싸고 상인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럴 경우 속이 편해지는 것은 소금을 사먹는 사람들이다. 상인들 간의 경쟁 덕분에 자연적으로 질 좋은 소금을 상대적으로 싼값에 사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 가격은 어느 곳에서 거래되는냐에 따라 값이 달라졌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여건상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 소금 가격은 변동이 심하였지만 소금 한 말에

염전  
일제 강점기에 화성 마도면 석교리의 있던 조합 염전의 모습이다. 식생활에 필수적인 소금이 내륙 산간 지방에서는 대단히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특히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강줄기를 이용하여 소금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콩 두 말 정도로 교환되었다. 그러던 것이 인천의 개항과 함께 청나라의 소금이 수입되어 공급되면서 교환 비율이 달라졌다. 1890년에 이르러 남한강 유역에서 거래된 소금과 콩의 교환 비율은 일대일로 바뀌었다.

목계가 상업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이곳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별신제(別神祭)를 지냈다. 바다가 아닌 강이지만 언제라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안녕과 보부상 등 장사꾼들의 재복을 기원하는 제의가 자연스럽게 행해진 것이다. 목계 별신제는 남한강 유역의 교역 중심지가 만들어 낸 최고의 장시 축제였다. 1920년대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목계 별신제는 시장 관계자들이 시장 번영책으로 3년,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사흘 내지 이레 동안 벌이던 최대의 향토 축제였다.<sup>39</sup> 별신제를 지내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터이지만 이를 감당할 만큼 남한강 이용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목계 나루의 교역 물자는 서울에서 새우젓·조기·소금·미역·고등어·설탕·광목 등이 들어오고, 목계에서는 쌀·보리·팥·조·담배·고추·배·나무 등이 나갔다.

## 약령시와 우시장 4

### 약재의 상품화와 약령시 형성

조선 후기에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장시뿐만 아니라 특수 시장도 있었다. 특수 시장이라 함은 일반 시장과는 달리 거래되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특수 시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약령시(藥令市)였다. 약령시는 각종 약재를 교환, 매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약령시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대구를 비롯하여 원주·전주·공주·진주·청주·충주·개성 등지에서 개설되었다.<sup>40</sup>

약령시는 영시(令市)라고도 하는데 장시와 마찬가지로 정기 시장에 속하였지만 성격이 달랐다. 장시는 매월 여섯 차례에 걸쳐 하루 동안 열리는 것이었지만 약령시는 한 해에 두 차례 열렸고, 개시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였지만 적어도 열흘 이상이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상인들이 모여들어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약령시를 특수 시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약령시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1658년(효종 9) 관찰사의 명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설, 조정에 필요한 약재를 수집하기 위해 개설하였다는 설, 중

국 또는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무역품으로서의 한약을 수집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약령시가 정확하게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재인 당약(唐藥)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 초기 이후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향약(鄉藥) 약재의 채취와 재배가 각 지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품질이 좋은 약재는 중앙으로 진상(進上)되기 마련이었고 나머지가 민간의 수요에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향약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진상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약재가 부패하기도 하고, 공급 과정에서 아전과 관리들의 결탁으로 원활한 향약 수급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임진왜란 이후로 당약의 공급도 크게 줄어들면서 향약의 자급자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해군대에 실시된 대동법은 수취 제도뿐만 아니라 약재의 공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동법 실시에 따라 약재 공급도 공인(貢人)들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약령시의 정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약재는 대부분 건조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약효와 상품성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의원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약재의 대량 구매를 통해 비교적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고, 그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취할 수 있었다. 결국 한약재는 실수요자가 한 해에 두 차례 열리는 약령시에서 구매하면 되었다. 한약재 도매상도 약령시에서 필요한 약재를 대량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봄가을로 열리는 계절적 영시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약령시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관의 명령에 의해 개시하게 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향약재를 채취하는 기준을 월령(月令)이라 하는데 농가월령(農家月令)에서와 같이 계절을 나타내어 봄과 가을에 개시

되므로 영시라고 일컫게 되었다고도 한다. 어쨌든 영시는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장시와는 다른 시장이었다. 그래서 “장에 간다.”는 것은 장시에 간다는 뜻이고, 지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영에 간다.”는 말은 바로 약령시에 간다는 뜻이었다. 한약재가 반드시 약령시에서만 거래되는 것은 아니었다. 각종 약재가 장시에서 거래되는 중요한 상품으로 부상하면서 농민들은 유통 경제에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 대구 약령시

조선 시대 이래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 오며 가장 크게 번성하였던 약령시는 대구 약령시였다. 대구가 약령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이곳은 경상좌·우도의 감영(監營) 소재지로 행정 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물화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운을 이용해 운반된 각종 생산물을 해로를 통해 전라도 등지로 쉽게 운송하여 교역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다 대동법의 실시로 한약재를 포함한 각종 관수품(官需品)이



대구약령시

약령시는 일 년 중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고, 열흘에서 한 달 정도 기간으로 개시되었다. 약령시는 전주, 공주, 청주, 원주 등에서도 열렸으나 대구의 약령시 규모가 가장 컸다.

장시를 통해 조달되는 조건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대구에 인접한 고을들은 대개 한약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고령·성주·칠곡·선산·의성·군위·영천·경산·청도·함천을 비롯하여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안동·영양·봉화·예천·문경·상주·김천·경주 등도 한약재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약재는 주로 대구 약령시를 통해 집산(集散)되었던 것이다.

대구 약령시가 개설되는 시기는 크게 봄에 열리는 춘령시(春令市)와 가을에 열리는 추령시(秋令市)로 나누어진다. 춘령시는 음력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열렸고, 추령시는 음력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열렸다. 약령시가 열리는 기간에는 각 지방에서 상인을 비롯하여 의료업 종사자들이 모이고 객주·여각·거간 등 중간 상인도 모여들었다. 이 기간에는 약재 거래 이외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숙박업·금융업·창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몫을 거머쥐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약재의 진상은 2월·6월·7월·8월·10월·12월에 하였고, 2월과 10월은 인삼의 채취 상납 기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출하 시기여서 이 시기를 개시 기간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약령시가 열리는 장소는 원래 경상 감영 객사 앞 일대였다. 객사를 중심으로 봄에는 남쪽에 춘령시를 개설하여 남시(南市)라 하였고, 가을에는 북쪽에 추령시를 개설하여 북시(北市)라고 하였다. 1907년 이후 약령시는 지금의 약전 골목으로 불리는 남성로와 북성로 일대로 옮기게 되었다.

한편 규모나 개시 기간 등으로 볼 때 대구 약령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약령시가 개설되었다. 강원도의 감영이 있었던 원주의 약령시는 강원도 산간 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집산지 역할을 하며 개설되었다. 개설된 시기는 대구 약령시와 비슷한 시기에 창설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런데 원주 약령시는 교통의 불편과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의

원 등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면서 상세(商勢)를 유지하지 못하고 1861년(철종 12)경에 폐지되었다.

원주 약령시는 춘시는 매년 음력 정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렸고, 추시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렸다. 1905년 이 지역 유지들이 원주 지역 상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약령시 재건을 시도하였으나 상인들의 이용이 부진하여 이듬해에 폐지되고 말았다.

전라 감영 소재지로서 호남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던 전주에도 약령시가 개설되었다. 전주 약령시의 개설 시기도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구나 원주 약령시와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주 약령시는 춘시가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였고, 추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였다.

그런데 전주 약령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공주에 약령시가 개설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1741년(영조 17)경 공주 지방 유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령시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에 전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수년간 소송이 진행되었다. 거리상 멀지 않은 곳에 약령시가 개설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곳이 바로 전주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그러므로 전주의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였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공주 측이 소송에서 이겨 공주에도 약령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공주에 약령시가 개설되면서 전주는 경쟁에서 점차 뒤처져 마침내 폐지되고 말았다. 전주 약령시의 폐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재를 비롯한 각종 상품의 집산지로 공주가 전주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공주는 금강을 이용하여 내륙의 상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공주와 전주 약령시의 개시 기간이 같았던 것도 전주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결국 같은 기간에 같은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벌인 전주 약령시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공주에 밀렸던 것이다. 공주 약령시는 그 후 약 160년간 지속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약재의 관부 매상(官府買上)이 중단되면서 점차 부진하여 1905년경에 폐지되었다.

## 큰돈이 오고갔던 우시장

우시장은 쇠전 또는 소시장, 우전(牛廐)으로 불렸다. 이곳에서는 반드시 소만 거래하지 않고 돼지, 염소, 양 같은 가축을 거래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축 시장이라고 한다.

### 발갈이

김홍도가 발갈이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소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논밭 다음으로 중요한 재산이었다.

농촌에서 농우(農牛)는 개, 돼지, 고양이, 닭 등의 다른 가축과 질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았다. 심지어 주인이 매일 건강 상태를 점검할 정도로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사실 농우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고, 논밭 다음 가는 중요한 재산이었다. 농번기에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때이지만 그 중에 소가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시기였다. 주인의 논밭은 말 할 것도 없고 이웃집은 물론 동네의 논밭을 모두 갈아야 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의 기록을 보면 그런대로 농우의 공급이 원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으로 많은 농우를 수출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태종대와 세종대에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의 농우를 교역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농우 확보의 어려움과 실농(失農)의 우려를 호소하며 교역할 농우 수의 감축을 요구하였다. 1404년(태종 4)에는 10차례에 걸쳐 소 1만 마리를 중국과 교역하였고,<sup>41</sup>



1432년(세종 14)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소 6,000마리를 교역하고 있다.<sup>42</sup> 한 차례에 1,000마리씩 교역한 것이다. 태종대와 세종대에 교역된 소 값은 한 마리에 비단 1필과 베 4필로 거래되었다.

한 마리의 농우가 한 마을의 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였다. 단종대의 기록에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소도 역시 농사에 크게 쓰이는 바인데 무릇 한 마을 안에 농우를 가진 자가 한두 집에 지나지 않으니 한 집의 소로써 한 마을의 농사를 의뢰하는 것이 반이 넘는다. 만약 한 마리의 소를 잃으면 이것은 한 마을의 사람이 모두 농사짓는 때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한 마리 소가 없는 것으로써 한 마을의 빈부가 관계되니 소의 쓰임은 진실로 크다.<sup>43</sup>

한 마을의 농사가 농우의 있고 없음에 따라 풍흉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농우는 장정 대여섯 명, 많게는 열 명 정도의 힘을 대신하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각 지방의 장시에는 일정한 장터에 크기와 종류 등은 다르지만 각종 좌판(坐板)이 나뉠대로의 구역을 정해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는 곡물전, 포목전, 지전, 어물전, 과일전, 유기전, 철물전, 가마전, 갓전, 신전, 소쿠리전, 웅기전, 채소전, 약전, 쇠전, 돼지전, 닭전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쇠전이라고 하면 장이 서는 날 소를 비롯한 가축들의 매매가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시에는 쇠전이 있었다. 이 쇠전의 크고 작음은 곧바로 장세(場勢)의 크고 작음을 좌우하기도 하였다. 농우의 매매는 그 어떤 상품의 거래보다 많은 액수의 현금이 오갔기 때문이었다.

한편 우시장의 풍경에는 다른 전(塵)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보인다. 그것은 다른 아닌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집 안에서 생산한 다양한 잉여 생산물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경제권을 행사

#### 정주우시장

장터에 모인 사람과 소의 수가 이곳의 시장 규모가 매우 컸음을 보여 준다. 사진 속에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있지만 농우의 거래만큼은 남성들이 양보하지 않았다. 우시장의 모습을 담은 많은 사진을 들여다보면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는 크게 누령소와 검정소로 나눈다. 점이 있으면 얼룩소 또는 점배기라고 하며, 누령소라도 붉은 색이 진한 황소는 대추황소, 뿌연색이 많으면 부영소라고 부른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우는 대부분 누령소였다.

쇠전에서만 농우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거래의 형태는 다양하였다. 즉 굳이 쇠전에 나오지 않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런 형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수수료 또는 구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쇠거간이라 불리는 중개인이 많은 수의 농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우사(牛舍)와 여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 장사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매매를 중개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매매 역시 장날이 아닌 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성행한 것은 아니었다. 이 때 쇠거간은 거래액의 100분의 1이나 2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수수료는 파는 사람이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의 거래인데, 가장 보편화되고 성행하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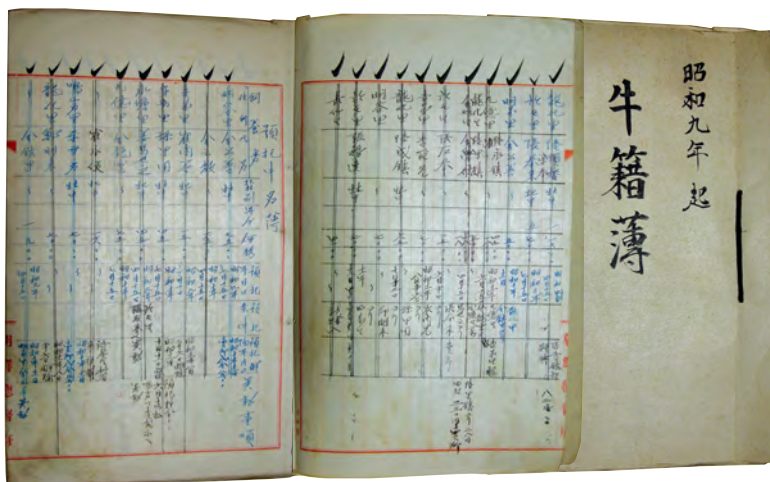
식이다.

농우는 주로 논밭을 가는 일을 하였고, 물건을 운반하는 일 등에 부렸기 때문에 무엇보다 힘이 좋아야 상품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보통 힘센 황소는 100관의 짐을 싣고 70리 길을 걸었고, 암소는 80관을 싣고 같은 거리를 걷는다고 한다. 이와같이 농우의 외모를 통해 건강 상태나 나이를 확인하고 좋은 것을 고르는 방법은 여러 경험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우선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소의 입을 열게 하여 이빨의 모양으로 판단하며, 암소는 유방을 주물럭거리려 처녀인지, 유부녀인지, 또는 새끼를 낳은 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따져 본다고 한다. 이와 함께 좋은 소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먼저 입이 짧고 넓어야 좋고, 배가 넓고 크고 처지지 않아야 좋고, 앞가슴이 환하게 열려야 좋고, 털이 짧고 윤기가 있고 부드러워야 좋고, 궁둥이가 처지지 않아야 좋고, 얼굴이나 배나 궁둥이에 흰 점이 없어야 좋고, 무엇보다 눈이 툭 볼거져서 선명해야 좋다고 한다.

농우가 농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기에 상품의 가치 또한 높았다. 이러한 요소가 농우의 불법 도살과 매매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삼금(三禁) 정책은 소와 술과 소나무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18세기 이후 각 지역의 장시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우금(牛禁)이 실시되는 중에도 농우의 도살이 확산되는 추세였다.

정조대 대사간 임제원(林濟遠, 1737~?)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소를 길러 번식시키는 일은 예전만 못하고 반면에 날마다 잡아먹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큰 거리에 늘어선 가게에는 쇠고기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쌓아 놓은 고기가 산더미처럼 많아 소 한 마리의 값이 거의 백금이나 된다고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sup>44</sup>



사사로이 농우를 도살하여 판매하면서 소도둑도 늘어났다. 소도둑이 소를 훔쳐 시장에서 팔아 버리거나 산곡 간에서 도살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순조대 『일성록(日省錄)』의 기록에는 우금이 해이되어 각 지

#### 우적부(牛籍簿)

1934년 충남 금산 지역의 농우 거래 상황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말긴 소의 소유자, 암수, 나이, 가격, 예탁 조건, 예탁일, 예탁 해제일, 이동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역마다 포사(庖肆)가 설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는 푸줏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사를 설치한 곳이 아홉 곳이나 되고, 과천에 여섯 곳, 양주는 없는 면이 없을 정도이고, 그 나머지 읍들의 촌락 사이에도 도살이 낭자하다고 하였다.<sup>45</sup>

조선 시대에 우시장은 몇 개나 되었을까? 아쉽게도 우시장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다. 다만 19세기 장시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임원경제지』에는 대표적인 거래 물품이 소개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율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이 자료에 의하면 농우가 거래되고 있는 지역은 전체 1,052개의 장시 가운데 184개로 이들 장시에 쇠전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농우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영남으로 55곳이었고, 다음으로 해서 23곳, 호남 18곳의 순이었다.

1918년 말 조사에 의하면 당시의 전국 가축 시장 수는 모두 655개소나 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 시대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때라 독립된 가축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가 91개소로 가장 많고, 강원도 67개소, 황해도 63개소, 전라남도 58개소, 충청남도 52개소, 경상남도 및 평안도 50개소, 경기도가 47개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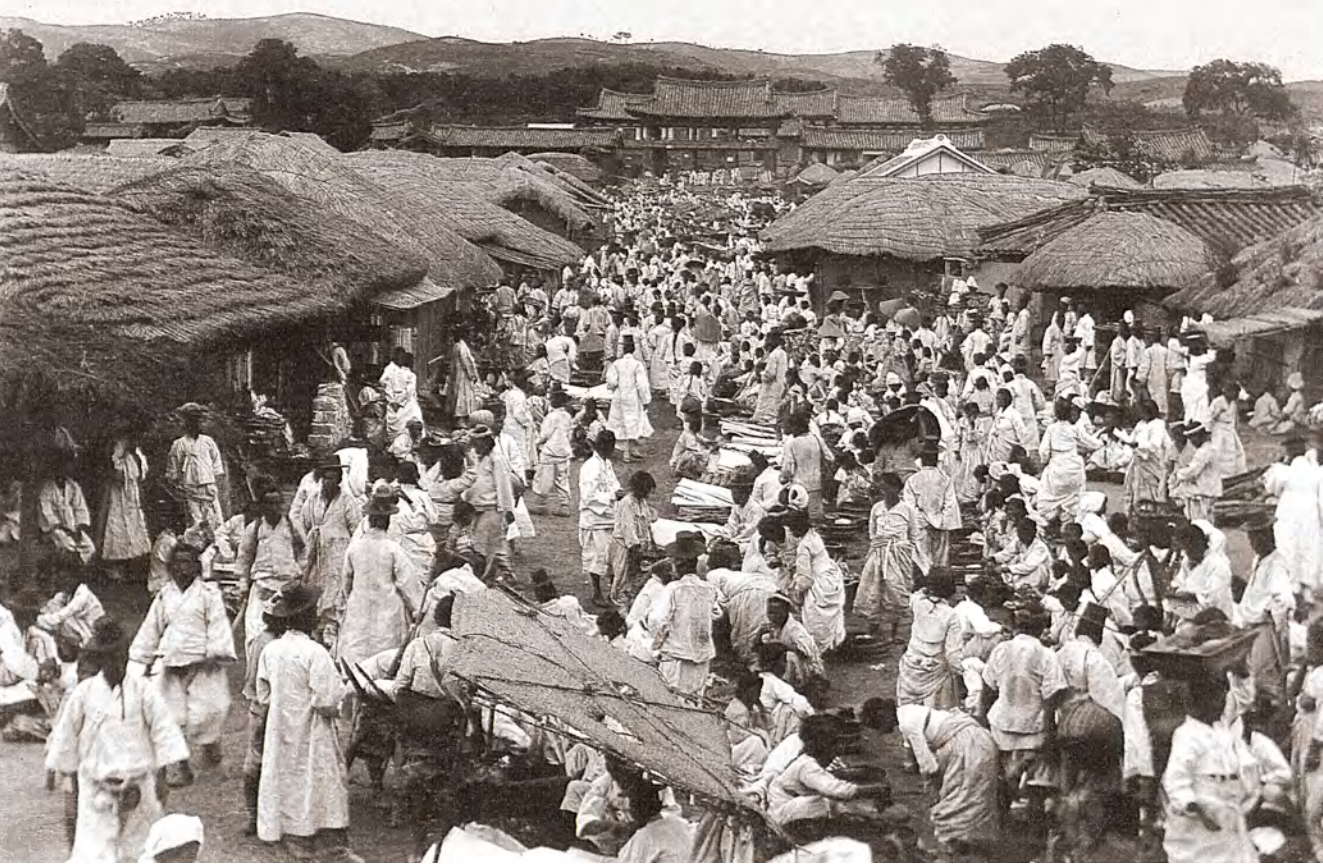
## 장시의 사회·문화적 기능 5

### 각종 정보의 홍보와 수집 장소

조선 후기에 지방 장시가 대부분 오일장으로 통일되면서 장시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방 수령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지방 장시는 적어도 닷새에 한 번 상인과 일반 민인들이 모여 거래하는 장소가 되었다.

장시는 일반 민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장시의 개시일은 바로 시간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곳이었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장터는 수령이나 위유사, 암행어사 등이 윤음·정령·전령 등을 알리는 장소로써 뿐만 아니라 민인들의 동태를 관찰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장시나 점막(店幕) 등을 둘러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장시는 정부의 각종 시책을 알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모역자의 처형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민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장시였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개시일이었기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장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장시 주변의 점막이나 주막 같은 곳에



#### 울산장날

20세기 초에 울산 태화루 앞길에서 열린 장터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당시에도 장날은 각종 정보를 알리거나 수집하기에 좋은 날이었다.

는 도고 행위를 금지하라는 경고문을 게시하여 알림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장터라는 공간은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장소였다. 이와 같은 장시의 사회적 기능을 일반 민인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장시는 패서(掛書)나 벽서(壁書)가 나붙는 곳으로 사회에 불평·불만을 품고 있거나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였다. 패서는 장시나 포구,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목이나 교통의 요지에 부착되는 일종의 ‘대자보(大字報)’로써 민심의 선동과 불만의 고양을 통해 집권층에 간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저항 수단이었다.<sup>46</sup>

민인들의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용된 패서는 17세기 이래 농업 기술 발달 등에 힘입은 생산력 증대와 상업 분야에서 부상대고 같은 사상인의

성장, 지방 장시의 발달 등과 같은 이 시기 사회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패서 사건은 19세기에 이르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집권층을 긴장하게 하였다. 중요한 패서 사건은 1801년(순조 1)의 하동(河東) 패서, 1819년(순조 19)의 화성(華城) 패서, 1826년(순조 26)의 청주 패서, 1854년(철종 5)의 봉화(奉化) 패서 등이었는데 모두 당시 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출과 봉기를 선동한 것이 공통점이다. 민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집산(集散)하는 장소인 장시는 19세기 후반 민중 운동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평안도 농민 전쟁 때도 주동자들은 장시를 출입하며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각 지방에 개설된 장시는 여성들이 상품 생산과 판매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평소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장날만큼은 자연스럽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속담에 “여자는 제 고을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 는 말이 있다. 이것은 세상일을 모르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담은 장날을 통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만 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성에서 전해지는 ‘안성장터가’ 를 통해서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통해 상품 거래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안성 큰아기 유기장사로 나간다  
한 님 팔고 두 님 팔어 파는 것이 자미라  
경기 안성 큰아기 숫가락 장사를 나간다  
은(銀)동걸이 반수저에 깎기 숫갈이 격(格)이라

안성에서 생산된 특산물이 여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여성들이 수공업 제품 등의 생산과 판매에 참여하고 있음은 여러 형태의 풍속화와 민화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풍속화에 나타난 모습이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일 수도 있지만 17세기 이래 대동법의 실시, 동전 유통의 활성화, 조세의 금납화, 상업적 농업의 확대 등으로 일반 농민과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유통 경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 민초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준 장터

조선 후기 장시는 유무교역하는 물화 교역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유흥장·놀이마당으로 이용되었다. 시간적으로 장이 서는 개시일과 공간적으로 민인들이 모였다 흠어지는 장터는 이제 물화 교역뿐만 아니라 민인들의 유흥·오락 장소로도 기능하게 되었다. 주로 무뢰배로 지칭되는 자들이나 상인, 또는 민인들에 의해 판이 벌어지는 투전(投箋) 또는 골패(骨牌) 등의 잡기(雜技)는 주로 장사에서 이루어졌다.

보통 ‘잡기’라고 표현되는 민중들의 놀이 문화는 18세기 후반 이래 각 지방의 장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놀이도 도가 지나치면 놀음이 된다. 정조대의 기록을 보면 잡기로 노닐며 무절제하게 도박하다가 농우나 토지를 팔고 부족하면 양민을 유인하여 가산을 탕진케 한다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19세기 중엽의 자료로 보이는 『목강(牧綱)』에도 장사에서 발생하는 잡기의 폐단과 이를 신칙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의하면 장시는 가장 엄히 단속하고 힘을 쏟아야 할 곳이라며 모리배의 폐단을 지적하는 가운데 도고(都賈)·각리배(權利輩)가 복을 두드리며 돈을 구걸하거나 투전·잡기하는 폐단을 만들고 있어 감고(監考)와 도장(都將) 등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sup>47</sup> 일반 민인들에게는 일종의 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배층에게는 폐단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로 놀음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장사에서 발  
생하고 있는 잡기의 폐단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었다. 19세기 중엽에 음성(陰城)  
에서도 잡기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음성 지역의 민인들이 잡기로 인해 그나  
마 가지고 있는 돈과 곡식을 왕래하는  
상인에게 잃거나 밭빼기마저 인근의 호  
민(豪民)에게 빼앗겨 부모 형제를 속이  
고 패가망신하여 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가에서 이를 엄중하  
게 단속하였으나 투전꾼들은 촌사(村舍)

와 점막에서 무리를 모아 판을 벌리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에 관아에서는  
투전하다가 발각되면 장(杖) 80에 처한다는 내용의 전령을 여러 점막과 큰  
거리에 붙여 잡기로 인한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48</sup>

장시가 민인들의 오락장이나 유희장으로 기능하면서 장시의 개시일은  
서로 먼 곳에 있는 이들을 만나보는 사교의 날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만남  
의 자리에 탁주나 소주가 등장하여 장시는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마련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조(釀造)와 매주(賣酒)를 통해 생계를 유  
지하는 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양조로 인한 곡식 낭  
비가 큰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흉년일 때는 주  
금(酒禁)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한편 농촌에서 생활 주기가 되었던 장날은 평소 가사와 농사일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는 요소가 되었다. 19세기 말 황해도 봉산  
(鳳山)에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 여사가 본 장날의 모습에서  
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투전  
성협(成夾)이 투전하는 모  
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투  
전, 골패 등과 같은 잡기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큰 폐단으로 여겨질 정도  
로 성행하였다.

평상시 잠잠하고 답답하였던 마을들은 장날에 일변한다. 떠들썩해지고 울긋불긋해지고 사람들의 물결로 뒤덮이는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터로 가는 길은 농부들이 팔거나 물물 교환할 물건들로 가득 찬다. 예컨대 우리에게 넣은 닭·돼지·짚신·밀짚·모자, 그리고 나무순가락 등을 메고 지고 간다. 그 옆의 주요 도로에는 대개 힘세고 단정하고 잘 입은 상인 즉 보부상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지고 가거나 또는 짐꾼이나 황소에 짐을 싣고 길을 메운다.<sup>49</sup>

#### 주막

김홍도가 주막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각종 술의 양조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주막에서의 술자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장에 가기 위해 평소 아껴 두었던 옷을 꺼내 입고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여유 있는 물품을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혹은 등에 짊어지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과 전문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하다. 장을 보러 가는 이들의 발길이 활기에 넘치는 정경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날은 술사(術士)나 사당패들이 유희(遊戱)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17세기 이후 새로운 농법과 이앙법의 보급 등을 통해 진전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필요 노동력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광작(廣作)이라는 새로운 농업 경영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촌 사회의 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많은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하여 광산 또는 도시로 몰려들어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들은 유리걸식(流離乞食)하거나 도적의 무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무리를 지어 사당패(寺黨牌) 또는 걸립패(乞粒牌) 등으로 불리는 민중 놀이 집단을 형성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점차 근거지를 떠나 노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전국 각지를 돌며 그 지역의 풍물이나 재주를 흡수하면서 지주나 상인들에게 연희(演戲)를 하고 그에 따른 돈이나 물품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사찰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내세워 각 지방의 장시를 돌며 연희를 통해 곡식을 구걸하거나 기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들이 연행(演行)하는 주 무대는 바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짜를 달리하며 개시되고 있는 장시였다.

### 실학자들은 장시를 어떻게 보았을까

조선 후기 각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고 있던 장시에 대해 실학자들은 어떤 입장에 있었을까? 대표적인 실학자들의 장시관을 간단히 살펴보자.

반계 유형원은 민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의 장시만 개설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각 지역의 역참(驛站)을 물화 교역 장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물화 집산지와 교통의 요지 등에 전사(廛肆)나 포자 같은 상설 점포를 설치하여 정기 장시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세는 상인과 민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전이나 무뢰배가 자행하는 폐단을 바로 잡아 장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주장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은 기본적으로 농사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업 활동과 동전 유통의 억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상업 발달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에 있던 이익도 장시의 완전 폐지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민인이 의지하고 있는 장시를 억제하면 또 다른 폐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장시 개



성호사설(星湖僊說)

영조 때 실학자 이익의 학문과 사물의 이치를 파악한 것과 제자들의 질문 응답을 모아 엮은 책이다.

설 방법을 보완하는 선에서 장시 개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세기 이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과 장시의 기능이 확대·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 개설과 개시일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자 하였던 점

은 동전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암(聶菴) 유수원(柳壽垣, 1694~1755)은 지방 상업의 발전을 위해 상설점인 액점(額店)을 설치하여 물화 교역의 중심지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정기 장시가 명화적(明火賊)과 무뢰배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였다. 장시 혁파에 대한 그의 주장은 장시의 근본적인 혁파라기보다는 당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업계의 사정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업세 수입의 증대로 국가 재정의 일부를 보충하고자 하였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다.

취석실(醉石室)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은 상업에 대하여 중농주의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농업과 상업의 발전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상업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아에서 행상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하거나 수원부 내 포구인 빈정포(濱汀浦)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다. 우하영은 상업적 농업의 적극 권장과 상인의 보호 및 장시의 육성책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그의 장시관은 수원부의 활성화 방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전방(廩房)의 설치와 읍치 근방에 장시를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인 모민(募民)의 방법이며, 수원이 도시

화할 수 있는 요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시기 장시의 성격과 기능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그가 활동한 당시의 상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특권 상업 및 매점 상업을 억제시키고, 중농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화 유통과 상인의 활동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상업관은 상인의 활동과 동전 유통이 농촌 사회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보았던 이익과 상업 제일주의를 주장한 유수원·박제가 사이의 중간적 입장 내지는 농업을 위주로 하고 상업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업관을 지닌 정약용은 장세 징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장시가 민인들의 교역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령은 아전이나 무뢰배가 저지르는 폐단을 당연히 제거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 ?~?)는 장시를 설립하여 교역케 하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고 민생을 구제하는 일대 명맥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그는 『동여도지(東輿圖志)』와 『여도비지(輿圖備志)』에 전국의 장시 개설 상황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동지지』를 편찬하면서 장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풍속·재용(財用)·수리(水利)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그들 각자가 활동한 시기의 장시 개설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장시의 개설과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장시의 폐단을 이유로 장시의 완전 폐지나 이를 더욱 억압하기보다는 전진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김대길〉



제2장

# 경제를 살린 상품 생산과 유통

- 1\_ 상업적 작물의 생산과 상품화
- 2\_ 수공업의 발달과 민영화
- 3\_ 도로와 수로를 이용한 상품 유통



# 1 상업적 작물의 생산과 상품화

## 쌀과 곡물이 상품으로 탄생하다

1792년(정조 17)에 정조가 여러 신하들에게 시(詩)를 지어 바치도록 명하였다. 이때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서울의 모습을 읊으면서 “쌀가게에 쌓인 쌀 반과산(飯顚山) 같고, 운자(雲子) 같은 흰 밥에 기름이 흐른다” 고<sup>1</sup> 한 구절이 있는데, 조선 후기에 쌀이 상품화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쌀농사를 짓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논에 먼저 물을 대고 벼씨를 뿌려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수경법(水耕法)이다. 둘째는 물이 없는 논에 벼씨를 뿌려 두었다가 비가 온 후 땅이 질척해지면서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건경법(乾耕法)이다. 셋째는 논 한쪽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려 싹을 틔운 후 일정한 크기로 모가 자랐을 때 뽑아서 작은 포기로 나누어 논에 줄을 맞추어 옮겨 심는 이앙법(移秧法)이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수경법과 건경법에 의해 모내기를 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이앙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앙법은 종전의 기술보다 인력이 덜 투입되면서도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벼는 심고 거두는 시기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 일찍 심어서 일

찍 거두는 올벼를 조도(早稻)라 하고, 늦게 심어서 늦게 거두는 늦벼를 만도(晩稻)라 하며, 중간 시기에 심어서 거두는 중생벼를 차조도(次早稻)라 한다. 조선 시대 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각종 농서(農書)에 따르면 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여러 품종이 있었다. 조선 전기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저술한 『금양잡록(衿陽雜錄)』에는 올벼가 3종, 중생벼가 4종, 늦벼가 17종이 있다. 18세기에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이 편찬한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올벼가 5종, 중생벼가



8종, 늦벼가 21종이 있다. 그리고 19세기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올벼가 19종, 중생벼가 10종, 늦벼가 30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 품질 좋은 벼가 생겨났음을 보여 준다. 벼의 품질 개선에 따라 쌀의 생산량도 더욱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조선 후기에 쌀이 상품화될 수 있었다.

발작물인 곡물의 재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농종법(壟種法)과 견종법(畝種法)이 그것이다. 땅을 갈아엎으면 발이랑과 밭고랑이 생기는데 둔덕인 발이랑에 씨앗을 뿌려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농종법이고, 밭고랑에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견종법이다. 조선 전기에는 소(牛)의 보급이 적었고 큰 쟁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랑의 높이가 낮고, 고랑의 크기가 넓었다. 그만큼 추위와 바람에 모든 곡물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소와 쟁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깊은 고랑과 높은 이랑을 만들 수 있었다. 이에 추위에 강하고 습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팔과 조 등은 발이

**모내기**  
18세기에 그린 누숙경직도(樓瑯耕織圖) 중의 모내기 장면이다. 중국풍으로 그려졌지만 당시의 모내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모내기를 하면 벼의 간격이 고르게 되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을 많이 받아 곡식의 알이 굵고 많이 달리는 이 점이 있다.

# 경직도의농민모습

19세기에 농사일을 하는 순서에 따라 묘사한 경직도(耕織圖)의 세부이다. 농민들이 타작하는 풍경과 벅짚을 이용하여 광주리를 만드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일하는 농민들과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랑에 심고, 추위에 약하고 습기가 필요한 보리 등은 깊은 밭고랑에 심었다. 이로써 냉해나 습도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가 더욱 나아졌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수확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작물을 재배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1년에 두 번 내지는 2년에 세 번 재배하여 수확함으로써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 전기에도 행해지고는 있었지만 일반화되지 않았다가, 조선 후기에 널리 확대되었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보리를 수확한 후에 콩이나 조를 심는데 그것을 근경(根耕)이라 하며, 근래 농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고 하여 18세기 이후 널리 확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부지런한 농민은 한 해

에 마(麻), 연초, 무우를 같은 장소에 돌아가면서 심어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작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거름을 주는 방법도 발전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곡물을 심을 때만 사람과 동물의 분(糞)과 뇨(尿)를 거름으로 뿌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비료를 주어 활발한 성장을 도왔다. 나아가 거름을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분과 뇨를 다른 풀잎이나 벚짚 등과 섞어서 거름을 만들거나, 풀을 베어 썩혀서 퇴비를 만드는 등 시비법(施肥法)이 더욱 발전되어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밭작물 종류도 더욱 다양해졌다. 일찍부터 조·보리·콩 등이 일반적인 품종이었으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종류가 더욱 다양화되었다. 세종 때 왕명에 의해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에는 삼(麻)·벼(稻)·기장과 조·피(稷)·콩(大豆)·팥(小豆)·보리(大麥)·밀(小麥)·참깨(胡麻)·메밀(蕎麥)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성종 때 간행된 『금양잡록』에는 조 17종, 보리 6종, 콩 6종, 수수 4종, 팥 3종, 기장 2종, 피 1종, 밀 1종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곧 각각의 곡물이 계속해서 더 다양한 품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배 방법이나 기술의 발달, 그리고 품종의 다양화 이외에도 각종 농기구의 발달과 보·저수지 등의 수리 시설 확충도 쌀과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였다. 그리하여 늘어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장시(場市)나 상인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부를 축적함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쌀과 갖가지 곡물은 어느 정도의 양이 상품화되고 있었을까? 이는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장시 거래 물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쌀과 곡물 중 대표적인 콩·보리의 19세기 초 유통 현황은 표 ‘『임원경제지』

### 밭갈이

19세기 말에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밭갈이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소와 쟁기를 이용하여 땅을 깊숙이 파서 엷는 형태로 농업 기술이 바뀌면서 토질이 좋아져 곡물 생산량의 증가에 일조하였다.



에 나타난 장시의 곡물 거래 현황' 과 같다.

전체 1,052개 장시 가운데 실제 거래 물목이 기록된 곳은 325개이다. 이 가운데 쌀은 260곳에서 거래되어 80%, 콩은 175곳으로 54%, 보리는 157곳으로 48%의 장시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쌀의 경우 호서·관동·관북을 제외하고는 95% 이상 거의 모든 장시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쌀의 상품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아가 쌀을 사서 먹는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한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도 서울이었으며, 지방 대도시인 평양·개성·대구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 도시로 성장하여 갔다.

실제로 정조 때 서울에서 요구되는 쌀의 양은 모두 100만 석에 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로 유입되는 쌀은 40만 석에 불과하여 늘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정조가 신하들과 나랏일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좌승지 유의양(柳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장시의 곡물 거래 현황

| 구분 | 경기      | 호서      | 호남      | 영남      | 관동     | 해서      | 관서      | 관북     | 계          |
|----|---------|---------|---------|---------|--------|---------|---------|--------|------------|
| 장시 | 92(34)  | 157(59) | 187(55) | 269(72) | 51(26) | 109(23) | 145(42) | 42(14) | 1,052(325) |
| 쌀  | 34 100% | 21 36%  | 55 100% | 70 97%  | 11 42% | 23 100% | 42 100% | 4 29%  | 260 80%    |
| 콩  | 6 17%   | 14 24%  | 24 44%  | 65 90%  | —      | 22 96%  | 39 93%  | 5 36%  | 175 54%    |
| 보리 | 6 17%   | 6 10%   | 18 33%  | 55 76%  | —      | 22 96%  | 39 93%  | 11 79% | 157 48%    |

\* 서유구(徐有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규지(倪圭志), 권 4, 화식(貨殖), 팔역장시(八域場市)

\* ( )는 전체 장시 중 거래 물품이 기록된 장시이며, %는 거래 물품이 기록된 장시를 기준으로 곡물의 거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義養, 1718~?)은 쌀의 부족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성의 백성들이 지금 20여만 명으로 하루에 2승(升)씩 계산하면 1년에 100만 석의 쌀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방의 각 창고와 공가(公家)에서 거두어들이는 미곡은 대략 합하여 20만 석 미만이고, 개인 집의 곡물은 사대부나 부유한 집이 적고 가난한 집이 많아 집집마다 추수하여 성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모두 20만 석 미만이니 쌀의 귀함이 이와 같습니다.<sup>2</sup>

서울에서 한 해에 소비할 쌀의 충분한 양은 100만 석이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20만 석, 서울 사람들이 추수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 20만 석으로 불과 40만 석만 서울로 들어왔다. 결국 60만 석이 해마다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은 행정 관료, 군인, 장사꾼 등이 집중 거주하는 곳이었다. 또한 주위에 평야 지대가 없기 때문에 쌀 부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부족한 쌀을 지방에서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쌀이 상품화되었고, 쌀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상인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쌀과 곡물의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국가에서 필요한 세

곡(稅穀)은 대부분 바다와 강의 물길을 따라 배로 운송하였다. 또한 바다와 강의 물길이 동시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즉 각 지방에서 소출된 미곡과 곡물은 한강·낙동강·금강 등의 수로와 해로를 통해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되었다. 또한 비교적 적은 양을 거래하는 소상인들은 길을 따라 걸어서 물품을 유통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작한 곡물을 가까운 장시에 내다 파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의 노점상을 연상시키는 풍경이다.

서울의 경우 쌀과 갖가지 곡물 유통은 종로와 한강의 마포·서강 지역의 시전(市廛)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서울에서 미곡을 판매하는 시전으로는 종로의 철물교 서쪽 상미전(上米廛)과 철물교 동쪽 하미전(下米廛), 남대문 밖 문외미전(門外米廛), 서강에 있었던 서강미전(西江米廛), 마포에 있었던 마포미전(麻浦米廛) 등이 있었다. 잡곡을 파는 가게로는 철물교 서쪽의 잡곡전(雜穀廛)이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상미전과 하미전, 잡곡전과 문외미전 등의 시전 상인이 쌀과 곡물 거래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국가에 일정한 양의 국역(國役)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쌀과 곡물 거래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위임받았다. 이들은 상품 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었지만 영업에 대한 영역 범위나 거래 품목의 규정이 애매하여 서로 이권을 두고 자주 분쟁하였다. 이러한 틈을 타고 마포와 서강에 기반을 둔 경강 상인(京江商人)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였다. 더욱이 서울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과거의 시전 조직으로는 발달된 유통 경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갈수록 서강미전과 마포미전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갔다.

조선 후기 쌀과 곡물을 거래하는 상인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람들은 한강 연변에서 활동한 경강 상인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조선 초부터 세곡 운송에 종사하면서 부를 쌓은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양화진(楊花津)·서강(西江)·마포(麻浦)·동작진(銅雀津) 등 한강 변의 나루터에서 도강업(渡江業)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상인으로 출발하였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

나 이들 가운데 점차 자본을 모아 커다란 선박을 여러 척 소유할 만큼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취급하던 물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쌀과 갖가지 곡물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서울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에서의 쌀과 곡물 유통은 경강 상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경강 상인은 배를 이용하여 각 지방에서 수로와 해로를 통해 서울로 올라온 미곡을 경강에서 매점함으로써 서울의 곡물가를 조종하였다. 이들이 미곡을 쌓아 놓고 10배의 이익이 나기를 기다려 시전에 풀어 놓지 않는 까닭에 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라든가, 한강변의 부유한 무리가 쌀을 사서 쌓아 두었다가 쌀값이 오른 후에도 팔고 있지 않아 서울의 쌀값이 그들의 손에 좌우되고 있다는 말은 모두 경강 상인의 미곡 매점 양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들은 공인(貢人)에게 지급되던 공미(貢米)를 도매함으로써 쌀값을 조종하여 이윤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돈을 주조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쌀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가 쌀값이 오른 후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곤 하였다. 돈이 주조되면 이른바 돈은 천하고 쌀이 귀한(錢賤米貴) 양상이 종종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풍흉에 따라 형성되던 지역 간의 쌀값 차이를 이용하여 서울에 쌓아 놓았던 쌀을 값이 비싼 지역으로 옮겨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결국 이들이 많은 양의 쌀을 오랜 기간 매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쌀값 변동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결국 경강 상인은 넓은 조직망과 튼튼한 자본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미곡 도고상(米穀都賈商)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시전 상인이 서울에서 쌀과 갖가지 곡물의 유통을 주도하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경강 상인과 사상(私商)의 역할이 확대되면

서 유통 구조가 변화되었다. 즉 조선 전기에는 선상(船商)·향상(鄕商)→여객 주인(旅客主人)→시전 상인→중도아(中都兒:도매상인)→행상→소비자의 형태로 물자 유통이 이루어졌다. 지방의 상인이나 선상들이 곡물을 가지고 서울에 오면 먼저 경강 등지의 여객 주인에게 상품을 넘기고, 여객 주인은 다시 시전 상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며, 시전 상인은 중간 도매상인 중도아에게 넘기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팔기도 하였고, 중도아는 소비자 아니면 행상에게 넘겨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구조로서 유통체계의 중심에 시전 상인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경강 상인이나 사상들이 한강의 포구나 시전 상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까운 장시인 송과장(松坡場:서울시 송파구 석촌 호수 부근)·사평장(沙平場: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부근)·송우장(松隅場:경기도 포천)·누원점(樓院店:서울시 노원구 일대) 등지에서 물건을 매점하여 두었다가 서울의 시장인 이현(梨峴:서울시 종로구 종로 4가 부근)과 칠패(七牌:서울시 서대문 밖)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독자적인 유통 구조를 형성하였다.

조선 후기 경강 상인의 역할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 종로의싸전

1890년대에 서양인이 종로의 싸전 거리를 그린 판화이다. 19세기에는 경강 상인이 종로의 싸전과 같은 미전을 통제하여 쌀값이 폭등하자 도시 빈민층이 쌀 폭동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833년(순조 33) 발생한 쌀 폭동 사건이다.<sup>3</sup> 이 사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쌀을 도매하던 동막(東幕) 여객 주인 김재순(金在純)이 경강의 여러 여객 주인을 지휘하여 쌀 판매를 통제하였고, 나아가 서울 시내의 미전에도 쌀 매매를 중지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쌀값이 폭등하게 만들었다. 한 양의 쌀값이 크게 뛰어나자 격분한 도시 빈민층들이 미전을 방화, 파괴하고 쌀을 매점해 둔 경강 상인의 가옥 15호를 불 질렀다. 이 사건은 경강의 여객 주인이 시전 상인보다 주도적으로 쌀값을 조절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는 사례이다.

### 만병통치로 알려진 산삼은 금수품이었다

오늘날 ‘고려삼’은 외국에서 그 가치를 더 많이 알아주는 최상의 상품이다. 지금의 삼은 대부분 재배하는 인삼(人蔘)이지만 옛날에는 주로 심산유곡(深山幽谷)에서 채취하는 산삼(山蔘)이었다. 지금도 심마니가 산삼을 쫓는 소식을 이따금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삼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으며, 과거에는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하였을까?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 상품화가 되었고, 어떻게 거래되었을까?

인삼은 두릅나뭇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인데 예로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서 효능과 가치가 인정되어 진귀한 물품으로 여겼다. 가치가 높은 만큼 일찍부터 왕실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과 무역하는 주요 품목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재가 아니었고, 희귀성이 높아 국가에서는 법

#### 인삼

인삼은 두릅나뭇과의 다년생 초본 식물이다.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졌고, 중국이나 일본과 무역하는 주요 품목이기도 하였다.



적으로 국외 유출을 막고 있었다.

처음에는 산속 깊은 곳에서 자란 산삼을 ‘삼’ 이라고 불렀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이나 『제중신편(濟衆新編)』에는 인삼의 옛 이름을 ‘삼’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은어인 ‘삼마니’ 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함경남도에서는 산삼을 캐는 사람을 방초(芳草)라고도 불렀다. 산삼은 항상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산삼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찾아낸 것이 밭에 삼을 심어 기르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인삼은 곧 재배한 삼을 의미하며, 산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란 삼은 이와 구별하기 위해 산삼이라 부르고 있다.

삼이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등 동양에서 주로 생산·이용되었다. 인삼에는 홍삼(紅蔘)과 백삼(白蔘)이 있다. 백삼은 흙에서 캔 삼을 그대로 말린 것이며, 홍삼은 그것을 가마에 넣고 썰서 붉은 빛이 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백삼은 오래 지나면 변질될 수 있지만 홍삼은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을 한자로 표기할 때 ‘人蔘’ 이라고 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人參’ 이라고 쓰고 있다. 왜 같은 동양의 한자 문화권인데 글자가 다를까? 그것은 조선 시대 ‘參’ 자를 행정 용어나 관직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대궐 안에서 신하들이 왕을 알현하는 것을 참알(參謁)이라 하고, 의정부 정2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참찬(參贊)이라 불렀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인삼의 ‘삼’ 자 위에 초두머리(艸)를 더하여 사용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인삼의 희귀성과 약효를 인식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인삼을 공인(貢人)을 통해 조달하였다. 인삼은 왕실, 충훈부(忠勳府)·의정부(議政府)·병영(兵營)·중추부(中樞府)·종친부(宗親府)·호조(戶曹) 등 정부 관청에서 의약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조공품(朝貢品)과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 사절단의 경비, 일본과 대마도에 보내는 하사품과 무역 품목 등에도 사용되었다.

조선 정부는 인삼을 조달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였다. 먼저 국가의 토지를 이용하여 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현물로 인삼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물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포(布)나 쌀 혹은 돈을 대신 받았다.

인삼의 징수 지역은 함경도·강원도·평안도·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 왕조 실록』,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의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 최대의 인삼 산지는 강계(江界)였고, 이곳을 포함하는 평안도가 500~600근으로 전국에서 납부량이 제일 많았다. 다음이 강원도 지역으로 인삼 67근에 돈 5,233냥과 쌀 1만 5000석을 납부하였다. 이 금액은 당시 인삼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인삼 몇 근이라고 환산할 수는 없지만 평안도 못지않게 부담되는 액수임에는 틀림없다. 경상도는 42근 1냥을 납부하였지만 모두 이 지역의 가장 우수한 품질이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삼은 내의원(內醫院)·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 등 국가의 중앙 의료 기관에서 약재로 사용하였다. 함경도에서 올라오는 인삼은 품질이 낮아 포로 대신 납부하였는데 모두 75동 40필이었다. 이 액수는 숙종 때를 기준으로 대략 인삼 110근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한편 정부에 인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인들은 선혜청(宣惠廳)에 등록된 공인들이었다. 조선 시대 선혜청에 등록된 공인 중에 인삼을 전문으로 취급한 사람들은 관동 지역의 인삼을 취급하는 관동삼계인(關東蔘契人), 세삼공인(稅蔘貢人), 인삼공물주인(人蔘貢物主人), 돈삼계공인(鎊蔘契貢人)과 정조 때 특별히 재배 인삼인 가삼(家蔘)의 매매 독점권을 부여받았던 미삼계인(尾蔘契人) 등이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일정한 양의 인삼 값을 미리 받고 현지에 가서 인삼을 구해 납품하였는데, 종종 미리 받은 인삼 값이 현지의 인삼 값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일정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

나 인삼 가격이 계속 급등함에 따라 점차 정부에서 받는 돈과 현지에서 구입하는 인삼 값의 차이가 커 이익을 내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쇄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인삼 유통은 사상(私商)과 은밀하게 밀거래하는 잠상(潛商)의 손으로 넘어갔다.

인삼이 국가의 금수품(禁輸品)이었기 때문에 사상들의 인삼 유통도 여러 절차의 통제가 뒤따랐다. 예를 들어 인삼의 주산지였던 강계에서 사상들이 인삼을 사서 매매하려면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확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덟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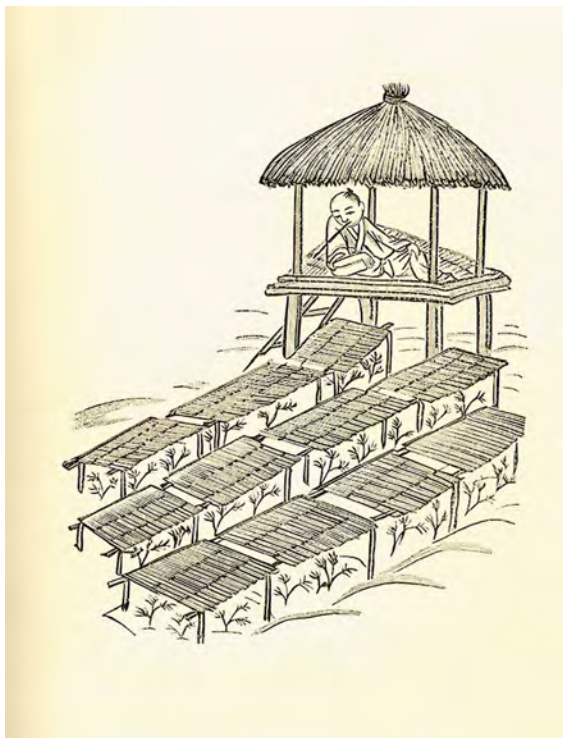
- ① 강계 지방의 사상은 강계부에 세금을 직접 납부한다.
- ② 동래 상인이나 송도 상인 등 외지의 사상들은 호조(戶曹)에서 인삼을 거래할 수 있다는 허가증인 황첩(黃帖)을 발급받는다.
- ③ 강계 지방에 들어갈 때는 평안도 감영에 매매에 따른 십일세(什一稅)를 먼저 납부한다.
- ④ 황첩을 지니고 십일세를 납부한 자에게 강계 부사가 공문을 발급한다.
- ⑤ 공문을 가지고 강계에 들어가면 접주인(接主人)의 안내에 따라 관에 보고한다.
- ⑥ 접주인의 안내에 따라 인삼 채취인과 인삼을 거래한다.
- ⑦ 인삼 거래 후 관에서 일일이 대조하여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인삼을 거래하였는지를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고, 관에서는 비변사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⑧ 서울에서 매매할 때는 15냥까지는 자유롭게 매매하되 1근 이상을 매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호조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왜관(倭館)에서 매매할 경우에는 십일세를 동래부에 납부하고, 정해진 인원이 개시(開市)에 참여하여 인삼을 무역하되 무역량을 보고하여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sup>4</sup>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삼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로는 큰 이익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상들은 불법 행위인 밀무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밀무역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이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다. 정조 때 경주인(京主人)인 김중서(金重瑞)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삼을 매매하여 치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계의 경주인인 김중서는 매우 간교한 사람으로 수십 년 동안 인삼 무역을 빙자하여 강계에 오래 체류하였습니다. 그는 삼을 재배하는 집에 미리 싼값을 지급하고 하산(下山)한 후에 관에 납부하지 않고 몰래 사고팔면서 마침내 도고(都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래에 강계의 인삼이 아주 귀해졌습니다.<sup>5</sup>

이 사료는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중서가 인삼을 무역하여 돈을 축적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미리 돈을 주고 상품을 독점한 후 정부에 알리지 않고 밀무역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오늘날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밭떼기’의 한 형태로 상품을 독점한 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하여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17세기 중반 조선의 인삼은 국제 무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조선의 인삼을 구입하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삼의 대외 수출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결국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자연삼(산삼)이 끊어지고, 삼의 인공 재배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인삼은) 근래 수십 년 전부터 산에서 나는 것이 점차 고갈되어 집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영남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퍼졌는데 그것을 가삼(家蓼)이라 하였다.”<sup>6</sup>고 기록하고 있다.



#### 인삼밭

김준근이 인삼밭과 인삼밭 지키는 사람을 그린 풍속화이다. 조선 주재 영국 부영사였던 칼스(W. R. Carles)의 『한국에서의 생활(Life in Korea)』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1884년 개성을 여행하면서 인삼 경작을 인상 깊게 보았다. 19세기 말에 개성 지방에 설치된 삼포는 1,000간이 넘을 정도였다.

이는 인공 재배를 통해 얻은 인삼을 가삼이라 불렀고, 가삼 생산은 영남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가삼은 중국의 거대한 인삼 시장과 결부되어 크나큰 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빈농이든 부농이든 가삼을 재배하여 부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삼은 생산에서 수확까지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빈농은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자본 여력이 없었고, 일부 부농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인삼을 재배하였다. 그리하여 인삼 재배는 경상도와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기도·황해도·강원도 등지로 급격히 확산되어 나갔다.

조선 후기 인삼 재배에 가장 적극적이고

대규모로 활동한 사람들은 개성 상인이었다. 개성은 토양과 기후가 인삼 재배에 매우 적합하여 19세기 말에는 개성 지방에 살고 있는 농민과 상인들이 1,000여 간 이상 규모의 삼포(蔘圃)를 설치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개성 상인들은 누구보다도 상인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막대한 상업 자본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인삼 재배 이전부터 인삼의 판매처인 동래 상인이나 역관(譯官), 경상(京商)과 안주 상인(安州商人), 강계의 삼상(蔘商) 등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삼의 대량 생산에 뛰어날 수 있었다.

개성 상인들은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는 증포소(蒸包所)를 개성에 설치하고 상품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의주 상인은 포삼 별장(包蔘別將)을, 개성 상인은 포삼 주인(包蔘主人)을 각각 담당하여 청나라로의 홍삼 수출권을

장악하였다. 포삼 주인이란 청나라로 수출하는 인삼의 조달을 담당한 사람으로 인삼 재배에서 매매까지 전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상권의 지배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홍삼의 밀조와 밀수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밀매에 뛰어들어 것은 그만큼 큰 이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육로를 통한 밀수를 강력히 규제하면 밀무역상들은 심지어 해상의 선박에서 만나 밀매할 정도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막대한 상업 자본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는 점차 산업 자본으로 전환되어 갔다.

### 담배는 조선 후기부터 상품화되었다<sup>7</sup>

담배는 가짓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이다. 1558년 스페인의 필리페 2세(Philip II)가 원산지인 남아메리카 중앙부 고원 지대에서 종자를 구해 관상용·약용으로 재배하면서부터 유럽에 전파되었다. 현재는 북위 60°에서 남위 40°에 걸쳐 전 세계에서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직후인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담배에는 니코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성이 강하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는 ‘담바고’ 혹은 ‘남령초(南靈草)’라고 불렀으며, 뒤에는 ‘남초(南草)’ 또는 ‘연초(煙草)’라고도 하였다. 담바고는 타바코(Tabaco)라는 외래어 발음에서 유래되었고, 남령초는 ‘남쪽 국가에서 들어온 신령스런 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담배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단지 약초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차츰 기호품으로 흡연하기 시작하였다. 기호품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흡연에 따른 해로움을 알게 되어 흡연의 찬반양론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翼, 1681~1764)은 『성호사설(星湖僞說)』에서 담배를 피울 때의 이

로운 점 다섯 가지와 해로운 점 열 가지를 언급하였다. 이로운 점은 ‘가래가 목에 걸려 떨어지지 않을 때, 비위가 거슬려 침이 흐를 때, 소화가 되지 않아 눕기가 불편할 때, 상초(上焦)에 먹은 것이 걸려 신물을 토할 때, 추운 날씨에 한기를 막을 때’ 이롭다고 하였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해로운 점은 ‘안으로 정신이 해롭고, 밖으로 눈과 귀가 해롭고, 머리칼이 희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가 빠지고, 살이 깎이고, 사람이 노쇠해진다’ 고 지적하면서 좀 더 심한 것으로 세 가지를 더 지적하였다. 냄새가 심해서 제사를 올릴 때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신과 사귄 수 없는 것이 하나이고, 재물을 소비하는 것이 둘이며,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셋이라고 하였다.<sup>8</sup> 이처럼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다고 하면서 연초의 폐해를 주장하고 있다.

성호가 이러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당시에 연초 흡연이 널리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 표착(漂着)하였던 네덜란드인 하멜(Hendrik Hamel, ?~1692)이 『하멜 표류기』에서 “현재 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어린 아이들이 네다섯 살 때 이미 이를 배우기 시작하여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고 할 정도로 17세기 중반에 이미 흡연자가 많았다.<sup>9</sup> 심지어 영조 때는 흥년이 들어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쌀을 연초와 바꾸어 피우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다.

담배가 널리 애용되자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득공(柳得恭, 1748~?)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는 “비천한 자는 존귀한 분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조관들이 거리를 나갈 때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기를 심히 엄하게 하며, 재상이나 홍문관 관원이 지나가는데 담배를 피우는 자가 있으면 우선 길가 집애다 구금시켜 놓고 나중에 잡아가다 치죄한다.”는 기록이 있다. 담배가 유입된 직후에는 이와 같은 통제가 없다가 흡연자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너도나도 기호품으로 애용하자 지배 계층이 신분 질서에 맞는 사회 예절을 요구한 것이다.



휴식  
송석(松石) 이교익(李敎翼, 1807~?)이 길가에 앉아 쉬며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그린 풍속화이다. 담배는 17세기 중엽에 기호품으로 널리 확산되어 흡연자가 많았다.

그러면 이러한 담배는 당시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 이것을 한 눈에 보여 주는 자료를 오늘날 경상도 민요인 담바귀타령에서 찾을 수 있다.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래나 울산의 담바귀야  
은을 주려 나왔느냐 금이나 주려고 나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담바귀 씨를 가지고 왔네  
저기 저기 저 산 밑에 담바귀 씨를 술술 뿌려.....<sup>10</sup>

담배가 일본에서 동래와 울산을 거쳐 유입되었다는 것과 담배 가격이 금은과 같이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조 때는 담배 한 근의 가격이 은 한 냥과 같았고, 숙종 때는 담배를 뇌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숙종 때 한 가족 여덟 명이 담배를 피우는 데 드는 비용이 10문(文)이었고, 사대부 중에서 연초를 피

는 경우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먹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든다고 하였다.

더구나 담배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또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그리하여 지방에서 연초를 가지고 서울로 와 비싼 가격에 파는 경우도 많았다.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청구야담(靑邱野談)』에는 영조 때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漆原)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논밭을 모두 팔아 그 중 500냥을 주고 담배를 사서 서울로 지고 가 3,000냥을 받고 팔아 무려 여섯 배의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sup>11</sup> 이런 사례는 담배 값이 산지보다도 대도시에서 훨씬 비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조선 시대 담배는 주로 어디에서 생산되었을까? 17~18세기의 사료들에 의하면 담배는 주로 전라도의 진안(鎭安)과 장수(長水), 평안도의 삼등(三登)·성천(成川)·강동(江東)·평양(平壤), 황해도의 신계(新溪)·곡산(谷山)·토산(兔山), 강원도의 금성(金城)·안협(安峽), 충청도의 정산(定山), 경상도의 영양(英陽) 등지에서 생산되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진안과 삼등의 담배는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진삼초(鎭三草)라 불렸고, 중국 사신에게 주는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진안은 마이산(馬耳山) 아래에 있는데 토양이 담배 재배에 알맞다. 무릇 경내의 높은 산꼭대기라도 남초를 심으면 잘 자라서 주민들은 대부분 이것으로 엽을 삼는다.”고 할 정도로 담배를 재배하는 가정이 많았다.<sup>12</sup> 또한 1798년부터 1804년 사이에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 저술한 『천일록(千一錄)』에는 “평안도 삼등 지역의 토양이 담배 재배에 알맞아 향초(香草)로서 아주 우수하다.”고 할 정도로 진안과 삼등의 담배는 다른 지역의 담배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렸다.

조선 후기의 담배 재배 기술은 유중림(柳重臨, ?~?)이 저술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에 잘 기록되어 있다. 연초를 파종하는 방법은 한 곳에서 싹을 틔워 두세 잎이 생기면 비가 온 뒤에 다른 곳으로 옮겨 심

는 이식법(移植法)을 사용하였다. 싹을 옮겨 심기 이전에 재배할 땅에 낙엽과 같은 천연 거름을 두껍게 깔아 쟁기로 갈아엎어 썩힘으로써 지력(地力)을 북돋아 주었다. 싹을 옮겨 심은 후에는 줄기의 길이가 30cm 정도 이상이 되면 줄기의 끝을 잘라 예닐곱 개의 잎만 남겨 두고, 매일 새롭게 돋는 순을 잘라내 잎이 크고 두껍게 되도록 관리한다. 수확할 때가 되면 잎을 세 차례에 걸쳐 따서 햇빛이 아닌 처마 밑처럼 그늘진 곳에서 서서히 말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재배하여 경강 상인에게 판매한 이야기가 『청구야담』에 전한다. 이 이야기는 여주에 사는 허공(許琬)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밭에 담배를 일구는 장면과 이것을 상품화하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밭에는 담배 모를 옮겨 심기 위해 거름을 두껍게 깔고 이랑 위에 무수히 구멍을 뚫고 비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가뭄이 들어 담배 모종이 시들까 염려하여 이른 봄에 장행가(長行架:담배 모판을 덮는 시설)를 매고 그 아래 담배씨를 파종하여 자주 물을 주었다. 그해 마침 크게 가뭄이 도처의 담배 모종이 전부 말라 죽었으나 허공의 담배 모판은 유독 무성하였던 것이다. 비가 오자 즉시 옮겨 심었더니 오래지 않아 담배 잎사귀는 파초처럼 너푼 너푼 땅을 덮었다. 담배가 약이 차기도 전에 강상(江上)의 연초 상인이 찾아와서 담배 밭이 통째로 200푼미에 흥정이 되었다. 담배 장수는 잎사귀를 따서 모래 사장에 말려 가지고 가더니 후에 다시 100냥을 가지고 와서 그 순도 사가지고 돌아갔다.<sup>13</sup>

이 기록에도 나타났듯이 담배 싹을 옮겨 심을 때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땅의 힘을 최대한 북돋아 주었고, 인삼을 재배할 때 햇빛을 가리는 시설을 하듯이 담배 재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 후기 거대한 상업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의 상인들이 담배 원산지에 가서 직접

밭을 통째로 매점매석하는 일명 ‘밭떼기’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담배 재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즉 곡물 농사를 짓는 것보다 두 배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였다. 특히 제때에 모를 옮겨 심을 때와 수확할 때, 병충해를 제거하는 일이나 담뱃잎을 건조시키는 일 등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였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품삯을 주고 일꾼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담배를 재배하는 지역은 대부분 산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배수가 잘되고 지력(地力)이 좋아야 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반 평야 지대보다는 산이나 계곡 등지에 밭을 일구어 연초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각지에서 재배된 담배는 객주(客主)·여객(旅客)·보부상(褓負商)·소상인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의 대도시로 유통되었다. 지방

에서는 장시를 통해서, 서울에서는 담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초전(煙草廛)이나 담뱃잎을 썰어서 판매하는 절초전(折草廛), 담뱃대와 재떨이를 판매하는 연죽전(煙竹廛) 등의 상가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지방의 소상인이나 보부상은 연초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적은 양을 사서 대도시의 장시에 가져가 비싼 값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자금이 풍부한 거상(巨商)들은 담배 산지에서 직접 많은 양을 사서 객주나 여객을 통해 대도시와 군사 요충지 등에서 비싼 값에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지방에서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는 담

#### 담배 썰기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가 담배를 썰는 장면을 그린 풍속화이다. 이렇게 썬 담배를 종이에 싸서 피우기도 하고 담뱃대를 이용하여 피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담배는 객주·여객·보부상·소상인 등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에서 유통되었다.



배를 판매하는 상점이 있어 전매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충청도의 큰 포구였던 강경(江景)에도 남초전(南草麩)이 있었고, 평양에도 절초전이 있었다. 경상 우수영이 있는 고성(固城)의 남문 밖에 있었던 남초전에서는 영남 상인 수백 명이 모여 담배를 매매할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다.

『임원경제지』에는 전국 지방의 비교적 규모가 큰 325개의 장시 가운데 181곳에서 담배를 거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기도 18개, 호서 23개, 호남 15개, 영남 45개, 관동 4개, 해서 22개, 관서 41개, 관북 13개 장시가 그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담배가 곡물류, 직물, 소금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임을 말해 준다.

서울에서는 종로 육의전(六矣廛)을 중심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이 형성되어 있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국 사신에게 줄 담배의 지속적인 공급과 국내 담배를 수집하는 기관이 필요하였다. 당시 중국 사신에게 주던 담배는 왜지삼(倭枝三)과 진안과 삼등에서 생산된 진삼초가 주를 이루었다. 왜지삼은 담배를 잘게 썰어 만든 것으로 당시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온 고급 담배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국가에 납품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였다. 이를 만족시켰던 것이 연초전이다. 비록 육의전의 하나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연초전은 왜지삼과 진삼초를 국역(國役)으로 부담하는 대신 담배 공급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다. 그리하여 지방 산지에서 담배를 매입한 향상(鄕商)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연초전 외에 절초전도 있었으나 판매권을 둘러싸고 연초전과 빚은 갈등 때문에 1742년(영조 18)에 완전 폐지되었다. 나아가 연초 판매로 연초전 상인의 이익이 늘어나자 일부 양반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담배 유통 체계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사상들이 등장하여 시전과 대립하게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조 때 기록은 이러한 현상을 자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서울에 사는 이씨 성을 가진 양반이 지방에서 절초와 남초를 널리 사들여 서울에 들어와 난매(亂賣)하고 있고, 부민(富民) 이덕신(李德臣)이라는 사람도 매년 지방에서 절초를 널리 사들여 감추어 두었다가 난매하니 각별히 엄금해 주십시오.<sup>14</sup>

담배 판매 이익이 다른 상품에 비해 컸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는 각종 세력이 이 상품의 매매에 뛰어들면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은 위협받게 되었다. 나아가 18세기 말에는 각 도에서 가져온 담배 거래를 알선해 주고 구문(口文)을 받거나 도고(都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을 남초 여객 주인(南草旅客主人)이라 하였다.

결국 서울에서의 담배 유통은 남초전의 시전 상인과 사상, 그리고 남초 여객 주인 등이 경쟁적으로 담당하였다. 이러던 것이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상의 힘이 시전 상인을 능가하게 되어 시장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초전과 남초 여객 주인은 사상의 거래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면서 대가로 구문을 받는 신세로 쇠퇴하게 되었다.

### 직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상품화되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의식주(衣食住)는 필수 요건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옷과 집은 없어도 살 수 있겠지만 먹지 못하면 삶 자체를 이어 갈 수 없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의를 제일 앞세워 부를까? 이것은 아마도 동물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인간은 먹는 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의를 가장 앞에 두어 강조하였을 것이다.

현대의 의류는 다양한 재질과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양반과 부유한 집은 주로 비단을 입었고, 일반 서민은 무명

을 걸치고 생활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 직물류로는 베(麻布), 모시(苧布), 무명(木棉), 명주와 각종 사(紗)·나(羅)·능(綾)·단(緞)·금(錦) 등이 있다. 베와 모시는 섬세하고 시원한 느낌, 무명은 수수하면서도 소박한 느낌, 명주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베와 모시는 여름철 옷감으로 가장 많이 쓰던 직물이다. 쌍떡잎식물인 대마(大麻)의 껍질을 벗겨 베틀을 이용하여 베를 짠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베를 짜는 일이 여성의 중요한 일과였다. 생산 지역에 따라 함경도의 베는 북포(北布), 강원도의 베는 강포(江布), 경상도의 베는 영포(嶺布), 안동의 베는 안동포(安東布)라 불렸다. 이러한 베가 여인의 정성스런 손질을 거쳐 옷으로 탄생되었다. 오늘날은 수의(壽衣)로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베가 조선 시대에는 일상복의 옷감이었다. 그뿐 아니라 화폐 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고운 것은 외국과의 무역 상품으로 거래되었다.



#### 무명짜기

19세기 말에 김준근이 무명을 나는 장면과 무명을 짜는 장면을 그린 풍속화이다. 조선 시대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무명짜기를 하였다.

무명은 목화에서 실을 뽑아 길쌈을 하여 만든다. 목화를 따서 말린 후 씨아를 이용하여 목화씨를 빼고, 솜뿔로 타서 남아 있는 씨앗 껍질을 깨끗이 떨어뜨리고 솜이 피어오르게 한 후 고치말이를 한다. 고치말이가 끝나면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이를 가락에 올린다. 가락에 올린 실을 가늘고 고르게 하여 베날기를 하고, 날실을 베틀에 옮겨 무명을 짠다. 현재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지만 조선 시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무명짜기를 한다.

조선 시대에 베·모시·무명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집집마다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대개 농번기에는 작물을 재배하고 농한기인 겨울에 기기를 이용하여 옷을 지어 입었다. 그리고 자급자족하다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팔기도 하고, 화폐 대용으로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이후부터는 서민들의 가내 공업도 소상공 생산자로 전환하면서 무명이나 베를 자가 소비를 위해 서만이 아니라 많은 적든 판매를 위해 생산하게 되었다. 이들 상품은 장시를 통해 거래되었다.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생산해 낸다. 나방이 알을 낳아 10~15일이 지나면 누에가 되고, 이 누에는 25일 동안 잠을 자면서 왕성하게 뿔실을 먹는다. 그 후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번데기로 탈바꿈한 뒤 고치를 뚫고 나와 나방이 되어 날아간다. 누에고치는 바로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전에 열을 가하여 번데기를 죽이고 건조시켜 두었다가 실을 뽑아내는데, 보통 한 개의 고치에서 800~1,500m 길이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실을 베틀에 걸어 명주를 직조한다. 조선 시대에는 누에가 먹는 뿔실을 마련하기 위해 왕실에서 직접 뿔나무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뿔나무 심는 것을 권장하였다. 나아가 잠실(蠶室)을 두고 누에고치 생산에 힘을 기울이는가 하면 왕실 내명부(內命婦)가 중심이 되어 선잠제(先蠶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오늘날의 광진구 자양동과

광장동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 일대, 서초구 잠원동 일대,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한강의 밤섬 일대에서 뽕나무 재배와 함께 누에가 생산되었다.

그러면 조선 시대 정부에서는 이러한 직물류를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였을까? 조선 건국 초부터 성종 때까지는 관의 주도 아래 직물류가 생산되고 유통되었지만 연산군 이후에는 잠업(蠶業)이 정착되고 국가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민간에 의한 양잠이 활발해지면서 직물류가 상품화되었다. 특히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만



드는 견직물의 경우 중종대 이후 개인에 의한 사(紗)·나(羅)·능(綾)·단(緞)의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품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나 견직물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침체기에 빠졌다. 전쟁 직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역대 왕이 사치를 금하는 정책을 펴면서 고급 견직물 생산이 위축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에는 영세한 농촌 수공업에 의해 생산된 명주와 같은 단순한 견직물만 남게 되었고, 고급 견직물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였다.

조선 전기 직물류를 관장하는 관청 중에 대표적인 곳이 상의원(尙衣院)이다. 상의원은 왕을 비롯한 왕족의 의복과 궁중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관청이다. 고려 시대 상의국(尙衣局) 체계를 이어 받은 상의원은 성종 때 체제가 정비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상의원에 소속된 공

숙종어제잠직도(肅宗御製蠶織圖) 부분

벽은(僻隱) 진재해(秦再奚, 1691~1769)가 그렸다고 전하는 중국풍의 잠직도 중 누에 먹이는 부분이다. 조선 시대에는 역대 왕후가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궁중에서 누에를 쳤다.

장(工匠)은 597명이다. 세종 때는 467명의 장인이 있었으며, 세조 때는 801명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597명의 공장 가운데 직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인은 모두 264명이며, 각각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었다. 즉 합사장(合絲匠) 10명, 연사장(練絲匠) 75명, 홍염장(紅染匠) 10명, 청염장(靑染匠) 10명, 능라장(綾羅匠) 105명, 방직장(紡織匠) 20명, 성장(箴匠) 10명, 채금장(裁金匠) 2명, 사금장(絲金匠) 4명, 금박장(金箔匠) 4명, 도침장(搗砧匠) 14명 등이 있었다. 합사장과 연사장은 실을 뽑아내는 일을, 홍염장과 청염장은 염색 작업을, 능라장과 방직장은 비단 등 직물을 짜는 일을 각각 전문으로 담당하였다. 성장은 직물을 만드는 기구의 바리를 만들고 수리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채금장·사금장·금박장은 비단을 제직할 때 필요한 금사(金絲)와 금박(金箔)을 만들었고, 도침장은 제직된 직물을 다듬이질하여 정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장인이었다. 결국 견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이 분야별로 나뉘어 전문화·분업화되어 있었다.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하면 상의원 능라장이 짠 제품의 질이 중급 이하일 경우에는 씨실을 넣는 직장(織匠)과 무늬를 놓는 인문장(引紋匠), 천을 짜는 위봉족(緯奉足) 등에게 차등 있게 근무 일수를 삭감하는 벌칙을 내렸다. 이것은 능라장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다시 분업화되어 전문적인 장인이 있었음을 뜻한다.

조선 전기 상의원에서 제직된 견직물은 중종대에 이르러 당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냈다. 초기에는 근검절약을 강조하면서 중국산 직물을 선호하고, 명주와 같은 손쉬운 직물을 주로 제직하였으나 점차 고급 견직물이 경공장에서 생산되었다. 1424년(세종 6)에는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물품 중에 나(羅)로 만든 의복이 들어 있었으며, 1504년(연산군 10)에는 각종 무문사(無紋紗)를 일곱 필씩 짜서 바치도록 하였다. 또한 능라장을 능단장(綾段匠)이라고 하여 나 대신 단의 제직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연산군은 능라장을 중국에 파견하여 직조 기술을 배워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508년(중종 3)에는 상의원에서 능과 단을 잘 짜고 있으므로 명나라에서 사

오는 비단도 정지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기술이 향상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사치의 금제(禁制)가 더욱 강화되었고, 영조가 상의원의 직조기를 철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궁중에서 국혼(國婚) 때조차 면포를 사용하고 주단(紬緞)을 금하였기 때문에 고급 견직물의 생산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다만 규모는 작지만 경복궁 안에 향직원(鄕織院)을 두고 왕실용 의복을 소량 생산함으로써 조선 말기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직물류 가운데 조선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면포였다. 면은 1363년(공민왕 12)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文益漸)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그 이전에 이미 면직물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익점이 종자를 들여온 후 그의 장인 정천익(鄭天益)과 협력하여 이듬해 봄 진주 강성(江城)에서 재배에 성공하였고, 호승(胡僧) 홍원(弘願)에게서 직조술을 익혀 면포 한 필을 짜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무명이 태동하게 되었다.

면포 재배는 조선 초기에 국가 차원에서 면업을 장려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세종 때 이르러서는 대외 교역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생산이 발전되었다. 이들 면직물은 사계절 통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직물이었다. 나아가 저화(楮貨)나 주화(鑄貨) 같은 화폐가 있었지만 화폐의 유통이 활발하지 못할 때는 면포가 상품 교환의 유통 수단이 되었고, 국가에서 수납하는 조세를 면포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면화 재배가 가장 활발하고 지역적으로도 알맞았던 곳은 경상도와 전라도였다. 대표적인 생산지는 경상도의 안동과 의성 등 10여 개 읍과 전라도의 무주와 금산 등 7~8개 읍이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충청도의 양산·옥천 등 10여 개 읍도 면화가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옥천과 양산은 논이 적어 주민들이 오로지 면업을 생업으로 삼아 이것으로



#### 면화와 방적(紡績)

왼쪽은 오늘날 재배하고 있는 면화를 채취하여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김준근이 면화를 가공하여 실로 만드는 작업을 그린 풍속화이다. 조선 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적으로 면업을 장려하였고, 후기에 면화 재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였다.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였다. 황해도에는 봉산 황주읍 등이 면화를 재배하여 이익을 내던 곳이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상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325개 장시 중 136곳에서 면화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호남이 28곳, 영남이 32곳으로 면화 산지가 풍부한 곳에서 매매도 활발하였다. 또한 관서 지방에서도 32곳의 장시에서 면화의 상품 거래가 이루어져 19세기 장시의 주요한 거래 품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시 재배지는 충청도 임천·한산·서천 등이 유명하였다. 『택리지』에는 “충청도 서천·한산·임천 등이 모시 재배에 적당하였고, 모시 재배에 따른 이익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 고 할 정도였다. 오늘날까지 한산 모시와 임천 모시는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면포와 마포는 평민이 주로 가정에서 손수 지어 입는 것이 대부분이었



북청의마포직조

1930년경에 함경북도 북청에서 마포를 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북청의 마포는 북포(北布)라 하여 특산물로 인정받았는데, 19세기부터 지역적으로 특화된 상품이 나타났다.

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면포와 마포를 장사에서 구입하여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상품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고, 고급 품질의 상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면포로는 송도목(松都木)과 고양목(高陽木)이 제일 유명하였고, 마포는 안동포를 비롯하여 길포(吉布)·회령포(會寧布) 등을 명품으로 인정하였다.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비교적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던 325개 장시 가운데 254개소에서 면포가 거래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영남 지역에서의 거래가 제일 활발하였다. 영남의 경우에는 72개 장시 가운데 68곳에서 면포를 거래하여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였다.

서울의 왕실에서 필요한 직물은 상의원에서 제조하였지만, 고급 비단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 등은 시전을 통해 거래되었다. 당시 직물류는 가격이 높고 이윤이 많아 대부분이 육의전(六矣廛)에서 거래되었고, 양반이나 서민은 이곳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서울 광통교 주변에 있던 선전(線廛: 입전(立廛)이라고도 함)에서는 주로 중국산 비단을, 광통교와 종루 부근



에 있던 면포전(綿布塵)에서는 무명과 은을, 종루 주변에 있던 면주전(綿紬塵)에서는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명주를, 종로 3가 근처에 있던 저포전(苧布塵)에서는 모시류를, 남대문로 1가에 위치하였던 포전(布塵)에서는 무명을 각각 전문적으로 판매하였다. 이들은 서울의 시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매매 전권을 위임받아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들은 전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산지에서 직접 직물을 구입하여 유통비를 아끼는 방법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였다. 고급 비단은 상의원의 기능이 쇠퇴되면서 선전을 통해 왕실에 공급되기도 하였다. 목면의 매매는 육의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광통교 부근에 있던 면화전(綿花塵)에서 국역을 부담하고 전매하고 있었다.

### 웰빙 식품인 채소도 상품화되었다

#### 저포전기

모시류를 판매하는 시전인 저포전을 나타내는 깃발로 자신들의 행사에 필요하여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윗부분에 깃발을 걸기 위한 끈이 다섯 개 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에도 채소는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었다. 소·닭·돼지 같은 육류 섭취가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먹을 반찬이라고는 채소뿐이었다. 그리하여 평민은 대부분 텃밭에 채소를 심어 자급자족하였고, 양반은 노비를 통해 농사지은 채소를 먹었다. 그리고 일부 땅이 없는 서민과 왕실이나 관아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1425년(세종 7) 시중에서 생선이나 채소 등 잡물을 매매하는 자가 많아 동전 사용이 어려워니 물물 교환을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sup>15</sup> 1445년(세종 27)에는 아침저녁으로 채소 값의 변동이 심하여 이를 팔아서 먹고 사는 백성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후로는 채소, 아욱 등의 식물 가격을 경시서(京市署)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16</sup> 이와 같은 기록은 조선 시대에 일찍부터 채소가 상품으로 거래되

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조선 조정에서도 많은 양의 채소를 소비하였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채소를 진상(進上) 품목으로 정하여 제철에 맞는 채소를 올리도록 하였고, 지방에서는 미처 자라지 않은 채소를 흙과 함께 중양으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방에서 중양까지 운송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채소가 시들거나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성종 때는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채소가 완전히 자란 다음에 운송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sup>17</sup> 또한 정조 때에는 채소의 공급을 각 관청에서 정해진 규칙에 의거하여 공인(貢人)에게 올리도록 하였다.<sup>18</sup> 이것은 공인들이 채소 생산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기록으로 채소의 상품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채소의 상품화 경향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좀 더 확대되었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연암집(燕巖集)』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왕십리에서 무우, 살곶이다리에서 순무, 석교에서 가지·오이·수박, 연희궁에서 고추·부추·해채, 청파에서 미나리, 이태원에서 토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반은 상상전(上上田)에 심고 모두 엄씨의 똥을 써서 가꾸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엄행수는 매년 6,000전을 벌기에 이른다.<sup>19</sup>

이 기록에는 엄행수(嚴行首)란 사람이 채소를 심어 1년에 6,000전을 벌었다는 내용과 한양 근교의 지역별 채소 생산 품목이 나타난다. 오늘날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일대에서는 무가 많이 재배되었고, 용산구 일대에서는 미나리와 토란이, 서대문구에서는 고추와 부추 등이 주로 생산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채소는 소규모 상인들이 도성 안으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혹은 채소전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남대문채소시장  
1905년에 촬영한 남대문 채소 시장의 모습이다. 이른 아침에 남대문 안쪽으로 채소를 지고 와 팔고 있는 광경이다. 18세기에는 한양 근교에서 생산된 각종 채소를 도성 안으로 소규모 상인이 들여와 판매하거나 채소전에서 판매하였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19세기 중반에 나온 『한경지략(漢京識略)』에는 “채소전(菜蔬廛)에서는 각종 채소를 매매하는데 종루와 칠패에 있다. 그리고 동문 밖 왕십리 전관평(箭串坪)의 무와 동대문 안 훈련원의 배추, 남대문 밖 청과동의 미나리가 으뜸이다.”<sup>20</sup>고 기록하고 있다. 역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채소 품목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종로와 칠패에 있는 채소전을 통해서 주로 매매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채소들이 전래되면서 음식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의 식생활과 매우 밀접한 배추와 고추가 대표적이다. 조선 전기에는 겨울에 김장을 담그는 포기 배추가 없었다. 또한 고추가 들어오지 않아 붉은 고춧가루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연히 포기 없는 배추와 무를 소금에 절여서 마늘 등 양념을 한 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고추가 17세기 초엽 일본을 통해 전래되었고, 18세기에는 중국에서 포기가 큰 배추가 전래되었다. 19세기에 이르면 서울에 고추전(藁草廛)이 생겼으며, 채소의 종자를 파는 종자전(種子廛)도 있었다.<sup>21</sup> 그리고 포기 배추와 고추가 결부되어 두 종류를 버무리는 형태의 김치가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날 겨울이면 집안마다 담그는 형태의 붉은 김장김치로 발전되었다.

이 밖에도 옥수수, 호박, 토마토, 고구마, 감자 등도 조선 후기에 들어온 식품이다. 1763년(영조 39) 통신사 조엄(趙巖)이 대마도에서 들어온 고구마와 1820년대 무산 군수 이형재(李亨在)가 청나라에서 들여 온 감자는 구황 식물(救荒植物)로서 높은 인기를 얻어 재배지가 확대되었다. 옥수수는 17세기 이후에 전래된 곡물로 『증보산림경제』에 심는 방법과 먹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채소 재배가 이루어졌고, 이 상품들은 도성 안에서 주로 매매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품종의 채소가 등장하면서 음식 문화의 변화도 일어났다. 서울의 예를 통해 볼 때 지방 대도시 주변에서도 같은 형태의 상품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통배추김치  
절인 배추에 고추와 갖은 양념을 넣어 담근 김치이다. 17세기에 일본에서 고추가 전래되고 18세기에 중국에서 포기가 큰 배추가 들어온 뒤로 포기 배추와 고추가 어울려져 붉은색의 김장 김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2 수공업의 발달과 민영화

### 조선 전기 수공업은 국가에서 관장하였다

전근대 사회의 수공업은 인간이 원료나 자재를 가공하여 쓸 만한 물자를 만들어 내는 일을 말한다. 인간이 입는 옷에서부터 삶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 예를 들어 그릇·직물·낚시·신발·종이·가구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산업화가 된 오늘날은 기계로 하루에도 수만 점씩 제품이 생산되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지만 전근대 사회 때는 모든 것을 사람의 손에 의지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제품 생산이 대량화되기도 어려웠고, 월등한 품질을 기대한다는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조선 시대에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장인(匠人)을 공장(工匠)이라고 불렀다. 조선 전기에는 전문적인 수공업 제조 기술자인 공장들을 일정 기간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소속시켜 궁궐과 관아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관영 수공업(官營手工業)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 공장을 크게 관공장(官工匠)과 사공장(私工匠)으로 분류한다. 관공장은 관아가 주체가 되고 장인들이 삼교대로 나누어 근무하며, 사공장은 개인이 경영 주체가 된다. 관공장은 다시 한양 왕실

과 관아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경공장(京工匠)과 지방의 병영과 주·군·현에 소속된 외공장(外工匠)으로 구분한다. 경공장이 만든 제품은 궁궐과 관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일반 양반이 차지하였다. 백성들은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형편이었으며, 양질의 제품을 차지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경국대전』에는 30개 관청에 경공장이 2,841명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을 직종에 따라 나누면 130개로 구분된다. 여러 직종의 기술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공장은 사기그릇을 만드는 사기장(沙器匠)으로 모두 386명이다. 이들은 사옹원(司饔院)에 380명, 내수사(內需司)에 6명이 배당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직종이 야장(冶匠)으로 모두 192명이다. 야장은 군기시(軍器寺)에 130명, 선공감(繕工監)에 40명, 상의원(尙衣院) 등에 8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공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관청은 군사 무기를 만드는 군기시로서 모두 644명이 배속되어 전체 경공장의 22.7%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만큼 군사 무기를 제조하는 전문 기술진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증거이다. 그 다음으로 옷을 만드는 상의원이 578명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의 경우는 8도의 각 병영과 주·군·현에 소속되어 있던 외공장의 수가 모두 3,656명이다. 이들은 한성의 공조(工曹)를 비롯하여 상의원·군기시·선공감·제용감(濟用監)·조지서(造紙署)·와서(瓦署)·사옹원 등의 지방 조직에 소속되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종이를 만드는 지장(紙匠), 자기를 만드는 사기장, 쇠를 다루는 야장 등 27개 분야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방 관아에서 필요한 수공업 제품을 만들었으며, 경영 형태는 한양의 경공장과 비슷하였다.

국가에서 경공장과 외공장의 수를 법으로 정한 까닭은 중앙 집권적인 전체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기술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쇠의 제련이나 활과 갑옷 같은 무기 제조 기술을 소지한 장인을 국가

에서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전제 왕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왕과 왕비를 비롯한 통치자들이 생활하는 궁궐의 신축과 도성 건설 등에도 전문적인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였고, 지배층의 생활 문화에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데도 숙련된 장인의 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장인들을 자유롭게 방치하면 정부가 필요로 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통제하였던 것이다.

특히 조선 초에는 도성과 궁궐 건축에 많은 장인들이 필요하였다. 나무를 자유롭게 다루는 목장(木匠)이나 석재를 다루는 석장(石匠), 전돌을 다룰 수 있는 전장(磚匠) 등은 물론이고 토목과 건축 공사에 없어서는 안 될 장인들을 확보해야만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의 생활용품과 장신구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장인들이 필요하였다. 옷을 만드는 일도 비단실을 뽑는데 정통한 사람, 금박을 잘 놓는 사람, 은박을 잘 놓는 사람, 바느질에 능숙한 사람, 모자를 잘 만드는 사람,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 등이 확보되어야 관리들의 관복 등 생활용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장인들이 꼭 필요하였던 조선은 법제화를 통해 그 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관공장 체제가 확립되었으나 시일이 흐르면서 점차 그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공장들의 임금도 보잘것없었고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가 나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탈하는 장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464년(세조 10)에는 군역제(軍役制)가 군포제(軍布制)로 바뀔에 따라 등록된 장인들이 출역(出役)하지 않고 장포(匠布)를 대신 납부하게 되었다. 더욱이 과중한 장인세(匠人稅)의 부담과 함께 관인의 횡포가 심해 관공장을 더 이상 매력있는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이 민영 수공업으로 전환되고 관영 수공업은 명목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기시와 사옹원은 조선 후기에도 관영 수공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대표적인 존재였다. 무기는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영화할 수 없었다. 사옹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관아에서 사용하는 도자가 대부분 파손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영 수공업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 분원(廣州分院)에서 만들어 내는 자기는 최상품으로 널리 알려졌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조선 전기 전국에서 상품의 자기를 만드는 곳이 경기도 광주목의 벌을천리(伐乙川里:현재의 광주시 벌천리), 경상도 상주목(尙州牧) 중모현(中牟縣)의 추현리(湫縣里)와 기미외리(己未隈里), 고령현의 예현리(曳峴里) 등 네 곳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조선 후기에 지속적으로 관장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경기도 광주 분원의 생산품을 가장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였다.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도 고령 백자가 가장 정교하다고 하면서도 광주 백자를 고령 백자보다 한 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광주는 조선 왕조의 수도인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백토(白土)가 생산되는 곳이었다. 또한 한강을 통해 양구에서 생산되는 백토나 땔나무 등을 운송하기 쉬운 교통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처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사옹원에서 이곳에 분원을 두고 장인들을 소속시켰다. 광주 분원에서는 한 해에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상품을 진상하였는데, 생산한 모든 제품은 궁궐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권세가의 요구가 많아 진상하는 분량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빼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고, 관인의 중간 농간으로 장인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884년 관영의 형태가 무너지고 분원의 관리는 민간인에게 이양되었다.



백자 향아리와 백자 복숭아 모양 연적  
백자 향아리는 15세기에 광주 관요(官窯)에서 생산한 왕실 의례 용기이고, 백자 연적(硯滴)은 19세기에 분원리 가마에서 만든 것이다. 사옹원은 군기시와 더불어 조선 후기까지 관영 수공업 체제를 유지하였다.

## 조선 시대 최대의 국립 공업 단지는 한양이었다

조선 시대 수공업과 관련된 관청은 모두 한양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 한양은 전국에서 가장 결집된 수공업 단지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양에 궁궐과 관아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수공업 제품을 가까이에서 신속히 조달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의 종로와 중구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종로에는 공조를 비롯하여, 경복궁·창덕궁·창경궁 안에 상의원과 사옹원이 있었고, 창의문 밖에는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가 있었다. 이 밖에도 수공업 관련 작업장이 종로에 산재해 있었는데 당주동의 내섬시(內贍寺)와 봉상시(奉常寺), 원서동의 사도시(司導寺)와 관상감(觀象監), 도림동의 의영고(義盈庫), 명륜동의 양현고(養賢庫), 적선동의 사온서(司醞署)와 장흥고(長興庫), 견지동의 도화서(圖書署)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작업장은 공조·상의원·사옹원·조지서 등의 작업장에 비하면 규모가 작고 장인의 수도 적었으나, 대개 궁궐에 납품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뛰어났고, 자연히 제품도 우수하였다.

공조는 조선 시대 육조의 하나로 서부 적선방 육조 거리 서쪽 오늘의 세종 문화 회관 자리에 있었다. 그 안에는 영조사(營造司)·공치사(政治司)·산택사(山澤司)의 세 개 부서가 있으며, 이 부서에 소속된 장인이 26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공치사는 초립·망건 등의 모자, 가죽신 등 신발, 금·은·옥 등의 세공품, 궁궐에서 필요한 가구 등을 주로 제조하였다.

상의원은 왕실의 의복을 만들었으며, 때로는 궁중의 보물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상의원에는 587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고, 68종의 전문 분야로 나뉘어 분업적으로 옷을 만들었다. 머리에 쓰는 모자에서 발에 신는 신발에 이르기까지 각 물건마다 만드는 사람이 다를 뿐 아니라, 옷 한 가지에 서도 겹옷·속옷·외투·저고리·바지·치마 등의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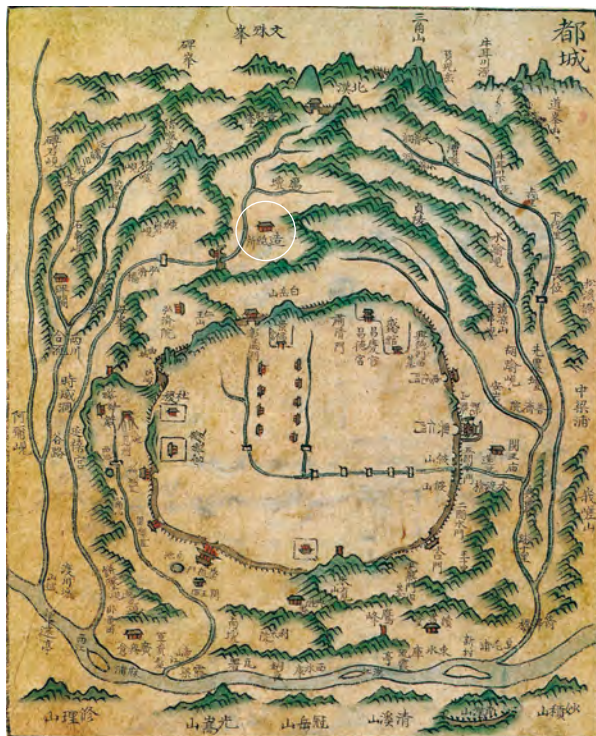
각기 달랐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본 구조를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다림질하고, 옷에 무늬를 놓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분업이 철저하였다.

사용원은 궁궐 안에서의 음식 마련과 음식을 담는 그릇 만들기를 주관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 분원에 사기를 만드는 장인 350명을 파견하여 사기그릇을 만들었다.

선공감은 종로구 신문로 1가에 있었으며, 별도로 창덕궁 금호문 밖에 분감(分監)을 설치하였다. 선공감에서는 궁궐 안의 토목·건축을 담당하였는데, 346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제용감은 국왕이 신하들이나 외국 사신에게 내려 주는 의복과 옷감의 염색 및 직조를 담당하였다. 오늘날 종로구 수송동 종로구청 자리에 있었으며, 방직장(紡織匠)·청염장(靑染匠)·침선장(針線匠) 등 13개 분야 108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조지서는 창의문 밖 탕춘대(蕩春臺), 즉 종로구 신영동 세검정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만들던 곳으로 1415년(태종 15) 조지소로 출발하여 1466년(세조 2) 조지서로 개편되었다. 이곳에는 모두 91명의 장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닻나무를 가마에 써서 껍질을 벗겨 흑피를 만들고, 그것을 물에 불려 껍질을 제거하여 백피를 만든다. 그 후 끓는 잿물에 백피를 표백하고, 표백한 섬유를 방망이로 다듬질한다. 그리고 다듬질한 원료를 녹조에 넣고 거기에 풀을 가하여 종이 원료를 만든다. 이어서 그것을 대발 위에 일정한 분량을 옮겨 종이를



조지소  
1720년대에 그린 도성도(都城圖)인데, 창의문 북쪽에서 조지소를 볼 수 있다. 조지소가 있던 탕춘대 일대는 가장 규모가 크고 품질이 좋은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업 단지였다.

뜯는다. 초조한 종이를 한 장씩 떼어 내 건조판에 붙여 말려 완성한다. 이렇게 복잡한 공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공정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져 전문화되어 있었다. 탕춘대 일대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품질이 좋은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업 단지였다.

서울시 중구 지역도 종로구 못지않은 관영 수공업장이 설치되어 국가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조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관영 수공업장이 군기시·교서관(校書館)·주자소(鑄字所)·예빈시(禮賓寺)·장악원(掌樂院) 등이다.

군기시는 태평로 1가 일대인 서울 특별시청과 서울 신문사 자리에 있었다. 군기시는 창·칼·검·활·화살·화포·군기 등 군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던 곳으로 644명의 장인이 있었다. 군기시의 최초 책임자는 고려 말 왜구 소탕에 공이 많았던 최무선(崔茂宣, 1325~1395)이었고, 그의 아들 최해산(崔海山, 1380~1443)이 계승하여 82칸의 청사를 건립하고 무기를 본격적으로 제작하였다. 군기시 작업장에서는 매우 세분된 분업과 순차적 공정에 의해 무기를 제작하였다. 예컨대 화살의 제작 과정을 보면, 목장(木匠)이 화살대를 만들면 각장(刻匠)은 화살대에 깃이나 촉을 붙일 자리를 파고, 생피장(生皮匠)은 화살 깃을, 주장(鑄匠)은 화살촉을 붙였다. 그리고 칠장(漆匠)이 칠을 하고 연장(鍊匠)이 최종적으로 가공하여 완성하였다. 이처럼 한 개의 화살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여러 명의 기술자가 각기 하나씩의 공정을 맡아 분업적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교서관은 중구 예관동에 있었으며, 서책의 출판을 위한 일종의 국영 인쇄소였다. 모두 146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활자의 주조에서 서책의 인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 과정이 분업화되어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나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목장이 몸통을 만들면 글자를 새기는 각자장(刻字匠)이 목활자를 만든다. 이어 부드러운 개흙을 인판(印版)에 편 다음 목활자를 찍었다가 떼면 오목하게 주형(鑄型)이 생긴다. 이때 주장(鑄匠)이 녹인 구리를 야장(冶匠)이 부어 금속 활자를 만들고, 주조된 활자를 조각장(彫刻



#### 주자소 현판

19세기에 주자소에 걸었던 현판이다. 주자소는 활자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다.

匠)이 곱게 다듬어 완성하였다. 인쇄는 창준(唱準), 사준(司準)이 원고의 글자를 큰소리로 읽으면 수장(守藏)이 글자를 골라 초고 위에 배열한다. 이어서 균자장(均字匠)이 동판 위에 올려놓고 조판하면, 지장(紙匠)이 재단한 종이에 인쇄장(印出匠)이 인쇄하여 서책을 만들었다.

오늘날 주자동에 있었던 주자소는 활자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었다. 다양한 활자가 있어야 출판이 쉽기 때문에 구리를 이용하여 활자를 만들었다. 태조 때의 계미자(癸未字), 세종 때의 경오자(庚午字:1422년)·갑인자(甲寅字:1434년) 등을 만들었고, 세조 때 교서관과 통합되었다. 주자소의 활자 제조를 토대로 세종 때 많은 책자를 발간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한양의 종로와 중구 일대는 조선 최대의 국립 공업 단지로서 전국의 가장 뛰어난 장인이 모여 있던 곳이었다. 이들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공정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으며, 조선 수공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용산에는 기와를 만들어 내는 와서(瓦署)가 있었다. 기와는 옛날 건축물에 꼭 필요한 자재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용산 동쪽에 와서가 있었으며, 별서(別署)를 두고 기와를 구워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와서는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국가의 건축물에 주로 기와를 공급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판매하였다.

또한 마포구 하수동 강변에는 조선 시대 전국의 선박을 관리하던 전함사(典艦司)의 외사(外司)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병선(兵船)과 조선(漕船) 등의 선박을 만들었다. 1401년(태종 1)에 전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곡을 한양으로 운송하기 위한 배 251척을 만들었으며, 1410년(태종 10)에는 군사 훈련을 위한 병선 185척을 만드는 등 이곳은 조선 시대 최대의 조선소였다.

## 공장의 장인들이 사라지다

조선 전기 수공업은 장인들이 관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관청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 관영 수공업 체제였다. 장인은 대부분 양인으로 국가의 통제 아래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였지만, 완전히 정부에 예속된 것은 아니었다. 즉 1년에 몇 달 동안 교대로 관아에 나아가 근무하는 것 이외에 평상시에는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까운 시전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리기도 하였다. 한 예로 무기를 만드는 군기시의 장인들은 3개 번으로 나뉘어서 1개월 복무하고 2개월 쉬도록 하여 1년에 4개월을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때로는 한 달씩 교대로 근무하여 1년에 6개월을 복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장인들이 작업장에 동원되지 않는 기간에는 자기 집에서 물건을 만들었고, 이것을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군기(軍器)의 경중(輕重)과 장단(長短)은 각각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 지금 각도 연호(煙戶)의 군기를 점검해 보니 무릇 철야장(鐵冶匠)·죽장(竹匠)·목공장(木工匠) 가운데 경박한 무리들이 다투어 이때를 틈타서 이득을 보고자 환도(環刀)와 편전(片箭) 같은 것을 부정(不精)하게 제조하여 저자에 벌여 놓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꺾어서 매우 비싸게 값을 받고 있습니

다. 지금 이후로는 군사 무기를 저잣거리에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한성부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자는 중죄로 다스리십시오.<sup>22</sup>

환도 같은 무기까지 제작하여 시장에 내다 놓고 파는 지경이었으니 나머지 수공업 제품이야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수공업자들은 고된 피로 속에서도 물건을 제작하여 지금의 종로, 남대문로 연변에 있는 시전에 내다 팔거나, 직접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며 판매하였다. 물론 이 시기의 상품 생산은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한 단순 생산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수요가 늘면서 상품화의 가능성이 높아갔다. 특히 금·은·주석 등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던 기술자는 재산을 상당히 모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자투리 시간을 써서 만든 제품을 상품화함으로써 약간의 이익을 취하던 장인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점차 공장을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장을 벗어난 까닭은 장인에 대한 처우가 점차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먼저 교대 근무제인 번차제(番次制)가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양반들은 당시 최고의 기술자인 장인들을 개인적으로 압박하여 물건을 만들어 바칠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한 제품을 만들 겨를이 없었다. 또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장인들에게 지급하던 최소한의 양식(料米)도 지급하지 못하자 이들은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결국 처자를 부양하기 힘들어진 장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여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때 김안로(金安老)가 말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백공(百工)은 과거에는 월봉(月俸)으로 처자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관역(官役)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월봉을 감해 버려 공장(工

匠)들이 처자를 돌볼 수 없으므로 으레 도망할 생각만 합니다. 양인으로  
공장이 된 자들도 이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므로, 부득이 각사(各司)의 중  
들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각사의 노비가 없어지는 것은 주로 이 때문입니  
다.<sup>23</sup>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장인들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망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지금의 장인들은  
모두 유명무실합니다. 공조와 선공감(繕工監) 같은 데에도 모두 장인이 없  
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민간 장인들을 부리는데 그 장인들도 모두 서투릅  
니다. 대개 급료가 감소되었으므로 모두들 이 업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  
습니다.”<sup>24</sup>라고 한 특진관 조윤손(曹潤孫)의 말에서 보듯이 공노비나 기술  
력이 떨어지는 민간 수공업자로 충당되었다. 그리하여 양질의 제품 생산이  
어렵게 되었으며, 상품 가치 또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장  
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장인들의 도피가 많아질수록 각 관청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차  
질은 심해졌다.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자 하여도 만들 사람이 없게 된 것이  
다. 분업 체계 속에서 어느 한 공정의 사람만 빠져도 제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 수공업자를 일시로 고용해서라도 생산  
활동의 차질을 막아야 했다. 그리하여 민간 수공업자들이 품삯을 받고 관  
영 수공업장에 고용되어 물건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는 연산  
군 때 나타난다.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자주 장인들을 동  
원하여 물건을 만들도록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5월에는 신하들에게 줄  
선물로 낚시로 대형 50개와 중형 50개, 낚향로 대형 50개와 중형 50개를 만  
들어 올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인이 부족하여 물건을 제때 만들지 못하  
자 급료를 주고 민간 장인까지 총동원하여 날마다 관청에서 일을 시켰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고 급료가 많이 지출되어 창고가 빌 정도였

다고 한다.<sup>25</sup> 이와 같이 관청에 예속된 장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자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 수공업이 민영화로 개혁되다

왜란과 호란을 겪은 조선은 전후 복구 작업과 경제 재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양은 도성 재건과 궁궐 중건 등으로 연일 많은 장인과 백성이 동원되어 매우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였다. 정부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의 조달은 더 이상 공장의 몫이 아니었다. 국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이나 시전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하였다. 결국 장인들은 스스로 만든 제품을 시전에 넘겨 판매하고, 정부와 백성들은 이 제품을 사서 생활하는 경제 구조로의 변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수공업의 민영화로 더욱 촉진되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수공업을 민영화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는 경공장과 외공장에 예속되어 있던 장인들이 속속 작업장에서 이탈하면서 현실적으로 관영 수공업 체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 민간 장인과 노비를 동원하여 관영 수공업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비용만 들어갈 뿐 양질의 제품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경제적이고 비생산적이었다. 그리하여 아예 장인들에게 자유롭게 제품을 만들어 팔도록 하고, 돈으로 시전에서 질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정부에서는 장인에게서 일정한 양의 면포를 장인세(匠人稅)라는 명목으로 거두어들이고, 장인들은 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제품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인세는 수공업자들이 집중된 한양부터 시작하여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는 관영 수공업에 소속된 일부 장인이 만든 제품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관영 수공업하의 장인들은 국가에서 받는 요금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못 받기가 일쑤였고, 힘 있는 권세가와 양반의 개인적인 제품 요구도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었다. 시간에 쫓기는 장인의 입장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투자를 모색할 겨를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은 생산성의 저하로 귀결되었으며 제품의 질 하락은 당연한 결과였다.

세 번째는 조선 후기 사회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민영 수공업자들은 자신의 작업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조선 후기 농촌을 떠난 인력들이 한양으로 모여 들면서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수공업자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제품을 쉽게 생산할 수 있었다. 이른바 고용을 통한 임금 노동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공업을 민영화로 개혁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에 소속된 장인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장적(帳籍)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전쟁의 와중에서 훼손된 명부를 조선 전기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조선 전기에도 영세한 작업 환경과 조건 때문에 수공업장을 떠나는 장인이 많았는데, 장적이 소실된 뒤에 과거의 수공업자들이 자신의 명단을 올리기 위해 제 발로 관을 찾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수공업의 민영화는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한양의 경공장 30개 가운데 사점시(司瞻寺)·전함사·소격서(昭格署)·사온서·귀후서(歸厚署) 등 5개 관아가 폐지되었다. 또한 내자시(內資寺)·내섬시·사도시·예빈시·제용감·전설사(典設司)·장원서(掌苑署)·사포서(司圃署)·양현고·도화서 등 10개 기관은 소속 공장이 없어지고 나머지 각 관청도 공장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장인의 등록제 자체가 무의미해져 마침내 장적법(匠籍法)을 폐지하고, 관에서 직영하는 수공업도 외부 기술자를 고용하여 운영



#### 활과전통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쓰던 활과 화살을 넣는 통이다. 조선 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빠른 속도로 민영화되어 18세기에는 관에서 직영하는 수공업도 외부 기술자를 고용해야 했다. 활을 만드는 궁인 90여 명과 화살을 제조하는 시인 150여 명이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군기시도 1625년에는 궁인 4명만 남아 있는 형편이었다.

하였다. 실제로 무기를 만드는 군기시에는 활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90여 명의 궁인(弓人)과 화살을 제조하는 150여 명의 시인(矢人)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1625년(인조 3)에 이르면 겨우 4명의 궁인만이 남아 있었고, 그 가운데 1명은 70세가 넘는 노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공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전통편』에 의하면 “『경국대전』에는 각도 각읍에 모두 공장의 이름이 있었으나 지금은 외공장을 등록하여 본도에 두는 규정이 없어졌으니 관에서 일할 것이 있으면 사공(私工)을 임용한다.”<sup>26</sup>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 전기 전라도의 경우 외공장이 778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799년(정조 23)에 불과 8명의 장인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sup>27</sup> 관영 체제가 어느 정도로 붕괴되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결국 국가에서는 수공업을 민영화로 돌리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정부 스스로 선택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공업의 민영화로 경제 구조는 좀 더 활성화되었고, 수공업 제품의 품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장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경쟁 체제로, 매뉴팩처(manufacture)의 형태로 발전되게 된 것이다.

##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상품화되었는가

조선 전기 수공업 제품의 주요 생산지는 한양 도성 안에 있었으나,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도성 밖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영역 확대는 조선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한양의 경제생활에도 활력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여 한양이 조선 후기 상공업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조선 후기 최대 수공업 단지였던 한양에서 생산된 수공업 제품의 실태와 상품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먼저 종로구 관철동을 중심으로 서린동·공평동·관수동 일대에는 서민들의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이 곳곳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직접 매매하기도 하였고, 시전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였다. 관철동은 관자골과 철물교라는 지명이 합해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자골 일

대에서는 금·옥·뿔 등으로 망건의 당줄을 꿰는 관자(貫子)를 만드는 사람이 많았고, 철물교 일대는 칼·술·문고리 등 철물(鐵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관철동에서 관수동으로 이어지는 곳은 갓전골이라 불렀는데 갓을 만들어 파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린동에는 전옥서(典獄署)에 수감된 죄수들이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명분

**갓방**  
19세기 말에 김준근이 갓을 만드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위쪽의 두 젊은이는 말총으로 갓모자를 엮고 있고, 맨 오른쪽의 장인은 작은 칼로 대나무를 쪼개 죽사(竹絲)를 만들고 있다. 왼쪽 아래의 장인은 이 죽사로 양태판 위에다 관판한 갓양태를 엮고 오른쪽 장인은 갓양태에 아교로 윤을 먹이고 있다.



아래 짚신을 삼아 관철동의 혜전(鞋塵)에 내다 팔았다. 관수동에서 장사동에 걸쳐 있던 마을에서는 서민들이 머리에 쓰는 병거지를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병거짓골이라 하였다.

종로 2가와 공평동 일대는 각종 낚그릇을 만들어 팔아 바리동이라 하였다. 초기에는 한양, 개성 등 큰 도시 주변에서 낚그릇이 제조되어<sup>29</sup> 곧바로 시장에 출하되었는데, 18세기 말 이후로는 구례·안성·정주를



신민들기  
19세기 말에 김준근이 짚신과 가죽신 만드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왼쪽이 짐승 가죽으로 갓신을 만드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벗짚으로 새끼를 꼬아 짚신을 삼는 모습이다.

비슷한 각지에 새로운 낚그릇 생산지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안성과 정주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안성에서는 붓배기를, 정주에서는 방짜를 제조하여 지역별로도 기술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낚그릇 제조는 공정이 분업화되어 3~4명, 혹은 10명 이상이 한 조가 되어 분업화된 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sup>30</sup> 종로구 서린동 영풍 빌딩 자리에는 금방·은방·옥방이 모여 있어 가락지·비녀·팔찌 등 여인들의 세공품을 만들어 팔았다. 또한 모자·귀마개 등을 만들어 시전에 내다 팔기도 하였고, 소반·문갑·연상 등 목가구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부녀자들은 의전(衣塵)에서 옷감 쪼가리를 구해다가 족두리를 만들어 거리에서 팔다가 난전(亂塵)으로 제지되기도 하였다.

당주동에서 신문로 1가에 걸쳐 있는 훈조동(薰造洞)은 메주가마골로서 장 담그는 원료인 메주를 전문적으로 쐼던 곳이다. 메주란 콩을 삶아 찢어서 뭉친 덩이로, 띄워 말려서 간장·된장·고추장을 담글 때 원료로 쓴다. 간장·된장·고추장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식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메주를 띄워 말릴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왕실이나 양반 가문에서는 이를 기피하여 주로 도성 밖에 메주를 쑤는 곳이 많았다. 서울의 외곽지대인 신영동·부암동·평창동 등에는 메주가마가 도처에 있어 왕실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메주를 만들어 공급하였다. 부암동에는 인왕산에서 생산되는 나무들이 있어 숯을 만드는 숯가마가 있었고, 인왕산 기슭의 누상동·누하동에는 갓과 담배쌈지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들이 거처하였으며, 통의동과 창성동의 뗏골이라는 마을에서는 허리띠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종로구 일대는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시전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공업이 활기를 띠던 곳이었다.

중구에서 민간 수공업자들이 주로 활동한 곳도 시전이 있는 광통방·대평방·훈도방 주변과 칠패장이 열리고 있는 남대문 밖이었다. 무교동의 도자동은 인근에 도자전(刀子廛)이 있어 장도, 식도 등의 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리고 태평로 1가의 첻골에는 체를 만드는 집이 많았다. 장교동의 청계천변에서는 모자와 신 등을 만들었고, 입정동 일대에서는 장농과 마구(馬具) 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의주로 2가와 쌍림동·묵정동 풀뭇골에서는 주로 철로 만든 농기구를 생산하였다. 풀무골이란 풀무를 쓰는 대장간이 많아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한편 도성 밖에서도 수공업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예전에 주성리(鑄城里)라고 하여 남부 한강방에 속해 있던 용산구 보광동은 조선 시대 주물을 제작하던 곳으로 가정의 부업에서 사용하는 솥을 만들었던 곳이다.<sup>31</sup> 또한 옛날 무쇠막 또는 무수막이라 불렸던 것이 한자어로 수철리(水鐵里)로 변한 마포구 신수동과 구수동은 쇠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모를 만들던 곳이다. 무쇠막은 예부터 정부에 무쇠 솥과 농기구를 만들어 바치던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솥을 만드는 바탕을 설치해서 무쇠를 녹여 부었기 때문에 ‘바탕거리’ 혹은 무쇠 공장에서 쓰던 우물을 바탕우물이라 불렀는데 신수동 110번지 일대에 이러한 자연 이름이



대장간  
공재(競齋) 김득신(金得臣, 1754~1822)이 대장간에서 남자들이 쇠를 달구어 두드리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조선 시대에는 오늘날의 용산구 보광동과 성동구 금호동에 무쇠막과 수철장이 있어 많은 주물 제품이 생산되었다.

남아 있다.<sup>32</sup> 도원동의 산기슭은 메주막이라 하여 메주를 쑤어서 성내 주민들에게 공급하던 곳이다.

서대문 밖에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아현동 일대에 낫그릇을 제조하는 작업장이 있었으며, 만든 뒤 제품을 판매하는 유기전, 즉 바리전도 아현동 입구에 있었다. 따라서 수공업품을 제조하는 작업장과 완성된 제품을 파는 시전이 함께 위치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또한 일찍이 망건당굴이라 불리던 대현동은 한자어로 마근동(麻根洞)이라 하였는데,<sup>33</sup> 이곳에는 조선 시대 사람들의 복장에 반드시 필요한 망건·당줄·감투 등을 만드는 집이 많았다. 조선 사회는 신분에 따라 복장 차이가 있어 선비들은 망건과 감투를 쓰고 외출할 때에는 풀잎이나 말총 등으로 만든 갓을 썼으며, 벼슬아치들은 비단으로 만든 사모를 썼다. 조선 후기 한양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망건이나 감투의 수요도 많아져 이

# 독점

19세기 말에 김준근이 웅기 만드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대장이 물레를 돌려 웅기를 만들면 이어 가마에서 구운 다음 지게에 지고 팔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들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동구 일대의 금호동에도 수철장이 있어 무쇠를 다루어 술·칼·낫 등을 만들었고, 인근에서는 무쇠술을 걸고 메주를 쑌어서 팔았으며, 독섬에는 속칭 솥광골 또는 탄동이란 마을이 있어 강원도 등지에서 뗏목으로 내려온 나무를 솥으로 만들거나, 강원도에서 만든 솥을 옮겨다 보관하였다고 한다.<sup>34</sup> 삼전동과 청담동의 솥골 등에서도 솥을 만들었다. 금호동의 수철장이나 독섬·청담동의 솥쟁이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원료를 한강이란 뱃길을 통해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만든 제품을 가까운 도성 안 사람들에게 매매하기에 편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제품 생산 규모는 소자본을 갖고 영위된 영세업자들이었다.

이 밖에도 속칭 마전터라 불리던 성북동 골짜기는 흘러내리는 물이 많고 수량이 풍부하여 도성에서 필요로 하는 포목의 표백과 메주가 생산되었

으며, 송파구와 강동구 암사동의 점말, 동작구 노량진의 동이점·독막, 영등포의 옹기말 등에서는 옹기를 생산하였다. 특히 송파구 일대는 질 좋은 찰흙이 풍성하였고, 가까이에 송파장이라는 큰 소비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등짐장사들이 옹기를 메고 모여들던 곳이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송파구 지역에 대대로 옹기를 굽던 가호(家戶) 200여 채가 모두 물에 잠겼다<sup>35</sup>고 한 것을 보면 이 일대에서 옹기 제조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옹기는 그릇의 생김새에 따라 대독·중두리·방구리·항아리·종지·자배기·바래기·뚝배기·옹배기·동이·단지·방통이·소줏고리 등 이름이 다양하다. 화로·시루·약탕관·연적·재떨이·수반·술병 등도 옹기로 만들지만, 옹기라면 흔히 항아리·독을 연상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옹기로 된 항아리를 즐겨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항아리의 나라’ 라고도 한다.<sup>36</sup>

이상과 같이 도성과 주변 지역에서 상품화된 수공업 제품은 대부분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판매되었다. 유통은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장을 통해 직접 거래되기도 하였고, 시전이나 이현·칠패·송파장 같은 장시에서도 거래되었다. 당시 수공업 제품이 만들어졌던 곳이나 판매하던 곳에 지금까지 제품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 3 도로와 수로를 이용한 상품 유통

#### 물자 유통을 위한 전국의 도로망은 얼마나 되었을까

조선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도로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서울만 해도 제일 큰 길이 광화문 앞의 육조 거리였으며, 도성 안을 가로지르는 종로길이 그 다음으로 넓은 길이었다. 물론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진흙길이 되어 질퍽질퍽하였다. 이러한 도로가 대한제국 때에 와서 고종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 넓이 17m의 포장 도로로 다시 태어났다.<sup>37</sup> 조선의 수도인 서울이 이 정도였으니 지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상태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선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큰 도로망을 개설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이 도로가 모두 9개 노선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10개 노선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도로는 오늘날 ‘27번 국도’ ‘35번 국도’ 등과 같이 각 도로를 제1로에서 제10로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들 도로망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의 도로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에 따라 조선 후기 제1로에서 제9로까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8</sup>

제1로는 서북쪽 방향으로 돈의문(서대문)을 빠져나와 홍제천을 거쳐 의주(義州)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중국으로 가는 조선의 사신과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주로 왕래하는 길이기 때문에 흔히 사행로(使行路) 또는 연행로(燕行路)라 부르기도 한다. 이 도로는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 질서의 관점에서 보건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통하는 길목이었으므로 도로의 정비도 잘되어 있었으며, 중간 중간에 사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숙식 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주요 연결 노정은 한양 돈의문-홍제원-고양-파주-장단-개성-금천-평산-차령-금교-서흥-일수-봉산-동선령-사인암-황주-구현-중화-대동강-평양-순안-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주-의주로 이르는 길목이다. 남과 북이 연결되면 지금이라도 이 길을 따라 의주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이다.

제2로는 한반도의 동북쪽 방향으로 홍인지문(동대문)을 빠져나와 수유리 고개를 넘어 함경북도 서수라(西水羅)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북로(關北路)라고도 불렀다. 주요 연결 노정은 한양-다락원(樓院)-만세교-김화-금성-회양-철령-안변-원산-문천-고원-영흥-정평-함흥-북청-이성(利城)-마운령-마천령-길주-명천-경성-부령-무산-회령-종성-온성-경원-경흥-서수라이다. 오늘날은 남북이 분단되어 갈 수 없는 길이다.

제3로는 한양 홍인지문을 나가서 중랑포

조선 후기 전국 간선 도로망



(中梁浦)를 지나 양주(楊洲) 망우리(忘憂里)를 거쳐 동해안 평해(平海)까지 연결된다. 주요 연결 노정은 한성-망우리-평구역-양근-지평-원주-안흥역-방림역-진부역-횡계역-대관령-강릉-삼척-울진-평해이다. 오늘날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조선 시대의 제3로와 비교해 보면 지평까지는 국도와 일치하고, 원주부터는 고속도로와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제4로는 한반도의 동남 방향으로 한양 숭례문(남대문)을 나가서 한강을 지나 경기도 광주(廣州)와 판교(板橋)를 거쳐 부산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다. 주요 연결 노선은 한양-한강-판교-용인-양지-광암-달내(達川)-충주-조령-문경-유곡역(幽谷驛)-낙원역(洛原驛)-낙동진(洛東津)-대구-청도-밀양-황산역-양산-동래-부산이다.

제5로는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로서 숭례문을 지나서 유곡역까지는 제4로를 따라 가다가 유곡에서 갈라져 함창(咸昌)을 거쳐 통영(統營)까지 연결된다. 주요 연결 노정은 한양-한강-판교-용인-양지-광암-달내(達川)-충주-조령-문경-유곡역-함창-상주-비천-성주-현풍-상포진(上浦津)-칠원-함안-진해-고성-통영이다.

제6로는 남쪽 방향으로 숭례문을 나서서 동작진 혹은 노량진을 거쳐 미륵당을 경유하여 통영까지 연결된다. 주요 연결 노정은 한양-동작나루-과천-미륵당-유천(柳川)-청호역(菁好驛:수원)-진위-성환역(成歡驛)-천안-차령-공주-노성-은진-여산-삼례-전주-오수역(槲樹驛)-남원-운봉-함양-진주-사천-고성-통영이다. 만일 한강에서 노량진을 지날 경우에는 금천을 지나 미륵당에서 합류한다.

제7로는 숭례문을 지나 제6로를 따라 삼례(參禮)까지 가서 길을 바꾸어 금구(金溝)를 경유하여 관두량(館頭梁)에서 해로로 제주까지 연결되는 길이다. 따라서 뱃길을 같이 이용하게 된다. 주요 연결 노정은 한양-제6로-삼례역-금구-태인-정읍-장성-나주-영암-해남-관두량(館頭梁)-바닷길

(海路)-제주이다.

제8로는 서남 방향으로 송례문을 지나 제6로를 따라 소사(素沙)까지 가서 길을 바꾸어 평택(平澤)을 경유하여 보령(保寧)의 충청 수영(忠淸水營)까지 가는 도로이다. 주요 연결 노정은 한양-제6로-소사-평택-요로원(要路院)-곡교천(曲橋川)-신창-신례원(新禮院)-충청 수영이다.

제9로는 서쪽으로 향하는 길로서 돈의문을 지나 양화도를 경유하여 통진(通津)에 이르러 수로로 강화까지 연결된다. 주요 노정은 한양-양화도-양천-김포-통진-강화이다. 오늘날 강화도로 가는 길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전국의 주요 도로망은 대체로 오늘날의 주요 도로망과 유사하다. 현대에는 굴을 뚫고, 산을 깎아 인위적으로 빠른 직선 도로를 개설하지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구릉과 지형을 따라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옛길과 오늘날의 도로망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조선 시대가 전근대 사회였지만 자연적인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로망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무엇을 이용하여 어떤 물자를 운반하였을까

전국의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간선 도로가 있고, 간선 도로를 이용하여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었다.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 ?~1864)가 1862년(철종 12)에 혼자 힘으로 완성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보면 대로와 소로를 연결하는 작은 도로망이 무수하게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주요 도로에서 간선 도로를 이용하여 지방 내륙까지 소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물산을 대로까지 운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물자를 옮기는 데에 있어서 말이 수레보다 못

하고, 수레는 배보다 못하다.” 고 하였다. 즉 운송 수단으로 가장 뛰어난 것은 배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수레이며, 그 다음이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운반 수단은 인간의 육체노동이었다.

도로를 따라 물류를 이동할 때 적은 분량은 사람들이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상품을 유통하였다. 조선 말기에 등장한 보부상(褓負商)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보상(褓商)이란 머리에 상품을 이고 지역과 지역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부상(負商)이란 등짐을 지고 지역을 이동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 상인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물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부상들은 주로 남자들이 지게 등을 이용하여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등짐장수라 불렸으며, 부피가 큰 광주리나 향아리 혹은 무거운 소금 등을 거래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거래



경조오부(京兆五部)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첩』 중 제1첩에 삽입된 서울부근 지도이다.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간 도로망이 잘 드러나 있다.

하는 물목(物目)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먼 거리를 왕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보부상들이 조선 말기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기 전까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인근 고을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보따리장사꾼’이 대부분이었다.

사람이 대량의 물건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려면 물건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도구로 우리 머릿속에 흔히 떠오르는 것이 마차이다. 오늘날에도 시골에 가면 소가 끄는 마차가 있고, 사람이 끄는 리어카나 발동기를 이용한 경운기 등이 물건을 싣어 나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도구는 조선 시대에도 존재하였다.



수레는 조선 시대에 물류를 이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다. 세조는 “한양 여러 관아에서 사용하는 잡다한 물건의 짐을 운반하는 일과 지방의 역로(驛路) 가운데 험난한 길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짐을 운반하는 손수레를 사용하라.”<sup>39</sup>고 공조(工曹)에 명령하고 있다. 이 당시 짐을 운반하는 손수레를 편거(便車)라고 하였다. 이 손수레는 비교적 작은 수레로서 세 사람이 함께 앞에서 끄는 형태였다. 따라서 소나 말이 끄는 수레보다는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없었다. 또한 길이 좁고 울퉁불퉁하여 수레가 자주 부서졌다. 그래서 백성들은 물건을 등이나 머리에 이고 지고 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여 물건을 짊어지고 빈 수레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sup>40</sup>

그러다가 1683년(숙종 9)에 김석주(金錫胄)가 건의하여 10여 량의 거차(車子)를 만들어 국경 지대인 만주에서 처음 시험 운행을 하였다.<sup>41</sup> 그리고 3년 후에 남구만(南九萬)이 “영변(寧邊)에서 거차를 만들어 복물(卜物)을 실

보부상  
소유(小游) 권용정(權用正, 1801~?)이 함지박과 그릇을 지게에 지고 가던 상인이 잠시 쉬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조선 시대에 적은 분량의 물류 이동은 이와 같은 보부상이 담당하였다.

있더니 쇠마가(刷馬價)의 반을 절감하였다.” 고 하면서 수레를 만들어 운행할 것을 건의하였다.<sup>42</sup> 이 기록은 물건을 운송할 때 수레가 말보다 운송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영조 때 의주 부윤을 지낸 이현장(李顯章)의 상소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도로가 평탄한 의주로의 길목에 거자고(車子庫)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방물(方物)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고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는 짐바리를 실어 나르게 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폐지되었던 이 제도를 다시 실행하자고 하였다.<sup>43</sup> 이것은 숙종 이후 거자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자는 한양과 의주를 연결하는 도로, 즉 비교적 넓고 평탄하게 정비된 도로에서만 이용되었을 뿐 다른 도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크고 작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큰 수레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나 말이 풍족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당시 소는 주로 밭갈이와 논농사를 짓는 데 요긴한 것이었고, 말은 군사용으로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소나 말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다.

한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수레를 사용하여 물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백성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청나라를 다녀와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쓴 박지원은 “이곳에서 천한 물건이 저곳에서는 귀할 뿐더러 그 이름은 들어도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멀리 운반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방이 겨우 몇 천 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다지 가난함은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sup>44</sup>고 하여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물자 유통에 수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북학의(北學議)』를 지은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한양에서 수레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성문 앞과 저잣거리의 작은 도랑은 복개하고, 세로로 걸쳐 놓은 나

무다리는 가로로 하여 수레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sup>45</sup> 모두 수레의 장점을 살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조 때 대사헌을 지낸 홍양호(洪良浩)는 우리나라에서 수레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영남의 안동과 의성, 해서의 장연과 신천, 관북의 함흥 이남과 6진 제읍(六鎭諸邑)을 들고 있다. 나아가 수레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으로 “상인들의 물건을 수송하여 화폐를 유통시키고, 나라에 바치는 공물과 부세(賦稅)를 운송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말이 곤궁하지 않아 우역(郵驛)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기마(騎馬)가 넉넉하여 군사력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 하였다.<sup>46</sup>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안은 불편한 도로로 외적의 침입을 지연시키고 험준하고 높은 산봉우리에 성을 쌓아 적의 침입을 저지한다는 소극적인 국방 의식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였다.

조선 시대 큰 도로를 통해 많은 물자를 운반하는 것은 도로 여건상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방 마을 마을마다 거두어들인 쌀이나 면포 같은 직물류, 지방의 특산물 등을 한양으로 보내려면 소로 길을 따라 상품을 큰길까지 운송한 다음 다시 물길이 닿는 곳까지 옮겨 배를 이용하여 바닷길과 강물 줄기를 따라 한양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수단이었다. 다만 상품을 배가 있는 곳까지 옮길 때 가장 많이 쓴 수단은 말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수레가 다니기에는 불편하므로 온 나라의 장사치는 모두 말에다 화물을 싣는다. 그러나 목적인 곳의 길이 멀면 노자(路資)가 많이 허비되어 소득이 적다. 그러므로 배에다 물자를 싣어 옮겨서 교역하는 것이 이익이 더 좋다.”<sup>47</sup> 고 하였다. 결국 말에 싣고 물가까지 상품을 운송한 뒤에 배를 이용해 먼 지역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로를 따라 운송되었던 물품은 다양하였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衣食住) 관련 모든 물품이 길을 따라 운반되었다고 해도 지



#### 장터길

김홍도가 장사에서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말을 타고 줄지어 다음 장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대개 상인들은 상품을 소나 말에 싣고 뒤편에 가는 사람들은 상품을 이거나 지고 각 지역의 장시를 돌아다니며 장사하였다.

나친 말이 아니다. 다만 어느 것이 가장 주된 물품이었는가와 함께 실제적인 운송 여건이 어떠하였으며, 상인들이 상품으로 운송한 품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조선 시대 길을 따라 운송하는 물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가에 바치는 세곡과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각종 공물이었다. 나라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한양으로 운송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은행을 통해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대부분 면포나 미곡 등 현물(現物)이었기 때문에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세곡이나 면포 같은 현물은 부피가 크고 양이 많아 수레를 이용하여 지방에서 한양까지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개인이 내는 세곡이나 공물을 가까운 해안가나 강가까지 가져다가 놓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인 세곡이나 공물을 해안가나 강가에 쌓아 놓았다가 큰 배를 이용하여 바닷길과 강의 물길을 따라 한양으로 운송하였던 것이다.

또한 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상품도 도로를 따라 많은 양의 현물을 운송하기에는 교통 여건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부득이 길을 따라 상품을 운반해야 할 경우에는 소나 말에 상품을 싣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상품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각 지역의 장시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지방의 상품 유통은 장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인들이 소량의 상품을 소나 말에 의지하여 운송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물길은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상품 유통에서 도로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수로였다. 그 리하여 조선 시대 지역과 지역 간의 상품 유통에서 그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 것은 수로의 배를 통한 운송이었다. 우리나라에는 한강을 비롯하여 낙동강·금강·대동강·영산강 등 많은 물줄기가 있다. 이들 수로는 도로에 비하여 운송 시간을 단축하여 물류를 이동할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운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도 종종 이용하였다. 나아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과 내륙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이들 수로를 통해 활발하게 유통됨으로써 국가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었다.

한강은 한양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충청도를 모두 연결하고 있으며, 대동강 주변에서는 평양에 거주하는 객주들이 막대한 물화를 교역하였다. 또한 낙동강 연안에는 약 10리마다 나루터가 있어 이곳을 중심으로 객주들이 활발하게 활약하였으며, 이들을 특별히 도박 객주(到迫客主)라 불렀다. 그리고 군산항을 통하여 내륙으로 들어간 금강 일대의 최대 중심지인 강경은

평양·대구와 아울러 조선의 3대 시장을 이룰 정도로 활발한 물류 유통이 이루어졌다. 영산강 상류의 나주·남평 등에서 영산포를 거쳐 목포항에 이르는 수로에서는 나주의 객주들이 상품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킨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수산물이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 전라도와 충청도 내륙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대규모로 교환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편 바닷길을 통해서도 물품이 운송되었다. 동해안은 바다 수심이 깊어 함경도와 강원도 영동 지역, 그리고 경상도 지역을 연결하는 해안가를 따라 물류가 이동되었다.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남해안과 서해안을 경유하여 한양으로 왔다.

이제 수도 한양과 연계되는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의 수로 관리와 운영, 배의 종류와 규모, 상품을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한 나루와 상품 보관을 위한 창고의 설치, 수로를 통해 운송된 상품의 종류 등을 살펴보자.

조선 정부는 수로를 통해 좀 더 안전한 물류 운송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물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세곡이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최대의 관심거리였다. 특히 세곡의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람을 임명하였다.

바다에서 세곡을 운송할 때는 각 관리마다 담당 업무를 분장하여 주었다. 전라도에서 백성들에게 거둔 세곡을 한양으로 운반해 오는 과정에 대하여 대신들이 의논하는 기록에 의하면 해운 판관(海運判官)은 배의 손질과 세곡을 운송할 군사를 점검하고, 관찰사는 차사원(差使員)을 정해서 세곡을 배에 나누어 싣고, 수군 절도사는 세곡을 배에 싣는 과정을 감독하고, 우후(虞侯)는 세곡을 싣은 배를 충청도까지 호송하고, 압령 만호(押領萬戶)는 조를 짜서 직접 뱃길을 지휘하여 인솔하였다.<sup>48</sup> 이러한 업무 분담은 만일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도성지삼강도(自都城至三江圖)  
1750년대에 도성에서 삼강 곧 한강(漢江)·용산강(龍山江)·서강(西江)에 이르는 지역을 그린 지도로 한강의 나루가 잘 나타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강을 통한 물류 운송을 중시하여 초기부터 수참을 두어 담당 지역을 나누어 관리하였다.

강을 통한 물류 운송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는 1395년(태조 4) 서울 용산에서 충주 금천(金遷)까지 한강 줄기 연안 7곳에 수로 전운소(水路轉運所)를 설치하고 완호 별감(完護別監)을 파견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선박 15척과 뱃사공 30호를 예속시켜 세곡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sup>51</sup> 이들 수로 전운소는 1414년(태종 14) 수참(水站)으로 명칭이 바뀌고 책임자도 수참 전운 별감(水站轉運別監)이라고 불렸다.<sup>50</sup> 당시에 설치된 일곱 곳의 수참은 충주의 금천, 여주의 여강(驪江), 천령(川寧)의 이포(梨浦), 양근(楊根)의 사포(蛇浦), 광주(廣津)의 광진(廣津), 그리고 한강도(漢江渡)와 용산진(龍山津)이었다. 한양의 한강나루와 용산나루 그리고 광나루 세 곳을 제외하면 남한강 유역에 네 곳의 수참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임무는 내륙에서 육로를 통해 모은 세곡을 선박을 이용하여 한양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신의 관리 구역에서 세곡선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강가에 쌓이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순조롭게 수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 감독하였다.

수참은 1390년(공양왕 2) 정몽주(鄭夢周)의 건의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

다.<sup>51</sup> 조선 시대의 수참은 담당 지역도 나뉘어 있었다. 한강 하류 지역은 우수참(右水站)에서, 한강 상류의 남한강과 북한강은 좌수참(左水站)에서 담당하였다. 수참에는 20명의 수부(水夫)가 배치되어 10명씩 교대로 근무하다가 태종 때 30명으로 늘렸다.<sup>52</sup> 이들은 수참이 위치한 지역의 강변에 살고 있는 양인(良人)들로 충당되었다. 수부들은 처음에는 수참간(水站干)으로 불렸다. 그러나 점차 비첩(婢妾) 소생들이 소속된 사재감(司宰監) 수군들이 수참간에 충당된 후로는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인의 취급을 받았다. 이에 태종 때 과천과 충주 사이의 수참간들이 모여 자신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자 정부는 이들을 수부로 바꾸어 수군과 분리하였다.<sup>53</sup>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분은 비록 양인이지만 맡은 일은 사회적으로 천인으로 여기는 신량역천(身良役賤)의 존재가 되었다.

### 물자를 운송한 배의 크기는 바다와 강이 달랐다

수로를 통한 상품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 운송을 위한 배이다. 『경국대전』에는 물류 운송에 필요한 배의 규모를 대·중·소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또한 수로에서 필요한 강선(江船)과 바다에서 필요한 해선(海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환경에 맞는 배의 규격을 정하였다.<sup>54</sup> 그 후 조선 후기에 이르면 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강에서 세곡을 운송하는 배를 참운선(站運船)이라 불렀다.<sup>55</sup> 그것은 각각의 실정에 맞추어 배를 운용하기 위함이었다. 즉 바다는 넓고 깊으면서 물의 흐름이 완만하지만 강은 바다에 비해 폭이 좁고 깊이는 얕으며 물의 흐름이 빨라 각기 배의 형태가 달라야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한강에서 세곡을 나르던 배는 밑바닥이 좁고 길이가 길어 빠른 물살과 좁은 강폭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반해 바다의 배는 밑바닥이 넓고 평평하며, 상대적으로 길

이는 짧아 깊은 물에서 좀 더 안정성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조선 초 남한강 수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주로 작은 배를 이용하여 세곡을 운송하였다. 그러나 한강 수로를 정비한 이후인 1424년(세종 6)부터는 큰 배와 중간 배를 함께 이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중간 배와 작은 배를 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6</sup> 그렇다고 해서 확일적으로 중간 배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강폭의 넓고 좁음과 수심의 깊고 낮음에 따라 작은 배와 중간 배를 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에 실을 수 있는 세곡의 양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는 세종 때 의정부에서 올린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지금부터는 길이 50척에 넓이 10척 3촌 이상의 배는 큰 배로 인정하여 미곡 250석을 싣게 하고, 길이 46척에 넓이 9척 이상의 배는 중간 배로 인정하여 미곡 200석을 싣게 하며, 길이 41척에 넓이 8척 이상의 배는 작은 배로 인정하여 미곡 130석을 싣게 하소서.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되, 만약 수량 외에 더 싣는 사람은 관리도 아울러 논죄하도록 하소서.<sup>57</sup>

강에서 운행하는 세곡선 가운데 가장 큰 배는 최고 쌀 250석을, 중간 배는 200석을, 작은 배는 130석을 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리하여 더 많은 양을 실을 경우 배가 좌초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이상은 싣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남한강에서는 1426년(세종 8) 이후 일반적으로 중선이 이용되었으므로 200석의 세곡을 실은 배가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운선  
『각선도본(各船圖本)』에 실려 있는 조운선의 그림이다.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으로 곡물을 한양으로 실어 나르던 배이다.

## 나루에 신흥 도시가 생겨나다

조선 시대 한강에는 오늘날과 같은 다리가 없었다. 따라서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배를 이용해야만 하였고, 강가 마을이 밀집한 곳에는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나루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나루 인근에는 늘 많은 사람이 붐볐고, 교통의 요지로 정착되면서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갔다. 한양의 송파나루가 대표적이다.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한강을 건너기 위해 자연히 송파나루 인근에 몰려들었고, 인구가 몰리다 보니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주막(酒幕)이 필요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물건을 팔고 사는 장시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송파장은 한양 근교의 장시 가운데 가장 번성하였으며,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그만큼 나루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매우 다양하였다. 인구가 많이 모이는 나루는 신흥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나루는 일반적으로 강폭의 넓고 좁음에 따라 도(渡)·진(津)·제(濟)·섬(涉) 등의 용어로 불렸고, 도와 진이 가장 많이 쓰였다. 이러한 도와 진은

### 송파진

겸재(謙齋) 정선(鄭 愼, 1676~1759)이 송파나루의 전경을 그린 진경산수화이다. 관청으로 보이는 기와집 건물과 초가집 건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한강에는 배 한 척이 떠 있다.



고려 시대에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예를 들면 한강의 사평도(沙平渡) · 양화도(楊花渡), 예성강의 벽란도(碧瀾渡), 임진강의 하원도(河源渡), 한강의 노량진(露梁津) · 광진(廣津), 대동강의 관선진(觀仙津) 등이 그것이다.

조선 초에는 도를 관할하는 책임자로 도승(渡丞)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였다.<sup>58</sup> 또한 나루의 규모에 따라 근무하는 진부(津夫)와 소속된 배의 크기 및 수량에 차이를 두었다. 즉 큰 도로와 연결되는 나루에는 10~20결(結)의 토지와 10~15명의 진부, 15척의 배를 주었고,<sup>59</sup> 중간 도로와 연결되는 나루에는 3결의 토지와 3명 내외의 진부가 있었다. 국가에서는 주로 큰 도로와 연결되는 나루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중간 도로 이하의 나루에는 관리 책임자를 파견하지 않았다. 국가에서 나루를 관리한 것은 교통로의 안전한 확보와 함께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범죄자들의 이동을 막는 검문검색이 용이하였고, 은밀한 상품의 밀거래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의 기찰(讞察)은 매우 엄하여 일반 서민은 주로 중간 도로 이하와 연결된 나루를 이용하여 기찰의 피해를 덜 입었다.

그러면 조선 시대 한강에 있었던 나루는 어느 정도였을까? 『세종실록지리지』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에 의거하여 조선 시대 남한강변의 나루 분포를 살펴보면 표 ‘남한강변 나루 분포’ 와 같다.

남한강변에 있던 나루는 사료에 따라서 명칭이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여러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루는 쓰임새나 규모가 다른 곳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 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세곡 운송이나 상품 거래 및 인구의 이동이 편리하였던 것이다. 나루의 존재는 지역과 지역 간의 교통로로 인구 이동에 의한 정보의 전달, 상품 왕래로 인한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일조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남한강변 나루 분포

| 지명 | 세종실록지리지               | 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대동여지도                                                 |
|----|-----------------------|------------------------------------|---------------------------------------------------------------------------------------|-------------------------------------------------------|
| 정선 |                       |                                    | 광탄진(廣灘津)                                                                              |                                                       |
| 영월 | 가근동진(加斤同津)            | 후진(後津),<br>밀적포(密積浦)                | 청령포(淸冷浦)                                                                              | 청령포                                                   |
| 평창 | 연화진(漣火津),<br>용연진(龍漣津) | 연화진, 용연진,<br>남진(南津),<br>마지진(麻池津)   | 연화진, 용연진,<br>남진, 마지진                                                                  | 주진(周津), 남진(南津),<br>마지진(麻之津),<br>사천진(沙川津),<br>진천진(津川津) |
| 단양 | 상진(上津)                | 상진, 하진(下津)                         |                                                                                       | 상진, 하진                                                |
| 제천 |                       | 북진(北津)                             |                                                                                       |                                                       |
| 충주 | 덕천진(德川津)              | 북진(北津), 진포(辰浦)                     |                                                                                       | 청룡진(靑龍津),<br>하진(荷津),<br>달천진(達川津), 진포                  |
| 괴산 |                       | 괴진(槐津)                             | 괴진                                                                                    |                                                       |
| 영춘 |                       | 남진(南津)                             | 남진, 북진(北津)                                                                            | 북진                                                    |
| 영동 |                       | 고당진(高唐津)                           | 심천진(深川津)                                                                              |                                                       |
| 청풍 | 북진(北津)                | 북진                                 | 황강진(黃江津)                                                                              |                                                       |
| 원주 |                       |                                    | 주천진(酒泉津), 안창진(安昌津),<br>사천진(沙川津), 이호진(梨湖津),<br>묘연진(猫漣津)                                |                                                       |
| 여주 |                       | 이포진(梨浦津),<br>우만포(禹萬浦),<br>진강도(鎭江渡) | 흔암진(欣巖津), 단암진(丹巖津),<br>관진(官津), 어양진(漁楊津),<br>양화진(楊花津), 이포진,<br>구미포진(龜尾浦津),<br>양덕진(仰德津) | 이포, 신진(新津),<br>양암진(仰巖津)                               |
| 양평 | 사포진(蛇浦津),<br>용진도(龍津渡) | 용진도                                | 용진도                                                                                   | 갈산진(葛山津),<br>수청진(水靑津)                                 |

## 물류 저장을 위해 창고를 설치하다

수로를 이용한 물류 이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쌀이다. 한양의 경우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곡과 양반 소유 농토에서 생산한 곡식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쌀은 매매에 의해 충당할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쌀 운송은 한양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중요한 물류 운송의 중심에 수로 운송이 있었다.

그러나 배를 이용한 쌀 운송에는 다양한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전국 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들로 인해 배를 이용한 세곡 운송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sup>60</sup> 또한 우리나라의 연안은 다도해라서 항로의 사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조류가 험하여 배가 좌초되거나 난파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즉 1395년(태조 4)의 경상도 조선 14척, 1403년(태종 3)의 경상도 조선 34척, 1414년(태종 14) 전라도 조선 66척, 1455년(세조 1) 전라도 조선 54척 등의 침몰은 조정의 관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sup>61</sup>

이에 정부는 다른 방안을 만들어 냈다. 경상도의 쌀은 육로를 따라 죽령의 험준한 길을 넘어 충주까지 운송한 다음 충주부터 한양까지는 한강을 이용하였다. 충청도와 강원도에서도 마을마다 쌀과 곡물을 수합하여 육로를 통해 한강의 수로가 닿는 곳까지 옮겼다. 그리하여 한강 연안에는 각 고을에서 거두어들이는 쌀과 곡물을 한양으로 운송하기 이전까지 보관해야 할 장소가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강 연안에 독을 쌓아 놓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경비를 썼다. 그러나 침승들에 의해 유실되는 양이 많아지고, 습기가 많고 비를 맞으면 곡물이 상하기도 해 근본적으로 창고를 지어 보관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창고의 정비는 15세기에 확립되었다.

『경국대전』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시대의 조창(曹倉)과 미곡을 거두어들이는 지역 및 조창에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 수를 살펴보면 표 ‘조선 시대의 조창과 수세 지역(15세기)’과 같다.

한양의 경창(京倉)으로 직접 납부하는 미곡은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일원에서 생산되는 것뿐이었다. 나머지는 우선 수로와 가까운 마을의 창고에 미곡을 보관하다가 조창이 있는 충주·원주·춘천·배천·강음 등지로 운송 보관하였다. 그리고 해운의 경우에도 충청과 전라도 지역의 고을 창고

### 조선 시대의 조창과 수세 지역(15세기)

| 구분    |       | 조창명       | 각 조창의 수세 지역                                                                                                                  | 선박수 |
|-------|-------|-----------|------------------------------------------------------------------------------------------------------------------------------|-----|
| 직접 납부 |       | 경창(한성)    | 경기도와 강원도의 준양·금성·김화·평강·이천·안협·철원                                                                                               |     |
| 참운    | 좌 수 참 | 가흥창(충주)   | 경상도와 충청도의 충주·음성·괴산·청안·보은·단양·영춘·제천·진천·황간·영동·청풍·연풍·청산                                                                          | 51척 |
|       |       | 흥원창(원주)   | 강원도의 원주·평창·영월·정선·횡성                                                                                                          |     |
|       |       | 소양강창(춘천)  | 강원도의 춘천·홍천·인제·양구·낭천(화천)                                                                                                      |     |
|       | 우 수 참 | 금곡포창(배천)  | 황해도의 해주·연안·풍천·신천·장연·문화·강령·웅진·송화·장련·은율·배천                                                                                     | 20척 |
|       |       | 조읍포창(강음)  | 황해도의 강음·황주·서흥·평산·봉산·곡산·수안·안악·재령·신계·우봉·토산                                                                                     |     |
| 해운    |       | 공세곶창(아산)  | 충청도의 아산·서산·한산·연산·임천·정산·공주·홍주·신창·결성·보령·전의·청양·니산·대흥·석성·해미·태안·천안·비인·은진·목천·면천·연기·덕산·서천·직산·홍산·부여·염포·예산·당진·평택·온양·청주·문의·회덕·진잠·옥천·회인 | 60척 |
|       |       | 덕 성 창(용안) | 전라도의 용안·전주·임실·남원·임피·김제·장수·금구·윤봉·익산·만경·여산·금산·진산·태인·옥구·진안·고산·무주·함열                                                             | 63척 |
|       |       | 법 성 창(영광) | 전라도의 영광·흥덕·옥과·부안·함평·진원·담양·무장·장성·정읍·곡성·창평·고부·순창·고창                                                                            | 39척 |
|       |       | 영 산 창(나주) | 전라도의 나주·순천·강진·광산·진도·낙안·광양·화순·남평·동복·흥양·무안·능성·영암·보성·장흥·해남                                                                      | 53척 |

에 보관하다가 수로를 이용해 해운이 가능한 아산·용안·영광·나주 지역의 조창으로 운송하여 보관하였다. 조창에 보관된 미곡은 한강의 경우 봄에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운송하였다. 해운은 바다의 풍랑을 고려하여 서해안 바닷길을 통해 강화도를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용산의 경창에 미곡을 납부하였다.

이들 밖에 평안도와 함경도는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한양으로 보

내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였다. 중국과 조선을 오가는 사신들이 이곳을 거쳐 가므로 이들을 접대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하삼도(下三道)에 비해 산출되는 미곡의 양도 많지 않아 한양으로 운송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큰 창고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각 읍마다 자체의 미곡을 수납하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창고는 대부분 운송에 편리하도록 교통의 요지나 물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각각의 창고에 보관된 미곡은 대개 조세미로 한양으로 보냈지만 각 고을에서 필요로 하는 군자미(軍資米)나 진휼미(賑恤米) 등에도 사용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충청도 일원에서 가흥창에 조세미를 내는 지방의 경우 음성(陰城)과 괴산(槐山)에는 동고(東庫)·서고(西庫)·남고(南庫), 청안(淸安)에는 창곡군자창(倉穀軍資倉), 보은(報恩)은 저치고(儲置庫)·관수고(官需庫), 영춘에는 동창(東倉)·서창(西倉), 단양에는 북창(北倉)·진창(賑倉)·군자창(軍資倉)·상평창(常平倉), 제천에는 읍창(邑倉)·저치고·주포창(周浦倉)·원서창(院西倉)·전대동봉상고(田大同捧上庫), 진천에는 누상고(樓上庫), 황간에는 읍내창(邑內倉)·상촌창(上村倉)·남면창(南面倉)·대동고(大同庫)·공고(工庫)·군기고(軍器庫), 영동에는 읍창·용화창(龍化倉), 청풍에는 읍창·남창·북창·서창, 연풍에는 읍창·유창(柳倉)·수면창(水面倉), 청산에는 내현창(內縣倉)·외말성창(外末城倉)·대동고·위판고(位板庫)·군기고 등의 창고가 있었다.

## 물류 이동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다

남한강을 통해 충주와 원주 등지에서 한양으로, 혹은 한양의 경강에서 반대로 남한강 상류까지 갖가지 상품이 배를 통해 거래되었다. 물품만 거래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였다. 이들 수운 대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조세 운반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밖에 남한강을 통해 유통된 상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1426년(세종 8) 남한강 수운의 책임자인 좌도 수참 전운 판관(左道水站轉運判官) 안상진(安尙縝)은 수참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남한강을 통해 운반되는 대상물이 많아 수부(水夫)들의 고충을 심하다고 주장하였다.

수부와 전운 노자(轉運奴子)는 해마다 얼음이 풀려 다시 얼음이 얼 때까지, 집이 멀고 가까운 것도 상관하지 않고 농사를 폐하고 양식을 싸 가지고 와서는 녹전(祿轉)과 잡공(雜貢)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왜객(倭客)의 왕래, 여러 섬의 갈대와 물억새, 별요(別窯)의 토목 등까지 운반하게 되니, 운반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달아나는 자가 펍 많습니  
다.<sup>62</sup>

이 기록으로 수운을 통해 조세 이외에도 각 지방에서 산출되는 공물을 운반하였고, 남한강 상류에서 산출되는 갈대와 억새, 그리고 산악 지대에서 벌목한 나무도 운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채집되는 약초를 수로를 이용하여 한양의 제생원(濟生院)과 혜민국(惠民局)에 바쳤으며,<sup>63</sup> 삼남 지방에서 모아들인 소목(蘇木) 5,000근을 충주에서 한양으로 일괄 수송하기도 하였다.<sup>64</sup> 또한 1423년(세종 5)에는 금사사(金沙寺)에 있던 진언대장경(眞言大藏經), 영통사(靈通寺)에 있던 화엄경(華嚴經)의 판본, 운암사(雲巖寺)의 금자삼본화엄경(金字三本華嚴經) 1부와 금자단본화엄경(金字單本華嚴經) 1부를 운송하기도 하였다.<sup>65</sup>

특히 남한강을 통해 왕래되는 물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소금이다. 소금은 해안에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즐겨 먹는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식품이다. 그런데 내륙 지방에서는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워 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 교통

로가 바로 남한강이다. 세조 때 대신들이 논의한 내용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강원도 영서 지방은 소금이 매우 귀하니, 경기도의 회계에 들어 있는 소금 800석을 참선(站船)을 사용하여 운송하고, 강원도 회계에 들어 있는 소금 200석을 여러 고을로 하여금 차례차례 인제·양구·홍천·춘천·원주·정선 등지에 옮겨 나누어 주어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서 우대하여 지급하고 재목과 교환하여 조선소로 수송하여 배를 만들게 하소서.<sup>66</sup>

소금의 유통은 전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해로를 따라 경강에 집결되었다가 다시 수로와 육로를 통해 지방으로 분산되는 구조였다. 한양에는 소금을 판매하는 염전(鹽廩)으로 경염전(京鹽廩)·마포염전(麻布鹽廩)·용산염전(龍山鹽廩)이 있었다. 모두가 한강을 끼고 자리 잡고 있었다. 시전을 중심으로 한 유통 체계는 소금 상인이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에서 생산된 소금을 싣고 와서 경강의 여객 주인에게 넘기고, 여객 주인은 이를 다시 구매 독점권을 가진 시전 상인인 염전에게 넘기고, 시전 상인은 직접 소비자에게 팔거나 중도아에게 넘겨 한 단계의 유통 구조를 더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 한양의 소금 값은 대체로 시전 상인이 좌우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방에서 소금을 싣고 한양에 온 소금 상인들은 한양 시전 상인들이 독점권을 빌미로 소금 가격을 시가의 절반 이하로 책정하는 등의 폐단을 일으키자 내수사(內需司)에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고 보호를 받으려고 고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시전 상인들에게 수세권(收稅權)만을 인정하고, 소금 상인이 일정한 세금을 내면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경강 일대에는 소금 하역을 전업적으로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임금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양반가와 부호들이 소금 유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는 강을 거슬러 배로 수송하거나 육지로 행상이 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였다. 수로로는 한강을 비롯하여 대동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을 따라 내륙 깊숙이 소금을 운반하여 매매하였다. 특히 낙동강 변에서의 소금 유통은 상인의 사사로운 판매를 금지하고 통영(統營)에서 전적으로 독점하여 소금 값이 10냥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영조 때 암행어사로 전국을 돌아본 이시수(李時修)는 김해 관청에서 직접 4,500냥을 종자돈으로 소금을 사서 강가에 있는 고을에 팔아 2만 냥을 벌었으며, 그 가운데 반이 하급관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고하고 있다.<sup>67</sup>

한편 남한강 변에 있던 조선 시대 주요 장사에서 거래된 물품을 통해서도 당시 한강을 통해 유통된 상품이 어떠한 것인지 참고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국 각 군현별로 대표적인 장시 325곳에서 교역되고 있었던 물품들을 수록해 놓은 『임원경제지』를 통해 살펴보면 표 ‘남한강 유역 주요 장시 거래 품목’과 같다.

남한강 유역에 있는 큰 장시의 주요 거래 품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쌀과 직물류,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등장한 연초, 생선과 소금, 과일 등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거래하는 품목이다. 다만 여주는 사기(沙器)와 부정(釜鼎)이, 원주는 토기(土器)와 소(牛), 충주는 소와 돛자리, 양근은 돛자리 등이

남한강 유역 주요 장시 거래 품목

| 지역 | 장시       | 거 래 품 목                                                              |
|----|----------|----------------------------------------------------------------------|
| 양근 | 사탄장(沙灘場) | 쌀, 면포, 마포, 과물(果物), 어염(魚鹽), 연초, 석자(席子)                                |
| 여주 | 부내장(府內場) |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과물, 어염, 연초, 치계(雉鷄), 부정(釜鼎), 사기(沙器), 목물(木物), 지지(紙地) |
| 원주 | 주내장(州內場) | 쌀, 면포, 면화, 마포, 과물, 어염, 연초, 철물(鐵物), 우독(牛犢), 지물, 토기                    |
| 충주 | 내창장(內倉場) |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과물, 어염, 연초, 우독, 명주, 석자                             |



동래부사접왜사도 부분

정선이 그렸다고 전하는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10폭 중 8~10폭 부분이다. 오른쪽은 일본 사신이 객사(客舍)의 뜰 아래에서 조선 국왕의 전패(殿牌)에 절하는 장면이고, 왼쪽은 연향대청(宴享大廳)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장면이다. 조선 전기에 일본에서 온 사신은 충주에서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한양으로 들어 왔다.

각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품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에는 일본 사신도 남한강 수로를 타고 한양에 도착하였다. 조선 초기에 왜인들은 부산포·염포·내리포 등 이른바 삼포(三浦)를 통해 조선에 들어왔다.<sup>68</sup> 삼포에 도착한 왜인들은 한양까지 육로나 수로를 이용하였다. 수로를 이용한 경우를 보면 부산포와 내리포로 입국하였을 때는 양산과 김해에서 창녕-선산-충주-광주-한양의 경로로 이동하였고, 염포로 입국하였을 때는 경주-단양-충주-광주-한양의 경로를 밟았다.<sup>69</sup> 부산포와 내리포에서 수로를 타고 한성까지 가는 시간은 대략 19~21일가량이 걸렸고, 염포에서 한양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 간에 중간 기착지는 충주였고, 이곳에서 남한강 수운선을 타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세종 때는 남한강 변의 수참에서 왜인의 내왕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가 번잡하여 수부들을 다른 잡역에서 제외시켜 주자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왜인의 왕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70</sup>

지금까지 조선 시대에 수로를 통해 유통된 상품은 미곡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였고, 일본 사신의 왕래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물류 운

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작업장을 떠나는 자가 속출하였던 것이다.

상인들은 강원도 산간 내륙으로 소금을 운송하고, 산간 내륙에서는 한양에서 궁궐 신축 등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로 하는 목재를 벌목하여 한양으로 운송하였다. 일반적으로 물길과 물길이 만나는 곳과 육로가 함께 닿는 곳은 교통의 요지로서 예로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고, 자연스럽게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

남한강 줄기에서는 충주와 목계·금천·원주·여주 등지가 이에 해당한다. 충주는 남한강과 달천이 만나는 요지로 한양에 근거지를 둔 사대부들이 정자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여들어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시장 사람들은 편리한 물길과 육로를 이용하여 동남쪽으로 영남의 물화를 받아들이고 서북쪽으로 한양과 생선 및 소금을 교역하면서 이익을 취하였다. 충주의 내창장(內倉場)도 큰 시장으로 지역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다. 조창이 있던 가흥은 많은 세곡과 인파가 모여들어 일찍부터 숙박업소인 객주업(客主業)이 발달할 정도였다.

금천도 충주와 유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화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근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민가가 마치 빗살처럼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 한양의 강 마을과 흡사하다.” 고 할 정도였다. 또한 원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한강 하류의 목계도 생선배와 소금배가 정박하고 외상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동해의 생선과 영남 산골의 물화가 모두 여기에 모여들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목계장뿐만 아니라 여주의 이포장, 광주의 송파장 등도 남한강의 물줄기를 이용한 상품 거래로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이었다.<sup>71</sup>

결과적으로 남한강 변에 자리 잡고 있던 강변 마을은 물길을 이용한 물품 교역을 토대로 도시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은 객주업이나 상인 및 주막 등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 경제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전근대 사회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장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 것은 수로 유통이었다. 곧 수로는 각 지방으로의 원활한 상품 유통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교역을 통한 상품 화폐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나아가 상품의 균등한 지역적 분배로 국가 경제 생활의 향상에도 일조하였던 것이다.

〈이상배〉





제3장

# 개항기 상업 발달과 대외 무역

1\_ 개항기 상업계의 변화

2\_ 개항장의 발달과 도시의 거상들

3\_ 객주의 활동과 외국 상인의 침투

4\_ 대외 무역의 전개와 국내 산업의 변화

# 1 개항기 상업계의 변화

## 상업계의 동향과 상업관의 변화

개항 이전 우리나라의 상업 체계는 한마디로 도고(都庫) 상업 체제라 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시전 상인(市廛商人) 등 일부 특권 상인과 사상층(私商層)에 의한 독점적 상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들은 당시 대표적 자본가로 성장·발전하고 있었다.

문호 개방이라는 새롭고도 뜻하지 않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국내의 상업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변화의 주된 양상은 도고 상업 체계의 해체 작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개항 이전에도 도고 상업의 문제점과 반도고론이 대두되었지만, 도고 상업 해체론은 개화와 정치 세력에 의해 계승되어 이들이 추진한 경제 정책의 주요 사항이 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개화파가 내놓은 14개 정강 가운데 ‘해상공국혁파사(惠商公國革罷事)’가 있다. 해상공국은 1883년에 조직된 보부상(裸負商) 단체이다. 추진 세력은 보수와 정치인이었던 민태호(閔台鎬), 민영익(閔泳翊), 이조연(李祖淵) 등이었다. 자유 상인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할 의도 아래 특권 상인 단체로 발족시킨 것이었다. 아울러 해상공국에

속해 있는 보부상들을 이용하여 개화파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해상공국의 폐지 주장은 기왕의 특권 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좀 더 근대적인 경제 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화파의 주요 인물이었던 박영효(朴泳孝)도 정변 실패 후 일본 망명 때에 임금에게 올린 ‘개화에 대한 상소’에서 도고 상업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대표적 개화 사상가였던 유길준(兪吉濬) 역시 정부가 상인을 보호하고 상업을 발달하게 하는 길은 공정성 확립과 도로 수리를 통한 교통의 원활과 편리에 있지 상인에게 특권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개화파에 의한 도고 상업 해체 움직임과 함께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개항 후 국내 상업계에 침투하여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외국 상인 자본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국내 도고 상인들에 의해 여러 피해를 받고 있었다. 한국의 생산품을 수입한다거나 자국 물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던 것이다.

외국 상인 세력에 가장 크게 피해가 되었던 상인은 육의전(六矣廛) 상인이었다.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은 1791년(정조 15)의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비롯한 몇 차례의 통공 정책에 의해 상실되었다. 그러나 육의전은 통공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개항 이후에도 육의전의 도고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개항 초기에는 외국 상인, 특히 일본 상인의 진출이 개항장에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의전과 일본 상인 간의 직접적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점차 외국 상인이 서울 시내까지 침투해 옴에 따라 충돌이 빚어지기 시작하



민영직  
초기에는 개화파 인사들과 가까웠으나, 1883년 보병사로 미국을 다녀온 후 수구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유 상인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개화파를 견제하기 위하여 민태호, 이조연 등과 함께 보부상 단체인 해상공국을 발족시켰다.

였고, 상권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결국 갑오개혁을 계기로 육의전에 대한 특권 옹호책도 무너지게 되었고, 일본 상인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한편 도고 상업 체제에 대해서는 기왕의 특권 상업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유발, 촉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많이 일고 있었다. 갑오개혁을 계기로 육의전에 대한 특권 해제 조치가 내려지긴 하였지만, 육의전이 갑자기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독립신문(獨立新聞)』이나 『황성신문(皇城新聞)』 같은 언론에서는 논설을 통하여 정부가 상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상인의 편의에 맞기는 방법밖에 없다 하여 자유 상업 체제를 강조하였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자유 상업 체제의 강조를 부강의 기초로 파악하였고, 국가가 부유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개항 무렵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박규수(朴珪壽)는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이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이루었다면 일본의 무력시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탄하였던 것이다.<sup>1</sup>

#### 황현 초상

성균관 생원으로 지내다가 갑신정변 이후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환멸을 느껴 벼슬하기를 단념하고 귀향하였고, 1910년에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하자 망국의 울분을 안고 자결하였다. 그는 당시 수입품 가운데 열에 아홉은 가공품이고 수출품 가운데 열에 아홉은 천연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



문화 개방 이후 20여 년 동안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거치면서 경제 분야에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낀 부분은 근대적 공업을 진흥시키는 것이었다. 외세의 침투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자율적이면서 근대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업의 육성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서구 자본주의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면직물과 같은 생활필수품이 농촌 지역에만 침투해 들어가고, 그 결과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결국 국가 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수출품은 모두 곡물이나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수입품은 가공품이 주류였다. 황현(黃玄)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당시 수출입 물품의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외화(外貨)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10 중 사람이 만든 것이 9이며,  
아화(我貨)로 나가는 것은 10 중 천산(天產)이 9이다.<sup>2</sup>

이러한 사정은 결국 생활필수품부터 국내 생산품으로 자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공업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게 하였다. 또한 일상 생활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소비 성향이 증가하고 아울러 미곡류, 금, 은 등 국내 산물이 대거 유출되자 물가가 앙등하는 현상도 초래되었다.

당시 신문들도 공업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공업에 대한 수탈 방지, 공업의 기계화, 주식회사 형태의 제조 회사 설립 등을 강조하였다. 제조 회사로서는 잠업 회사, 직포 회사, 연초 회사 등을 시급히 설립해야 할 예로 들었다. 또한 국내 자본이 부족할 경우에는 외국인과의 합자(合資)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1897년 대조선 저마 제사 회사(大朝

서재필

김옥균 등과 일으킨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과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고, 후에 귀국하여 독립 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그는 1897년 대조선 저마 제사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회사 경영에 다른 내국인, 외국인과 함께 참여하였다.

鮮苧麻製絲會社)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삼과 모시를 합자(合絲)하여 외국의 직조 공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자 4만 원, 내자 3만 5000 원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동 출자한 이 회사는 상당한 영업 이익도 거두고 있었다. 생산비는 1톤당 500원이었으나, 수출가는 1,400원이었기 때문이다. 경영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였다. 안경수(安駟壽), 윤효정(尹孝定), 서재필(徐載弼, 당시 미국 국적) 등과 미국인, 영국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적 회사와 공장의 설립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서구 열강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경제사적 의미가 있다.

개항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외세와의 접촉이



찾아지자 점차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청나라나 일본과의 접촉에는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구미인과는 가능한 한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 상인과 외국 자본이 진출하되 이를 통하여 내국인의 고용이 증대되고, 그 이윤은 국내에서 다시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문호 개방 이후 근대적 상공업관이 세워지고, 상공업 장려책이 강조되면서 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갔다. 상공업관의 변화는 새로운 상공업자 계층의 형성을 유발, 촉진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근대적 직업의식에 바탕을 둔 상공업자 계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특히 외국 자본의 침투 이후 치부법(治簿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관세 규칙, 화폐 교환율, 시장 조사 등의 문제에 대한 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 공업 전습소본관

1906년 공업 전습소를 설립하면서 세운 본관 건물로 서울 동숭동에 남아 있다. 편제는 6개 분야에 본과 2년과 전공 1년이었는데, 당시 최고의 공업 교육 기관이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상공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독립 협회라든가 갑오개혁 이후 설치된 상무 회의소(商務會議所) 등에서 상무 학교 설립을 주장하였다. 1899년 6월 상공 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관제를 발표하였다.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질적 학문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업과와 공업과의 두 과를 두었고, 예

과 1년에 본과 3년으로 교육 연한은 4년이었다. 학교장, 교관, 서기가 있었으며, 외국인 교관도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공 학교는 지방에도 설치할 수 있고, 공사립 모두 설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인공 양잠 전습소(人工養蠶傳習所), 광산 기술자 양성을 위한 광무 학교(鑛務學校), 직조 학교(織造學校) 등이 설립되었고, 공업 전습소를 설



시장  
19세기 말에 기산 김준근이  
시장의 모습을 그린 풍속  
화이다. 소, 곡물, 포목, 엿  
등을 사고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는  
장시가 다시 증가하는 추  
세였다.

치하여 염직공, 직조공, 제지공, 목공 기술자 등을 양성하였다. 또한 민간의  
각종 제조 공장에서도 기술자 양성소를 부설하여 기술 향상을 꾀하였다.

요컨대 종래의 상업 구조를 개혁하고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에 의한 각  
종 제조 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 체제를 담당할 수 있는 경영자,  
기술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 국내 시장의 발달

19세기 말부터 장시(場市)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장시 가  
운데에는 각지의 다양한 특산물을 거래하는 원격지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  
한 경우도 있었다. 전국의 약재(藥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수 시장으  
로서 개항 전부터 발전하고 있던 대구와 공주의 영시(營市:약령시)는 개항  
이후 다양한 외국 수입품을 판매하면서 더욱 성장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

## 홍성장시

20세기 초에 충청도 내륙의 홍성 장시를 찍은 사진이다. 개항장이 시장의 발전을 주도하였지만 외국과의 무역 상품이 아닌, 국내 산출의 상품 시장은 여전히 조선 상인이 상권을 쥐고 있었다.



도 시장 육성책에 따라 전주, 진주, 청주 등지에도 영시가 생겨났다. 하지만 영시는 1900년대 이후 도시에 상설 점포가 들어서고, 철도에 의한 운수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반면 철도를 통한 상품 운수망이 형성됨에 따라 내륙의 상업 도시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왕의 농촌 지역 장시를 대신하여 도시 시장의 상업적 비중과 역할이 커지게 된 것이다.

개항 이래 시장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개항장이었다. 부산·인천과 같이 과거 한적한 어촌에 불과하던 지역이 개항장이 된 후에는 대도시의 하나로, 동시에 대규모 무역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개항장은 무역 시장으로서 외국과 통상하는 거점이 되었고, 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항장은 항만·교통·금융·통신 등의 설비를 정비하게 되었고, 외국인의 자유로운 통행·매매가 가능한 거리가 확장되면서 내지와의 통상도 더욱 진전을 보게 되었다.

개항장 시장권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시장의 구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개항 후 미곡(米穀) 수출이 증가하자 상품으로서의 미곡 생산은 촉진되었다. 그러나 국내 소비용 미곡의 공급은 줄어들어 쌀값이 뛰어들었고, 미곡을 구매해서 생활해야 하는 서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서울,



대동강가의 항아리  
평양의 대동강 변에 항아리를 쌓아 놓은 모습이다. 전통적인 선상들에 의해 각지로 수송되었다.

평양 등의 대도시에서도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무역 시장이 성장하고, 미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수급의 안정적 구조가 흔들렸던 것이다. 영세민들은 식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결국 정부는 방곡령(防穀令)을 실시하여 미국 수출의 확대를 막으려 하였지만, 일본의 간섭과 저지에 따라, 특히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는 방곡령의 시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다.

개항장이 무역 시장으로서 시장의 발전을 주도하였지만 기존 정기시(定期市)가 쇠퇴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개항장의 매일 시장과 상설 점포의 이용률이 높았지만, 개항장 내 한국인 거주 지역이라거나 지방의 재래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는 상설 점포의 성장과 함께 정기적인 장시가 여전히 상품 유통의 근거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과의 무역 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조선 상인이 여전히 유통과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종래의 원격지 유통이 개항장을 거치고 기선(汽船)을 이용함에 따라, 조선 상인도 기선을 이용하여 개항장 간 무역 등의 원격지 유통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유통에서는 조선 상인이 일본 상인과 대등한 수준에서 참여하였다. 더욱이 기선을 이용하지 않는 유통은 조선 상인

이 장악하였다. 일본 상인은 1880년대 중반부터 서울 시장에 진출하였지만, 1911년에도 외국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상품 유통에서는 조선 상인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sup>3</sup>

한편 18세기 후반부터 통공 정책이 실시되고, 사상이 상권을 확대해 감에 따라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은 대부분 영업상 큰 타격을 받고 있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국역(國役)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서 시전 상인의 상권은 점차 위축되어 가는 양상이었다. 더욱이 일본, 청나라 등 외국과의 조약 체결로 말미암아 중국 상인, 일본 상인 등이 서울에 거주하며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벌이게 되자 시전 상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더욱이 외국 상인들이 육의전이 취급하는 물종까지 판매하게 되자 시전 상인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철시(撤市) 투쟁을 1887년, 1890년, 189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전개하기도 하였다.

### 상회사의 설립

개항 이후 상업계에서는 상회사를 설립하여 근대적 상업 체제를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 서구의 회사 제도에 대한 소개와 회사 설립을 촉구하는 논설을 발표하면서 회사 설립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대표적인 글은 유길준이 동경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표한 상회 규칙(商會規則)과 1883년 10월 21일자 『한성순보(漢城旬報)』에 수록된 회사설(會社說) 등이 있다.

상회 규칙은 모두 25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은 주식의 발행과 출자, 사장 선출 방법, 주주 총회, 본사의 기구와 지사 설치 등이었다. 회사설에는 “여러 사람의 자본을 모아 몇 사람에 위탁하여 농공상(農工商)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회사가 서양 부강의 기초라 하여 정부가 회사 설립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회규를 보면 공개적으로 자본을 모

집하고, 유능하다거나 지분이 많은 사람이 회사의 사무를 맡고 회사의 운영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식 회사의 설립과 운영, 회사 역원의 선출, 대차 대조표 공개, 이윤의 분배 등을 설명하고 있다.

상회 규칙이나 회사설은 개화파의 계몽 활동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회사의 설립을 직접 정부에 건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서울 안에 상회소와 국립 은행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sup>4</sup> 회사 창설을 위한 개화파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호의적 반응은 민간 회사의 출현을 낳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자극한 것 중 하나는 개항장과 서울에 들어 온 외국인 상사로 예컨대 세창양행(世昌洋行), 이화양행(怡和洋行) 등이었다.

상회사는 1883년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객주들이 주로 상회사를 설립하였다. 상회사 가운데에는 서울이나 개항장에 본점을 두고 주요 상업 지역에 지점을 두는 형태로 전국적 영업망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1883년 원산에 상회소가 생겼고, 이어 1885년 인천에 상회가 설립되었으며, 1890년 부산에 상법 회사가 세워졌다. 이들 상회소는 일종의 동업 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중앙의 관리와 개항장의 감리 통솔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관설 성격의 구조는 정부가 영업세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외국 상인의 침탈로부터 국내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sup>5</sup> 1883년부터 갑오개혁 때까지 문헌상 나타나는 상회사는 모두 40여 개에 달하였다.

#### 유길준과 회사 규칙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김홍집 내각의 내부대신이 되었다가 아관파천(1896) 후 일본에 망명하였다. 다시 귀국하여 교육과 계몽 운동에 헌신하였다. 오른쪽은 그가 지은 상회 규칙 중 회사에 관한 여러 규칙을 기술한 회사 규칙이다.

상회사를 설립한 자본주는 대체로 대자본가로 성장하고 있던 도고 상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자본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합자 형태를 주식제로 바꾸어서 상회사를 설립한 것이었다. 결국 도고가 해체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도고 자본을 바탕으로 상회사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설립한 회사도 출현하였다. 1889년에 내항(內港)의 운수와 무역을 위하여 기선 회사가 설립되어 세 척의 기선을 운영되었다. 항세(港稅)를 면제받고 있던 이 회사는 1892년 세곡을 운반하기 위한 관민 합변 회사(官民合辦會社)인 이운사(利運社)가 설립되자 여기에 흡수되었다.<sup>6</sup>

상회사가 대거 설립되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몇몇 대상(大商)이 회사를 설립하고, 군소 상인에게 출자토록 하되 출자하지 않는 상인의 상행위를 금하고,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매점하였던 것이다. 결국 도고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이들이 바치는 영업세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특권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 1901년 옥구에 세워진 영흥 회사(永興會社)는 그곳을 지나는 선박에게서 세금을 거두었고, 사령 수십 명을 해상에 두고 감시토록 하였으며, 모자에 어자표(御字標)를 붙이고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으며, 궁내부(宮內府)의 훈령이라 빙자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상회사의 해체 문제가 또다시 당면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였지만, 정부 입장은 종래의 도고 체제를 근대적 회사 체제로 전환시키고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상업을 발달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이 발생함에 따라 특권 회사가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여러 차례 내렸지만, 쉽게 결실을 얻지 못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 가서는 상회사 이외에도 기선 회사, 은행, 공장 등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하지만 기선을 이용한 민간 해운업은 대부분 일본 선박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거나, 자금의 부족, 기선의 사고 등으로 단명



#### 한성은행

1897년에 김중환, 이보응이 설립한 근대적 민간 은행이다. 영업이 부진하여 한때 휴업하였다가 1903년 2월 다시 설립하였다. 1905년에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1928년에 조선 식산 은행의 소유로 넘어갔다.

하곤 하였다. 그러한 중에서도 함경도 지방에서는 조선인 해운업자가 국내 유통 관련 물자 운송을 장악하면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00년 이후에도 관료, 객주 등이 항해권 회복을 목표로 해운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지만, 정부 지원의 부족과 일본 해운업자의 견제로 1903년부터는 경영이 부진해 졌고 결국에는 일본인의 손에 넘어갔다.

이 밖에도 황실, 개화파 관료, 기업가 등은 조선은행, 한성은행 등 은행을 설립하였고, 민간에서는 철도 부설을 추진하였지만 자금난, 신용 기반의 미성숙, 경영 기법의 미흡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회사 설립에는 관료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애당초 이들은 개화를 실현하려는 의식에서 참여하였으나, 그러한 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부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관료 중 고위층은 여러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간 기업 활동에 종사하였다. 반면 중하위층은 특정 업종에 국한하여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05년 이후에는 고위 관료층의 회사 참여가 현저히 퇴조한 반면, 유력 상인층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금 수출이 증가하고 개화파의 광업 개발론이 대두하면서 1880년

대부터 광산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영흥 금광(永興金鑛)의 경우에는 1880년대 중엽에 12~21지역에 4,000~1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상황을 이루었다.<sup>7</sup> 1895년 광업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고 정부가 광업의 개발에 적극성을 띠자 광업은 계속 확장되었고, 1899년에는 민간 광업 회사가 출현하였다.

## 상업적 농업의 발달

### 인삼의 경작과 홍삼 가공업

개성은 인삼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 인삼은 이미 조선 중엽 이래 중국, 동남아시아 일대에 널리 알려져 개성 인삼의 별칭이었던 ‘고려인삼’은 각국이 다투어 무역 거래를 원하는 특산품이었다. 개성의 부호는 금융업과 더불어 인삼의 재배, 가공, 매매업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널리 운위될 정도였다.

구한말 시기 개성 인삼의 수확량, 세액, 삼가(蔘價)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6년 인삼 수확량은 4만 5440훈트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60만 달러였으며, 이듬해의 수확량 가격은 120만 달러였다고 한다. 1895년경의 홍삼 제조량은 인삼의 작황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1만 5000~2만 근 정도였으며, 한 근당 10원씩의 물품세가 부과되었다. 1895년에는 1만 5000근의 홍삼이 제조되어 15만 원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홍삼 제조를 원하는 사람은 탁지부(度支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 권리를 얻는 대가로 생삼 100근을 증기로 찌는 데 2원을 지불해야 했으며, 생삼을 구입할 때에도 한 근당 20전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한 근당 20전의 세액은 인삼 재배자에게도 부과되었다. 그런데도 질이 좋고 잘 팔릴 때 인삼주는 지출액의 15배나 되는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sup>8</sup>

개성 출신 인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삼포(蔘圃) 1,000



#### 개성의삼포

일제 강점기에 개성의 삼포를 촬영한 사진이다. 일제 강점기에 삼포 1,000간 정도를 경작하면 미곡 1,000~1,300가마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간 정도를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미곡 한 가마가 5~6원 할 때 5,000~6,000원 정도였고, 작황이 좋으면 7,000~8,000원 정도였다고 한다. 대략 미곡 1,000~1,300가마에 해당하는 액수였던 셈이다. 이중 삼포 경작에 소요되는 영농비는 2,000원 내외였다고 한다. 따라서 삼포 1,000간을 경작하면 중류 이상 상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한다. 한편 1916년 청나라 시장에서의 조선산 고려 인삼의 한 근당 평균가는 150원 내외였다. 반면에 미국산 인삼은 20원 내외, 만주산 관동(關東) 인삼은 8원 내외, 일본 인삼은 5원 내외에 불과하였다. 1926년에 청나라로 수출한 개성 인삼은 3만 6370근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192만 5280원이었다.

잘 알고 있듯이 인삼은 6년 만에 채출하는 까닭에 인삼을 경작하려면 6년 동안 자본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 삼포 매간당(每間當) 생산비를 5~6원 정도로 추정할 때 개성인들이 경작하던 삼포에 투입하는 자금은 대략 200만 원일 것으로 추측된다.<sup>9</sup> 1930년대 개성에서 생산되던 홍삼은 연 4만 근 정도로서<sup>10</sup> 홍삼 연산액은 150~160만 원, 백삼은 110~120만 원 정도였다. 1936년 전매국 통계에 따르면 인삼 수출 총계는 13만 4393근으로 가



이용익초상

육군 부장의 예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이용익은 고종의 신뢰를 받아 요직을 두루 거쳤다. 1897년 전환국장이 된 이래 화폐 주조 업무를 관장하였고, 1898년 내장원경이 되어 황실 재정을 맡았다. 그는 내장원경에 취임한 뒤 인삼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1899년 인삼 전매 회사인 삼정사를 발족시켰다.

격으로 환산하면 354만 8492원이었다.<sup>11</sup>

식민지화 이전인 1908년부터 홍삼 전매와 경작 구역을 설정하였던 까닭에 개성에서 합법적으로 구역삼을 경작하던 경작자는 300여 명이었으며, 종업원은 1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개성에서의 인삼 생산은 ‘구역 박 삼’이라 일컫던 밀삼(密蔘)의 재배와 가공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920년대 말 개성 일대에서 경작되던 삼포의 면적은 대략 175만 평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합법적으로 경작되던 구역 내 삼포는 시기에 따라 다소 달랐지만 대략 25~40만 평 정도였다. 따라서 밀조 인삼의 생산량이 구역 내에서 경작되던 인삼의 양을 능가하고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변(時邊)에서 거래되던 자금 역시 밀조 홍삼의 제조에 상당 부분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대외 무역품으로서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상품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인삼의 재배와 가공 및 판매에

대한 통제와 함께 인삼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도는 1898년에 이용익(李容翊)이 궁내부(宮內府) 내장원경(內藏院卿)에 취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즉 인삼의 수입을 황실의 비용에 충당코자 그 전매권을 궁내부 내장원에 귀속시키고 엄중히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용익은 삼포 경영과 인삼의 가공, 판매를 효과적으로 독점하고자 18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매 회사인 삼정사(蔘政社)를 발족시켰다. 삼정사는 정부와 민간인의 자본으로 조직된 반관반민(半官半民) 회사였으며 삼포의 경영 관리, 홍삼의 가공, 제품의 판매 및 세 징수의 대행을 겸하였다. 삼정사의 본사는 개성에 두고 내장원경이 이를 감독(監董)하기로 하였다.

삼정사의 발족은 당시 인삼 경작업자들의 커다란 반발을 샀으나, 내장 원경이던 이용익은 삼포에서의 수입이 궁내부의 주 재원이었던 까닭에 삼포에 대한 통제와 관리권을 계속 궁내부 내장원이 지니도록 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재정 관리권이 통감부의 지휘를 받게 되자 삼세 및 홍삼 전매 수입은 국고(國庫)로 이관되었다. 또한 그 관리 권도 1907년에 탁지부에 귀속되었다. 이후 정부는 1908년 7월 전 25조의 홍삼 전매법(紅蔘專賣法)을 공포하였다. 홍삼 전매법의 주요 내용은 인삼의 재배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재배된 인삼은 모두 정부에 납품해야 하며 홍삼의 제조는 정부에 전속될 뿐만 아니라 홍삼의 판매나 수출은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한 상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08년 홍삼 전매법이 발표되면서 탁지부 사세국(司稅局)에 삼정과(蔘政科)를 설치하여 이를 개성에 분치(分置)하고, 홍삼 원료인 인삼의 수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인삼 특별 경작 구역을 설정하였다. 즉 개성, 풍덕, 장단, 토산, 금천, 서흥, 평산, 봉산 등 여덟 군에 인삼 특별 경작 구역을 지정하고, 이어 1913년에는 평남 중화군, 황해도 해주군과 수안군 일대에 경작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결국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는 인삼 재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개성인의 삼포 경영은 일제 강점기에 더욱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인삼의 수납 업무 담당 기관은 1910년 삼정국으로 독립된 국이 되기도 하였으나, 한일 병합 이후 관제 개정에 의해 전매국 출장소, 사세국 출장소(1912), 탁지부 전매과 개성 출장소(1915), 재무국 전매과 개성 출장소(1919), 경성 전매지국 개성 출장소(1921), 전매국 개성 출장소(1925) 등으로 담당 부서의 명칭과 지위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28년 무렵의 개성 경제력은 개성과 장단, 파주, 연백, 금천 등지의 경지를 40~90% 정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평산, 서흥, 신계, 해주 등 여러 군에서 20~40%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소유 경지의 견적 가격은

약 6,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그 밖의 부동산이 1,200만 원, 자본 3,500만 원 등으로 개성의 부력(富力)은 모두 1억 200만 원 정도였다. 이 무렵 개성에 거주하던 한국인의 호수는 8,800여 호이므로 한 호당 평균 보유 부력은 1만 1500원 정도였다. 당시 개성에는 부력을 70만 원 이상 소유한 자산가가 없었던 만큼 개성 사람은 대부분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 밖에도 전국에 출사가 있는 차인들이 운용하던 자본금은 4,000~5,000여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개성 지방의 독특한 사금융제인 시변제(時邊制)에 의해 거래되던 액수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무렵 조선식산은행과 한성은행의 개성 지점, 송도 금융 조합과 개성 금융 조합에 예금된 예금액은 80~90만원 내지 130~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예금고도 대부분 관공서와 기타 공공 단체의 예금이었다.<sup>12</sup> 따라서 개성 상인들이 예입한 은행 및 금융 조합 예금액과 시변제에 의해 거래되던 액수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시변제에 의해 거래되던 금액의 상당 부분은 개성 상업의 운영과 인삼의 경작과 가공이라는 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 이용되고 있었다.<sup>13</sup>

### 연초 제조업의 발달과 재편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전래된 연초(煙草)는 이후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오랜 기간 대표적인 기호품으로 꾸준히 소비되어 왔으며, 상업적 농업으로 재배되던 대표적인 상품 작물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연초 가격이 오르게 되자 재력 있는 양반, 부상, 지방 토호들이 연초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8세기에는 농민들이 토지에 곡물 대신 생산 이익이 많은 연초를 재배할 정도가 되었고, 1730년대에는 호남 지방의 진안, 장수 같은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한 지역의 토지에 모두 연초를 재배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연

초 재배 지역도 점차 확대되었다. 18세기 말에는 호남의 진안·장수, 관서의 성천·강동·평양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황해도의 신계·곡산·토산, 강원도의 금성·안협, 충청도의 정산, 경상도의 영양 등이 대표적인 연초 산지로 자리를 잡았다.<sup>14</sup>

연초는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서울에서는 17세기 중엽 이후 엽초전이 연초 소매상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사상들이 연초 판매에 종사하면서 판매액도 증가하였다. 지방에서는 주로 지방의 대도시, 광업이나 수공업 촌락, 장시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되었다.

개항 이후에는 사회적 생산력 증가와 함께 연초 소비가 늘어나면서 엽연초를 가공하는 연초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연초 제조업은 외국 연초의 유입과 외국 자본의 제조업 침투에 따라 이들의 자극을 받아 발전하는 한편 판매 영역을 둘러싸고 외국 자본과 경쟁하여 갔다. 이러한 양상은 전직 관료·상인·지주 및 부농 등이 그들의 자본을 연초 제조업에 투자하면서 두드러졌다. 특히 조선인과 외국인 간의 경쟁은 1894년 이후 불붙기 시작하여 1904년 이후에는 판매 영역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sup>15</sup>

1896년 이후 외국인들은 자본을 투자하여 경성·인천 등지에 연초 제조 회사를 설립하였고, 1900년 이후에는 부산·대구·군산 등의 개항장 또는 대도시에도 제조소를 설립하면서 제조업 분야에 침투해 들어왔다. 특히 1904년 이후 일본제 연초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일제의 연초 제조 회사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의 연초 재배업과 제조업은 자본의 부족과 정부의 식산흥업(殖産興業) 정책의 미비로 점차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sup>16</sup>

식민지화 이후에는 1910년에 공포된 회사령(會社令)에 의하여 한말 이후 치열하게 경쟁하던 연초업 부문에서 조선인 자본가들은 배제되어 갔고 일본인 자본가가 연초 제조업을 장악해 나갔다. 또한 1910년대에 연초세를



장죽 든 여인

혜원(惠園) 신윤복(申潤福, 1758~?)이 그린 풍속화 야금모행(夜禁冒行) 중에서 기생으로 보이는 여인이 긴 담뱃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엿본 것이다. 연초는 전래된 이후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18세기에는 농민들이 곡물 대신 생산 이익이 많은 연초를 재배할 정도였다.

조세 항목으로 설정하고 연초세의 세율도 올려 갔다. 조선 총독부는 1921년 7월에 연초 전매제를 실시하여 연초 재배업·제조업·판매업의 모든 부문을 통제함으로써 조선의 경작 농민·제조업자·판매업자를 몰락시켰고 소비자에게 비싼 전매 연초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수탈을 행하여 조선 총독부의 재정 세입을 늘려 나갔다. 식량·원료의 공급 기지와 재정 세입 확보책을 위한 일제의 식민 정책 아래에서 연초업 부문도 재편되어 갔던 것이다.

## 개항장의 발달과 도시의 거상들 2

### 개항장 중심의 시장권 형성과 상품 유통

부산은 개항 전부터 원거리 유통과 상인 자본의 성장에 따라 주변 지역 뿐만 아니라 함경도와 서해안 지역까지 포함하는 시장권을 이루어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부산에서는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국내 각지와 교역도 외국 무역의 성장과 국내 분업과 관련된 원거리 유통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면서 개항장으로서의 기능과 상품 유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경부 철도가 개통되면서 내륙의 상품 생산지도 부산의 시장권에 새롭게 편입되어 거래되는 상품의 양과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

부산의 시장권을 통해 거래되었던 품목 중 곡물은 해로를 통하여 함경, 강원, 경상, 전라 지역으로 이출되었는데 함경도로 이출된 양이 가장 많았다. 곡물 가운데에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콩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콩은 거의 전량 수출되었다. 이 밖에도 보리, 밀, 조 등이 외국과의 교역용 또는 국내 소비용으로 이출되거나 이입되었다.

인천의 시장권은 개항 후 수년 사이에 경기도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로

#### 부산항

1906년경에 부산 항구를 촬영한 사진이다. 부산은 개항 전부터 함경도와 서해안을 포함하는 상권을 이루고 있었고, 개항 후에는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확대되어 갔다. 인천의 국내 교역 성장은 최대 시장인 서울과 유기적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인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상품 유통망과 유통량을 활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항장으로서 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요와 선진적 생산에 기반을 둔 공급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다.

개항장에는 외국 상인이 상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인과 주민들이 이주해 와 상업 자본이 집중되면서 상품의 유통과 집적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개항장에는 근대적 수송 수단, 금융 기관, 통신 설비가 정비되어 더욱 효과적인 상업 활동과 유통 조직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진남포, 목포, 군산 등지가 개항하면서 기존 서해 연안과의 시장권은 축소되었지만 주변의 내륙 지방으로는 한층 확대, 심화되었다. 하지만 경부 철도가 개통되면서 내륙에서의 직접적 교역이 발달하자 인천의 시장권이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1907년경에는 국내 교역이 격감하였고, 외국과의 무역도 1908년 이래 감소 추세가 되었다.<sup>17</sup>

요컨대 근대적 유통 조직의 정비와 거대한 외국 시장으로부터의 수요와 공급의 확대와 함께 개항장 시장권은 계속 확대, 심화되어 갔다. 각 도의 해안마다 하나둘씩 교두보를 확보하여 전국을 에워싼 형세로 내지 곳곳을



#### 제물포항

1905년에 제물포 항구를 촬영한 사진이다. 최대 시장인 서울과 인접해 있는 인천의 시장권은 개항기에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공략하였던 것이다. 지역적인 면에서 볼 때 인천과 부산은 각기 몇 개의 도를 시장권에 편입시키고 있었고, 그 밖의 개항장들은 하나 내지 두 개의 도를 장악하고 있었다. 국내 교역과 외국 무역을 통하여 상호 연계된 개항장 시장권을 모두 합할 때는 거의 전국적인 범위를 포괄하였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원산도 인천과 진남포의 개항으로 시장권이 지역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였지만, 함경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의 포구와 거래 관계를 가졌고 해가 갈수록 각 포구의 거래액이 증가하였다. 전라도를 배후지로 하는 목포와 군산도 러일 전쟁 전에 이미 외국 무역액이 100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주요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 원산전경

구한말에 원산 전경을 촬영한 사진이다. 원산은 인천과 진남포의 개항으로 시장권이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강원도, 경상도의 각 포구와 거래가 증가하였다.



개항장 시장권의 확대가 가장 두드러졌던 지역은 진남포의 개항에 따른 평안도 북부 지방이었다. 진남포에서는 개항 이듬해인 1898년까지 시장권이 그다지 확대되지 않다가 1901년경에는 평안북도 연안을 시장권에 편입하면서 점차 이 지역에서 산출되는 곡물을 흡수하였고 수입품의 판로도 확장하였다.

### 도시 거상의 활동

#### 서울의 거상들

서울은 정치의 중심인 동시에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시전 상인과 공인 이외에도 많은 사상과 객주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거상으로 성장한 상인들도 있었다. 종로와 배오개, 남대문, 마포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선 상인 중 일부는 도산하거나 폐업하고 말았지만, 일제 강점기 말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가업을 계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거상으로는 시전 상인 출신인 백윤수(白潤洙, 1855~1921)와 김윤면(金潤冕, 1856~?), 배오개에 자리 잡고 있던 박승직(朴承稷, 1864~1950) 등을 꼽을 수 있다. 백윤수는 대대로 견직물을 취급하던 선전(緡塵) 상인이었다. 백윤수의 시전은 1905년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다(目賀田)가 단행한 화폐 개혁에 말미암은 공황으로 토착 상인 자본이 위기를 맞게 되자 어려운 사정에 빠졌다. 그러나 다른 시전 상인들이 몰락하는 와중에 백윤수는 청나라산 고급 비단을 취급하는 청상(淸商)을 상대로 거래하였고, 비단의 주요 수요자가 고관과 부유층이었던 까닭에 자금의 회수가 용이하여 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주단 등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모직류 등은 영국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하였으며, 국내산 한산 모시 등 각종 저포(苧布)류도 취급하면서, “대발매(大發賣)하되 특별 염가로 다매주의(多賣主義)하에서 일반 고객을 환영한다고 명성이 날로 높아지더라.”<sup>18</sup>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1916년 백윤수는 자본금 25만 원 규모의 대창 무역 주식회사(大昌貿易株式會社)를 설립하면서 근대적 기업가로 전환하였다.<sup>19</sup>

김윤면은 서울 출신이지만 자신의 대에 종로의 시전 상인으로 진출한 사람으로 백목전(白木塵)을 운영하였다. 그는 친절, 정가 판매, 신용을 신조로 시전을 경영하였으며, 이 세 가지 도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상인으로서 대성하였다. 그는 1919년 종로와 남대문 지역의 상인들과 합자하여 자본금 200만 원의 동양 물산 주식회사(東洋物産株式會社)를 설립하였는데, 서울에서 손꼽는 대상인이 대거 주주로 참여하였다. 김윤면은 1920년대 말 개인 기업체로서는 제3위의 고액 납세자가 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1937년 이후 일제의 통제가 심해지면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걸었다.<sup>20</sup>

한말 서울의 거상으로서 배오개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던 박승직을 빼놓을 수 없다. 본래 농업에 종사하던 그는 송파장을 근거로 환포상(換布商) 활동을 하며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후 1898년경 종로 4가에서 포목

상(布木商)을 시작한 그는 점차 취급 물종을 확대하여 마포(麻布), 목면(木棉), 식염(食鹽) 등의 위탁 판매를 하는 한편, 1905년에 가서는 일본 상인이 참여한 공익사(共益社)를 설립하여 일본에서 면사포(綿絲布)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러한 그의 기업 활동 형태는 1905년 공황 때의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창업의 모태인 포목 상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는 여러 기업체에 참여하고, 기업 관계 공직을 맡으면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른 나이에 사숙(私塾)에서 한문을 수업하고 시세를 따라서 본점을 개점한바 기민(機敏)이 남보다 뛰어나고 신의가 돈독하므로 고객이 구름처럼 와서 현금에는 거만의 자본을 이르고 일반의 추대로 광장 주식회사(廣藏株式會社) 취체역(取締役)으로 공익사 이사를 겸하여 분망 중에 있으니 동점의 전도 희망은 한량이 없다더라.<sup>21</sup>

곧, 박승직은 기민함과 신의를 바탕으로 거상으로 성장하였으며, 박승직 상점의 전망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일제강점기에도 활발한 기업 활동을 벌였으며, 1921년에는 한국인 소유의 개인 기업체로서는 최고액의 납세자가 되었다.<sup>22</sup>

동점(同店)은 명치 30년에 자본금 6만 원을 적립하고 앞에서 쓴 장소(경성부 종로 4정목 15번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동점의 사장은 박승직 인바 동씨(同氏)는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근근고고(勤勤孜孜)히 활동한 결과 금일의 대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동씨는 현재 주식회사 공익사 사장, 광장 주식회사 취체역, 경성 곡물 신탁 회사 감사역, 만주 공익사 취체역으로 있으며, ……동사의 사장 박승직 씨는 포목계에 40여 년 간 투신한 노장이외다.<sup>23</sup>



#### 개성상인

일제 강점기에 촬영한 개성 상인의 모습이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사람들은 조선 건국 이후 정치적 출세보다 상업적 성공을 지향하였고,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익사 사장, 광장 주식회사 취체역, 경성 곡물 신탁 회사 감사역, 만주 공익사 취체역 등을 맡으면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 개성 상인의 활동

개성 사람들은 조선 왕조 건국 이후 정치적 출세보다는 상업적 성공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은 개성이라는 도시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던 것이었다. 개성 사람들의 직업 역시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905년의 개성 남부 도조리 지역의 호적 대장을 보면 호주의 직업이 상업인 경우가 5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호는 33.1%에 이르고 있지만, 농업호 중에는 삼포 농가가 많았으며, 이 밖에도 마와 목면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었다. 또한 개성의 명산이

있던 백채(白菜) 등 소채류를 재배하여 상품화하는 농가도 많았다. 특히 백채는 서울의 시장과 황해도 일대에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답(畓)보다 전(田)이 약 1.4배 많던 개성의 지형적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성의 농업호는 대부분 상업적 농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 지방의 주민 상당수는 인삼의 경작, 가공, 판매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삼포 경작자들은 개성을 상업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성의 삼포주 중에는 대를 이어 가업으로 삼포를 소유, 경작하던 사람이 우선 많았던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손봉상(孫鳳祥), 공응규(孔應奎)·공성학(孔聖學) 부자 등을 들 수 있다. 손봉상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의 삼경(蔘耕) 작업이 집안 전래의 업이지마는 이 사람에 의하여 대성되었다 합니다.”<sup>24</sup>라는 말로 미루어 인삼 경작이 손씨 집안 전래의 가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격화된 것은 손봉상의 대에 와서였다. 이후 “손봉상에 의해 발명된 인삼 제품도 적지 않다.”<sup>25</sup>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손봉상은 삼포 경작뿐만 아니라 인삼의 제조와 판매에서도 개성의 삼업계에 많이 공헌하였다. 개성 인삼 경작계의 원로라든가 개성 상업계의 노장이라는 평을 듣던 그는 개성 삼업 조합의 조합장과 개성 상업 회의소의 대표자를 오랜 기간 지내면서, 대표적인 개성 상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아울러 그는 합자 회사인 영신사(永信社)의 사장으로도 활동하였으며, 또한 1914년 자본금 20만 원 규모의 합자 회사인 고려 삼업사(高麗蔘業社)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공응규·공성학 부자의 경우는 선조 대부터 삼포 경작에 종사하였으나, 공응규 때에 와서 부상(富商)이 되었다. 공성학은 인삼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근대 기업가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1850~1927)에게 사사받은 그는 제2대 개성 인삼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인삼의 품종 개량, 경작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삼포 경영 방법의 혁신을 꾀하였다. 공성학은 뒤에 개성을 대표하는 실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업 분야에

서 상당한 활동을 벌였다. 즉 개성 전기 주식회사(開城電氣株式會社), 송도 고무 공업 주식회사 등의 기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성 양조 주식회사(開城釀造株式會社, 1925), 춘포사(春圃社, 1934), 개성 삼업 주식회사(開城蔘業株式會社, 1936) 등을 설립하였으며, 개성 인삼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26</sup>

한편 최익모(崔益模)는 인삼의 판매 분야에서 남다른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총독부가 홍삼의 위탁 판매권을 일본의 미쓰이(三井)에 독점시키자 백삼(白蔘)을 ‘고려 인삼’이라는 상표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고려 인삼’이라는 상표에 금대(金帶)를 입혀 포장을 개량하고, 새로운 판매법으로 통신 판매를 고안해 내었다. 그의 ‘고려 인삼’은 국내 외에서 홍삼 못지않은 성가를 누리게 되어 개성 인삼의 국제적 판로망을 개척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인삼 경작업에 종사하던 개성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통적인 삼포 경작 집안의 후손들만 있지는 않았다. 상인이나 삼포주의 자손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당당한 양반가의 후예도 있었다. 문과(文科)의 대과(大科)나 생진과(生進科)에 합격한 사람의 자손이 바로 그들이다. 예를 들면 남부(南部) 도조리(都助里)에 살던 김종한(金鍾漢)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순천 김씨인 그의 호적에는 아버지인 김근규(金覲圭)가 진사였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김근규는 1867년(고종 4)의 진사시(進士試)에서 1등으로 합격하였다. 김종한의 집안은 부계와 모계를 합하여 조부대 이래 이미 세 명의 생원과 진사를 배출해 낸 손색없는 양반가였다. 더욱이 김종한의 10대조가 되는 김성갑(金誠甲)은 생원을 거쳐 1610년(광해군 2)의 식년시(式年試)에서 대과에 합격한 인물이었다.

대과 급제자와 생원 진사의 후손으로는 김진우(金鎭禹)도 있다. 예안 김씨인 그는 서부(西部) 관전리(館前里)에 있는 3년근 200간의 삼포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살고 있던 집은 초가 15간이었다. 그의 호적에는 증조부인

김일성(金一成)이 진사였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1816년(순조 16)의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김진우의 11대조와 김현도(金玄度)는 1576년(선조 9) 별시(別試)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이후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10대조인 김정후(金靜厚)는 진사를 거쳐 1605년(선조 38) 정시(庭試) 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부자가 잇따라 문과에 급제하였던 것이다. 김진우는 적어도 두 명의 대과 급제자와 한 명의 생진과 합격자를 낸 가계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1905년 당시 북부(北部) 이정리(梨井里)에 살던 설효석(薛孝錫)의 경우 부친 설한주(薛翰周)는 1835년(헌종 1) 증광사에서 생원이 되었으며, 설한주의 종제인 설병주(薛秉周)도 이때 함께 생원이 되었다. 백부 설익주(薛翊周) 역시 1837년(헌종 3)의 식년사에서 생원이 되었다. 설효석의 장형인 설용석(薛用錫) 또한 1873년(고종 10) 진사과에 합격하였다. 설효석의 가문은 그의 아버지부터 네 명의 생원과 진사를 배출하였던 것이다. 이런 집안의 자손인 설효석은 1905년 당시 와가(瓦家) 25간에 초가(草家) 18간으로 모두 43간 규모의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설효석은 1896년 당시 황해도 수안군 천곡방(泉谷坊) 용촌(龍村) 지역에 5년근 2,100간과 1,100간, 도합 2좌(座) 3,200간의 삼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요컨대 개성에서 인삼의 경작과 가공업을 통해 상인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였다고 파악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곧 개성의 상업계 내지 개성 상인들이 지니고 있던 특성의 일면이자, 개성 사회가 지니고 있던 특징적인 사회적 면모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sup>27</sup>

## 인천항의 거상

인천항의 대표적 상인은 1898년 당시 외동(外洞)에 살고 있던 서상집(徐相集, 1842~1896)이었다. 그는 상인이면서도 정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관직에까지 올랐다. 대구 서씨인 그는 인천의 거상, 부상, 호상으로 불

릴 만큼 인천항의 상업계를 대표할 만한 상인이었다. 1898년 당시 45세였던 그는 세평에 걸맞은 가옥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호적 대장을 보면 그가 소유하고 있던 가옥은 와가 56간에 초가 6간으로 도합 62간인 가옥 한 채와 초가 12간의 공가(空家) 등 모두 74간이었는데, 외동에서 제일 큰 규모였다.

서상집은 1894년 7월 27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발족할 당시 총재 김홍집(金弘集), 부총재 박정양(朴定陽) 등과 더불어 18인의 회의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그가 군국기무처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인인 그가 부호군(副護軍)으로서 군기처 회의원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상집이 어떻게 군기처 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그는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길준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기무처 발족 당시 유길준 역시 외무 참의(外務參議)로 회의원이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혹시 유길준의 천거 내지 추천이 작용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만약 추측대로라면 유길준이 서상집을 끌어들인 까닭은 상업계나 재계 인사의 포섭과 이를 통한 정치 자금 조달 등에 목적을 두었던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서상집이 특히 관심을 두어 벌였던 사업은 선박을 이용한 해운이나 무역이었다. 1896년 11월 월미도 남쪽의 장탄지(張灘地)에 선박 조선소(船舶造船所)와 창고, 그리고 선박의 수보소(修補所)의 개설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1899년 7월에는 미국 금광 회사 소유의 기선을 비롯한 세 척의 선박을 고용하여 해운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렇게 모은 자산을 토지의 매입에도 투입하였던 것 같다. 1896년 1월 각국의 조계(租界)에 편입된 토지를 보면 서상집 소유의 답(沓) 5두락(斗落)과 전 1경(頃)이 들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뿐 아니라 1902년 3월 15일 인천항 외축현에 있던 전답 5,630평을 일본 거류지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적지 않은 토지를 무엇 때문에 일본에 기증하였

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해운이나 무역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자본 가운데 일부를 상당한 규모의 토지 매입에 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계와 정계를 넘나들던 그는 1902년 7월 5일 인천항의 감리(監理)가 된다. 그의 감리 임명은 당시 인천 사회에서 천만 뜻밖의 일로 받아들일 만큼 파격적인 인사였다. 서상집이 어떻게 해서 인천항의 감리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초는 있다. 그와 가까웠던 유길준은 1902년 당시 일본에 망명 중이었다. 일본에서 유길준은 황제를 시해하고 의친왕을 옹립한 다음 망명자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거사를 꾸미고 있었다. 여기에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청년 장교들도 관여되어 있었다. 유길준은 거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에 가까운 관계라고 여기고 있던 서상집에게 인편을 통하여 계획을 설명하고 공작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서상집은 이 사실을 즉각 인천 감리 하상기(河相驥)에게 밀고하였고, 이어 하상기의 지시에 따라 서상규를 유길준에게 보내 거사 계획을 확인하게 하였다. 서상규는 인천으로 돌아와 서상집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였고, 이로써 유길준의 거사 계획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1902년 6월에는 유길준과 접선하였던 국내의 일당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sup>28</sup>

서상집이 인천항 감리로 임명된 것은 이 일이 있는 직후인 7월 5일이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서상집의 감리 임명은 유길준의 거사를 미리 막은 공로에 대한 포상일 가능성이 높다. 감리로 임명된 지 불과 40여 일 만인 8월 17일에 해임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 후 그의 활동이나 행적 가운데 뚜렷한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부는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복 전의 어느 시기엔가 그의 부력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29</sup>

# 객주의 활동과 외국 상인의 침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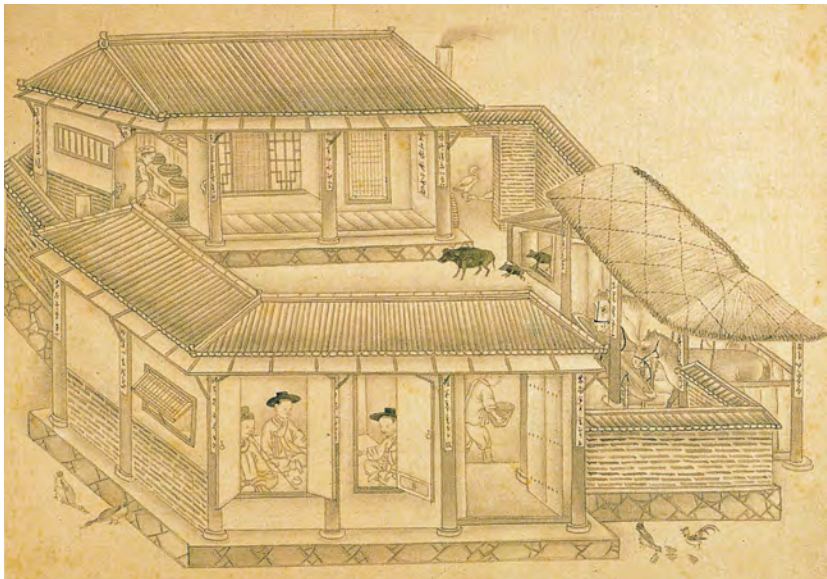
## 객주의 증가와 상업 활동

개항장이 외국과의 무역 거점으로 발전을 거듭하자 내지 시장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이 개항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객주는 내지의 상인과 상품 생산자를 외국 무역상과 연결해 주면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상인이었다. 본래 객주는 위탁업과 창고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들로서 개항 전에 이미 상당한 자금력과 상품 유통권 및 정부로부터 상품 거래에 관한 일정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 무역상들은 무역 초기에 수출입 거래를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개항장 객주의 상업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천의 객주는 1889년에 60명, 1897년에 96명이었고, 부산은 1889년에 44명이었으나 1897년에는 23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원산도 1884년에는 45명이었으나 갑오개혁 이후에는 130~140명 정도로 증가하였다.<sup>30</sup>

한편 1880년 통리아문(統理衙門)은 객주의 수가 증가하고 물종별·지역별로 전업화됨에 따라 지역별·물종별 담당자인 도객주(都客主)를 차정(差定)하여 수세를 관장토록 하였다. 이들은 동일 지역이나 동일 물종을 취

## 객주

19세기 말에 김준근이 객주 집을 그린 풍속화이다. 객주는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의 거처를 제공하며 물건을 맡아 팔거나 흥정을 붙여 주는 일을 하던 상인 또는 그런 집을 말한다. 따라서 객주는 개항 이전부터 상당한 자금력과 상품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개항장의 객주는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외국 무역상과 거래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급하는 객주의 수가 증가하고 거래량이 많아짐에 따라 나타난 수세 담당자였다. 그런데 도객주가 특정 물종이나 지역, 선척 등을 대상으로 수세를 전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자 수세권을 빙자하여 도고를 행하는 폐단이 나타났다.<sup>31</sup> 결국 도객주의 수세 담당은 상업의 진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객주제는 여러 차례 제도적으로 변화하였다.<sup>32</sup> 인천항의 객주를 살펴보면, 1889년 10월 객주를 통섭하기 위한 방책으로 특허 객주제(特許客主制)가 실시되었다. 이는 25명의 객주에게 특정 지역의 물자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객주 영업세를 징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5객주제는 외국, 특히 일본 세력의 방해와 반발로 1년도 채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1890년 8월에는 4인두목제가 실시되었으며,<sup>33</sup> 1893년 7월에는 감동제(監董制)가 시행되었다.<sup>34</sup> 모두가 특허 객주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지만, 특허를 받은 객주가 정부로부터 특권만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인천항의 객주들에게 부과되는 영업세를 징수하여 상납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감동제가 실시될 당시 감동이 상납해야 할 세액은 20만 냥에 이르는 거액이었으며,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을 수립한 이후 광무(光武) 정부는 상업을 중시하고 외국 상인의 침투를 저지하는 한편 국내 상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외국 상인은 개항장을 벗어난 지역에 가옥을 구입하거나 여행권을 소지하지 않고 행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 상인의 조직화를 도모하였다. 객주를 비롯한 상인들도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기존의 상업 조직을 근대화하거나 근대적 제조 회사, 금융 기관, 상업 회의소 등을 설립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대한제국의 국내 상업 보호 노력에 대해 일본 정부는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치적·군사적 압력과 위협을 통해 일본 상인의 진출을 후원하려 하였다.<sup>35</sup>

이러한 양상은 개항 이후 지속되어 온 외국 상인과의 대립, 특히 일본 상인의 상권 침투와 행패가 여러 방면에서 심화되면서 조선 상인이 이에 적극 대응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예를 들면 1896년 일인 무장 행상단(日人武裝行商團)인 계림 장업단(鷄林獎業團)이 인천에서 조직되어 각지에서 만행을 일삼았다.<sup>36</sup> 이에 인천의 객주들은 인천 객주 상회를 모체로 객주들의 공익을 위하여 단합을 꾀하는 한편, 일본 상인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천 신상 협회(仁川紳商協會)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민족계 상인의 상업 자체 혁신을 촉구하면서 상업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개항기에 이어 광무 연간(1897~1907)에 들어서도 객주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상권도 확대되었다. 객주의 상권 확대에 따라 객주의 기능과 역할이 분화하는 현상도 생겨났으며, 특정 물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객주도 증가하였다. 이들은 전국을 상대로 대자본을 가지고 상품 거래를 대규모로 하고 있었으며, 전국의 상품 유통을 주도하고 있었다.



어음  
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계산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증서이다. 한가운대를 잘라서 채무자의 이름이 있는 쪽을 채권자에게 주고 다른 한 쪽은 채무자가 보관하였다. 채권자 쪽에서 지급을 요구하면 두 쪽을 맞춰 보고 합치하면 즉각 지급하였다. 객주들은 주로 어음으로 거래하였고, 일제는 어음을 폐지하여 조선 상인의 신용 체계를 붕괴시키기도 하였다.

객주들은 서울의 경우 이현(梨峴), 칠패(七牌)를 비롯한 성안쪽에 고루 분포해 있었으며, 도매 영업을 하였다. 또한 지방의 각 내륙과 포구에도 객주들이 분포해 있으면서 지방의 대규모 상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다. 객주들의 거래는 주로 어음으로 이루어졌고, 한 해의 거래액이 수백만 냥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개항장에 있던 객주는 외국 상인, 특히 일본 상인과 대립하며 나름의 상권을 확보 내지 분점하고 있었으며, 수출입 상품의 대외 교역과 개항장 간, 혹은 개항장과 내륙 및 각 포구와의 교역을 전개하고 있었다. 객주들은 직접 해외를 왕래하면서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통적인 위탁 판매 이외에도 매매업자나 생산자에게 미리 자금을 빌려 주었다가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매매 활동을 벌였다.<sup>37</sup>

또한 개항장의 객주들은 상권 보호와 확대를 위하여 동업 조직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1880년대 이후에는 무역과 선운, 해운 등을 위해 상사·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에 참여하였다. 1883년 원산의 객주는 외국 상인의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의 수탈을 막기 위하여 객주 상회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객상에 대한 수세 청부의 기능도 담당하면서 유통상의 독점을 피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후 부산, 인천 등지에서도 객주의 상회소가 설립되었다.

### 일제의 압박과 객주의 변화

일제는 내지 행상과 대외 무역을 자신들이 주도하고자 일찍부터 객주의 상권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청일 전쟁 이후 일제는 개항장 객주의 중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내지 행상에 주력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를 조

직적으로 수행하고자 직접 지원하는 관제(官制) 조직까지 결성하였다.

또한 개항장 객주는 외국 상인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었다. 외국 상인은 조선 상인보다 우세한 자본력과 불평등 조약 체제에 근거한 유리한 무역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일본 상인은 본국으로부터 금융상의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은 반면에 조선 상인은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조선 상인은 조세를 상업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의 결과 지세(地稅)가 금납화(金納化)되자 상인이 탁지부에 해당 지역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에 그 지역의 세금을 지급받아 상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자금 조달은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개항장 객주를 비롯한 많은 조선 상인이 외국 상인의 자금 선대(先貸)에 얽매어 상거래를 지배당하고 고리대로 파산하였다.<sup>38</sup>

외국 상인은 내지 통상을 통해 산지의 상인·생산자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국내의 상품 유통 과정을 장악해 나갔다. 18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과 중국인의 내지 통상이 본격화되면서 수출품의 구입과 수입품 판매 면에서 일본인 행상과 중국인 행상이 우세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88년부터 일본 상인이 조선인의 범선을 이용하여 개항되지 않은 내지를 항행할 수 있는 특권을 획득함에 따라, 곡물의 대량 반출이 가능해졌다. 청일 전쟁 이후 내지 통상이 한층 진전됨에 따라 개항장 객주의 경제적 기반은 점점 취약해졌다. 인천과 부산의 객주의 수가 대체로 19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였던 것은 그러한 사정 때문이었다.<sup>39</sup>

러일 전쟁의 승전을 계기로 한국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제는 한국의 ‘재정 정리’와 ‘화폐 정리’를 내세워 재정 체계 및 화폐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객주를 비롯한 조선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어음도 철폐시켰다. 일제의 어음 폐지로 조선 상인들의 신용 체계는 붕괴되었

## 범선

1871년에 조선의 돛단배를 촬영한 사진이다. 1888년 일본 상인이 조선인의 범선을 이용하여 내지를 두루 다닐 수 있게 되자 곡물을 대량으로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자금 고갈로 많은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통화의 부족과 금융 팽박으로 초래된 전황이 계속되면서 조선 상인의 피해는 더욱 증가하였다.<sup>40</sup>

일제가 조선 상권을 재편하고 일인 회사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객주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어 갔다. 일제는 포구 중심의 상업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일찍부터 교통·운수망을 침탈하기 시작하였고, 개항장과 일본 간의 해운을 독점하고 나아가 조선의 내륙과 포구 간의 운수도 독점하기 위한 시도를 벌였다. 일제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항행권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였다. 이는 포구의 객주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었으며, 각 연안이나 포구의 객주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sup>41</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객주는 상업을 근대화하고 자본을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국권과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채 보상 운동, 재난 동포 구원

운동, 근대 기업 설립 및 식산흥업 운동 등을 직접 전개하거나 적극 찬조하며 후원하였다. 또한 객주는 나라의 경제를 발달시키려면 상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상업자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상업 학교 및 일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 교육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방식은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을 담당하거나 수입 일부를 학교에 지속적으로 기부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형태 등이었다.<sup>42</sup>

이 밖에도 객주는 빈민 구제나 사회사업 등 각종 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각종 학회 활동도 직·간접으로 지원하였다. 객주 중에는 직접 민족 운동에 참가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객주가 벌인 여러 근대화 운동은 일제의 압박과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객주의 수도 점차 감소하였다. 서울의 객주 수를 보면, 한말에 200~300여 명, 1914년경에 90여 명, 1910년대 후반에 51명 등으로 일제 강점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지방 내륙 지역에서 객주가 비교적 다수 유지될 수 있었던 곳은 평양, 대구, 강경, 함흥 등 전통적으로 조선 상인의 세력이 강하였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객주의 세력도 현저히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주로 해산물을 취급하던 객주와 미곡을 취급하던 일부 객주가 이어지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sup>43</sup>

## 4 대외 무역의 전개와 국내 산업의 변화

### 외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 및 관세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통상 조약에는 관세가 규정되지 않았다. 조선이 관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일본은 무관세 협정을 체결한 것이었다. 조선은 일본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후에야 비로소 관세 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후 관세 주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sup>44</sup> 조선은 무관세 조약으로 인해 일본인에게 관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조선인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정하고 부산 두모진(豆毛鎭)에 세관을 설치하였다. 1878년 8월부터 부산을 거치는 화물에 통과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조선인에게는 교역 물품에 대한 검열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곧 이는 일본의 거센 항의와 청나라의 동조로 조선의 관세 징수책은 일시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국제법적 국제 질서와 근대적 통상 관계의 지식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일본과 통상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교섭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에서 미국이 조선의 관세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일본도 무관세 입장에서 물러나 1883년 7월 조일 통상 장정(朝日通商章程)을 체결



조일통상장정기념연회도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이 조일 양측의 전권대신인  
민영복과 다케조에 신이치  
로(竹添進一郎) 사이에 조  
일 통상 장정 조인식을 끝  
낸 뒤 있었던 연회를 그린  
것이다. 조선 관리, 일본 사  
람, 서구적 풍모의 인물이  
서양 음식이 놓인 사각 식  
탁에 둘러앉아 있다. 조일  
통상 장정에서는 조선의 관  
세 주권을 인정하면서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하고 관세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새로운 조일 통상 장정은 조선의 관세 주권을 인정하면서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특히 해관장(海關長)이 수출입자가 신고한 가격을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관 감정인의 감정 가격에 따라 납세토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조항은 관세 권의 행사가 조선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관세를 완납한 후 수입품을 조선 각처로 수송할 경우에는 운송세, 비개항지 통과세 등 일체의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조선의 세권을 제한하였다.

또한 곡물 수출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해야 하며 금지하는 시기를 각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여타 국가들이 부여받는 권리 특혜에 일본도 이를 균점할 수 있다는 최혜국(最惠國) 조항을 삽입하였다. 1876년 국제 통상 상 유례가 없는 무관세 조약을 맺은 일본은 1883년 통상 장정에서 비로소 한국의 관세 주권을 인정하였지만 조선 정부의 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혜국 조항을 획득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최초로 관세에 대한 규정을 둔 조약이었다. 대체로 수입품에는 10%, 수출품에는 5%의 관세 부과가 제정되었다. 이는 일본이 1858년에 구미 열강과 체결한 통상 조약에서 정한 관세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었다. 미국이 관세 규정 면에서 다소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국은 한일 간의 조약과 달리 최혜국 조관(條款)을 첨가하여 향후 타국이 통상상의 이권을 획득하였을 때 이를 균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후 서구 열강은 조선과의 통교에 적극 관심을 기울였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이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했던 영국은 조선과의 통상이 설사 자국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1876년부터 조선과의 통상 교섭에 나섰던 영국은 미국에 이어 1882년 조영 수호 통상 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고, 이듬해 이를 개정하여 새로운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다.

조영 조약의 체결로 영국은 많은 이권을 얻게 되었다. 조계 설정권뿐 아니라 조계 관리를 조선이 부담한다는 준칙까지 정하였다. 또한 영국은 조계 이외의 장소에서도 4km 이내에서는 외국인이 토지 및 가옥을 임차하거나 구매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공장을 건설하고 제조업을 영위할 권리도 획득하였다. 또한 영국은 이미 개항된 부산, 인천, 원산, 그리고 개항이 예정되었던 양화진 이외에도 서울을 개시장으로 할 것에 동의를 얻었으며, 각종 수출입 화물을 조선 내지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 밖에 치외법권(治外法權)은 물론 영국인 주택이나 영국 선박에 대한 조선 관리의 출입 제한, 영국 해군 필수품의 무세 통관 등 각종 특권을 규정하였다.<sup>45</sup>

한편 청나라도 임오군란을 계기로 합법적인 종속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1882년 9월 조선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포함된 규정은 상대국 개항장에 각

기 상무관(商務館)을 주둔시킨다는 것, 조선에서 중국이 치외법권을 갖는다는 것, 중국 상선의 조선 개항장 출입이나 호혜적인 근해 어업을 허용한다는 것, 식량 및 용수 공급을 위한 어선의 해안 정박을 허용한다는 것 등 청나라의 일방적인 특권을 명문화한 것이다.<sup>46</sup>

이 조약에서 청나라가 획득한 많은 특권 가운데 특히 중요한 내용은 청나라 상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조약을 통해 개항장 이외에 서울 및 양화진을 개시하게 하였고, 내륙 통상 및 비개항지에 거주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또 육로를 통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증가(從價) 5%로 정하였다. 베이징(北京)에서 교역 허가를 받은 조선 상민과 조선의 양화진·서울에서 점포나 창고의 설치 허가를 받은 청나라 상인 이외에는 각종 화물을 비개항지에 운송하고 점포를 설치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청나라 상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무역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관세율은 홍삼의 수출에 한하여 15%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그 밖의 수출입 상품에는 5%의 종가세를 부과하기로 명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외국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 체계가 성립되자 조선은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국내 시장조차 보호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제국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기왕의 조선 국내 시장은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열강에 개방되었고, 조선은 외국 자본주의의 거센 물결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sup>47</sup>

## 열강의 무역 경쟁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883년까지 조선의 무역은 일본에 의한 ‘무역 독점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무역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14배 가량 증가하였다. 1877년과 1880년을 제외하고 조선은 수출입

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모두 출초(出超) 현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무역 규모의 증가는 주로 일본과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sup>48</sup>

하지만 조선이 각국과 통상 장정을 체결하자 일본은 더 이상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기 어려웠다. 특히 1882년 임오군란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계기로 청나라는 조선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와 함께 조선과의 무역도 비중을 높이려 하였다. 이후 청일 양국은 치열한 무역 경쟁을 벌였다. 이 시기에 무역 규모는 계속 팽창하여 수출은 약 6배, 수입은 약 4배 증가하였다. 수출 증가폭이 더 컸으나 조선은 출초 현상을 기록함으로써 무역 적자가 누적되었다.<sup>49</sup>

특히 수입 무역에서는 청나라가 조선에서의 정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청나라는 조선의 주 수입품의 하나였던 옥양목(玉洋木)의 중계 무역을 장악하면서 일본을 압박하였다. 옥양목의 수입 물량 가운데 일본 상인이 중계한 것은 1886년에 10% 미만이었다가 1888년에 가서는 2% 이하로 떨어져 청일 전쟁 직전의 서양 물품 중계 무역권은 청나라 상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청나라 상인이 중계 무역권을 장악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청나라 상인은 자본력과 상업 수완이 탁월하고 일본 상인에 비해 신용도가 높았다. 또 청나라 상인은 상하이라는 동아시아의 무역 중심항을 보유하고 있었다.<sup>50</sup> 또한 이 무렵 조선 내에서 우세하였던 청국의 정치적 위세가 자국 상인의 활동을 후원하였던 것도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덧붙여 말하면 청나라 상인은 조선 내에서의 통상 활동에 있어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는 등 영업 활동에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일본 상인은 상대적으로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청나라 상인이 더욱 많은 영업 이익을 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편 청나라 상인들의 중계 무역 독점에 따라 큰 타격을 입게 된 일본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계 무역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



청일전쟁

청일 전쟁(1894) 때 용산의 만리창(萬里倉)에 상륙한 일본군을 촬영한 사진이다. 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하였으나 조선의 대외 무역 시장에서 청나라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여전하였다.

올였다. 1882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물품 가운데 일본 제품은 겨우 10% 정도였다. 하지만 1883년 이후에는 50% 내외로 상승하였고 1890년부터는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청나라 상인에게 서양 물품의 중계 무역권을 빼앗긴 일본 상인들이 일본 제품의 수출 비중을 크게 늘려 중계 무역에서 생긴 열세를 만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자국의 산업화로 이어졌고, 결국은 조선을 자국의 공산품 판매 시장으로 만들게 되었다.

청일 전쟁 이후 조선 무역의 추이를 보면 수출입 면에서 대략 3배가량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1903년까지 수출 증가폭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출초 현상을 계속 기록하였다.<sup>51</sup>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무역 시장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청일 전쟁의 패배 이후 청나라 상인은 일시적으로 조선에서 철수하였다. 그 결과 1895년 조선의 수입 중에서 청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26.21%로 감소하였다가 1896년 이후 다시 높아져 1898년에는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과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청나라 상인은 이 시기까지 여전히 옥양목의 중계 무역권을 장악하고

## 러일 전쟁

러일 전쟁(1904) 때 마포나루에 상륙한 일본군을 촬영한 사진이다. 일본은 승전하여 조선을 보호국화하였으나 조선의 대외 무역 시장은 일본 이외의 다른 여러 나라와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여 다변화되었다.



있었고 옥양목은 안정적으로 수입되었다. 청나라 비단뿐만 아니라 청나라 마포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청나라 상인의 영향력은 러일 전쟁이 발발한 1904년 이후에 급격히 약화되었다.

한편 개항장을 통한 수출이 금지되었던 홍삼은 청일 전쟁 직후인 1895년부터 개항장을 통한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청나라 상인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육로를 통한 홍삼 수출도 계속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수출 무역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진 반면 청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과의 무역에서 청나라가 차지하던 비중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확보한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전화되어 갔다. 청일 전쟁 이후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제 면제품의 비중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을 보호국화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조선 경제를 지배해 나갔다. 그러나 조선은 대외 무역 면에서 보면 일본 이외 여러 나라와의 무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으나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중국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떨어졌다. 이와 같은 원인은 서양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비율이 증대한 데에 있었다.

러일 전쟁 이후에도 고급 면제품 시장은 영국이 일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sup>52</sup> 미국도 수입에서 6~10%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국가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초기 일부 국가에 편중되었던 시장 구조와는 달리 조선의 무역 시장이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조선 무역계의 구도가 일단 재편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 수출입 상품

### 수출 상품

조선이 수출하던 상품은 대부분 곡물류 등 농산물이었다. 특히 미곡과 콩의 비중이 컸다. 풍흉에 따른 산출량의 불안정성과 운송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곡과 콩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갑오개혁 이후 현물 납입 제도 대신 조세의 금납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자 이전까지 조세미였던 막대한 양의 미곡이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곡물의 수출 증가는 전반적으로 지주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출 곡물의 상당 부분을 소작미가 차지하게 되자 지주들은 지대 수취를 확대하고자 소작료를 인상하는가 하면 미곡의 상품화 과정을 직접 장악하였다.<sup>53</sup>

일본인들도 조선인 대리인을 통하여 수확의 반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수확한 후에 미곡을 거두어 개항장으로 보냈다. 일본인들이 대여하는 금액은 항상 시장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렸지만, 농민들에게는 애써 생산한 미곡에서 나오

#### 군산항의미곡수출

구한말 군산항에서 인부들이 쌀을 선적하기 위하여 지게로 지어 나르는 광경을 촬영한 사진이다. 곡물의 수출 증가는 지주제를 강화하여 소작인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으며, 국내 곡물가의 앙등을 불러일으켜 영세민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는 이윤이 별반 돌아가지 않았다.

콩은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콩은 기후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일본에서 수요도 계속 늘어나 수출량이 증대되었다. 예전부터 콩의 수요가 많았던 일본은 자국의 생산량도 상당하였지만 조선산 콩의 품질과 가격이 적정하였던 까닭에 콩의 공급을 조선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콩을 재배하던 곳이 뿔발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났고, 콩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반면 조선은 콩의 수출을 통한 이윤 증대로 말미암아 점차 콩 재배 면적이 확장되는 추세였다.<sup>54</sup>

한편 곡물이 대량으로 수출되면서 국내의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곡물가의 앙등은 하루 벌어 하루 식량을 구입해야 조선의 빈농이나 영세민에게는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큰 타격이었다. 특히 흉년이 들면 더욱 사태가 심각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지방별로 곡물의 반출을 막고 곡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곡령(防穀令)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100건 이상의 방곡령이 발효될 정도였다. 그러나 지방관의 방곡령 실시는 조일 통상장정을 내세운 일본 측의 항의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금과 은은 조선의 수출품 중에서 곡물류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통계에 오르는 금 수출액은 상인들의 자진 신고에 불과

한 정도였다. 또한 순금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피가 작아 신고하지 않고도 쉽게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은 조선의 금을 대량으로 유출하였다.

초기에는 일본 상인보다 청나라 상인이 금을 많이 유출하였다. 청나라 상인들은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금을 수입해 왔다. 해로의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에서 밀무역을 하던 정크선으로 금을 밀수하였다. 또한 청나라 상인들은 수입 상품의 판매 대금으로 받은 엽전을 주로 사금이나 은화 등으로 바꾸어 왔다.

반면 일본 상인들은 수입 상품의 판매 대금을 주로 곡물 매입에 투입하였던 까닭에 초기에는 청나라 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을 유출하는 양이 적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금본위제를 채택한 이후에는 금 흡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던 관계로 조선의 금 수출 시장을 장악하려 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선에 진출해 있던 일본 제일은행을 통하여 금을 대량으로 매입 유출함으로써 자국 금본위제(金本位制)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금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특히 금은 세관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양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실제 이루어졌던 금과 은의 수출액은 통계 수치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이다.

조선 후기 이래 중요한 수출품의 하나는 인삼이었다. 17세기 중반부터 약 70~80년간 인삼은 대일 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수출품이었다. 인삼과 중국산 생사, 비단 무역을 통해 조선 상인들이 얻은 이윤도 막대한 것이었으며, 일본

#### 일본제일은행권

1902년 일본 제일은행이 조선에서 발행한 10엔권 지폐이다. 일제는 제일은행을 통해 금을 대량으로 매입해 유출함으로써 자국에서 금본위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은 자국 은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로 인삼의 인공 재배를 시도하고 양잠 기술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정도였다.<sup>55</sup>

자연삼 산삼이 절종되면서 인삼의 재배와 홍삼으로의 가공이 이루어 지자 대청 홍삼 무역이 번성하였다. 공식적인 포삼 무역 이외에도 방대한 양의 인삼 밀무역이 청나라와 이루어졌으며,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 루트도 다양하였다.<sup>56</sup>

한편 개항이 되자 개항장을 통한 백삼의 수출이 허용되었다. 또한 1882년 청나라와의 조약 체결로 홍삼 수출이 종전대로 허용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국경을 통해 육로로 수출하는 조선 상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해로를 통한 홍삼의 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출 허가를 받은 상인들은 15%의 종가세를 지불하게 되었다. 1895년 가을에는 해로를 통한 홍삼 수출도 허용되었다. 이 무렵부터 가공된 인삼의 수출은 제물포로 집중되었고 청나라 상인들이 주된 인삼 무역업자로 등장하였다.

일제에 의한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어 홍삼 전매권이 일본에 넘어간 이후에는 인삼 재배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져 일본인들이 인삼 재배 농장주에게 보조금을 대여하여 미리 수확물을 매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 인삼제조창

개성에 있던 인삼 제조창을 촬영한 사진인데, 말린 인삼을 담은 소쿠리가 즐비하다. 홍삼 전매권이 일본에 넘어간 이후에는 인삼 재배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도 하였다.<sup>57</sup> 그럼에도 일제 강점기에도 인삼의 주요 산지인 개성 지역의 상인들은 인삼 무역권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인삼 무역을 통해 획득한 영업 이익도 상당한 것이었다.

이 밖에 조선이 수출하던 상품은 대부분 농산물, 멸치 등을 비롯한 해산물, 광산물 등의 1차 상품이었다. 1차 상품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였던 것은 쇠가죽이었다. 군화의 원료였던 쇠가죽은 일본의 군수 공업상의 필요에 따라 개항 초기부터 수출이 불어났다. 그러나 1895년부터 1897년경에 가서는 조선산 소가 주로 운송에 이용되었던 관계로 가죽의 질이 저급하다 하여 수출량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 수입 상품

개항 무렵 조선에서 사용되던 섬유는 견, 마, 저마, 목면 등이었다. 신분층과 용도에 따라 주로 쓰던 섬유의 재질은 각기 달랐지만 견포류, 마, 저마, 모시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목면은 조선 시대 내내 의복의 기본 재료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개항기에 수입된 섬유 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면제품이었다. 개항 초기 면제품의 가장 큰 공급국은 영국이었다. 다만 영국의 수입 회사가 당시 조선에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면제품은 주로 청나라 상인들이 수입하였다.

그러나 1897년 무렵부터는 수입 시장에서 값싼 일본산 섬유 제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일본 제품은 영국 제품보다 질은 낮았지만 가격이 저렴하였으며, 천의 길이와 폭이 다양해서 조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sup>58</sup> 일본 제품이 조선 시장에서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상인들이 대부분의 개항장에서 면직물을 수입하기 위한 일본과 조선 간의 해로 운송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영국 제품은 제주도와 진남포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던 청나라 상인들만 수입하고 있었

다.<sup>59</sup> 특히 189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방적면사(紡績綿絲)에서는 일본 제품이 영국 제품을 압도하였다.

수입 면제품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통적인 토포(土布)는 농민들의 작업복이나 평상복 등을 만드는 옷감으로 계속 쓰이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질적으로 내구성이 매우 강하였던 토포는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농민층과 노동자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895년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에도 변화가 왔다. 즉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래 20여 년 동안 급성장한 일본의 방적 공업은 조선의 생상품과 같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1905년경에 이르면 조선의 토포 생산은 단순 재생산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개항 이후 서구적 요소가 유입되면서 조선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것 중의 하나는 석유였다. 조선은 기존의 토착 동식물유를 쓰고 있었지만, 램프가 널리 사용되면서 석유의 소비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석유 수입량은 1886년에 불과 10만 1207갤런이었지만 10년 정도가 지난 1897년에 이르면 무려 200만 갤런을 넘어설 정도였다.<sup>60</sup> 1907~1909년에는 석유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2.5~3.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석유의 수요는 계절적으로 겨울에 가장 컸고 등불용이 많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단일 품목으로 수입량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미국산 석유가 석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타운센드 상사(W. D. Townsend and Company)가 수입하여 조선 시장에 공급하였다.<sup>61</sup>

이 밖에도 성냥, 주류, 염료, 담배 등이 수입되었다.

석유광고탑

1910년대에 촬영한 석유 광고탑 사진이다. 석유는 개항 이후 조선 사회에 새로 들어온 대표적인 물품으로 등불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외국담배광고  
『매일신보』 1913년 11월 2일자에 실린 영미 연초 주식회사의 담배 광고이다. 처음에 담배는 미국산이 주로 들어왔으나 1890년경부터 일본산이 시장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 등 서양제와 일본제 성냥이 선보였으며, 주류도 영국, 독일, 미국 등의 맥주와 일본산 청주가 들어왔다.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 특히 아닐린(aniline) 염료도 주요한 수입품 가운데 하나였다. 담배는 처음에 미국산이 주로 수입되었으나 1890년 후반부터는 저렴한 일본산이 시장을 장악해 갔다. 목재도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나, 철도 건설용 목재는 미국에서 들어오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의 밀 경작 상황에 따라 미국산 밀가루가 수입되었다. 요컨대 수입 시장은 개항기 이후 점차 품목의 다양화와 수입국의 다변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

국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산업에도 많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콩 같은 수출 농산물은 해외, 특히 일본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상품 생산이 확대되어 갔다. 미국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좀 더 집약적으로 투입하는가 하면, 버려두었던 토지의 개간이 촉진되기도 하였다. 반면

에 면제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이 대량 수입되자 국내 수공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개항 이래 농산물의 수출이 신장되어 1900년에 미곡은 총생산량의 4%에 가까운 46만 석이, 콩은 총생산량의 20%에 가까운 39만 석이 수출되었다. 해외의 미곡과 콩의 수요 확대는 정부의 화폐 남발과 결부되어 곡물 가격의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면 강화 지방에서는 벼 한 석의 시세가 1883년에는 10냥이었으나 1894년에 57냥, 1904년에는 295냥으로 폭등하였다. 반면에 수입 관련 품목의 가격은 정체 현상을 보여 미곡·콩·면제품에 대한 교역 조건은 1890년경 이래 개선되는 추세였다.<sup>62</sup>

외국의 면제품과 담배 등이 수입되면서 면화와 담배 등의 생산도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면화 재배와 직물 제조에 투입되던 노동력을 이제 다른 부문으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났다.<sup>63</sup> 종래에는 면작하던 곳이 대거 콩을 경작하는 토지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1877년 14만여 정보에 달하였던 면화 재배 면적이 1897년에는 8만 정보로, 1906년에는 3만 정보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sup>64</sup> 미곡, 콩 등 농산물의 해외 수요 증가와 가격 등귀는 그 상품 생산을 발전시키기는 하였지만 곡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의 단순화를 낳기도 하였다.

한편 수출 수요가 곡물 시장의 확대를 주도하였지만 식민지화 전에는 곡물 무역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1910년대 초 농작물의 연평균 수출액은 1,115만 원으로 총생산액의 4%에 약간 못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곡은 생산액의 4할 정도가 상품화되고 농작물의 상품화 가능 잉여 중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그 가운데 10% 정도가 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콩은 생산액의 30~40% 정도가 상품화되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5</sup>

면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면업은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면제품은 청일 전쟁 직전에는 총소비량의 20% 정도가 수입되었으나, 가내 수공

업 형태의 토착 면토인 토포 산업은 아직 심대한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청일 전쟁 이후 토포처럼 질기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일본제 백목면(白木綿)과 시팅(sheeting)이 수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적 공정에서 기계제 제품에 비하여 생산성이 크게 뒤떨어졌기 때문에 면작 농민의 대응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적 면제품 생산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이 밖에 양조업, 야철 수공업, 제지업, 유기 수공업 등의 분야도 수입품의 증가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결국 농업 생산물은 증가하였지만 생산 구조 면에서는 곡물을 중심으로 한 단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외국 공산품의 대량 수입에 따라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이 급격하게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국내 경제를 확충하는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 요구한 국제 분업 구조에 피동적으로 종속되면서 이루어졌던 까닭에 산업 구조의 왜곡을 낳게 되었다.<sup>66</sup>

〈오성〉





제4장

# 근현대 서울의 상권 과

1\_ 일제강점기 시장의 변화

2\_ 민족상인들의 상권수호노력

3\_ 전통시장의 변화와 백화점의 등장

4\_ 현대 서울의 시장과 상품유통

# 1 일제강점기 시장의 변화

## 교통 운송 체계의 변화와 시장

개항 이후 시장에서는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농산물 등을 수출하기 위한 시장이 성장하였고, 섬유 제품 등의 수입은 가내 수공업업을 해체시키면서 시장을 확대시켰다. 기선 항로와 철도망의 확대, 근대적 금융·통신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심화를 낳았다. 더욱이 갑오개혁 때에 조세의 전면적인 금납화(金納化)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유통 질서와 유통 체계가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사용할 물자를 현물로 징수하거나 공인(貢人)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관청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게 되자 전통적인 조세 수납 경로가 사라지고 새로운 유통 체계가 필요해진 것이다.

국제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국경 무역과 왜관(倭館) 무역이 없어졌고, 무역 상대국이 중국·일본뿐만 아니라 영국·미국·러시아 등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면서 중국, 일본 등의 외국 상인들이 몰려들어 상권을 잠식하고 있었다. 교역품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에 주로 수출하던 쌀과 콩 외에도

철광석과 면화가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대두하였다. 수입 품목에서도 목재, 술, 석탄, 석유, 종이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철도와 광업 투자를 위한 설비가 활발히 수입되었다. 특히 수입품은 우리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값싼 중국의 삼베(麻布)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되었으며, 비싸고 공급량이 적어 상류 사회에서만 소비되던 꿀은 설탕으로 대체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석유가 수입되면서 개항장이나 개시장(開市場), 혹은 그 부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등유(燈油)도 석유로 대체되어 갔다.<sup>1</sup>

“먼 나라의 진기한 물건들이 시장에 꼭 찼다.” 라고 할 정도로 외국 산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취급하는 물건과 품목이 다양해졌다. 소비자들은 물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보았으나, 그 배후에는 조선 상인의 위축과 자본 유출이라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새로이 형성된 개항장이나 개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조선 상인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개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서울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외국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시장과 상권의 재편으로 나타났다. 남대문 밖에 있던 칠패(七牌) 시장이 남대문 안으로 옮겨져 남대문 시장으로 재편되고, 이현(梨峴) 시장이 동대문 시장으로 거듭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해운 항로와 철도망의 확대, 근대적 금융과 통신 제도의 도입이었다. 러일 전쟁 이후 식민지화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통, 통신, 금융 시장의 확충은 서울의 상업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나간 철도망은 서울 시장의 물화 흡수와 배급력을 현저히 강화시켰다. 1900년 완공된 경인 철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인 철도가 완공되기 이전에는 인천과 용산을 오가는 수운 및 육운의 운임이 인천과 오사카를 오가는 운임의 두 배 가까이 되었으나, 경인 철도가 수운 운송을 대체하면

#### 경인선기관차

1899년 경인선 개통 당시 물탱크에서 물을 보충하고 있는 기관차를 촬영한 사진이다. 경인 철도는 인천과 용산을 오가는 수운을 급속히 대체하였다.



서 서울과 인천의 교통 편의를 한층 증진시켰다. 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결빙기 동안에도 운송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얼음이 얼기 전에 미리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인 철도는 서울과 인천 사이의 수운을 급속히 대체해 갔다. 경인 철도 개통 이전에는 한강 수운이 매우 번창하여 소기선(小汽船)의 왕래가 빈번하였지만, 1911년경에는 인천 추진상회(秋田商會) 소속의 소기선만이 거의 정기적으로 왕복하거나 일본 범선과 조선 목선이 왕래하는 데에 불과하였다.<sup>2</sup>

1905년과 1906년에 각각 완공된 경부 철도와 경의 철도는 서울 시장의 배급력을 더욱 크게 강화시켰다. 철도의 부설과 개량은 정비된 도로망과 항만에 연결되면서 수송력을 배가하였다. 경부 철도는 개통되자마자 관부 연락선(關釜聯絡船)을 통하여 일본의 주요 철도와 이어졌다. 경부 철도와 경의 철도가 동일한 운임률로 일반 영업을 개시한 1908년부터는 일본 철도의 모든 노선과 연결되어 연락 운수를 실시하였다.<sup>3</sup> 그리하여 그동안 수출입의 주 무대가 되었던 인천 무역이 1908년 이후 격감하고 서울 무역이 급격



#### 경부선개통식

1905년 1월 1일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경부선 개통식 광경을 촬영한 사진이다. 경부선, 경의선 등의 철도망이 갖추어지자 서울의 물화 흡수와 배급력은 크게 강화되었고, 지방의 장시와 도시의 상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철도 연대 수송과 장거리 운임 체감법 때문이었다. 곧 철도 요금의 장거리 체감법 실시, 운송 위험 부담의 감소, 신속한 운송에 따른 자금 회전의 원활화 등은 철도 운송의 커다란 매력이었다. 이와 같은 철도 운송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급증시키고 조선인 구매력을 향상시켜 서울의 수입 시장을 크게 확대시켰다. 철도 연대 수송에 힘입어 1909년부터는 서울 상인과 오사카 상인 사이에 직거래가 시작되어 일본과 조선의 무역을 더욱 확대시켰다.

아울러 철도 운송은 국내 물자의 운송 체계를 재편하면서 서울 시장으로 물화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특히 1908년 철도 요금이 변경되면서 장거리 운송비가 절감됨에 따라 상인들의 철도 이용이 크게 늘었다. 그리하여 1907~1908년경부터 한강 수운을 잠식하면서 성장한 철도 운송이 1911년에는 수운을 앞지르게 되었다. 경상도의 미곡이 다량으로 서울로 유입될 수 있었던 것도 철도 운송 덕분이었다. 경상도의 목면과 삼베를 비롯하여 각지의 비단이 철도에 의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울로 몰려들었다. 배를 통해 인천을 거쳐 들어오던 모시는 대전과 군산 사이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도를 통해 유입되었다. 육로로 서울에 들어오던 명태는 개항 이후에는 기선으로 운송되다가 경부 철도가 개통되자 배로 부산으로 갔다가 철도로 서울에 운송되었다.

철도의 부설은 지방의 장시와 도시의 상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는 개항 직후까지 군·면 단위의 5일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들 소시장권은 충주의 대시장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충주의 대시장권은 남한강 수운을 이용하여 서울과 인천의 개항장까지도 연결되어 있었다. 즉 충주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산은 소시장권을 거쳐 충주 대시장권에 집산되어 서울과 인천으로 운송, 거래되었다. 반대로 수입품을 포함한 이입품(移入品)은 인천이나 서울의 한강에서 수운으로 충주로 운송되고 다시 소시장권으로 분산되었다. 그런데 경부 철도가 대전-조치원-천안으로 연결되면서 청주가 충청북도 제일의 화물 집산지로 바뀌게 되었고, 시장권도 충주의 상권을 압도하게 되었다.<sup>4</sup> 철도를 통해 물품을 각 소비지로 직송할 수 있게 되자 상권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sup>5</sup>

이처럼 갑오개혁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유통 질서와 유통 체계, 개항 이후에 활발해진 근대적 국제 무역의 성장,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철도망의 형성은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확립시킨 3대 계기라 할 수 있다.<sup>6</sup>

## 시장 규칙 반포와 시장의 변동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같은 해 10월 1일에는 강력한 식민지 통치 기구인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헌병 경찰 정치가 시작되었다. 일제는 한국의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조치였다. 조선은행, 식산은행 등의 국책 은행을 설치하여 조선의 금융 실권을 장악한 후에 곧바로 조선 회사령(朝鮮會社令)



조선총독부

1911년경에 촬영한 조선 총독부의 모습이다. 1910년 10월 1일 설치된 조선 총독부는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는 각종 법령을 선포하였다.

과 토지 조사령(土地調査令), 시장 규칙(市場規則) 등을 제정한 것이다.

조선 회사령은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전에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으로,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일본의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의 산업 자본과 맞설 수 있는 민족 자본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 회사령이 공포된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회사 설립을 신청한 총건수는 67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20건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허가가 나지 않은 120건은 대부분 한국인이 신청한 것이었다. 이렇듯 일본은 조선 회사령을 이용하여 한국의 새로운 회사 설립을 최대한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한국인 회사에 대해서도 해산 명령을 내리거나 지점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sup>7</sup>

반면에 일본 기업의 설립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일본 기업으로는 대일본 제당(大日本製糖)의 자회사인 평양 선

고리 정당 회사(精糖會社), 미쓰비시 제철 겸이포 공장(三菱製鐵兼二浦工場), 일본 광업 진남포 제련소(日本鑛業鎮南浦製鍊所), 용산 공작 주식회사(龍山工作株式會社), 조선 유지 공업 주식회사(朝鮮油脂工業株式會社), 조선 방직 공업 주식회사(朝鮮紡織工業株式會社), 가다쿠라 제사 공업 주식회사(片倉製絲工業株式會社), 경성 전기 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 등이 있다.<sup>8</sup>

토지 조사령은 조선 회사령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시행한 2대 기본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량 공급지로 재편되었다. 조선 총독부 토지 조사국은 토지 조사 사업과 병행하여 1913년부터 1917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던 시장을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이는 조선의 시장, 상업망, 유통망을 장악하여 식민지 경제 체제를 확립하려는 조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시장 조사 자료를 통해 조선 총독부는 시장 설치 및 감독권을 장악하였다. 즉 조선 총독부가 모든 시장 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지방 장관은 조선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의 시장 정책을 수행하였다.<sup>9</sup>

이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는 1914년 9월에 시장 규칙을 제정하였다. 조선 총독부령 제136호로 반포된 시장 규칙의 명목은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한국의 재래 시장을 근대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제 목적은 전통적인 한국 민족 상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던 재래 정기 시장인 장시(場市)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sup>10</sup> 곧 시장 규칙은 일제가 한국 내 시장을 장악하고자 마련한 제도적 장치였던 셈이다. 이로써 일제는 손쉽게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조선 상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에 제정된 시장 규칙은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1961년에 공포된 시장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폐지되었다.

시장 규칙의 시행으로 상설 도소매 시장과 재래식 장터 시장이 갈라지면서 전통 시장 상권의 아성은 결정적으로 허물어졌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유통망과 상거래 관습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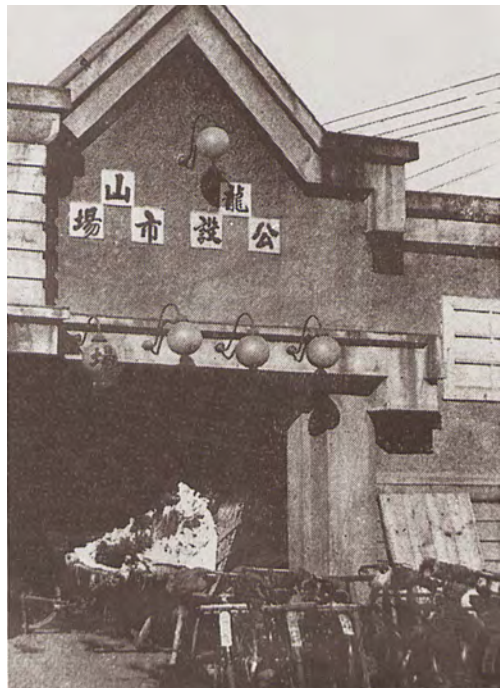
유통을 대표하던 서울의 육의전(六矣廛)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sup>11</sup> 시장 규칙에서는 시장을 제1호에서 4호까지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시장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 전략에 따른 시장 재편이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조선의 시장은 제1호 시장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른바 ‘신식 시장’은 제2호, 제3호로 나뉘었다.

제1호 시장인 정기 시장은 “장옥(場屋)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화물의 매매 교환을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였다. 제1호 시장에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약령시(藥令市)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제2호 시장인 공설 소매 시장은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하나의 장옥에서 주로 곡물과 식료품의 판매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였다. 제2호 시장은 공공 기관이 도시 주민을 위해 개설한 식료품 및 일용품 시장으로,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판매 가격을 30% 정도 억제하였다. 제2호 시장의 효시는 1910년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동시에 부산 부평동에 설치한 일한 시장(日韓市場)인데, 원래 설치 목적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의 편의와 가게 보호였다. 경성부는 1920년 12월 서울의 일본인 상가와 한국인 상가에 명동 공설 시장과 종로 공설 시장을 설립하였다. 이듬해 9월에는 용산 공설 시장과 중구의 화원정(花園町) 공설 시장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종로 공설 시장은 한국 상인과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1924년 10월에 폐지되고 말았다. 경성부의 행정력도 종로 상인의 저항에 부딪힌 나머지 공설 시장의 운영을 스스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용산공설시장

1921년 9월에 설치된 공설 시장이다. 일제가 한국 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제정한 시장 규칙에 따라 공설 소매 시장은 제2호 시장에 해당하였다.



경성부는 다시 물가 조정 수단으로 공설 시장의 증설에 힘쓰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40년 말에는 서대문 공설 시장, 마포 공설 시장, 영등포 공설 시장, 동대문 공설 시탄 시장, 서린 공설 시탄 채소 시장 등 10개의 공설 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제3호 시장인 수산, 청과 시장은 “위탁한 물건을 경매에 의해 수산물, 소채 또는 과일의 판매를 행하는 장소” 로 규정하였다. 일본인 이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산 청과물과 일본인이 한국 연안에서 노획한 활선어(活鮮魚)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조선 총독부는 제3호 시장의 시설 확충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부패하기 쉬운 수산물과 청과물을 대량으로 신속히 거래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자리에 모여 경매하는 도매 시장 제도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제3호 시장의 효시는 일본인 수산업자가 메이지(明治, 1867~1912) 초부터 부산을 왕래하며 어획물을 처리하고자 1904년 경에 부산에 개설한 수산 주식회사 어시장이다. 서울에는 1905년 경성역 앞에 주식회사 경성 수산 시장이 설립되었으나 1911년 히노마루(日の丸) 수산 시장에 병합되었고, 1912년 명동에 경성 어시장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경성 식량품(食糧品) 시장이 1912년 개설되어 주로 야채와 염건어 등을 취급하였고, 1925년에는 중앙 물산 주식회사 시장이 설립되어 농산물, 야채, 생선 등을 취급하였다. 1927년에 이르러 경성부는 수산물의 유통과 공급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히노마루 수산 시장, 용산 수산 시장, 경성 어시장의 세 개 시장을 통합하여 경성부 수산 시장으로 발족시켰다. 1936년에는 중앙 물산 주식회사 시장이 경성 식량품 시장을 합병하여 경성부 수산 시장과 함께 서울의 양대 경매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제4호 시장인 곡물 현물 거래 시장은 1920년에 제정된 시장으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영업자들이 모여 견본 또는 상표에 의해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취인을 행하는 장소” 로 규정하였다. 제4호 시장은 명목상 공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또는 회사에 위탁 경영을 맡겨 현물 곡물



#### 일본인거주지

1895년경에 일본 영상관 주변의 일본인 거류지를 촬영한 사진이다. 일제 강점을 전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는 크게 늘어났고, 거주지 또한 서울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을 대량 거래하였다.<sup>12</sup>

일본 상인들은 조선 총독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에 힘입어 유통망과 서울의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서울은 일제 강점 직후 명칭이 한성부에서 경성부로 바뀌고 경기도에 속한 일개 지방으로 격하되었다. 조선 왕조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의 색채가 농후한 도시로 변한 것이다. 거주지 또한 일본인이 서울의 중심지에 자리 잡으면서 조선인들은 외곽으로 밀려 나고 있었다. 특히 일제 강점을 전후하여 조선인 거주자의 수는 매우 줄어든 반면에 일본인 이주자는 대폭 늘어났다. 대체로 1910년부터 1935년까지 서울의 총 호수와 인구수 중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성은 7 대 3 정도로 파악된다.<sup>13</sup>

1910년 강점 당시 일본 상인들은 진고개와 명동을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인 거주지가 넓어지면서 상업 지구 또한 옥정(旭町: 회현동), 황금정(黃金町: 을지로), 남대문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1920년대 이후에는 조선 상인들의 본거지인 종로 일대까지 침투하였다.

반면 조선 상인들의 상업 활동은 갈수록 위축되었으며, 상업 지구 또한 서울의 중심지에서 밀려나 청량리, 왕십리, 마포 등의 외곽 지대로 내몰리고 있었다. 『동아일보』 1923년 3월 7일자 ‘멸망해 가는 경성’이라는 기사에서는 이런 현실을 다음과 같이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경성의 조선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며 무엇을 입고 살며 또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갈까. …… 경성이 물론 상업의 도시라. 그러나 조선 사람의 상업의 도시는 아니며, 경성이 물론 정치의 중심이라. 그러나 조선 사람의 정치의 도시는 아니로다. …… 상업의 기관이 물론 수입을 넣고 따로 생계가 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 상업의 기관은 대개 일본 사람의 수중에 있으니, 그 생계가 또한 조선 사람의 생계가 되지 못하는도다. 상업의 도시가 되는 경성에 몸을 붙여 살되 조선 사람은 그 상업의 기관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정치의 도시가 되는 경성에 몸을 붙여 살되 또한 조선 사람은 그 정치의 기관을 잡지 못하였도다. 물에 있으나 그 물을 먹지 못하고 공기에 있으나 그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가련한 조선 사람, 이 경성의 조선 사람이 과연 무엇을 먹고 살며 또 무엇을 입고 살리오. 대개 먹는 것이 없고 입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가불 망할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도다.<sup>14</sup>

서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은 모두 이러하였다. 조선인들의 빈곤화와 구매력 저하는 조선 상업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늘긴 하였어도 대부분 빈곤층으로 구매력은 매우 낮았다. 게다가 일제가 조선 상업을 위축시키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기에 일본 상인들은 상권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그리하여 대다수 조선 상인이 농수산물과 같은 기본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며 영세한 처지에서 허덕거리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 상인은 엄청난 부를 빠르게 쌓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수요품을 공급하는 한편으로 일본

과 조선 사이의 무역을 독점해 상권의 기축을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주요 상항(商港)과 도시 가운데 눈에 띄는 곳 치고 일본 상인이 없는 곳이 없으며, 방약무인한 이들의 행태가 정치 세력을 배경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sup>15</sup>

## 외래 상품의 유입과 거래

개항 이후 다양한 외국산 수입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베트남 쌀인 안남미(安南米)가 수입되어 시중에서 판매되는가 하면 포도주, 맥주, 양주, 커피 등 외국산 기호품이 시판되었다. 특히 커피는 왕실과 상류층에서 많이 찾는 기호품이었다. 고종도 커피를 즐겼는데, 이때의 커피는 모난 설탕 덩이 속에 커피 가루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1898년(광무 2) 9월에는 김홍륙(金鴻陸, ?~1898)이 커피에 아편을 넣어 고종과 태자를 상하게 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sup>16</sup> 고종은 러시아 공관에 있을 때에 식사 시중을 하던 손탁(孫澤, Sontag, A, 1854~1925) 여사에게 호텔을 지어 주었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생겨 커피를 팔게 되었다. 또 3·1 운동 이후에 일본인이 지금의 명동에 ‘멕시코’ 라는 다방을 내었다. 1910년경 세종로에 나무 시장을 벌인 한 프랑스인은 보온병에 넣어둔 커피를 나무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장터에 짐을 풀게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자전거도 판매되었다. 사람의 힘에 따라 스스로 굴러 간다고 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자행거(自行車)’ 라고도 불렀다. 자전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윤치호(尹致昊, 1865~1945)가 미국에서 가져왔다고 전한다. 1900년 무렵의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에는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많은데, 언더우드(Underwood) 목사 소유의 자전거를 판다는 광고도 있다.<sup>17</sup>

1905년 12월에 제정되어 실시한 가로 관리 규칙(街路管理規則)에 “야간

에 등화 없이 자전거 타는 것을 금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자전거가 상당히 보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자전거는 상류층 일부에서 이용하였으며, 의친왕 이강(義親王李堈, 1877~1955)도 자전거를 잘 탄 것으로 유명하였다.<sup>18</sup>

이 무렵 많은 상금이 걸린 자전거 경기 대회도 자주 열렸다. 제1회 대회는 1906년 4월 22일 훈련원(지금의 을지로 6가 서울 운동장 서쪽)에서 열렸는데, 조선인과 외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육군 참위(參尉) 권원식(權元植)과 일본인 요시가와(吉川)가 결승을 다투었으며, 상금은 100원(圓)이었다.<sup>19</sup>

1920년대에 엄복동(嚴福童, 1892~1951)은 자전거 잘 타기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일본인들도 참가한 자전거 경기 대회에서 거의 언제나 1등을 차지하여, “하늘에는 안창남(安昌男), 땅에는 엄복동”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안창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이다.

1920년 5월 2일 경복궁에서 열린 자전거 경기에서 엄복동은 마지막 40바퀴를 다 돌았지만, 경쟁자였던 일본인은 몇 바퀴를 남겼을 때 주최 측이 돌던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에 분개한 엄복동이 본부석으로 달려가 우승기를 찢어 버리자 일본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구타하였다. 이것을 본 관중이 들고일어나 큰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사태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남녀노소가 즐겨 피우던 담배도 여러 종류가 판매되고 있었다. 담배는 조선 후기 이래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17세기 조선에 왔던 하멜(Hamel, H)의 표류기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4~5세 때 이미 배우기 시작하여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할 정도였다. 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도 역시 어린아이들의 흡연이었으며, 이에 경무청에서는 아이들의 흡연을 금하는 훈칙을 시달할 정도였다. 개항 이후 외국산 쥘런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이 일어난 연초 제조업은 1910년대에는 조선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고 규모가 큰 제조업이었다. 신문

에도 담배 광고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켈런초는 여성용 담배로 선전하여 담뱃갑이나 광고에도 여성이 등장하였다. 담배 소비는 계속 늘어나 1929년 경기도 양주군은 ‘연기로 피워 버리는’ 담배의 한 달 소비 금액이 2만 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농민 4,000명의 한 달 식량에 해당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sup>20</sup>

개항 이후 새롭게 선보인 서구식 상품들이 일제 강점 이후 더욱 보편화되면서 시장의 거래 품목 또한 한층 더 다양화되었다. 일본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오뎅, 초밥, 소바, 왜간장 등 일본 음식과 재료가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였고, 간식으로 떡과 빵, 사탕, 카스테라 등도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김은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

하는 해초(海草)로 1926년부터 7년 동안 30배가 증가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고, ‘간스메(かんづめ)’라고 부르는 통조림도 판매되었다.

옷감은 여전히 시장 판매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종로 상가의 대부호였던 김희준(金熙俊), 최남(崔楠) 등도 주로 포목(布木)을 취급하고 있었다. 일본인 상점 중에도 오복점(吳服店)이 많았던 것을 보면 시장에서 옷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주목되는 변화는 여성들이 서양식 복장인 양장을 입기 시작하였고, 남성들 역시 양복을 입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장에 어울리는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 블라우스, 치마 등이 판매되었으며, 속옷에도 변화가 나타나 메리야스와 내복, 사루마다(さるまた) 등이 판매되었다. 옷을 만드는 재봉틀이 시장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었으며, 재봉틀만을 전문으로 흠치는 도둑이 극성을 부리기도 하였다.



#### 국화와 켈런초

『매일신보』 1914년 11월 8일자에 조선 연초 주식회사가 게재한 담배 광고이다. 국화 옆에서 여유롭게 켈런초를 피우는 여성의 모습을 내세우고 있는데, 상당히 도발적으로 느껴진다.



#### 박가분

1920년대에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박가분이다. 박가분은 처음에 박승직의 아내 정정숙이 집안에서 수공으로 제조하여 면포를 사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주었던 것이다.

신발에도 운동화, 고무신 등이 등장하였으며, 일본인들이 신는 게다(げた)도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구두를 전문으로 파는 양화점도 나타났다. 이를 닦는 데 사용하는 치약과 칫솔, 세탁비누, 타월 등도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세탁용 양젓물 또한 중요한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치약의 주 고객은 흡연으로 이가 누렇게 변한 남성이었다.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분과 크림, 연지, 로션, 동백기름, 향수 등도 판매되었는데, 분은 특히 ‘박가분(朴家粉)’이 유명하였다. 박가분은 1916년에 박승직(朴承稷,

1864~1950)이 만든 화장품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박가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거나 중국 무역상들이 몰래 갖고 들어온 것이었다. 박가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가정집 아낙네를 비롯하여 기생 등 화류계 여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당시 여성 사회를 휩쓸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와 납 중독 사건을 일으켜 인체 유해론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1937년에 자진 폐업하였다. 그 뒤를 이어 납을 넣지 않은 백분임을 강조하고 나타난 것이 바로 서가장분(徐家張粉)과 서울장분이다.

땀감으로는 기존의 장작이나 숯 이외에 새로이 연탄이 등장하여 가정에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난방 기구로는 난로가 등장하여 판매되었는데, 겨울철 학교와 사무실 등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겨울철이 되면 난방 재료인 장작, 숯, 앞나무, 무연탄의 시세는 주요한 기삿거리가 되곤 하였다. “차차 겨울이 깊어감에 따라 겨우살이 걱정도 함께 깊어 가는”<sup>21</sup> 것이 일반 서민들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가정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전구 등을 판매하는 전기 기구상도 나타났다. 불을 붙이는 성냥 또한 널리 보급되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성냥을 가지

고 놀다가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성냥갑을 활용하여 잉크 물을 빼는 생활의 지혜까지 소개하기도 하였다. 펜으로 글씨를 쓰다가 손에 잉크가 묻으면 물에 씻어도 잘 빠지지 않는데, 성냥갑에 있는 황을 물에 적시어 잉크 묻은 곳을 문지른 다음 물에 씻으면 깨끗이 빠진다는 것이다.<sup>22</sup>

문구류로는 붓과 먹 이외에 새롭게 잉크를 넣어 쓰는 만년필이 등장하여 각광을 받았다. 만년필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며칠 쓰지도 못할 만년필을 벌려 놓고 제비를 뽑아서 파는 자가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대개 제비 속에다 여러 가지 암호를 넣어 상은 타지 못하게 하고 만년필만 팔아먹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속는 자가 많았다.<sup>23</sup> 그 밖에 잉크, 펜, 연필, 고무지우개, 필통 등도 새로이 나타나 판매되었다.<sup>24</sup>

## 2 민족 상인들의 상권 수호 노력

### 조선의 상권을 독차지한 진고개

외국 상인과 민족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은 이미 개항과 함께 불붙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국 상인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전국의 물화가 모여드는 최대의 소비 시장인 서울 시장에 진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1885년(고종 22) 수표교에서 남대문 사이는 청국 상점이 300여 호에 달하였으며, 남산과 진고개 일대는 일본 상점이 판을 쳤다.

1929년 『별건곤』에 실린 ‘진고개, 서울맛·서울 정조(情調)’라는 기사에서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진고개 일대의 일본인 상점이 조선의 고혈을 짜낸다고 하며 개탄하고 있다. 종로 거리의 조선인 상가가 “행태그렇하여 빈 듯하며 어둡침침한” 것에 비하면 일본인 상점은 “휘황찬란하고 으리으리하며 풍성하여” 마치 별천지에 들어선 느낌마저 들 정도였던 것이다.

본래 진고개는 조선 시대에는 남산골이라 불리며 초헌(輶軒)이 오가고 옥교(玉橋)나 보교(步橋)가 들락거리며 사령 군령들의 긴 대답 소리와 양반들의 호령 소리가 뒤섞여 나오던 곳이었다. 그러나 강점 이후에 혼마치(本



#### 진고개전경

1911년경에 남산에서 명동 쪽을 촬영한 사진이다. 중앙에 명동 성당이 보인다. 진고개는 본디 남산골이라 불렀으나 일제 강점 이후 혼마치로 이름이 바뀌고 일본인 상점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町)로 이름이 바뀌고, 솟을대문과 줄행랑은 이층집 삼층집으로 변하였으며, 청사초롱은 천백 축의 전등으로 바뀌어 그야말로 일본인 상점이 즐비한 불야성(不夜城)의 별천지로 탈바꿈하였다. 일본인의 거리는 점점 뻗어나가 지금의 충무로·명동·남대문로·을지로 일대는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하였으며, 마치 서울 속의 작은 도쿄와도 같았다.

일제 강점기 진고개는 조선의 상권을 독차지하였다. 6층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미나카이(三井)의 대상점, 조선인 고객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히라다(平田) 백화점, 대자본을 가지고 조선 상업계를 풍비박산 낸 미쓰코시 오복점(三越吳服店)을 비롯하여 좌우로 총총히 들어선 일본인의 상점은 휘황찬란하고 으리으리하며 풍성한 품이 실로 조선 사람들이 몇 백 년을 두고 만들었다는 북촌(北村) 일대에 비하여 얼마나 장한지 견줄 바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조선은행 앞에서부터 경성 우편국(京城郵便局)을 옆에 끼고 진고개를 들여다 보고 가면 좌우로 즐비하게 늘어 선 상점은 어느 곳을 막



종로상가(위)와 변화가(아래)  
1930년경에 촬영한 종로 상가  
와 조선은행과 경성 우편국 일대의 변화가 사진  
이다. 일제 강점기에 진고  
개 일대는 잘 정비된 가로  
에 늘어선 상점이 활기를  
띠었으나 종로의 조선 상점  
은 나날이 쇠락하였다.

론하고 활기가 있고 풍성하며 진열장  
마다 모두 값진 물건과 찬란한 물품이  
사람의 눈을 현혹하며 발길을 끌었다.  
더구나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봄  
철 밤이나 사람을 녹일 듯한 여름밤에  
이곳에 들어서면 온갖 꽃장식이며 서  
늘한 맛이 떠도는 온갖 장치가 천만  
축의 휘황한 전등불과 함께 불야성을  
이루어 마치 별천지에 들어선 느낌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동안에 어느덧 진고개의 찬연한  
광경에 홀리게 되니, 행뎡그렁하여 빈  
듯하며 어둑침침한 종로 네거리 조선  
상점부터 북촌 일대에 비하면 모든 사  
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광경에 정신까  
지도 전부 거기에 빼앗기고 말 지경이  
었다.

그리고 한 번 일본 상점에 들어서

면 사람의 간장까지 녹여 없앨 듯한 친절하고 정다운 일본인 점원의 태도에  
다시 마음과 정신이 끌리게 되니, 한 번 이와 같은 유혹의 단맛을 맛본 후에  
는 한 푼 두 푼 일본인들에게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조선 사람들  
의 발이 잦아지고 수요가 느는 만큼 종로의 조선 상점은 파산이 늘어나고  
살림은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고개의 독특한 유혹에 가는 이  
는 모두 조선 사람이요, 돈을 쓰는 이 또한 거의 조선 사람이니, 이 진고개  
의 유혹이 얼마나 ‘조선 사람의 피를 빨아 가며 조선의 고혈을 착취’ 하는  
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깜깜하고 적적하고 무취미하던 시골에서 온 조선 사람들에게 한 번 이곳을 구경하는 것은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서울 구경을 왔다 간 사람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두 진고개의 자태와 용모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니, 서울 구경 온 이의 3분의 2 이상은 진고개를 보고자 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여기를 구경하고 이곳에 홀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생소원이 “진고개 가서 그 좋은 물건이나 맛난 것을 사면 죽어도 한이 없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어이 서울에 다시 와서 바로 진고개로 가서는 무슨 물건이든지 사고야 마는 것이다. 조선 상점에도 있는 물건을 진고개서 사야만 서울 구경을 한 보람이 있고 자랑거리가 되며, 시골 사람의 독특한 우월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서면 그만 넋을 잃고는 한 가지라도 사고자 했던 것이다.<sup>25</sup>

진고개 일대의 일본인 상가는 진열된 물건들이 화려하고 풍성하여 서울의 부유한 고객은 진고개의 미쓰코시 백화점 등을 자주 찾았다. “기생들과 여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모양인데 물건도 똑같고 값도 조선 상점보다 싸지 않은데도 손님들은 크다는 소문에만 찾아가는 것 같다.”<sup>26</sup> 할 정도로 당시 진고개의 화려함은 조선인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1922년 일본 상점의 손님 가운데 조선인은 8할 정도였으나, 조선 상점의 손님 가운데 일본인은 5푼(分)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sup>27</sup>

혹시 남대문통이나 진고개를 지나 보신 이면 누구나 흔히 눈에 띄는 일이겠지만 정자옥(丁子屋), 평전(平田) 상점 같은 큰 상점에는 언제나 조선 여학생, 신식 부인들로 꼭꼭 차서 불경기의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 하는 듯한 성황 대성황으로 물품이 매출되니 그곳들이 특별히 값이 싸서 그런가



미쓰코시 백화점 개점 광고  
『조선일보』 1930년 10월 24일자에 게재된 미쓰코시 경성 지점 개관 광고이다. 옛 경성부 청사 자리에 지은 이 매장은 현재 신세계 백화점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미쓰코시 백화점은 진고개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곳으로 조선인이 선망하는 대상이었다.

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끌려서 그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손님 대접이 친절한 맛에 그렇다거나 값이 특별히 종로에 있는 조선 상점들보다 싸다면 조선 장사 양반들도 좀 생각해 볼 일이고, 같은 값인데 기를 쓰고 그곳으로 몰려간다면 몰려가는 양반들이 한 번 생각해 볼 일이지요, 삼월 오복점이 또 낙성되었으니, 제일 기뻐할 이는 조선 여학생일 것 같습니다. 언제든 훌륭한 상점에서 물건을 사야만 자기 코가 높아지는 듯한 선입견을 가진 것이 신식 여자인가 보아요. 그렇다면 배우는 것이 도리어 우환이지요.<sup>28</sup>

## 시장 상인들의 폐점 · 철시 운동

일제 강점 후 조선의 상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일제의 정치적 · 행정적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일본 상점은 대자본과 상품 생산 공장을 튼튼한 토대로 삼아 조선의 상권을 장악해 갔다. 이와 반대로 조선 상점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소자본의 영세 상가가 대부분이었다. 일본 상점들은 유리한 토대 위에 조선의 시장과 상권을 잠식해 들어갔다. 하지만, 조선 상인들은 민족적 자부심과 단결을 통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일제 강점기 서울의 상권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북촌 상가와 일본인의 남촌 상가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상권은 거의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북촌의 조선인 상권은 나날이 쇠락하고 있었다. 설을 맞이하는 대목에도 남촌 상가는 푸지고 변화하였지만 북촌 상가는 쓸쓸하고 적적하기만 하였다.<sup>29</sup>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자본에게 중소 자본이 압박을 받고 구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자본의 횡포가 나날이 커져 간다. 백화점이란 것도

역시 대자본 횡포의 산물 중 하나이다. 중소 상업의 뒷덜미를 누르고 손님이란 손님의 발길은 모두 끌려고 하는 것이 백화점의 주안점이다. …… 남풍이 시시각각 북으로 북으로 몰려들어 오니 북촌의 상계(商界)란 것은 그림자조차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상이다. …… 한심하다. 몰려드는 위세도 커다란 북촌 상계로서 하등의 대책도 없고 그날이 그날인 변통할 길이 없는 형상에서 해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 …… 북악과 남산이 에워싸고 있는 경성이 경성안의 상가를 살피어봄에 이 어찌하면 이렇게도 칼로 베인 것과 같이



현저한 간격이 있을까. 남촌은 산 저자거리로 아무리 불경기 때이라고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세가 역력하다. 그러나 고개를 돌이켜 북촌의 중심인 종로 네마루에서 전후좌우를 보고 또 보아도 활기가 있는 것 하나도 눈에 안 띈다. 오직 저물어 가는 저자거리로만 보일 뿐이다. 이 쓸쓸한 상가를 보고 돌아서는 이의 가슴은 누구나 답답하고 눈이 캄캄하다.<sup>30</sup>

이처럼 조선인의 북촌 상가와 일본인의 남촌 상가는 칼로 자른 것처럼 현저한 간격이 있었으며, 북촌의 종로 거리는 활기가 없이 쓸쓸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 조선인점포

1921년 일제가 식민 통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든 사진첩에 실려 있는 조선인 점포의 모습으로, 위는 종로 2가의 상점이다. 일제 강점기에 서울 상권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북촌 상가와 일본인의 남촌 상가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었는데, 조선 상인들은 일제의 비호를 받는 일본 상인에 맞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상인들은 일본 상인들에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으며 곳곳하게 상권을 지켜 나갔다. 또한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상권 수호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상인 연합회(商人聯合會)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인 경영자나 일제의 시장 정책에 반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인 연합회의 주장은 단순히 상권 옹호에만 그치지 않았으며, 민족적 의식까지 반영되어 있었다.

1919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운동 때에도 서울의 종로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상점을 철시하고 휴업하였다.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이 서울 전역으로 퍼져 나갈 때 서울 상인들은 경성시 상민 일동 공약서(京城市商民一同公約書)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3월 9일은 상점을 모두 닫고, 모든 상인은 시위에 가담할 것과 아울러 약속을 어긴 상점은 용서치 않을 것 등이었다.<sup>31</sup> 이 공약서의 발표와 더불어 서울 시내 1,000여 개의 조선 상점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 만세 시위에 동참하였다. 특히 독립 만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종로와 동대문 지역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점·철시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당황한 일제는 군경을 동원하여 상인들을 위협하거나 회유·설득하여 이를 철회시키고자 하였다. 상인 대표 60명을 초청하여 수차례 개점하도록 설득하다가 통하지 않자, 주모자를 색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저항하는 상인들의 폐점·철시 운동은 4월 초까지 계속 이어져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상인들은 이후에도 항일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폐점·철시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1919년 9월 초에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상점을 닫았으며, 10월 1일에는 상해 임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전국 상인들이 폐점하였다. 일제는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서울의 중요

상인을 소환하여 개점토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가차 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전달하였으나, 이날 서울 1,038개의 조선 상점이 일제히 폐점·철시하였다.

1920년 3·1 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서는 서울의 상점들이 대한 국민회(大韓國民會)의 철시 경고문(撤市警告文)에 따라 대부분 문을 닫고 철시에 들어갔다. 일제 군경의 탄압을 받아 그날로 가게 문을 다시 열 수밖에 없었지만 서울 상인들의 일제에 대한 항거는 매우 강경하였다.<sup>32</sup>

1920년 8월 24일에 동양 시찰을 명목으로 한 미국 의원단 일행 49명이 경성에 도착하였다. 이를 기회로 미국 의원단과 세계에 조선 사람의 열렬한 독립 희망과 열정을 알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서울 상인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미국 의원단이 도착하는 24일 아침부터 거리의 모든 가게가 철시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미국 의원단을 영(迎)하는 경성시는 천기(天氣)까지 험악, 온 장안의 상점은 모조리 철시를 하고 서리발갓치 무장한 경관대의 계엄은 금시에 무슨 중대한 사건이나 이러날듯” 하여 “아무리 보아도 귀한 손님을 마지하는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sup>33</sup> 할 정도였다.

종로 네거리의 큰 상점들은 물론 남대문통으로는 은행이나 회사만 문을 열어 놓았을 뿐 남대문 안까지 모두 철시하였으며, 서대문통과 동대문통을 비롯하여 심지어 무교동 골목의 상점들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 경관들이 닫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도록 강요하고, 강제로 가게 문을 뜯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종로에서 철물점 주인을 포박하기도 하는 등 살기등등하였으나, 상인들은 아예 문을 밖으로 잠그고는 몸을 피해 버렸으며, 간혹 경관의 호령에 못 이겨 문을 열더라도 경관만 지나가면 곧바로 문을 닫아 버렸다. 상인들은 미국 의원단이 출국한 다음날인 8월 26일부터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였다.



사이토마코토

1919년 조선 총독에 취임하여 식민지 통치 방법을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전환하였다. 그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 조선 상인들은 상해 임시 정부의 정령에 따라 폐점·철시하였다.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일제히 폐점·철시를 단행하여 항일 운동에 동참하는 뜻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인들의 저항 운동은 경제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나타나 일화(日貨) 불매 운동이나 조선 물산 장려 운동 또는 민족 기업 건설 운동 등으로 연결되었다.

### 조선 물산 장려 운동

조선 사람이 조선 물건을 사야 하는 것은 조선 사람이 살기 위하여 가장 합당한 일이며, 외국 물건이라 해도 조선 상점에 가서 사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하여야 조선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으며, 옷을 입을 수 있다. 사람이 경제 압박을 받고 물질의 곤란을 당하면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으며 자유도 없고 쾌락도 없는 것이다.<sup>34</sup>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된 경제 자립 운동이다.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근대 기업을 일으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경제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운동은 상해 임시 정부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라는 정령에서 흥업(興業)과 식산(殖産)을 강조하면서 국내의 운동으로 표현되었다.<sup>35</sup>

1920년 8월 평양 기독교계의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 기업의 건설과 육성을 촉구하고자 평양 야소교서원(耶蘇敎書院)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발족하였다. 이 운동에 호응한 서울의 조선 청년회 연합회에서는 1922년 말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일간지를 통해 조선 물산 장려 표어를 모집하는 한편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는 지방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이 점차 민중 속으로 퍼져나가자 마침내 1923년 1월 서울 낙원동 협성 학교(協成學校) 강당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의 전국적 조직체가 탄생하였다. 국내 30여 사회 단체가 발기한 이 조직체에는 독립 운동

◆ 조선사람조선것 ◆

# 土產獎勵 日 土 行 實 自 作 自 給

◊ 動 運 活 自 活 就 成 로 勢 合 致 一 的 衆 民 萬 千 二 ◊

◆ 내살림내것으로 ◆

## 兩處の大講演

午後二時에는親會

장선기하하는경기도청에

講演會는午後七時부터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 行列禁止에 憤慨

최선과 안락의 운동비도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 八道聯合意味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 行列禁止理由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조선사람조선것으로

가·교육자·종교인·기업인·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민족 지도자가 망라되었다. 조선 물산 장려회는 “우리의 입은 옷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먹는 음식을 스스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돌아보라. 그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돈으로 지은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산출한 것인가. …… 우리가 우리의 쓰는 모든 물건을 집과 땅과 몸뚱이까지 팔아서 남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강산에 몸을 붙이고 집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 라고 밝혔듯이 “조선 물산을 장려하며 조선인의 산업을 진흥하여 조선 경제를 자립할 목적으로” 창립되었다.<sup>36</sup>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조선 물산 장려회는 다음과 같은 실행 조건을 정하고 대중 계몽 운동에 나섰다. 첫째 의복은 남자는 무명베 두루마기를, 여자는 검정 물감을 들인 무명 치마를 입는다. 둘째 설탕, 소금, 과일,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우리 것을 사 쓴다. 셋째 일상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 생산품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실용품을 써서 될 수 있는 대로 절약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조선 물산 장려운동의 기본 정신이었다. 곧 외국 상품을 배척하고 토산품을 애용하자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국산품을 애용하여 민족 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23년 2월 15일을 조선 물산 장려 선전의 날로 정하였는데,

물산장려운동신문기사  
『동아일보』 1923년 2월  
16일자에 실린 조선 물산  
장려 운동 기사이다. ‘내  
살림내것으로’, ‘조선사  
람 조선것’이라는 구호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날이 얼른 왔으면, 세월이 빠르다더니 이런 때는 더디도다. 오늘 자고 내일 자고 모레면……” 하고 어린이가 명절 기다리듯 기다렸다.

“야! 이제야말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답다. 토산(土産)을 입고 토산을 먹고 토산을 쓰게 된 것이 분명한 조선 사람이다. 백지 한 장, 먹 한 개라도 다 조선 것이 아닌 것이 없다.”<sup>37</sup>는 감격을 펼쳐 놓듯이 이 운동에 대한 민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감격스럽기까지 하였다.

전국 각처에서 토산품만을 쓰기로 한 결의가 연이어 일어났고, 사립 학교에서는 무명으로 만든 교복의 착용 운동이 벌어졌으며, 부인들도 잇따라 토산 애용 부인회를 조직하여 토산품을 애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서울에서 조직된 토산 애용 부인회는 “거미나 개미, 까마귀도 제 살 경륜을 스스로 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은 의복 살림이 모두 남의 것이다. 이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나라꼴이야 어떻든 여자들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 우리가 나라 일으킬 생산 능력은 없으나 토산물을 애용하고 절약하여 민족과 내 가정을 일으키자.”<sup>38</sup>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기생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토산 장려 기생 동맹이 생겼고, 특히 물산 장려 강연을 듣고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일제 옷을 찢어 버리는 사람도 속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토산 면포가 유행하여 국산 포목이 잘 팔리고, 점차 공급이 수요를 미치지 못하여 값이 오르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면방직 공업이 발전을 보게 된 것도 이러한 사정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sup>39</sup>

그러나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은 초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조선인 자본이 취약한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토산품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일반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되어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민족 상인들의 성장과 상회사 설립

일제 강점 이후 왜곡된 식민지 자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돈의 위력은 커져만 갔다. 전통적 가치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비하되었으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열(拜金熱)은 날로 더해 갔다.

같은 동양 사람일지라도 중국 사람을 대하면 음울한 것이 연상되고, 일본 사람을 대하면 경박함이 연상되고, 조선 사람을 대하면 군자와 처사가 연상된다. 다시 말하면 조선 사람은 그 산수가 아름다운 것과 같이 마음이 맑고 곱다. 무엇을 구태여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적으며, 그 옳지 않으면 천하를 줄지라도 받지 않을 지조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천금산진환복래(千金散盡還復來)’는 우리가 사랑하던 글귀요, ‘인생출전(人生出錢)’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금전관(金錢觀)이었다. …… 우리가 금일 일반으로 들어 알게 된 것은 대강 세 가지 경로가 있으니, (1) 위로는 매관매직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학대하고 재물을 탐할 때에, 즉 돈만 있으면 세간의 호사를 홀로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입신양명(立身揚名)도 할 수 있다고 느낄 그때에 위아래가 비로소 돈의 위력과 돈의 단맛을 알게 되었다. (2) 그 후 총독 정치가 시작되며 이래 십 년 간에 학식도 문벌도 사상도 인격도 다 쓸 데가 없고 오직 돈만 있으면 신분 좋은 사람 축에 들어 도군참사(道郡參事)나 면역원(面役員) 한 자리라도 얻어 하게 되는 판에 일반은 다시 한 번 돈의 위력을 느끼었다. (3) 최근의 만세 운동과 같이 문화 운동을 시행할 새 이것저것 시설할 것은 부지기수인데 돈 한 가지 없어 그리 못함을 느끼는 때 보는 때에 일반은 가장 절실하게 돈의 필요를 느끼었다.<sup>40</sup>

이처럼 배금열이 퍼지면서 돈을 다루는 상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으며, 전통 시장과 상가나 백화점 등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상업 인



박홍식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상업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 1926년 선일지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종이와 신문 용지 판매에 주력하여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1930년대 중반 화신의 총수로 성장하였다. 당대에 발복(發福)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갑부가 되기도 하였으나 당대에 망한 비운의 기업인이기도 하다.

없고, 포목상으로 유명한 김희준(金熙俊), 최남(崔楠) 등도 이에 못지않은 재력가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40년에 실시한 재계와 실업계의 1년 소득액 조사에서 박홍식은 20만 원으로 3위, 김희준은 15만 원으로 7위, 최남은 13만 원으로 9위를 기록하고 있었다.<sup>42</sup>

박홍식은 평안남도 용강(龍岡) 출생으로 17세에 고향에서 미곡상으로 출발하였다. 1926년에 상경하여 이듬해에 24만 원을 투자하여 을지로에서 선일지물 주식회사(鮮一紙物株式會社)를 창설하여 비범한 경영 활동으로 성공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1931년에는 종로의 금은보석상인 화신 상회(和信商會)를 인수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934년 화신 상회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보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최남이 경영하던 동아 백화점을 인수하고 350여 개의 연쇄점을 전국에서 일제히 개점하는 등 사세 확장을 꾀하였다. 1937년에는 화신 백화점 사옥을 7층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 평양에도 화신 백화점을 개설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의 활로가 오직 상업의 발전 진흥에 있음”을 알고, 오직 사업에 몰두함으로써 화신 백화점을 창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가 일으킨 화신 백화점은 일제 강점기에 억압받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적 자부

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1915~1919년 사이에 서울의 직업 인구 가운데 상업 종사자의 비율은 28~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 이르면 상업과 공업 및 공무자유업 종사자가 70%를 넘을 정도로 서울은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sup>41</sup>

일제 강점기 조선인으로 자본을 축적한 대표적 인물은 화신 백화점의 주인 박홍식(朴興植, 1903~1994)을 꼽지 않을 수

심과 긍지를 불어넣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인 정신을 잇는 대표적인 인물로 박승직을 빼놓을 수 없다. 경기도 광주 출신인 박승직은 집안이 가난하여 농사일을 돕다가 19세에 송파 상인들과 교제하면서 장사에 투신하게 된다. 1898년경에 서울 배오개에 박승직 상점을 개설하여 초기에는 포목점을 하다가 그 뒤 업종을 다양화하여 미곡과 식염 등의 위탁업도 겸하였고, 소매뿐만 아니라 도매업도 하였다. 1921년 이 상점은 개인 기업으로서는 최고의 납세자가 되었다.

그의 이색적인 기업 활동 중 박가분 제조 본포(朴家粉製造本鋪)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재래식 화장분(化粧粉)을 기업화한 것으로, 1920년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1930년대부터 일제 고급 화장품이 수입 시판되면서 1937년 폐업하였다. 박승직 상점은 해방 후 그의 아들 박두병(朴斗秉, 1910~1973)에 의하여 두산(斗山) 그룹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신용제일과 근검절약의 정신과 아울러 그가 후손들에게 남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가업에 충실하라.” 는 가훈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박승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통 상인들은 일제 강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꿋꿋하게 맡은 일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상업 발달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으며, 자본을 축적한 후에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계·문화계 등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박흥식과 박승직 외에도 19세기 말 종로에 자리를 잡았던 포목점 ‘수남 상회(壽南商會)’는 합자 회사 형태의 가족 기업으로 출발하여 1910년대 후반에 호황을 누렸고, 1920년대에는 무역업, 도매업에도 진출하였으며 1935년에는 주식회사로 개편되었다.<sup>43</sup>

1920년 조선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민족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다. 마침 김윤배(金潤培)가 종로 2가에 도자기, 철물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 성격의 김윤 백화점(金潤百貨店)을 설립하였고, 유재선(劉在善)은 종로에 계림 상회(鷄林商會)를 설립하여 혼수품, 원삼, 포목, 금은동 세공, 양산, 축음기 등을 판매하였다. 계림 상회는 1926년 합명 회사로 바꾸어 백화점식 잡화점으로 기반을 다져 나갔다.

1920년 이돈의(李敦儀)는 종로 2가에 고려 양행(高麗洋行)을 설립하여 메리야스 종류와 양산 등을 팔았다. 종로뿐 아니라 남대문에도 조선인이 경영하는 상점이 들어섰다. 1926년 신구범(愼九範)은 남대문 1가에서 금강상회(金剛商會)라는 현대식 백화점과 유사한 잡화점을 개설하였고, 김윤면(金潤冕)은 남대문에서 기존에 운영해 오던 포목점을 화양 잡화점(和洋雜貨店)으로 바꾸어 백화점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sup>44</sup>

## 전통 시장의 변화와 백화점의 등장 3

### 남문 안장에서 남대문 시장으로

남대문 시장은 조선 말까지 ‘남문(南門) 안장’ , ‘신창(新倉) 안장’ 으로 불렸는데, 이는 선혜청(宣惠廳) 창고가 있던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 남대문 안 시전 주변에는 가가(假家)와 상점들이 어지럽게 자리하고 있어 교통 문제가 유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96년(고종 22) 박정양(朴定陽) 내각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성 내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을 공포하고 남대문로를 정비하였다. 이때 시전은 물론 남대문 밖에 있던 칠패까지 선혜청 안으로 옮긴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11년 12월에는 남대문 시장에 큰 화재가 일어나 시장의 상당 부분이 불타버렸다. 당시 상인들이 스스로 건물을 복구할 형편이 못되자, 1912년 조선 농업 주식회사(朝鮮農業株式會社)에서 남대문 시장의 경영 허가를 받아 근대적 모습의 시장을 형성하였다. 조선 농업 주식회사는 이완용(李完用) 내각의 내부대신이었던 송병준(宋秉駿)이 1905년 9월에 설립한 농업, 부동산 회사였다. 주식회사란 명칭뿐이고 장남인 송종(宋種)을 사장으로, 차남을 전무로 앉힌 일종의 가족 회사였다.

남대문 시장은 1921년 10월 12일과 12월 14일 다시 두 차례의 대화재가 발생하여 시장이 전소되었다. 조선 농업 주식회사는 화재가 난 이듬해인 1922년 남대문 시장 1,070평에 연와조(煉瓦造)의 점포 139호, 170평의 야채 시장을 건축하겠다고 경기도 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나,<sup>45</sup> 재건축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아 남대문 시장의 경영권은 중앙 물산 주식회사(中央物産株式會社)로 넘어갔다.

중앙 물산 주식회사는 남대문 시장을 경영하려고 설립된 일본인 회사였다. 남대문 시장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중앙 물산 주식회사는 1922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 140여 개의 점포를 벽돌 건물로 완공하였다. 원래 중앙 물산 주식회사는 시장 조합원들에게 점포세를 올리겠다는 조건으로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기존에 6원 30전씩이던 월세를 33원 50전으로 대폭 올려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상인들은 분개하여 월세를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경기도와 경성부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sup>46</sup>

그 후 1929년에 이르러 중앙 물산 주식회사는 남대문 시장 일대의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 토지 불하 운동을 결정하였다.<sup>47</sup> 이에 따라 1931년 조선 총독부는 국유지였던 남대문 시장 2,600여 평을 시가보다 10% 정도 싸게 중



남대문 곡물시장  
1930년대에 촬영한 사진이다. 시장 바닥에 늘어놓은 각종 곡물을 갓과 두루마기 차림의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다.

양 물산 주식회사에 불하하였다. 이로써 남대문 시장이 국유지에서 민유지로 변경되자 중앙 물산 주식회사는 곧바로 세금을 인상하였다. 이에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중앙 물산 주식회사의 일방적 시장 운영에 불만을 품은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시장 연합회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1933년 12월 26일 남대문 시장의 조선인 상인 24명이 발기하고 115명의 상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식도원(食道園)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남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를 창립하였다.<sup>48</sup>

1936년 3월에 이르러 일본인들은 남대문 시장의 명칭을 중앙 물산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조선 상인이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남대문 시장이라 불렀다. 또한 남대문 시장은 1937년 3월 24일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일제는 남대문 시장의 시장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신 새로운 중앙 도매 시장 건설 계획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앙 도매 시장이 들어설 염천교 부근에 적당한 후보지를 잡아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sup>49</sup> 그러나 남대문 시장은 시장 허가 기한이 만료된 1937년 3월 24일 이후에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남대문 시장을 대신하는 중앙 도매 시장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제는 중앙 도매 시장 건설을 계속 연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만주 사변, 중일 전쟁으로 자금과 물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 도매 시장은 1939년 4월 1일 문을 열었으나, 남대문 시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소매 시장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sup>50</sup>

### 조선인 상인들이 경영한 동대문 시장

일제 강점기 동대문 시장은 남대문 시장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동대문 시장도 남대문 시장과 마찬가지로 황

토현(黃土峴)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도로 개수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이현 시장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 시장은 1905년 7월 동대문 시장 관리를 위한 광장 주식회사(廣壯株式會社)가 예지동(禮智洞) 4번지에 설립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명칭도 처음에는 동부 이현의 예지동에 세워졌다 하여 ‘배우개장’ 이라고 부르다가 광장 주식회사가 설립된 1905년경에는 동대문 시장, 또는 ‘광장 시장’ 으로도 불렸다. 광장 주식회사는 고종의 측근이었던 김종한(金宗漢), 종로 상인 박승직(朴承稷), 거상 홍충현(洪忠鉉) 등이 설립하였으며, 설립 목적은 동대문 시장의 경영뿐만 아니라 토지 가옥의 매매와 금전 대부업이었다.

김종한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도승지로 발탁된 개화파 인물로 내부 협판, 궁내부 협판, 군국기무처 개혁 위원 등을 지낸 고관이면서도 이재(理財)에 밝아 각종의 기업을 경영하는 등 부를 축적하였다. 한성은행을 비롯하여 여러 은행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10년 이후에는 조선 권업 주식회사(朝鮮勸業株式會社), 조선 무역 주식회사(朝鮮貿易株式會社) 등 여러 기업체에 이사로도 참여하였다. 국권 상실 이후 일제에게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sup>51</sup>

광장 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장은 김종한이 맡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상인 출신인 홍충현 등이 담당하고 있었다. 1912년에 시장의 운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사장단과 실제 운영자들 두 세력 사이의 알력이 표면화되었으며, 결국 광장 주식회사의 운영권은 상인 출신 자본주였던 박승직, 김한규(金漢奎) 등이 장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1931년 4월에는 동대문 시장의 상인 100여 명이 광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점포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광장 주식회사는 중역 회의를 거쳐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다. 그러나 광장 주식회사가 처음부터 순순히 임대료 인하에 응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당시 상인 대표인 함태영(咸太永)이 임



동대문상설시장  
1933년에 촬영한 사진이다. 늘어선 상가 사이로 수많은 인파와 우마차가 다니고 있다.

대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임대료 불납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광장 주식회사 사장 김한규는 “지금의 임대료는 16년 전에 정한 것으로 호경기 때에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비싼 것은 아니며, 또 상인들이 타협적으로 나와도 생각해 볼 일인데 명령적으로 요구하는 데에 분개한다고 하여 상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기로 하였다.”<sup>52</sup>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저간의 사정을 말해 준다. 1936년 2월 당시 동대문 시장의 점포 임대료는 점포 1칸에 매월 2원에서 4원 50전이였다.

그래도 조선인 회사인 광장 주식회사가 부지와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동대문 시장은 일본인 경영자와 상인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많았던 남대문 시장보다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었다. 광장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운영, 관리하였고, 거래 품목별로 상인 조합을 결성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원의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끝까지 광장 주식회사가 경영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민족 시장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37년에 이르자 동대문 시장도 남대문 시장과 마찬가지로 허가 기간

만료와 이를 대신할 중앙 도매 시장의 출현에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중앙 도매 시장의 설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동대문 시장을 경영하는 광장 주식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로 인접한 금촌 양행(今村洋行)의 부지와 건축물을 매수하고, 시장 내 시설의 확충과 건물의 개축에 착수하였다. 더불어 동대문 시장도 다른 시장과 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중앙 도매 시장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

동대문 시장은 1939년 4월 1일 중앙 도매 시장이 개점한 이후에도 소매 시장으로 계속 존속하였다. 원래 소매 시장의 기능이 강하였던 동대문 시장은 도매 시장 기능이 강하였던 남대문 시장보다 충격을 그리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상권의 축소는 불가피하였다.<sup>53</sup>

### 충무로의 일본인 백화점

서울에 백화점이 처음 들어선 것은 1906년 일본인에 의한 미쓰코시 오복점(三越吳服店)이 시초이다. 오복점이란 우리의 포복점과 같은 것이다. 충무로 1가 현재의 사보이 호텔 건너편에 처음 자리를 잡은 미쓰코시 오복점은 일본 미쓰코시 백화점의 서울 출장소로서, 처음부터 본격적인 백화점은 아니었고, 수출입을 주업으로 하면서 겸하여 소규모 잡화상을 경영하는 정도였다. 그 후 미쓰코시 오복점이 백화점의 면모를 갖춘 것은 1929년 서울 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서부터이다. 1929년 경정부 청사가 있던 현재의 충무로 1가 진고개 입구에 지상 4층, 지하 1층, 종업원 360명으로 명실 공히 현대식 백화점다운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오늘날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 건물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sup>54</sup>

미쓰코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업이나 관리 형태에서 체계화된 근대적인 백화점이었다. 특히 조직적인 면에서는 체계화가 더욱 뚜렷하였다. 백화점의 총책임자로 지점장이 있었고 그 밑에 차장이 있었으며, 차장



#### 미쓰코시 백화점

1926년 경성부 청사가 현재의 서울 시청 자리로 옮기자 그 공터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한 모습이다. 미쓰코시 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이었다.

밑에는 인사, 서무, 경리, 선전, 식품, 오복, 잡화, 의류, 조선 물산부 등 아홉 개 부서가 있었다. 그리고 서무와 경리부에는 별도로 영선계와 계산계가 있었다.

최종적인 기획 업무는 일본 본점 기획실에서 맡았으며, 또한 전체 매장의 운영은 직영 체제로 하고 관리가 곤란한 것, 귀금속이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류는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임대는 일정한 기준은 없었으나 수수료로 매출의 10% 정도를 적용하였다.

매장의 구성은 지하에 유리 그릇, 주방용품, 식료품 매장, 일반 잡화 코너와 손님용 간이식당이 있었고, 1층에는 약국, 여행 안내소, 단체 주문 상담실, 화장품 코너, 게다·조리 등 일본 신발 코너, 고급 식료품 매장 등이 있었다. 2층에는 주로 일본 옷인 오복을 팔았으며 맞춤복, 기성복이 골고루 있었다. 이곳의 주요 손님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주단, 포복은 취급하지 않았다. 3층에는 신사 양복, 숙녀 양장 코너가 있었으며 매장 내에 재단사와 옷 만드는 공장이 있어 맞춤복의 봉제도 하였다. 그 밖에 신사용 모자, 구두 등 양품 코너도 있었다. 4층에는 귀금속, 가구 매장, 대형 홀, 커

#### 조지야백화점

1930년대에 촬영한 사진이다. 미도와 백화점의 전신인 조지야 백화점은 백화점보다 양복점으로 더 유명하였다.



피습과 식당을 겸한 대형 식당도 있었다. 미쓰코시의 이러한 매장 구성은 1930년부터 1945년까지 15년간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미쓰코시는 원칙적으로 정찰제 판매를 하였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값을 깎아준 적도 있었다. 지금의 바겐세일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매출 행사는 1년에 두 차례, 2월 말과 9월 말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물건을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미쓰코시 경성 지점의 운영 방식 중 또 하나의 특징은 고객 서비스였다. 판매원들은 손님이 드나들 때마다 일본인에게는 일본어로, 조선인에게는 조선어로 인사하였다.

미쓰코시 백화점의 개관은 한국 백화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상가이자 가장 다양한 상품을 파는 곳이었다. 미쓰코시는 비록 일본 자본으로 설립하였지만 한국 최초의 백화점이라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55</sup>

1929년 9월에는 양복점을 경영하던 고바야시(小林)가 주식회사 조지야(丁子屋) 상점을 개점하였는데, 1934년 3월에 50만 원이었던 자본금이 1939



#### 충무로거리

1940년경에 촬영한 충무로 입구 사진이다. 충무로의 일제 강점기 명칭인 혼마치(本町)의 설명이 쓰여 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줄지어 있다. 일본인들 사이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조선인도 보인다.

년에는 250만 원으로 증자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남대문로 2가에 현대식 대형 점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이후 조지야는 2002년까지 존속한 미도와 백화점으로 이어졌다.

1922년에는 포목점을 운영하던 나카에(中江)가 미쓰코시 백화점과 마주 보이는 진고개 입구에 미나카이 백화점(三井百貨店)을 설립하였다. 미나카이 백화점도 오복점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잡화상으로 발전하였고, 1932년에는 서울의 본점 개축 공사를 단행하여 7층의 현대식 건물로 백화점을 세웠다. 이 미나카이 백화점은 한국 내에 13개, 일본에 3개와 중국의 창춘(長春), 선양(瀋陽)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1926년에는 충무로 1가에 히라다 백화점(平田百貨店)이 설립되었다. 이 백화점은 자본금이나 매장 면적이 미쓰코시나 미나카이 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규모였지만, 젊은 여성들의 의상, 화장품, 가구 등의 매매가 특징이었다.

미쓰코시, 조지야, 미나카이, 히라다 등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은 모두 충무로 진고개 일대에 설립되었고, 자연히 이 지역은 일본인 상점이

즐비한 거리가 되었다.

이후 일본인 거리는 명동, 남대문, 을지로 일대까지 점차 확대되어 거대한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었다. 반면 종로에는 김윤, 동아, 화신 등 한국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이 설립되어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남촌 상가와 종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북촌 상가가 대립하는 구도를 이루었다. 그러나 말이 대립이지 초기에는 변화함이나 화려함, 활기 등은 상대가 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 종로의 조선인 백화점

1916년 최남(崔楠)이 종로 2가에 양품 잡화, 문방구, 학용품 등을 취급하는 덕원 상점(德元商店)을 설립하였다. 최남은 당시 진고개 일본인 상점에서 경험을 쌓은 한국인 점원을 고용하여 상점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당시 한국인 상점들은 제조 공장에서 직접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서울의 일본 도매상에게 상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남은 경험이 많은 점원을 오사카에 보내 상주토록 하고 일본 공장 제품을 직수입하였다. 이렇게 최남의 덕원 상점은 좋은 상품을 값싸게 판매한다는 소문이 시중에 퍼지면서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잡화상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이어 1919년에는 종로 2가 31번지 탑골 공원 서편에 여성 전용 백화점인 동아 부인 상회(東亞婦人商會)를 인수하여 확장하는 한편 함흥, 대구, 전주, 광주, 나주, 순천, 목포에 지점을 설치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1931년에는 민규식이 종로에 4층 건물을 신축하자 이 건물을 전세로 얻어 동아 백화점(東亞百貨店)을 개점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첫 번째 백화점이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경영하는 동아 백화점이나 화신 상회는 여전히 일본



#### 동아백화점

1932년 화신 상회가 동아 백화점(오른쪽)을 인수한 다음 두 건물 사이를 오가며 쇼핑할 수 있도록 육교를 가설한 무렵의 사진이다. 동아 백화점은 1931년 최남이가 개점하였는데, 한국인이 경영하는 최초의 백화점이었다.

인이 경영하는 미쓰코시나 조지야 백화점에 비해 규모나 자본력에서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 유치 방법도 뒤떨어졌다. 1931년 신태익(申泰翊)은 “화신 상회는 한국 사람들이 경품만 좋아하는 것으로 알았던지 1년 내내 ‘만년 경품부 대매출’ 만 한다.” 고 비판하였고, 최남이는 “지방에 지점 설치하느라고 동아 백화점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고 하였다.<sup>56</sup>

그 후 최남이는 동아 백화점을 미쓰코시 백화점 못지않은 현대식 백화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점포 내의 진열과 장식에 특히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다. 또한 200여 종업원을 모두 일본인 백화점의 종업원에 뒤지지 않게 훈련시켰고, 손님을 대할 때도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하였다. 종업원 중 절반을 여성으로 채용한 다음 그들에게 깨끗한 의복을 입혀 손님에게 친절과 봉사를 다 하도록 힘썼다. 이러한 친절과 서비스 정신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동아 백화점의 특색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값싸게 판매한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방면의 직수입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였다.

동아 백화점을 경영하기 시작한 최남이는 백화점의 중심부에 대규모의

십전 균일점(十錢均一店)을 개설하였다. 이것은 당시 상업계에서는 첫 시도였다. 박리다매(薄利多賣) 방식의 십전 균일점은 일반에게 생소하였기 때문에 취지를 알리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후 그는 십전 균일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십전 균일점이 조선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결론지었다. 그가 제시한 조선에서 십전 균일점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값은 싸지만 분량이 많아서 오사카에서 서울까지 오는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서울에서 물품이 품질되면 서울에 공장이 없어서 약 1주일 이상의 시일이 걸려야 보충된다는 점, 중요 물품의 품질을 피하고자 대량의 물품을 구입하면 재고와 파손, 자본 회전이 늦어져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 등이다.

한편으로 최남은 십전 균일점이 조선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케하면 성공할 듯

그러나 비록 이와 가튼 여러 가지 난관이 잇스면서도 나는 서울에 약 1만원가량의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 균일점을 개설한다면 반드시 이익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서울도 한 곳쯤 한하야, 그리고 지방에는 아직 인구에 밀도상으로 볼지라도 일입니다. 지방에다가 개점하면 비용 때문에 유지되기 어려울 줄 압니다.

원래 이상으로 말하면 조선서도 아메리카처럼 자기가 만든 상품을 자기 상점에 내어다가 팔도록 되면 조할 줄 아는데, 제 공장이 잇스니까 10전에 팔 것을 미리 요량하고 9전이나 8전을 먹혀 제품하여 손해업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종류도 여러 백종을 할 것 업시 몇몇까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가할 줄 아니 십전 균일점에서 잘 팔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식료품부(조흔 재료로 맛있게, 수량도 알맞게 하여 몇 가지 골나 팔면 인기도

끄을고 장사도 되리라고 본다.) 둘째 자기(磁器)부(모양있고 신선한 것 몇가지) 셋째 화장품부(요새 시체(時體) 젊은이들은 돈이 적게 들고 맵시는 잘 나어지는 물품을 차즈니까 포-마도, 구립, 백분 등化粧품을 적당하게 준비하여 노코 팔면 인기를 끌을니라고 본다) 그러면 선전은 엇더케 할가. 내가 경험해 본 바로 보면 선전 포스타 가튼 것은 그리 필요하지 안타고 생각합니다. …… 선전은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선전 비용은 그러케 과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업습니다. 오직 요는 조선에 공장이 어서 되어지는 점에 잇습니다.<sup>57</sup>

일본 공장에서의 제품 직수입과 십전 균일점을 통한 박리다매의 시도는 최남의 경영관 내지 상업관과 일치한다. 즉 그의 경영관은 상점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하며, 경영자는 이익을 적게 하여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한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품의 진열에서부터 손님의 눈길을 끌게 하고 유행에 맞는 상품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최남의 경영 철학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얻은 체험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뛰어난 경영 철학에도 동아 백화점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종로에서 팽창하고 있던 화신 상회에 병합되고 말았다.<sup>58</sup>

1903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미곡상, 인쇄소를 경영하던 박흥식이 서울에 진출하여 선일 지물(鮮一紙物)로 성공한 것은 20대의 청년 시절이었다. 지물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박흥식은 신태화가 설립한 귀금속상 화신 상회를 36만 원에 인수하여 총자본금 100만 원으로 주식회사 화신 상회를 출범시키고, 이를 기념하여 특별 경품, 보통 경품, 상품권 등 3종의 경품부 대매출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특별 경품 1등에게는 20평 짜리 기와집 한 채를 제공하였다.<sup>59</sup>

이때가 1932년 5월이었다. 화신 상회 바로 옆 건물에 동아 백화점이 들



#### 화신상회

1931년 박홍식이 화신 상회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로 출범시킬 무렵의 화신 상회 모습이다. '창립 기념 대매출'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다. 새로운 경영 방식을 구사한 박홍식은 곧이어 동아 백화점을 인수하였다.

등록기 설치, 주택을 상품으로 주는 등의 대담한 상행위로 새로운 경영 방법을 구사하는 박홍식의 적수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동아 백화점을 흡수한 화신은 두 건물 사이에 육교를 가설하여 양쪽을 오가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신 백화점이 개관한 1932년 12월 14일에는 만 2년 동안 유지되던 금본위제(金本位制)가 폐지되는 바람에 곧바로 일본에서의 금 수출이 금지되었다. 이 조치로 금은 등 귀금속과 여타 상품의 가격이 치솟았다. 금은을 중심으로 하는 화신은 매장과 창고에 잔뜩 쌓였던 재고품으로 전에 없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박홍식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는 이미 '답례용 상품권 증정 사은 대매출'의 성공적 상술로 백화점 경영의 왕자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화신의 경영 방식은 연쇄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 화신의 면모를 일신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은 연쇄점 사업이었다. 화신의 첫 번째 사업이었던 연쇄점 구상은 서울의 화신에 중앙 본부를 두고, 전국 13개 도의 주요 시, 군, 읍, 면에 설립된 연쇄점은 자기 자본과 책임 아래 경영하는 시스템이었다. 당시의 한국 상인들, 특히 지방 상인은 부동산 담보 능력은 있었지만 현금 동원력이 미약하였다. 화신은 여기

어선 것은 1932년 1월로 화신보다 4개월가량 앞섰고, 규모 면에서도 동아 백화점에 비해 화신은 백화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6일 화신 상회는 동아 백화점의 상호와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동아 백화점의 최남 사장은 박홍식보다 훨씬 앞서 잡화점 업계에 진출한 인물이었지만, 일본 오사카 공장에서 물품 직수입, 상품권 발행, 금전

에 착안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지방 상인이 현금이 없어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반품을 받아 주었다. 이 구상은 1934년 1월 신문 지상에 먼저 발표되었고, 6월 15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전국 1,000여 개소의 연쇄점 모집 광고를 게재하자, 며칠 후인 6월 18일경에는 신청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934년 6월 15일에 『오사카 매일신문』에서 ‘조선의 미쓰코시 화신의 신전술’이란 제목으로 이 일을 보도하였는데, 국내 신문들도 ‘1천 개 연쇄점 설립’이란 제목으로 보도할 정도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화신은 전국적으로 1차 350개의 연쇄점을 일제히 개점시켰다. 화신의 이런 신전략에는 미쓰코시, 미나카이, 조지야 등 3대 일본 백화점도 맞서 경쟁하지 못하였다. 화신의 연쇄점은 지방 상인들에게 새롭고 과학적인 상점 경영 방법을 주지시켰다. 특히 외상 거래에 시달리던 지방 상인들이 정찰제를 시행하여 기존 상행위를 일신하였다는 데에 더욱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화신연쇄점

1934년 11월에 전국 주요 시, 군, 읍, 면에서 일제히 문을 연 화신 연쇄점의 모습이다. 자기 자본과 자기 책임 아래 경영하는 연쇄점은 어느 정도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미약했던 지방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화신 연쇄점에서 취급한 상품은 주로 양품, 잡화, 의류, 그릇 등이었으며, 문방구, 식료품, 수예품, 화장품, 완구 등도 취급하였다. 화신 연쇄점의 성공은 박홍식을 일약 백화점 사업의 왕자로 올려 놓았으며, 화신 재벌의 모체가 되었다. 1936년 『경성일보』가 발간한 『조선연감』에는 당시 우리나라 10대 재산가의 한 사람으로 박홍식이 들어 있다.<sup>60</sup>

그러한 가운데 1935년 1월 27일 목조 4층 건물이던 화신 백화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제1차 연쇄점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때였다. 이렇다 할 고층 건물이 없던 시절이라 화신 백화점 앞은 그야말로 불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화재 당시 박홍식은 아직 혈기왕성한 30대 초반이었다. 박홍식은 바로 복구 계획에 착수하였고 500여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 식산은행, 보험 회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1937년 10월 화신의 서관에 인접한 대창 무역(大昌貿易)의 부지까지 새로 구입하여 지하 1층, 지

#### 화신 백화점

1980년대에 촬영한 화신 백화점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외양은 1937년에 갖추었는데, 당시 종로의 명물이자 조선 전체의 자랑거리였다.



상 6층의 현대식 건물을 건축하여 본격적인 백화점 모습을 갖추었다. 이는 미쓰코시나 미나카이, 조지야, 히라다보다 큰 규모여서 이제 화신은 조선 최대의 백화점 자리를 차지하였다.

당시 화신 백화점은 ‘조선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백화점’으로 종로의 명물이자 조선 전체의 자랑거리였다. 특히 화신 백화점 서관에 들어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시골 사람들의 관광 코스가 될 정도였다.

질색할 노릇은 시골에서 오는 손님들이 승강기를 타고 싶어서 공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종로인만큼 길에서 노는 아이들이 몰려 들어와 손님 노릇을 하는 때도 일일이 ‘고맙습니다’ 소리를 하게 되니까 질색이지요. 요 좁은 속에서도 주정꾼 손님이라든가 놀려먹는 손님, 옆구리를 꺾꺾 찌르면서 못살게 구는 이도 있으나, 이를 깨물고 참고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리가 짧은 만큼 순간만 참으면 됩니다.<sup>61</sup>

경성부 버스에서 안내양으로 근무하다가 화신 백화점의 ‘승강기결’이 된 김형숙(金衡淑)의 증언이다. “백화점에 들어가도 좋은지 안 좋은지 한참 망설이기도” 하는 시골 사람들에게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는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그래서 “남 타는 승강기니 나도 한번 타볼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표 찍으시오.’ 소리가 날까 봐 미리부터 조끼 봉창에 손을 넣고 구멍 뚫어진 돈 한 푼을 꼭 쥐고는 땅속으로 몇 만 길이나 떨어지는 지 현기증을 느끼면서 급행차가 시골 정거장 지나듯이 4층, 3층, 2층, 그 다음에 가서 승강기가 딱 서면 영갑결에 튀어 나와 돈을 안 내어 공짜인 줄 알고 좋아하였던”<sup>62</sup> 경험담도 전해진다.

박흥식이 얼마나 뛰어난 경영인이었는지는 연쇄점 사업뿐만 아니라 화제가 됐던 해 9월에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던 평양의 평안 백화점(平安



百貨店)을 인수하여 12월 1일 화신 평양 지점으로 개관하고, 이듬해인 1936년 3월 초에는 한국 내의 화신 연쇄점을 묶어 자본금 200만 원의 주식회사로 발족시킨 일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화신 백화점의 새 건물이 들어설 즈음에 조선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中樞院)의 참의가 되고,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군용 비행기 헌납 운동에 앞장섰으며, 1944년 10월에는 주식회사 조선 비행기 공업을 창립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였다. 화신 연쇄점 창업 때의 3,000만 원 대부, 백화점 화재 복구 때 받은 조선 총독부와 조선식산은행의 적극적 지원 등은 일제에 대한 협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화신이 충무로 일대의 일본 백화점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고 종로 사거리에서 백화점의 왕으로 군림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에 화신 백화점을 선전한 노래의 한 구절에는 이와 같은 자부심이 물씬 드러난다.

화신 백화점 광고 포스터  
1942년 세모 대매출을 알리는 화신 백화점의 광고 포스터이다. 화신 백화점은 일제 강점기에 충무로 일대의 일본 백화점들과 경쟁에서 지지 않고 종로에서 백화점의 왕으로 군림하였다.

종로 십자가 봄바람 부는데  
웃음꽃 피는 화신의 전당  
안으로는 융화 밖으로는 신용  
그 이름도 아름답다 화신이며<sup>63</sup>

## 현대 서울의 시장과 상품 유통 4

### 서울 상권의 재편

광복 이후 서울의 상권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에 제1, 제2, 제3호 등으로 분류하였던 시장 규칙과 달리 광복 이후에는 공설 시장, 사설 시장, 백화점 등으로 구분하였다. 공설 시장은 일제 강점기에 설치한 제2호 공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매 시장, 소매 시장, 가축 시장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사설 시장은 전통적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과 광복 이후 새로 설립된 사설 시장을 합친 총칭이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상인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규모가 큰 자본가는 줄어들었고, 새로 시장에 들어온 상인들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도매상과 소매상의 비중에도 변화가 일어나 소매상이 10분의 9를 차지하였다. 공설 시장으로는 경성 중앙 도매 시장의 후신으로 서울 중앙 도매 시장이 있었고, 남대문, 동대문, 청량리, 영등포 일대에 대규모 위탁 도매 시장이 형성되어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공설 시장은 일반 소매 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화원, 용산, 마포, 서대문, 영등포, 관동, 통인, 신당동, 영등포 제2, 돈암동, 혜화동, 미아리, 영등포 삼구 공설 시장 등 13개가 있었다. 이들

공설 시장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것이었으나 미아리 공설 시장과 영등포 삼구 공설 시장은 광복 이후 세워졌다. 공설 시장은 점포 수가 대부분 10~40개 정도의 소규모 시장이었으나 영등포 시장은 213개, 영등포 삼구 공설 시장은 130개의 점포를 가진 대형 시장이었다. 그 밖에 공설 가축 시장으로는 동대문 가축 시장과 영등포 가축 시장 등 두 곳이 있었고, 1961년에는 마장동 시립 도축장을 개장하였다.

사설 시장으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과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설립된 30여 개 이상이 있었다. 사설 시장 가운데 신당동에 설립된 성동 시장은 1949년 말 309개의 점포가 있어 가장 점포가 많은 시장이었다. 청량리 시장과 남대문 시장은 250개가 있었고, 동대문 시장은 209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의 수와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광복 이후 서울의 상권은 사설 시장이 주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64</sup>

###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의 변화

광복 이후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상인 연합회를 다시 조직하고 상인들이 출자하여 자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대문 시장이 적산(敵産)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1947년 6월 남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 회원 226명은 회사 주식의 8할 이상이 조선인 소유이므로 적산 회사가 아니라는 진정서를 연명으로 미군정의 민정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상인들은 남대문 시장이 만약 적산이라 하더라도 남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 회원 중에서 관리자를 선출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1952년 5월경 남대문 시장의 경영자가 남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 회장 엄복만(嚴福萬)으로 변경된 것을 보면 그 이후 시장 운영권이 남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남대문 시장은 6·25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전쟁 이전 252개이던



전쟁후의남대문시장  
6·25 전쟁 후 남대문 시장  
건물이 대부분 파괴된 모  
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전  
쟁 이전 252개이던 점포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점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1951년 6월에 남대문 시장 상인 50여 명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시장 일대는 철조망으로 둘러쳐 있었고 인근 북창동 폐허에 100여 개의 노점이 설치되어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 소속 상인들은 이들 노점 상인들을 끌어들이고 당국의 협조를 얻어 판자나 천막 조각으로 점포를 엮어 장사를 시작하였다. 상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남대문 시장은 1953년 무렵 150여 개의 점포와 500여 개의 노점을 가진 시장으로 거듭 태어났다.

남대문 시장은 일상용품은 물론 사치품과 밀수품, 미군 부대에서 흘러 나오는 군수품 등의 거래가 활발하여 “남대문 시장에 가면 박격포도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또한 사치품으로 간주하던 양복지, 카메라, 시계, 양산 등 밀수품 거래가 많았으므로 경찰과 세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었다. 상인들은 단속반이 나타나면 불법 물건을 숨기거나 셔터를 내리고 잠적해 버렸으며, 도깨비처럼 날렵하게 도망친다고 하여 ‘도깨비 시장’이란 별명도 붙었다. 또 미제 껌, 초콜릿, 냉장고 등 미제 물건을 많이 거래하였기 때문에 ‘양키 시장’이라고도 하였다.

6·25 전쟁 이후 남대문 시장에는 이북에서 월남한 실향민들이 많이

들어와 자리 잡았다. 빈손으로 내려온 실항민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군복, 담요, 유엔 점퍼 등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팔면서 상권을 장악해 나갔으며, 이에 남대문 시장은 ‘아바이 시장’이란 별명도 얻었다. 남대문 시장 내 서울시 경찰국 쪽 골목에는 피난민들이 자리 잡고 순대, 빈대떡 등을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떡장 골목’으로 불렀다. 시장 길거리에서는 미군 부대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잔반 음식을 섞어 끓인 ‘꿀꿀이죽’을 상인과 지게꾼들에게 팔았다. 어려웠던 시절 먹었던 이 ‘꿀꿀이죽’은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 먹는 ‘부대찌개’의 원조가 되었다.

남대문 시장이 1961년 8월 31일 공포된 시장법(市場法)에 규정된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서울시는 1963년 1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남대문 시장 개설 허가를 취소하였다가 1964년에 이르러 5년 기한으로 개설 허가를 내주었다. 이후 다시 연장하고, 1972년 3월에 다시 개설 허가를 연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대문 시장은 1968년 11월 23일 새벽에 큰 화재가 발생해 775여 개 점포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 화재를 계기로 남대문 시장은 현대적인 건물로 탈바꿈하였다. 우선 제1차로 총 15개 블록 28개 동 중에서 화재로 소실된 3개 블록을 착공하여 1970년 1월 20일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 개장하였다. 1971년 6월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대도 백화점(大都百貨店)을 개장하였다.

1974년 4월 4일에는 자유 상가를 세웠으며, 같은 해 12월 8일에는 남대문 시장에 꽃 시장이 개장되었고, 1975년에는 그동안 허가되지 않았던 구역의 대지 1,537평, 건평 3,978평, 점포 667개에 대한 추가 개설 허가를 받았다. 1975년 8월 31일에는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녔던 수산 시장, 서울 청과 시장을 각각 노량진과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1977년 4월에서 1981년 11월에 걸쳐 주방용품 매장을 완성하고, 1980년 10월에는 주단 포목, 한복, 수예, 이불 등의 점포와 공예, 수예, 액세서리, 조화 등의 점포가 들어섰다.

1976년 3월 1일에는 새로운 백화점이 개점하였다. 새로운 다른 백화점과 달리 재고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상설 할인 매장이 대부분이어서 서민들의 알뜰 구매에는 적합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성향을 따라가지 못해 실패함으로써 1999년 판매 시설을 개선하여 굿앤굿으로 재출발하였다.

이 시기에도 역시 도깨비 시장은 성황을 이루어 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았다. 시장 골목에는 망보는 사람이 있어 단속반이 나타나면 신호를 보내고, 이와 동시에 일제히 점포의 셔터가 닫혔기 때문에 단속은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0년대 수입 자율화 이후 모든 상품이 자유롭게 수입되면서 수입품 전문 상가로 변신한 것이 숭례문 수입 상가이다.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남대문 시장 역시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각국의 상인들이 남대문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2000년 3월 30일 명동, 북창동 지역과 함께 문화 관광부로부터 관광특구 지정을 받았다.<sup>65</sup>

동대문 시장 상인들도 1946년 1월 동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를 부활시켜 상인들 간의 친목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sup>66</sup> 남대문 시장과 마찬가지로 동대문 시장도 6·25 전쟁 기간에는 점포와 시설들이 모두 파괴되어 천막을 치고 임시 상거래를 하였다. 이때는 구호물자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수품이 불법 거래되기도 하였다. 1952년 5월 동대문 시장의 점포는 188개로 회복되어 있었으나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점포도 많았다. 이후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상권이 확대되자, 종로 4가 부근 예지동에 자리하고 있었던 동대문 시장은 청계천변을 타고 뺏어나가 종로 5가, 6가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동대문 시장에 이어진 점포들은 10m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판잣집을 세워 시장을 형성해 나갔다. 따라서 이들 점포는 무허가 건물로 취급되어 철거 대상이 되었으며 서울시 당국과 계속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정치 강패로 널리 알려진 이정재(李丁載)가 한때 동대문 시장 상인 연

#### 50년대 동대문시장

1957년에 촬영한 동대문 시장의 모습이다. 당시 동대문 시장은 종로 4가 부근 예지동에 있었는데, 이후 청계천변을 따라 종로 5, 6가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합회 회장에 취임하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과 점포를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정재의 상인 연합회는 한 점포당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하루 100환 이상 1,000여 환까지 징수하여 한 달에 1,000여만 환씩을 착취하였고, 심지어 노점상에게도 25만 환의 권리금을 착복하였다. 특히 그는 시장 내에 이정재 왕국을 건설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부 기관까지 두어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자치적으로 처리하였으며,<sup>67</sup> 그의 소유로 된 점포 42개를 매월 10만 환씩 월세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한다.<sup>68</sup> 그는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권력의 실세와 결탁하여 정치권에 진출하였으며, 단성사 앞 권총 저격 사건<sup>69</sup> 등에도 개입하였으나 5·16 군사 정변 이후 사형당하였다.

동대문 시장이 종로 5가, 6가 방향으로 상권을 확대되자, 1960년대에 이르러 예지동의 전통적 동대문 시장은 광장 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신 동대문 쪽에 가까운 종로 5가의 시장이 동대문 시장이라는 이름을 썼고, 종로 6가에는 새로운 동대문 종합 시장이 들어섰다. 이처럼 광장 시장,



#### 평화시장

1965년 청계천 복개 공사 후에 평화 시장 앞을 촬영한 사진이다. 1960년대에 이르면 예지동의 전통적 동대문 시장은 광장 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종로 5가의 시장은 동대문 시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종로 6가에는 동대문 종합 시장이 들어섰다.

동대문 시장, 동대문 종합 시장으로 세분화되고, 1980년대 이후에는 광장, 동평화, 제일 평화, 홍인, 덕운, 신평화, 남평화, 광희 청평화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면서 지금은 전국 최대 규모의 의류 도소매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일대를 모두 합쳐 동대문 시장으로 부르고 있다.

### 신상품의 등장과 거래

광복 이후 분단, 전쟁 등으로 얼룩진 사회적 불안은 경제적 침체와 위기로 이어졌고, 시장 또한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웠다. 상품의 생산과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밀수품이나 구호품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었다. 이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껌, 과자, 시레이션 등이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였다.

서울 시민들은 식량 부족과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그날그날 연명해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도 당

연히 곡물, 채소, 생선, 육류 등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사치품이나 기호품 등의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샘표 간장은 1946년 8월 일본인이 경영하던 삼시장유양조장(三矢醬油醸造場)을 인수해 우리 입맛에 맞는 간장을 생산하였으며, 대성 공업사에서는 조미료인 미미소를 생산 판매하였다. 바나나와 땅콩은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식품으로 취급되어 수입과 판매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미 그 시절에도 중국에서 밀수한 것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으며, 바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에는 라면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 삼양 식품이 처음으로 삼양 라면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1966년에는 농심 라면의 전신인 롯데 라면이 생산되어 라면업계의 양대 산맥이 되었다. 음료수로는 사이다와 콜라가 등장하여 일반화되었다. 사이다는 일제 강점기에도 있었으나, 콜라는 1962년 동방 청량음료에서 ‘스페시 콜라’를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 코카콜라는 1968년 한양 식품이 미국 코카콜라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코카콜라가 대중화되면서 스페시 콜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방 청량음료는 한미 식품 회사와 합병하고, 1969년에는 미국의 펩시콜라와 제휴하여 코카콜라에 대항하였다.

주류로는 여전히 막걸리가 제일 많이 소비되었으나 소주 또한 대중적인 술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술이었다. 1968년 당시 소주 제조 회사는 270여 개가 있었으나 진로와 삼학이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래 진로는 부산에서 삼학은 목포에서 시작하였으나, 1960년대에 서울에 진출하면서 소주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쟁탈전을 벌였다.

이 시기 담배나 커피의 수요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러 가지 국산 담배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었지만 도깨비 시장이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양담배도 음성적으로 거래되었다. 당시 향간의 떠도는 이야기에는 정부



나일론 공장

1965년에 남양 나일론 공장을 촬영한 사진이다. 질기고 오래 입을 수 있는 나일론 옷감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았고, 여성 패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단속반원이 담배 연기만 보고도 양담배인지, 국산 담배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내에서 몰래 피우는 양담배를 단속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개항 이후 들어온 커피도 이 시기 대폭 수요가 증가하였다. 당시 커피의 수입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미군 부대나 밀수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인기가 매우 좋아 잘 팔렸고, 보따리장수를 통해 가정까지 배달되기도 하였다.

옷감으로는 광목과 옥양목이 가장 대표적인 거래 품목이었으며 양단, 명주, 모직물, 견직물, 나일론, 수입 양복지 등이 있었다. 이들 옷감은 수입 품도 적지 않았지만, 태창 방직, 제일 모직, 한국 모직, 동방 모직 등의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많았다. 특히 6·25 전쟁 후 질기고 오래 입을 수 있는 나일론 옷감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1950년대 초반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나일론은 1954년 태창 방직이 설립되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대중화되었다. 이후 나일론으로 만든 와이셔츠, 팬티, 양말이 생산되면서 나일론은 더욱 널리 보급되었으며, 블라우스, 원피스, 속옷, 스타킹을 만들



라디오와 흑백텔레비전  
1950~1960년대에 사용하던 금성 라디오이다. 당시에는 라디오 연속극이 큰 인기를 끌었고, 라디오는 할부로 많이 구입하였다. 흑백텔레비전은 매우 귀하여 동네에서 한두 집이 가지고 있는 정도였다.

어 내면서 여성 패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70</sup>

특히 이 시기 주목되는 것은 가전제품이다. 1959년 LG의 전신인 금성이 라디오를 처음 생산하였는데,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해 일부는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하였다. 이

렇게 생산된 제품은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상을 통해 매월 얼마씩 내는 할부의 형태로 판매하였고 할부금도 판매한 행상이 수금해 갔다.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라디오 연속극을 듣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이 많았다. 그 후 흑백텔레비전이 생산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옮겨 갔다. 당시 텔레비전은 매우 귀하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한두 집밖에 없었고,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저녁마다 동네 사람

들이 모여들어 방을 가득 채웠다. 김일의 프로 레슬링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은 동네 만화가게로 달려갔다. 만화가게에서는 돈을 받고 경기를 보여 주었는데 장소가 협소해 못 들어가는 아이도 있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화국에 전화를 신청하면 회선이 부족해 어느 세월에 전화가 가설될지 모르고 심지어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급하게 전화가 필요하면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은 백색 전화를 구입하던가 아니면 임대해야만 하였다. 전화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급하게 걸려 오는 전화가 있으면 연결해 주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잘 낫지 않은 종기엔 이명래, 이명래 고약!” 지금은 추억으로만 남은



전화기 공장

1965년에 전화기 생산 작업 현장을 찍은 사진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화 회선이 크게 부족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화가 있는 집이 드물었다.

광고 문구이다. 종기(腫氣)는 당시 흔한 질병이었다. ‘이명래 고약(李明來膏藥)’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 본 종기 약이었다. 기름종이에 싸여 있는 까만 고약을 녹여 환부에 붙이면 종기의 고름은 속 빠지고 상처가 아물었다. 몇몇 경쟁 제품이 도전하였지만, 종기 치료제의 대명사가 된 이명래 고약은 1906년 첫선을 보인 뒤로 ‘피부병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하였다.

1960년대부터 서울 약품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원기소도 잘 팔리는 비타민 영양제 중의 하나였다. 원기소는 부잣집 아이들이 주로 먹는 어린이 영양제의 대명사로 통하였다. 아이들의 키가 자라게 한다는 영양제였지만 맛이 고소하기 때문에 과자처럼 씹어 먹곤 하였다. 제조사인 서울 약품이 1980년대 중반 부도가 나면서 생산을 중단하였지만, 여전히 어린이 영양제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문구류 중에는 연필이나 만년필 등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 볼펜이 나오면서 필기구의 혁명을 가져왔다. 고무신도 운동화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까지 많이 판매되는 물품 중의 하나였다.

## 백화점의 변화

백화점도 경영자, 체제, 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화신을 제외한 서울 시내 백화점은 모두 일본인 소유였기 때문에 광복 이후 전부 적산으로 취급되어 미군정에 귀속되었다. 당시 백화점의 형태는 대자본이 직영하는 전문적인 모습이 아니라 큰 건물 안에 소매상인들이 모여 있는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판매 상품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진열 판매하는 오늘날의 백화점 방식이 아니라 임대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늘어서 있는 형태였다. 광복 이후부터 1960년에 이르는 동안 백화점의 이름을 내건 곳은 10여 개에 달하였지만 백화점으로 널리 알려진 곳은 화신, 동화, 미도파, 신신 백화점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이름만 백화점이라고 내걸었을 뿐 운영과 규모 면에서 일반 상가와 같은 형태였다.<sup>71</sup>

일본인이 경영하였던 조지야 백화점은 적산으로 분류되어 미군정이 관할하였다. 1946년 2월 당시 종업원 대표가 상호를 중앙 백화점으로 바꾸었는데, 미군정청은 중앙 백화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건물을 미군 PX 건물로 사용하였다. 군정청이 중앙 백화점을 접수할 당시 백화점에 남아 있던 모든 상품과 종업원은 동화 백화점으로 흡수, 합병되었다. 그 후 중앙 백화점 건물은 1948년에 한국 무역 협회에 불하되었고, 한국 무역 협회에서는 중앙 백화점을 무역관으로 사용하였다.

6·25 전쟁 이후 한국 무역 협회와 임차 계약이 만료되자 정부의 관재청은 대한 부동산 주식회사와 다시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954년 4월 대한 부동산 주식회사는 건물을 보수하고 백화점의 문을 열어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때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상호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1954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은 미도파 백화점의 관리권을 무역 협회로 환원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관재청에서는 대한 부동산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무시하고 다시 한국 무역 협회와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신 건물 수리비를 대한 부동산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국 무역 협회는 1955년 1월 21일에 미도와 백화점 건물 안으로 이전하였다.

미도와 백화점은 운영권이 한국 무역 협회로 넘어간 이후에도 건물의 지하와 1~3층의 매장에서 계속 영업하였으며, 1957년에는 300여 개의 점포를 갖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미도와 백화점에 대한 임차 계약을 포기해야만 하였던 대한 부동산 주식회사는 4·19 혁명 이후 미도와 백화점에 대한 운영, 관리권을 반환받고자 사원들을 동원하여 농성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sup>72</sup>

1962년 5월 19일 미도와 백화점은 새로 개정된 시장법에 의거하여 백화점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자는 사단 법인 한국 무역 협회였다. 미도와 백화점은 여전히 임대 점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1960년대 후반 경제 성장과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비약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1969년 3월 한국 무역 협회는 종합 무역 회관 건립비 마련을 위하여 5억 원을 받고 미도와 백화점을 진흥 기업에 매각하였다. 진흥 기업은 미도와 백화점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의 현대식 백화점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포를 임대 운영하고 있던 상인들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화점을 매각한 데 대해 거세게 항의하였다.

1973년 2월 서울시는 미도와, 신신, 화신 등 네 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였다. 5월 미도와 백화점은 임원진을 교체하였으며,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자 매장의 확장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옥상 주차장 마련 등 증축, 수리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직원 200명과 점원 400명을 모집하여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미도와 백화점은 증축을 완료하고 1973년 11월 1일에 새로 개관하였으며, 주식회사 미도와 백화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새로 개장한 미도와 백화점은 지하 1층, 지상 6층, 매장 면적 4,300평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였으며, 경영 방식 또한 직영 체제를 취하였다.

1973년 미도와 직영 백화점 개점 기념으로 “새집들이 보너스 세일”을 한다는 광고이다. 자전거를 사면 하모니카를 보너스로 준다는 내용도 보인다.



1973년 5월에 미도와 백화점은 의류 전문 백화점이었던 시대 백화점을 인수하여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완전 직영 체제로 확장 세출발함으로써 백화점 업계는 내부 상인들끼리의 경쟁으로부터 백화점끼리의 경쟁 체제로 돌입하였다.<sup>73</sup>

일제 강점기 제일 먼저 설립되었던 미쓰코시 백화점 역시 1945년 9월 15일에 백화점 이름을 동화 백화점으로 변경하였고, 1950년까지 네 명의 관리인이 교체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였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을 수복한 이듬해인 1951년 7월 19일 동화 백화점 본관 건물은 미군 PX로 바뀌었다.

1954년 11월 29일 관재청은 미군으로부터 동화 백화점을 양도받아 1955년 2월 20일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지하에는 식품 매장, 1층에는 잡화 및 소품 매장, 2층에는 양품 및 의복 매장과 당구장이 있었다. 그리고 3

층에는 동화 극장과 카바레, 4층에는 동방 생명이 임대해 있었다.<sup>74</sup> 운영 방식은 지하 매장만 동화 백화점에서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 매장 방식을 취하였다. 1950년대 말 동화 백화점은 마케팅 기법으로 새나라 자동차 경품을 걸기도 하였다. 새나라 자동차 경품 대회는 동화 백화점의 임대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한 오늘날의 경품 축제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동화 백화점은 여전히 적산이었으므로 정부는 동화를 개인에게 불하하기로 결정하고 강희원(동방 생명 소유주)에게 건물과 대지를 넘겼다. 그 후 5·16 군사 정변으로 들어선 군사 정권은 재건 국민 운동(再建國民運動)의 일환으로 1961년 7월 15일부터 외래품 판매를 금지하였는데, 당시 백화점의 주 판매 상품이 부정 외래품이었던 만큼 백화점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동화 백화점은 경영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962년 9월 28일 동방 생명에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동방 생명 역시 동화 백화점을 인수한 후 사세가 흔들리면서 급기야 1963년 7월 15일 삼성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삼성 그룹이 동방 생명(현 삼성 생명)을 인수함에 따라 동방 생명의 소유였던 동화 백화점도 삼성 그룹으로 인수되었던 것이다. 1963년 11월 12일에는 명칭을 동화에서 신세계 백화점으로 바꾸고 영업 방식 또한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sup>75</sup>

신세계 백화점은 기존 영업 방식을 탈피하고 운영의 현대화를 꾀하여 여러 가지 판매 기법을 구사하였다. 1964년 4월에는 처음으로 우편 광고물을 제작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쇼핑 가이드를 만들어 광고에 활용하였으

#### 동화백화점

광복 후 미쓰코시 백화점은 동화 백화점으로 바뀌었고, 6·25 전쟁 중에는 미군이 PX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963년 삼성 그룹이 인수하여 신세계 백화점으로 바꾸고 영업 방식을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 이동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 우수한 상품을 변두리 지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한 판매 기법이다. 10대 차량이 3개조로 나뉘어 각 지역별로 한 주에 두 차례씩 방문하였다.

양 TV 방송이 개국하기도 하였다.

신세계 백화점은 고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바겐세일을 실시하였는데, 1972년 2월에는 처음으로 꾸러미 판매(번들 세일)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세개를 묶어 두 개의 값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무료 법률 상담소를 개설하여 손님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974년 5월에는 티셔츠, 면양말 등 140여 종의 상품을 직접 제작하여 ‘공작’이라는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1970년 6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동 백화점을 열었다. 시내버스를 개조한 대형 버스에 육류, 채소 등 식품과 가전제품, 양품, 잡화 등 700여 종의 상품을 싣고 요일별로 망우동, 이문동, 도봉동, 쌍문동, 구파발 등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매하였다.<sup>76</sup>

일본인이 경영하던 미나카이 백화점 역시 적산으로 커다란 이권의 대상이었다. 충무로에 있던 미나카이 백화점은 건국 후 국유 재산으로 귀속되어 해군 본부 건물로 사용되다가 퇴계로 확장 공사로 건물 일부가 헐리고, 훗날 원호처(현재는 국가보훈처)가 소유하게 되었다.<sup>77</sup>

일제 강점기 조선 상권의 수호를 외치던 화신 백화점은 광복 후에는 관리자와 종업원 간의 분규, 폭리 사건, 사장 교체,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일본

며, 포장과 쇼핑 백 제작 등에도 관심을 쏟았다. 또한 인기 스타를 판매 요원으로 초빙하거나 미스 코리아 후보들을 초대함으로써 손님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1964년 12월에는 당시 인기 스타였던 허장강, 태현실, 최무룡, 김혜정, 남석훈, 최지희가 1일 점원으로 판촉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신세계 4, 5층 사옥에서는 동

계 백화점 이상의 수난을 겪었다. 1945년 10월 화신 백화점 종업원 700여 명은 노동자 대회를 열어 백화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사장 박홍식과 교섭을 벌였다. 그동안 화신 연쇄점, 화신 무역, 선일 지물, 대동 흥업의 네 개 회사를 기반으로 한 주식회사 화신은 1946년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각 회사를 분리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화신 백화점을 창립하고 다시 개점하였다.

화신 백화점의 사장 박홍식은 1946년 2월 폭리 혐의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비행기 회사의 위로금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48년 9월 22일 제정, 공포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에 의해 1949년 1월에 다시 체포된 박홍식은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역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1950년에는 좌익계 종업원들이 화신 백화점의 진열장과 건물 벽에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 벽보를 붙이기도 하였다.

6·25 전쟁 이후 화신 백화점은 불에 타 형체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 중의 화신백화점

1951년 6·25 전쟁 속에 불타 형체만 남아 있는 화신 백화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후 1956년 10월에 7층까지 수리하여 개점하였다.

#### 신신백화점

2층 건물로 화신 백화점의 건너편에 있었다. 좌·우측으로 상점들이 들어서 있고, 위에는 좌·우측을 연결하는 비를 가리는 시설이 군데군데 되어 있다. 왼쪽에는 핸드백, 과라솔 간판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전기구, 와이셔츠, 넥타이 간판이 보인다.



1953년 복구하여 다시 개점할 계획이었으나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 개점을 연기하였다가 1956년 10월 15일에야 7층까지 수리하여 개점하였다. 1961년에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박흥식은 부정 채자로 지목되었고, 소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정부에 환수당하는 불운을 겪었다.<sup>78</sup>

1955년 11월 15일에는 화신 백화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신신 백화점이 2층 건물로 화신의 건너편에 문을 열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화신의 복구를 미루고 신신 백화점을 먼저 개점한 이유는 당시 한국의 유통 실정 때문이었다. 즉 당시 넓은 매장을 채울 상품 공급이 어려웠고 임대 수입에 의지하면서 백화점의 간판을 내걸기에는 화신의 이름이 아까웠던 것이다.<sup>79</sup>

종로 사거리에 마주 보고 있던 화신과 신신 백화점은 1961년 개정된 시장법에 의거 1962년 2월 13일자로 백화점 허가를 받았다. 개설자는 화신 산업 주식회사였다. 화신은 8층 건물이었고 신신은 2층 건물이었다. 화신과 신신 백화점은 여전히 임대 점포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터 직영화를 재촉받고 있었다. 그러나 화신 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직영화는 어려운 과제였다. 1960년대 전반까지 그다지 좋지 않던 백화점 경기가 후반에 접어들면서 좋아져 화신과 신신 백화점 또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1968년 6월부터 1969년 5월까지 신신 백화점은 백화점 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였고, 화신 백화점은 5위였다. 1970년대 들어서 서울의 백화점 업계는 신세계와 미도와 백화점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명동 입구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이 가세함으로써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반면에 화신과 신신 백화점은 자금과 경영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1970년대 후반 경기 침체와 상품권 발행 금지 등으로 백화점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화신 백화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화신 그룹은 과도한 투자와 무리한 경영으로 1980년 10월에 거액의 부도를 내고 쓰러졌으며, 이후 화신과 신신 백화점이 모두 매각 처분되었다. 신신 백화점은 제일은행에 매각되었으나, 도심 재개발 사업에 밀려 1983년 8월에 철거되었다. 화신 백화점은 한보 그룹에 넘어갔다가 종로의 도로 확장 공사로 1987년 3월 14일 철거되었다. 이로써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설립한 백화점으로 종로 사거리의 자랑거리였던 화신 백화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sup>80</sup>

1980년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백화점이 있는가 하면, 롯데나 현대 등 재벌 기업이 백화점 업종에 진출하면서 직영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78년에 교회용품 백화점이 출현한 것을 계기로 1980년대에 들어서는 건축 자재, 스포츠 용품, 도서, 혼수, 의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백화점과 쇼핑 센터 등이 출현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81</sup>

## 상권과 유통, 결재의 다양화

재래시장과 상가, 백화점 등으로 단순하던 상권은 1960년대 슈퍼마켓의 등장과 1970~1980년대 하이퍼마켓 개점 그리고 최근 대형 할인점, 편

의점 등이 나타나 더욱 다양화되었다. 우리나라에 슈퍼마켓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 10월 개점한 한국 슈퍼마켓이지만, 1968년 6월 서대문구에 개점한 뉴서울 슈퍼마켓과 같은 해 8월 을지로 삼풍 상가 지하 매장에서 문을 연 삼풍 슈퍼마켓이 본격적인 슈퍼마켓이라 할 수 있다. 뉴서울 슈퍼마켓은 경영 미숙으로 1년여 만에 문을 닫았으나 삼풍 슈퍼마켓은 성공을 거두었다. 삼풍 슈퍼마켓의 성공 이후 미도파, 보광, 제일, 코스모스 등이 잇따라 슈퍼마켓을 개점하였다.<sup>82</sup>

슈퍼마켓과 아울러 대형 할인점도 등장하였다. 이는 셀프서비스에 의한 대량 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시중 가격보다 20~30% 싸게 판매하는 종합 할인점이다. 농수산물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어 회원제 창고업 형태와 함께 유통업체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할인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3년 11월 창동에 개장한 이마트이고, 이후 다양한 형태의 할인점이 속속 등장하였다. 1994년 4월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2001 아울렛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개장하면서 식료품을 취급하는 한 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의류 매장으로 꾸며 의류 전문 할인 매장으로 특화하였으며 최고 80%까지 할인 판매하였다.

이어 신세계 백화점이 1994년 10월 양평동에 프라이스 클럽이란 이름으로 처음 개점하였고, 이어 1995년 6월 1일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뉴코아 백화점의 김스 클럽이 서초구 잠원동에 문을 열었다. 김스 클럽의 특징은 1995년 10월부터 국내 최초로 24시간 영업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등장한 슈퍼마켓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구매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이보다 좀 더 편리한 구매가 요구됨에 따라 나타난 것이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며 식품 중심이 아닌 생활용품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상품 구성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편의점이 처음 진출한 것은 1988년 초 노량진역 부근에 선보인 C-스토어이다. 물론 그 이전인



#### 슈퍼마켓의 개점

1968년 6월 1일 서소문에서 열린 뉴서울 슈퍼마켓의 개점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다. 당시 새로 등장한 슈퍼마켓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구매 편의를 제공하였다.

1981년 12월 뉴코아가 편의점을 개점하였고, 1982년 11월에는 롯데 세븐이 1호점을 신당동에 개점하였다. 롯데 세븐은 서교동, 논현동 등 여덟 개 점으로 확대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1년 만에 모두 철수하였다.<sup>83</sup> 한양 유통도 한양 스토어를 개점하였으나 곧 중단하였다. C-스토어가 성업을 이루면서 동화 산업이 1988년 8월에 미국 최대의 편의점 회사인 사우스랜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1989년 5월에 세븐 일레븐 올림픽점을 개점하였다. 그 후 한양 유통이 미국에서 매출액 제2위인 써클K사와 계약을 맺어 편의점 사업을 전담할 써클K 코리아를 설립하였다. 이어 로손, 훼미리 마트, LG25, AMPM, 미니스톱 등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편의점 시대가 열렸다.<sup>84</sup>

한편,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이 급속히 바뀌면서 가정에서 전화 한 통화로 장보기를 끝낼 수 있는 통신 판매나 전자 상거래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졌다. 통신 판매는 텔레비전, 카탈로그, 신문, 전단,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상품을 선정한 후 전화나 우편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일종의 무점포 판매이다. 통신 판매는 전화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신세계백화점 신용카드  
1969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발행한 신용 카드이다. 영어로 “신세계 크레딧카드” 라고 쓰여 있고, 번호와 카드 소지자 이름이 양각으로 압인되어 있다.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수신자 요금 부담 제도와 우편 요금 수취인 후납 제도 등에 의해서 더욱 발전하였다. 또한 최근 본격적인 유선 방송(CATV) 시대가 열리면서 유선 방송망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sup>85</sup>

전자 상거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품 거래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이라고 부르는 전자 상거래는 물건을 직접 보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시장, 백화점 등과 같은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거래와 계

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이러한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1,0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으로 개설한 것은 1996년 6월 1일 오픈한 데이콤의 ‘인터넷파크’ 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대기업인 롯데, 한솔, 삼성 등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고 점차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인터넷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피해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주로 대금만 채기고 상품을 배달해주지 않거나 쇼핑몰을 폐쇄해 버리는 경우, 불량 제품의 배달, 반품과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 정보의 무단 유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면서 충동구매와 인터넷 쇼핑 중독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중에는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을 사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인터넷 쇼핑에 중독된 사람은 인터넷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리고,

과도한 지출로 빚 독촉에 시달리며 이혼이나 자살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sup>86</sup>

거래 방식 또한 현금이 아니라 신용에 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용 판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7월 신세계 백화점 신용 카드가 최초로 발행되었다.<sup>87</sup>

당시 신세계 카드 발급 과정은 오늘날과 같이 즉시 발행이 아니고 신세계에서 카드 발급 의뢰자 명단을 도쿄에 보내면 일본에서 카드 업체에 의뢰하여 카드를 제작, 발급해 신세계에 보내는 형식이었다. 카드 원료인 플라스틱의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1969년 6월 14일 도쿄에서 발급된 카드 378매가 신세계 백화점에 도착한 후 7월 1일부터 통용되면서 한국 최초의 신용 판매 시대가 열렸다. 그 후 1971년 6월부터 자체에서 신용 카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72년부터 카드 원료인 플라스틱도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다.

1971년 7월부터 일반인에게 카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본격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1970년대라 할 수 있다. 신세계 백화점 신용 카드가 발행된 이후 1978년 미도파 백화점, 1979년 롯데와 대구 백화점, 1984년 현대 백화점 등이 뒤를 따랐으며, 현재까지 많은 백화점이 자사 신용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sup>88</sup>

〈김세민〉



# 부록

주석 및 참고 문헌

사진 자료 제공처

찾아보기



## 제1장 장시의 성립과 발전

### ■ 주 ■

- 1 『성종실록』 권 20, 성종 3년 7월 임술.
- 2 『중종실록』 권 27, 중종 11년 11월 정미 ; 『명종실록』 권 3, 명종 원년 2월 무신 참조.
- 3 『중종실록』 권 31, 중종 13년 정월 임자.
- 4 『중종실록』 권 38, 중종 15년 3월 기유.
- 5 『중종실록』 권 88, 중종 33년 9월 경자.
- 6 『명종실록』 권 6, 명종 2년 9월 을해.
- 7 최완기, 「대동법 실시의 영향」, 『국사관 논총』 12, 국사 편찬 위원회, 1990.
- 8 이중환(李重煥), 『택리지(擇里志)』 북거총론(卜居總論) 생리(生利).
- 9 『숙종실록』 권 62, 숙종 44년 윤8월 무신.
- 10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98책, 영조 11년 12월 13일.
- 11 김대길, 「조선 후기 지방 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 『관동 사학』 4, 관동 대학교 사학회, 1989.
- 12 이재하 · 홍순완, 『한국의 시장』, 민음사, 1992, 87~88쪽 참조.
- 13 『비변사등록』 53책, 숙종 29년 3월 17일.
- 14 이우성, 「이조 후기의 지리서 · 지도」, 『한국의 역사상(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2, 125쪽.
- 15 『선조실록』 권 212, 선조 40년 6월 을묘.
- 16 유형원(柳馨遠), 『반계수록(磻溪隨錄)』 권 4, 전제후록하(田制後錄下) 전폐(錢幣).
- 17 『효종실록』 권 15, 효종 6년 12월 계해.
- 18 『비변사등록』 24책, 현종 5년 6월 14일.
- 19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권 14, 별집(別集), 열하일기(熱河日記) 옥암야화(玉匣夜話).
- 20 이중환, 『택리지』 팔도총론(八道總論), 경기도(京畿道).
- 21 김태영(金台榮), 『안성기략(安城記略)』, 1925, 167쪽.
- 22 최완기, 「조선 후기 강경 포구에서의 선상 활동」, 『역사 교육』 79, 역사 교육 학회, 2001.
- 23 이영호, 「19세기 은진 강경포의 상품 유통 구조」, 『한국사론』 15,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1986, 205쪽.
- 24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 5월 8일.
- 25 이중환, 『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忠淸道).
- 26 이규경(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 11, 북어변증설(北魚辨證說) 및 은어변증설(鱸魚辨證說).
- 27 박제가(朴齊家), 『북학의(北學議)』 내편(內篇) 거(車).
- 28 『비변사등록』 110책, 영조 18년 정월 7일.
- 29 『승정원일기』 1280책, 영조 44년 5월 12일.
- 30 『승정원일기』 139책, 효종 7년 5월 16일.
- 31 『일성록』 현종 8년 8월 21일.
- 32 홍희유, 『조선 상업사(고대 · 중세)』, 과학 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1989, 312쪽.
- 33 『비변사등록』 233책, 현종 12년 9월 21일.
- 34 『여지도서(輿地圖書)』 영춘(永春), 단양(丹陽), 충주(忠州), 여주(驪州) 전세조(田稅條).
- 35 이중환, 『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
- 36 최영준,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 35, 대한 지리학회, 1987, 66~67쪽 참조.
- 37 신경림, 「남한강의 뱃길 천리」, 『한길 역사 기행』 1, 한길사, 1986, 115~116쪽.
- 38 이중환, 『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
- 39 村山智順, 『部落祭』, 朝鮮總督府, 1937.
- 40 권병탁, 『약령시 연구』, 한국 연구원, 1986.
- 41 『태종실록』 권 8, 태종 4년 11월 갑진.
- 42 『세종실록』 권 57, 세종 14년 7월 정묘.
- 43 『단종실록』 권 7, 단종 원년 9월 무인.
- 44 『정조실록』 권 38, 정조 17년 9월 신축.
- 45 『일성록』 순조 8년 12월 17일.
- 46 이상배, 『조선 후기 정치와 패서』, 국학 자료원, 1999.
- 47 『목강(牧綱)』 적간(摘奸)(『조선 민정 자료 총서』, 여강 출판사, 1987, 176~177쪽).
- 48 『역용(亦用)』 7월 초10일(『한국 지방사 자료 총서』 7, 여강 출판사, 1987, 294쪽).

49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살림, 1994, 352쪽.

## ■ 참고 문헌 ■

-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 자본의 발달』, 고려 대학교 출판부, 1973.
- 권병탁, 『약령시 연구』, 한국 연구원, 1986.
-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 산업사, 1998.
- 김대길, 「조선 후기 경기도의 장시」, 『수촌 박영석 교수 화갑 기념 한국 사학 논총』, 수촌 박영석 교수 화갑 논총 간행 위원회, 1992.
- \_\_\_\_\_, 「조선 후기 실학자의 장서관」, 『관동 사학』 5·6, 관동 대학교 사학회, 1994.
- \_\_\_\_\_, 『조선 후기 장시 연구』, 국학 자료원, 1997.
- \_\_\_\_\_, 『조선 후기 우금 주금 송금 연구』, 경인 문화사, 2006.
- 김재완, 「경부선 철도 개통 이전의 충북 지방의 소금 유통 연구」, 『중원 문화 논총』 4, 충북 대학교 중원 문화 연구소, 2000.
- 김종혁, 『조선 후기 한강 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1.
- 배도식, 『한국 민속의 원형』, 집문당, 1995.
- 백승철, 「16세기 부상대고의 성장과 상업 활동」, 『역사와 현실』 13, 1994.
- 오 성, 『조선 후기 상인 연구』, 일조각, 1989.
- 원유한, 『조선 후기 화폐사 연구』, 한국 연구원, 1975.
-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 연구』 57, 한국사 연구회, 1987.
- 이상배, 『조선 후기 정치와 폐서』, 국학 자료원, 1999.
- 이세영, 「18·9세기 곡물 시장의 형성과 유통 구조의 변동」, 『한국사론』 9,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1983.
- 이재하·홍순완, 『한국의 장시』, 민음사, 1992.
- 이태진 외, 『서울 상업사』, 태학사, 2000.
- 이현창, 「충청북도에서의 정기시 변천에 관한 기초적 연구」, 『중원 문화 논총』 4, 충북 대학교 중원 문화 연

구소, 2000.

- 장동표, 『조선 후기 지방 재정 연구』, 국학 자료원, 1999.
-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 출판, 1992.
- 최완기, 『조선 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 한상권, 「18세기 말~19세기 초 장시 발달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사론』 7,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1981.
- 허영란, 『일제 시기 장시 변동과 지역 주민』,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5.
- 홍희유, 『조선 상업사』 (고대 중세편), 과학 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1989.

## 제2장 경제를 살린 상품 생산과 유통

## ■ 주 ■

- 1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 20, 성시전도(城市全圖). 반과산(飯鰲山)이란 밥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국 장안(長安)의 반과산에서 유래된 것이며, 운자는 빛깔이 흰 돌로 운자석(雲子石)을 가리킨다.
-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540책, 정조 7년 9월 9일.
- 3 이 사건에 관해서는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 자본의 발달』, 고려 대학교 출판부, 1973, 84~91쪽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 4 오성, 『조선 후기 상인 연구』, 일조각, 1989, 25~29쪽.
- 5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60책, 정조 13년 정월 10일.
- 6 서유구(徐有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관휴지(灌畦志) 권 4, 약류(藥類) 인삼.
- 7 담배와 관련해서는 이영학의 「18세기 연초의 생산과 유통」, 『한국사론』 13,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1985;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의 재배」, 『외대 사학』 5, 한국 외국어 대학교 신학 연구소, 1993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 8 이익(李翼), 『성호사설(星湖僞說)』 상, 만물문(萬物門), 남초(南草).
- 9 이병도 역주, 『하멜 표류기』, 조선국기(朝鮮國記), 일조각, 1954, 86쪽.
- 10 성경인·장사훈 편, 『조선의 민요』, 담바귀타령, 1949,

232~236쪽.

- 11 『청구야담(靑邱野談)』 권 7, 금초상고의양재(衿草商高義讓財).
- 12 이중환(李重煥), 『택리지(擇里志)』, 복거총론(卜居總論).
- 13 이우성·임영택 역편, 『이조 한문 단편집』 상, 일조각, 1973, 14쪽.
- 14 『비변사등록』 168책, 정조 10년 1월 5일.
- 15 『세종실록』 권 28, 세종 7년 6월 을묘.
- 16 『세종실록』 권 110, 세종 27년 12월 임자.
- 17 『성종실록』 권 28, 성종 4년 3월 갑진 ; 『연산군일기』 권 57, 연산군 11년 3월 경술.
- 18 『일성록(日省錄)』, 정조 3년 7월 10일.
- 19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별집(別集), 예덕선 생전(穉德先生傳).
- 20 『한경지략(漢京識略)』, 시전(市廛),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1956.
- 21 『한경지략』, 시전,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1956.
- 22 『세종실록』 권 83, 세종 20년 11월 을사.
- 23 『중종실록』 권 84, 중종 32년 4월 계유.
- 24 『중종실록』 권 84, 중종 32년 4월 계유.
- 25 『연산군일기』 권 53, 연산군 10년 5월 기해.
- 26 『대전통편(大典通編)』 권 6, 외공장(外工匠).
- 27 『일성록』, 정조 23년 5월 30일.
- 28 최완기, 「수공업의 발달과 공장제 수공업」, 『서울 상공업사』,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2002.
- 29 서유구, 『임원경제지』 섬용지(贍用志) 권 4, 유장(鑪匠).
- 30 김영호, 「조선 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 형태」, 19세기의 한국 사회(『대동 문화 연구』 9 특집),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원, 1972, 99쪽.
- 31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동명연혁고(洞名沿革考)』 용산구편, 1980.
- 32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동명연혁고』 마포구편, 1979.
- 33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서울편)』, 1966, 61쪽.
- 34 이재근, 앞의 글, 65쪽.
- 35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동명연혁고』 11, 1986, 179쪽.
- 36 정명호 외, 『웅기』, 대원사, 1991, 11쪽.

37 이태진, 『고종 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38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 24, 여지도(輿地考) 20, 도리(道里).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전국의 도로망을 크게 10대로(大路)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1대로(서북 의주까지), 2대로(동북 경흥까지), 3대로(동남 평해까지), 4대로(동남 동래까지), 5대로(동남 봉화까지), 6대로(서강화까지), 7대로(남 수원까지), 8대로(남 남해까지), 9대로(서남 충청수영까지), 10대로(남 통영까지). 그런데 도로망의 자세함은 『대동지지』가 단연 뛰어난다.
- 39 『세조실록』 권 30, 세조 9년 1월 무오.
- 40 『세조실록』 권 32, 세조 10년 2월 계묘.
- 41 『숙종실록』 권 14, 숙종 9년 윤6월 계묘.
- 42 『숙종실록』 권 17, 숙종 12년 2월 무인.
- 43 『영조실록』 권 2, 영조 즉위년 11월 병진.
- 44 박지원(朴趾源), 『열하일기(熱河日記)』 일신수필(馴汎隨筆) 거제(車制).
- 45 박제가(朴齊家), 『북학의(北學議)』, 내편(內篇), 거(車).
- 46 『정조실록』 권 16, 정조 7년 7월 정미.
- 47 이중환, 『택리지』, 복거총론, 생리(生利).
- 48 『성종실록』 권 216, 성종 19년 5월 임진.
- 49 『태조실록』 권 7, 태조 4년 정월 병오.
- 50 『태종실록』 권 28, 태종 14년 12월 병진.
- 51 『증보문헌비고』 권 157, 재용고(財用考) 4, 조운(漕運).
- 52 『태종실록』 권 35, 태종 18년 1월 갑자.
- 53 『태종실록』 권 28, 태종 14년 11월 병진.
- 54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 주거(舟車).
- 55 정약용(丁若鏞), 『경제유표(經世遺表)』 권 14, 균역사무추의(均役事目追議) 2 선세(船稅).
- 최완기, 『조선 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163쪽.
- 56 『세종실록』 권 32, 세종 8년 6월 신미.
- 57 『세종실록』 권 113, 세종 28년 9월 신사.
- 58 『세종실록』 권 109, 세종 27년 7월 을유.
- 59 『대전통편』 권 6, 공전, 주거(舟車)에는 한강도와 노량도의 큰 나루에 15척의 배를 배정하고 있다.
- 60 『태종실록』 권 2, 태종 1년 8월 무오.
- 61 이상배, 「조선 시대 남한강 수운에 관한 연구」, 『강원 문화사 연구』 5, 강원 향토 문화 연구회, 2000.
- 62 『세종실록』 권 32, 세종 8년 6월 신미.

- 63 『태조실록』 권 12, 태조 6년 8월 입인.  
 64 『연산군일기』 권 39, 연산군 6년 10월 신축.  
 65 『세종실록』 권 22, 세종 5년 10월 임신.  
 66 『세조실록』 권 27, 세조 8년 2월 을미.  
 67 『정조실록』 권 10, 정조 4년 12월 을축.  
 68 왜인이 한성으로 입경하는 노정과 양국의 외교에 관하여는 손승철, 「조선 전기 서울의 동평관과 왜인」, 『향토 서울』 56,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1996, 103~126쪽 참조.  
 69 신숙주(申叔舟),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상경도로(上京道路), 152쪽.  
 손승철, 『근세 조선의 한일 관계 연구』, 국학 자료원, 1999, 15~16쪽.  
 70 왜인들이 이용한 이 길은 임진왜란 때 길잡이 역할을 특특히 하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왜인들의 직접적인 입경을 막고 외교적인 일은 대부분 부산의 왜관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손승철, 앞의 책, 35쪽).  
 71 이증환, 『택리지』, 팔도총론(八道總論), 충청도

## ■ 참고 문헌 ■

- 강만길, 『조선 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1984.  
 ———, 『조선 후기 상업 자본의 발달』, 고려 대학교 출판부, 1973.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 산업사, 1998.  
 고승희, 『조선 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 자료원, 2003.  
 권태익, 『한국 근대 면업사 연구』, 일조각, 1992.  
 김건태, 「조선 중기 이양법의 보급과 그 의미」, 『국사관 논총』 63, 국사 편찬 위원회, 1995.  
 김승중, 「어·엽엽의 발달」, 『한국사』 33, 국사 편찬 위원회, 1997.  
 김영호, 「조선 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 형태」, 19세기의 한국 사회(『대동 문화 연구』 9 특집),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원, 1972.  
 김용섭, 『증보판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 I, 지식 산업사, 1995.  
 김용섭, 『증보판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 II, 일조각, 1990.  
 박경룡, 「조선 전기의 잡업 연구」, 『국사관 논총』 12, 국사 편찬 위원회, 1990.  
 변광석, 『조선 후기 시전 상인 연구』, 혜안, 2001.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동명연혁고』, 1986.  
 ———, 『서울 상공업사』, 2003.  
 손승철, 「조선 전기 서울의 동평관과 왜인」, 『향토 서울』 제56호,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1996.  
 ———, 『근세 조선의 한일 관계 연구』, 국학 자료원, 1999.  
 오 성, 「조선 후기 미국 상인에 대한 일연구」, 『세종대 논문집』 12, 세종 대학교, 1985.  
 ———, 『조선 후기 상인 연구』, 일조각, 1989.  
 이병천, 「조선 후기 상품 유통과 여객주인」, 『경제 사학』 6, 경제 사학회, 1983.  
 이상배, 「조선 시대 남한강 수운에 관한 연구」, 『강원 문화사 연구』 5, 강원 향토 문화 연구회, 2000.  
 이세영, 「18·9세기 곡물 시장의 형성과 유통 구조의 변동」, 『한국사론』 9,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1983.  
 이영학, 「18세기 연초의 생산과 유통」, 『한국사론』 13,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1985.  
 ———,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상품 작물의 재배」, 『한국사』 33, 국사 편찬 위원회, 1997.  
 ———, 「담배의 사회사」, 『역사 비평』 12, 역사 비평사, 1991.  
 ———,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의 재배」, 『외대 사학』 5, 한국 외국어 대학교 사학 연구소, 1993.  
 이우성·임형택, 『이조 한문 단편집』, 일조각, 1997.  
 이태진, 『고종 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조병로, 「조선 후기 교통 발달에 관한 연구」, 『국사관 논총』 57, 국사 편찬 위원회, 1994.  
 조효숙, 「방직업」, 『한국사』 24, 국사 편찬 위원회, 1994.  
 최완기, 「도고 상업의 물가 변동」, 『국사관 논총』 65, 국사 편찬 위원회, 1995.  
 ———, 「운수업의 발달」, 『한국사』 33, 국사 편찬 위원회, 1997.  
 ———, 「조선 후기 누원점의 경제적 지위」, 『한국사 학보』 7, 고려 사학회, 1999.  
 ———, 『조선 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학 연구소,

1994.

최완기, 『조선 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 제3장 개항기 상업 발달과 대외 무역

#### ■ 주 ■

- 『일성록(日省錄)』, 고종 13년 정월 20일.
- 황현(黃玟), 『매천야록(梅泉野錄)』 1, 상, 갑오(甲午) 이전.
- 이현창, 『한국 경제 통사』, 범문사, 1999, 250쪽.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904책, 고종 19년 9월 22일.
- 한우근, 『한국 개항기의 상업 연구』, 일조각, 1970, 208~210쪽.
- 한우근, 앞의 책, 243~246쪽.
- 이현창, 앞의 책, 260쪽.
- 이 시기 개성 상인과 인삼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정필, 「19세기 개성 상인의 자본 전환과 삼업 자본의 성장」, 『학림』 23, 연세 대학교 사학 연구회, 2003 참조.
- 박재청, 「시변소론」 (6), 『고려시보』, 고려시보사, 1933. 8. 16.
- 1904년부터 1925년까지 개성에서 생산되던 홍삼은 해에 따라 생산량이 달랐지만, 대체로 연간 2~4만 근 내외였다. (朝鮮總督府 專賣科 開城出張所, 『蔘政指針』, 1916, 10쪽; 朝鮮總督府 專賣局 開城出張所, 『蔘務概要』, 1926, 8~9쪽 참조).
- 『고려시보』, 1937. 3. 1.
- 참고로 935년 12월~1936년 11월까지 개성 우편국에서 취급된 우편 저금의 예입고를 보면 총 31만 9703원 29전이었다(『고려시보』, 1937. 1. 1.).
- 오성, 「한말~일제 시대 개성의 시변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 21,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2002.
- 이영학, 『한근 근대 연조업에 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0, 20~29쪽.
- 이영학, 앞의 글, 1~3쪽.
- 이영학, 앞의 글, 261~262쪽.
- 이현창, 『개항기 시장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0, 58~61쪽.
- 竹內錄之助, 『朝鮮商業總攬』, 1915, 36쪽.
- 조기준, 『한국 기업가사』, 박영사, 1973, 184~190쪽.
- 조기준, 앞의 책, 191~196쪽.
- 竹內錄之助, 앞의 책, 22쪽.
- 조기준, 앞의 책, 196~204쪽.
- 장재흡, 『조선인 회사 대상점 사진』, 부업 세계사, 경성, 1927, 101쪽.
- 장재흡, 앞의 책, 155쪽.
- 장재흡, 앞의 책, 155쪽.
- 조기준, 앞의 책, 273쪽.
- 오성, 『한국 근대 상업 도시 연구』, 국학 자료원, 1998 참조.
- 유길준의 쿠데타 기도 사건에 대해서는 윤병희, 『유길준 연구』, 국학 자료원, 1998, 보론(補論)이 참고된다.
- 오성, 앞의 책, 국학 자료원, 1998, 37~42쪽.
- 이병천, 『개항기 외국 상인의 침투와 한국 상인의 대응』,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5, 66쪽.
- 유승렬, 『한말·일제 초기 상업 변동과 객주』,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6, 282~283쪽.
- 객주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박원선, 『객주』, 연세 대학교 출판부, 1968과 한우근, 『한국 개항기의 상업 연구』, 일조각, 1970이 참고된다.
- 『인천항관초(仁川港關草)』, 경인 8월 13일.
- 『인천항관초』, 계축 7월 20일.
- 유승렬, 앞의 책, 283~284쪽.
- 한철호, 「계림장업단(1896~1898)의 조직과 활동」, 『사학 연구』 55·56, 한국 사학회, 1998.
- 유승렬, 앞의 책, 284~285쪽.
- 이현창, 앞의 책(1999), 249쪽.
- 이현창, 앞의 책(1999), 249~250쪽.
- 유승렬, 앞의 책, 285쪽.
- 유승렬, 앞의 책, 286쪽.
- 유승렬, 앞의 책, 287쪽.
- 유승렬, 앞의 책, 287~289쪽.
- 김경태, 「불평등 조약 개정 교섭의 전개」, 『한국사 연구』 11, 한국사 연구회, 1975.
- 박말희, 「서양 제국과의 개국 조약」, 『한국 외교사』 I,

집문당, 1993.

- 46 김종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 『역사학보』 32, 역사학회, 1966.
- 47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원호, 『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신서원, 1997 참조.
- 48 최유길, 「韓國の貿易動向 1877~1911」, 『アジア經濟』 15-1, 1974.
- 49 최유길, 앞의 글.
- 50 古田和子, 「日清戦争までの日鮮貿易」,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2000.
- 51 최유길, 앞의 글.
- 52 송규진, 『일제하의 조선 무역 연구』, 고려 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2001.
- 53 하원호, 앞의 책, 39쪽.
- 54 하원호, 앞의 책, 124쪽.
- 55 오성,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 한국 연구원, 2000.
- 56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 무역사 연구』, 국학 자료원, 2000.
- 57 러시아 대장성, 김병린 옮김,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유평 출판사, 1985.
- 58 러시아 대장성, 김병린 옮김, 앞의 책, 245쪽.
- 59 러시아 대장성, 김병린 옮김, 앞의 책, 246~247쪽.
- 60 러시아 대장성, 김병린 옮김, 앞의 책, 256쪽.
- 61 『통상회찬(通商彙纂)』 6, 518쪽.
- 62 이현창, 앞의 책(1999), 250~251쪽; 오두환, 『한국 근대 화폐사 연구』, 한국 연구원, 1991. 18~26쪽.
- 63 “Korean Domestic Trade,” 『The Korea Review』, 5, 1905. 11
- 64 이현창, 앞의 책(1999), 252쪽.
- 65 이현창, 앞의 책(1999), 253쪽.
- 66 이현창, 앞의 책(1999), 255쪽.

## ■ ■ 참고 문헌 ■ ■

- 강만길, 『조선 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1984.
- 권태억, 『한국 근대 면업사 연구』, 일조각, 1992.
- 김경태, 「불평등 조약 개정 교섭의 전개」, 『한국사 연구』 11,

한국사 연구회, 1975.

- 김종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 『역사학보』 32, 역사학회, 1966.
- 박말희, 「서양 제국과의 개국 조약」, 『한국 외교사』 I, 집문당, 1993.
- 박원선, 『객주』, 연세 대학교 출판부, 1968.
-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서울 상공업사』, 2003.
- 송규진, 『일제하의 조선 무역 연구』, 고려 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2001.
- 양정필, 「19세기 개성 상인의 자본 전환과 삼업 자본의 성장」, 『학림』 23, 연세 대학교 사학 연구회, 2003.
- 오두환, 『한국 근대 화폐사 연구』, 한국 연구원, 1991.
- 오 성, 「한말-일제 시대 개성의 시변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 21,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2002.
- \_\_\_\_\_,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 한국 연구원, 2000.
- \_\_\_\_\_, 『한국 근대 상업 도시 연구』, 국학 자료원, 1998.
- 유승렬, 『한말·일제 초기 상업 변동과 객주』,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6.
- 이병천, 『개항기 외국 상인의 침투와 한국 상인의 대응』,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5.
- 이영학, 「담배의 사회사」, 『역사 비평』 12, 역사 비평사, 1991.
- \_\_\_\_\_,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의 재배」, 『외대 사학』 5, 한국 외국어 대학교 사학 연구소, 1993.
- \_\_\_\_\_, 『한근 근대 연초엽에 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0.
-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 무역사 연구』, 국학 자료원, 2000.
- 이태진, 『고종 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이현창, 『개항기 시장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0.
- \_\_\_\_\_, 『한국 경제 통사』, 법문사, 1999.
- 조기준, 『한국 기업가사』, 박영사, 1973.
- \_\_\_\_\_, 『한국 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73.
- 조재곤, 『근대 격변기의 상인 보부상』,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3.
- 조효숙, 「방직업」, 『한국사』 24, 국사 편찬 위원회, 1994.
- 하원호, 『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신서원, 1997.
- 한우근, 『한국 개항기의 상업 연구』, 일조각 1970.

한철호, 「계림장업단(1896~1898)의 조직과 활동」, 『사학연구』 55·56, 한국 사학회, 1998.

최유길, 「韓國の貿易動向 1877~1911」, 『アジア經濟』 15-1, 1974.

古田和子, 「日清戰爭までの日鮮貿易」,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2000.

## 제4장 근현대 서울의 상권과 상품 유통

### ■ 주 ■

- 1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서울 상공업사』, 2003, 370~381쪽.
- 2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 385~386쪽.
- 3 정재정, 『일제의 조선 철도 침략과 한국인의 대응 (1892~1945)』,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2, 260~262, 270쪽.
- 4 이헌창, 『개항기 시장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0, 157~200쪽.
- 5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 386~388쪽.
- 6 이헌창, 『한국 경제 통사』, 범문사, 1999, 245~246쪽.
- 7 김병도·주영혁, 『한국 백화점 역사』, 2006, 36쪽.
- 8 조기준, 『한국 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73, 392~393쪽.
- 9 김병도·주영혁, 앞의 책, 37~38쪽.
- 10 신세계 백화점, 『한국의 시장 상업사』, 1992, 163~164쪽.
- 11 김병도·주영혁, 앞의 책, 37쪽.
- 12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 180쪽.
- 13 유승렬, 「일제 강점기 서울의 상업과 객주」, 『서울학연구』 10, 서울 시립 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1998, 128쪽.
- 14 『동아일보(東亞日報)』 1923년 3월 7일자.
- 15 「조선 내에 재(在)한 제외인(諸外人)의 경제적 세력, 천분중 구백구십칠분(千分中九百九十七分)을 점유한 광업계에 재한 외국인의 세력」, 『개벽』 제30호, 1922년 12월.
- 16 『고종실록』 권 38, 고종 35년 9월 12일.
- 17 『황성신문(皇城新聞)』 1901년 4월 27일자.
- 18 황현(黃玑), 김준 옮김, 『완역 매천야록(完譯梅泉野錄)』, 교문사, 1994, 659쪽.
- 19 『황성신문』 1906년 4월 16일자.
- 20 『동아일보』 1929년 7월 13일자.
- 21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자.
- 22 『동아일보』 1937년 8월 29일자.
- 23 『동아일보』 1923년 5월 12일자.
- 24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서울의 시장』, 2007, 157~207쪽.
- 25 정수일, 「진고개, 서울맛·서울정조(情調)」, 『별건곤』 제23호, 1929년 9월 27일.
- 26 『시대일보(時代日報)』 1925년 8월 24일자.
- 27 『동아일보』 1922년 11월 22일자.
- 28 「엽서통신: 종로일통행인(鍾路一通行人)」, 『별건곤』 제34호, 1930년 11월호.
- 29 『동아일보』 1922년 1월 1일자.
- 30 「반도 최대의 백화점 출현-동아 백화점의 내용과 외관-, 얼마나 한 자본으로 어떠한 인물들이 경영하는 것인가?」, 『삼천리』 제4권 제1호, 1932년 1월 1일.
- 31 조선 총독부 경무국 발, 「독립 운동에 관한 건」, 대정(大正) 8년 3월 3일 제10보.
- 32 김영호, 「3·1 운동에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 『3·1 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78, 644~646쪽.
- 33 『동아일보』 1920년 8월 25일자.
- 34 『동아일보』 1922년 11월 22일자.
- 35 김영호, 앞의 글, 650~653쪽.
- 36 김영호, 앞의 글, 650~653쪽.
- 37 토산생(土産生), 「물산 장려의 일(日)」, 『개벽』 제33호, 1923년 3월 1일.
- 38 『동아일보』 1923년 2월 7일자.
- 39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 178~180쪽.
- 40 『개척』 제 16호, 1921년 10월 18일.
- 41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198쪽.
- 42 「기밀실(機密室), 우리 사회의 제내막(諸内幕)」, 『삼천리』 제12권 제8호, 1940년 9월 1일.
- 43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177~178쪽.
- 44 조기준, 『한국 기업가사』, 박영사, 1974, 218~219쪽.
- 45 『동아일보』 1922년 9월 15일자.

- 46 『동아일보』 1922년 12월 2일자.
- 47 『동아일보』 1929년 12월 1일자.
- 48 『동아일보』 1933년 12월 28일자.
- 49 『동아일보』 1938년 1월 30일자.
- 50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180~181쪽.
- 51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3), 532~533쪽.
- 52 『동아일보』 1931년 4월 3일자.
- 53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183~184쪽.
- 54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3), 542쪽.
- 55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 201~202쪽.
- 56 신대익, 「화신덕원 대 삼월정자 대백화점전(和信德元對三越丁子大百貨店戰)」, 『삼천리』 제12호, 1931년 2월호, 52쪽.
- 57 최남(崔楠), 「십전 균일점(十錢均一店)은 조선서 성공할 것인가」, 『삼천리』 제7권 제6호, 1935년 7월호, 99~100쪽.
- 58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 203~205쪽.
- 59 『동아일보』 1932년 5월 10일자.
- 60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 205~209쪽.
- 61 「색다른 직업여성과 그들이 본 세상」, 『동아일보』 1936년 1월 3일자.
- 62 「소대가리 경성(京城) 시골 학생이 처음 본 서울, 재경 초일기(在京初日記)」, 『별건곤』 제50호, 1932년 4월 1일.
- 63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3), 545~546쪽.
- 64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223~230쪽.
- 65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3), 886~896쪽.
- 66 『조선일보』 1946년 1월 6일자.
- 67 『동아일보』 1960년 5월 9일자.
- 68 『동아일보』 1960년 7월 29일자.
- 69 『동아일보』 1955년 5월 26일자.
- 70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263~329쪽.
- 71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239~240쪽.
- 72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245~247쪽.
- 73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301~302쪽.
- 74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25년사』, 1987, 67~68쪽.
- 75 김병도·주영혁, 앞의 책, 116~118쪽.
- 76 서울 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2007), 305~307쪽.
- 77 김병도·주영혁, 앞의 책, 117~118쪽.
- 78 김병도·주영혁, 앞의 책, 114~116쪽.

- 79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1992), 294쪽.
- 80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앞의 책(2007), 308~309쪽.
- 81 조병찬, 『한국 시장 경제사』, 동국 대학교 출판부, 1992, 388쪽.
- 82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1992), 329쪽.
- 83 조병찬, 앞의 책, 406쪽.
- 84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1992), 338~339쪽.
- 85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1992), 346~348쪽.
- 86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1992), 408~413쪽.
- 87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1987), 263쪽.
- 88 신세계 백화점, 앞의 책(1992), 343쪽.

## ■ 참고 문헌 ■

- 김병도·주영혁, 『한국 백화점 역사』,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6.
- 김영호, 「3·1 운동에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 『3·1 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사, 1978.
- 서울 특별시사 편찬 위원회, 『서울상공업사』, 2003.
- \_\_\_\_\_, 『서울의 시장』, 2007.
-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25년사』, 1987.
- \_\_\_\_\_, 『한국의 시장 상업사』, 1992.
- 유승열, 「일제 강점기 서울의 상업과 객주」, 『서울학 연구』 10, 서울 시립 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1998.
- 이현창, 『개항기 시장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0.
- \_\_\_\_\_, 『한국 경제 통사』, 범문사, 1999.
- 전우용, 「대한제국기, 일제 초기 선택형 창내장의 형성과 전개—서울 남대문 시장의 성립 경위—」, 『서울학 연구』 12, 서울 시립 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1999.
- 정승모, 『시장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2000.
- 정재정, 『일제의 조선 철도 침략과 한국인의 대응(1892~1945)』,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2.
- 조기준, 『한국 기업가사』, 박영사, 1974.
- \_\_\_\_\_, 『한국 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73.
- 조병찬, 『한국 시장 경제사』, 동국 대학교 출판부, 1992.



조재곤, 『근대 격변기의 상인 보부상』,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3.

허영란, 「1920, 30년대 '경성' 의 도, 소매 상업」, 『서울 상업사 연구』 7, 서울 시립 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1998.

황현(黃玹), 김준 옮김, 『완역 매천야록(完譯梅泉野錄)』, 교문사, 1994.

## 사진 자료 제공처

가톨릭 출판사  
간송 미술관  
경기도 박물관  
고려 대학교 박물관  
국립 고궁 박물관  
국립 민속 박물관  
국립 중앙 박물관  
국립 춘천 박물관  
국정 홍보처  
궁중 음식 연구원  
두산동아 엔사이버(Encyber) 자료실  
부산 근대 역사관  
서문당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서울 대학교 박물관  
서울 역사 박물관  
서울 특별시 시사 편찬 위원회  
성신 여자 대학교 박물관  
수원 대학교 동고학 연구소  
숭실 대학교 박물관  
신세계 상업사 박물관  
연합 뉴스  
육군 박물관  
이철성  
이화 여자 대학교 박물관  
정성일  
조홍윤  
중앙일보  
한국 국제 교류 재단  
한국 미술 사진 연구소  
한국은행 화폐 금융 박물관  
호암 미술관  
호한 재단

## 찾아보기

.. 7 ..

- 가다쿠라 제사 공업 주식회사 228  
 가로 관리 규칙 234  
 가삼 53, 95, 97  
 가흥창 59, 157  
 각자장 124  
 각장 124  
 감동제 198  
 감자 117  
 갑신정변 166  
 갑오개혁 67, 125, 168, 170, 171, 175, 176, 197, 201, 211, 222, 226, 256  
 갑인자 125  
 강경장 43, 44, 47  
 강선 150  
 강포 107  
 강화도 조약 168, 207  
 강희맹 85  
 강희원 285  
 개성 금융 조합 182  
 개성 삼업 조합 192  
 개성 삼업 주식회사 193  
 개성 상업 회의 192  
 개성 상인 98  
 개성 양조 주식회사 193  
 개성 인삼 178  
 개성 전기 주식 회사 193  
 개시장 206, 223  
 개항장 167, 172, 173, 175, 183, 185, 186, 188, 197, 199~201, 210, 211, 215, 223, 226  
 개화파 166, 175, 177, 256  
 객주 59, 66, 104, 147, 175, 177, 188, 197, 198, 199, 200, 201, 203  
 객주 상회소 200  
 객주업 162, 163  
 갯벌장 60  
 거간 66  
 거자 143  
 거자고 144  
 건경법 84  
 건방 56  
 걸립패 79  
 건종법 85  
 경강 48, 159  
 경강 상인 90~92, 103  
 경공장 119, 129  
 『경국대전』 100, 109, 119, 131, 150, 155  
 경부 철도 185, 186, 224, 226  
 경상 98  
 경성 곡물 신탁 회사 190  
 경성 수산 시장 230  
 경성 식량품 시장 230  
 경성 어시장 230  
 경성 우편국 239  
 경성 전기 주식회사 228  
 경성 전매지국 개성 출장소 181  
 경성 중앙 도매 시장 271  
 경성부 수산 시장 230  
 경성시 상민 일동 공약서 244  
 『경성일보』 268  
 경시 16  
 경시서 114, 127  
 경연전 159  
 경오자 125  
 경의 철도 224  
 경인 철도 223, 224  
 경주인 97  
 경창 155  
 계림 상회 252  
 계림 장업단 199  
 계미자 125  
 고구마 117  
 고려 삼업사 192  
 고려 양행 252  
 고려 인삼 178, 179, 193  
 고려삼 93  
 고마청 26  
 고양목 113  
 고추전 116  
 골패 76  
 공미 91  
 공방 26  
 공성학 192  
 공업 전습소 170  
 공응규 192  
 공익사 190  
 공인 129, 188, 222  
 공주 약령시 67  
 공치사 122  
 관공장 118, 120  
 관동삼계인 95  
 관모 53  
 관부 연락선 225  
 관북로 139  
 관상감 122  
 관영 수공업 118, 120, 121, 126, 128, 129  
 관영 수공업장 124  
 관장 121  
 광목 279  
 광무 학교 170  
 광장 시장 256, 276  
 광장 주식회사 190, 256, 257  
 광주 분원 121, 123  
 패서 74  
 교서관 124, 125  
 국제 보상 운동 202

군국기무처 195  
 군기시 119, 121, 124, 126, 131  
 곳앤곳 275  
 궁인 131  
 권원식 234  
 퀴런초 234  
 귀후서 130  
 균자장 125  
 근경 86  
 금강 상회 252  
 금난전권 23, 90, 105, 167  
 금박장 110  
 금사사 158  
 금성 280  
 『금양잡록』 85, 87  
 금자단본화엄경 158  
 금촌 양행 258  
 기선 회사 176  
 길포 113  
 김근규 193  
 김상로 37, 38  
 김석주 143  
 김성갑 193  
 김안로 127  
 김육 33  
 김윤 262  
 김윤 백화점 252  
 김윤면 189, 252  
 김윤배 251  
 김일 280  
 김일성 194  
 김재순 93  
 김정호 81, 141  
 김정후 194  
 김종수 53  
 김종한 256  
 김종환 193  
 김중서 97

김지경 17  
 김진우 193, 194  
 김택영 192  
 김한규 256  
 김현도 194  
 김형숙 269  
 김혜정 286  
 김홍륙 233  
 김홍집 195  
 김희준 235, 250  
 꾸러미 판매(번들 세일) 286  
 꿀꿀이죽 274  
  
 ■ ■ ■ ■ ■  
 나리포 44  
 남구만 143  
 남대문 시장 223, 229, 253~255, 257, 271~275  
 남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 255, 272, 273  
 남령초 99  
 남문안장 253  
 남문외장 54  
 남석훈 286  
 남시 66  
 남초 99, 102, 106  
 남초 여객 주인 106  
 남초전 105, 106  
 남촌 상가 242, 243, 262  
 내섬시 122, 130  
 내수사 119, 159  
 내자시 130  
 내장원 180, 181  
 내창장 162  
 논산포 44  
 『농사직설』 87  
 농심 라면 278  
 농종법 85

누원점 39, 55, 56, 92  
 뉴서울 슈퍼마켓 290  
 뉴코아 291  
 뉴코아 백화점 290  
 능단장 110  
 능라장 110  
 늦벼 85  
  
 ■ ■ ■ ■ ■  
 닥나무 20  
 단성사 276  
 담바고 99  
 담바귀타령 101  
 담배 64, 99~104, 106, 217, 234, 235, 278  
 당약 64  
 대구 백화점 293  
 대구 약령시 65, 66  
 대나무 20  
 대도 백화점 274  
 대동 흥업 287  
 대동법 19, 64, 65, 76  
 대동여지도 29, 141, 153  
 『대동지지』 81, 138  
 대성 공업사 278  
 대일본 제당 227  
 『대전속록』 110  
 『대전통편』 130  
 대조선 저마 제사 회사 169  
 대창 무역 268  
 대창 무역 주식회사 189  
 대한 국민회 245  
 대한 부동산 주식회사 282  
 덕원 상점 262  
 데이콤 292  
 도가 60  
 도강업 90

도객주 198  
 도고 23, 56, 57, 74, 76, 91, 97, 106,  
 166, 167, 176, 198  
 도깨비 시장 273, 275  
 도박 객주 147  
 도승 153  
 도자전 134  
 도장 26  
 도침장 110  
 도화서 122, 130  
 독립 협회 170  
 『독립신문』 168  
 돈삼계공인 95  
 『동국여지승람』 153, 155  
 『동국지도』 29  
 동대문 가축 시장 272  
 동대문 공설 시탄 시장 230  
 동대문 시장 223, 229, 255~257, 271,  
 272, 275, 276  
 동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 275  
 동대문 종합 시장 276  
 동두천장 57  
 동래 상인 96, 98  
 동방 모직 279  
 동방 생명 285  
 동방 청량음료 278  
 동아 262  
 동아 백화점 250, 262, 263, 265  
 동아 부인 상회 262  
 『동아일보』 232, 267  
 동양 물산 주식회사 189  
 동양 TV 방송 286  
 『동여도지』 81  
 『동의보감』 94  
 동춘여점 56  
 동화 282  
 동화 백화점 282, 284, 285  
 동화 산업 291

두산 그룹 251  
 등유 223  
 등점장수 142  
 떡장 골목 274

## ㄱ

라디오 280  
 라면 278  
 로손 291  
 롯데 292, 293  
 롯데 라면 278  
 롯데 세븐 291

## ㅋ

마록점 42  
 마산포 45  
 마석우장 57  
 마장동 시립 도축장 272  
 마포 공설 시장 230  
 마포미전 90  
 마포염전 159  
 『만기요람』 32, 36, 46, 95  
 만년필 237, 281  
 만도 85  
 말감고 60  
 『매천야록』 168  
 메가다 189  
 멕시코 233  
 면업 111, 218  
 면주전 114  
 명동 공설 시장 229  
 명태 46, 226  
 모시 21, 28, 225  
 『목강』 76  
 목계장 58, 162  
 목공장 126

목수점 42  
 목장 120, 124  
 문의미전 90  
 문익점 111  
 물산 장려 운동 246  
 물상객주 59  
 미국 의원단 245  
 미나카이 267, 269  
 미나카이 대상점 239  
 미나카이 백화점 261, 286  
 미니스톱 291  
 미도파 282, 290  
 미도파 백화점 261, 282, 283, 289, 293  
 미미소 278  
 미삼계인 95  
 미쓰비시 제철 겸이포 공장 228  
 미쓰코시 258, 263, 267, 269  
 미쓰코시 백화점 241, 258, 260, 261,  
 263, 284  
 미쓰코시 오복점 239, 258  
 미아리 공설 시장 272  
 미전 93  
 미즈이 193  
 민규식 262  
 민영익 166  
 민족 기업 건설 운동 246  
 민진후 36  
 민태호 166  
 밀삼 180

## ㅅ

바젠세일 260  
 바나나 278  
 바리전 135  
 박가분 236, 251  
 박규수 168  
 박두병 251

박승직 189, 190, 236, 251, 256  
 박승직 상점 251  
 박영효 167  
 박정양 195, 253  
 박제가 47, 81, 144  
 박지원 40, 115, 144  
 박홍식 250, 251, 265, 268, 269, 287  
 반민족 행위 처벌법 287  
 방곡령 173, 212  
 방직장 110, 123  
 방초 94  
 배금열 249  
 배우개장 256  
 백목전 189  
 백삼 94, 179, 193, 215  
 백옥면 219  
 백윤수 189  
 백채 192  
 벽서 74  
 『별건곤』 238  
 별서 125  
 별신제 62  
 보광 290  
 보부상 104, 142, 166  
 보상 142  
 볼펜 281  
 봉상시 122  
 부상 142  
 『부역실총』 40  
 복문외장 54  
 복시 66  
 복어 44, 45, 47, 55  
 복춘 239, 243  
 복춘 상가 242, 243, 262  
 복포 107  
 『복학의』 144  
 『비변사등록』 95  
 비습 77

빈정포 80

## 人

사공장 118  
 사금장 110  
 사기장 119  
 사당패 78, 79  
 사도시 122, 130  
 사사곶장 54  
 사상층 166  
 사접시 130  
 사세국 출장소 181  
 사온서 122, 130  
 사옹원 119, 121, 123  
 사이다 278  
 사이토 마코토 244  
 4인두목제 198  
 사재감 150  
 사평장 92  
 사포서 130  
 사행로 139  
 『산림경제』 85  
 산삼 93, 97, 214  
 산택사 122  
 삼금 정책 71  
 삼상 98  
 삼성 292  
 삼성 그룹 285  
 삼세 181  
 삼시장유양조장 278  
 삼양 라면 278  
 삼양 식품 278  
 삼월 오복점 242  
 삼정파 181  
 삼정국 181  
 삼정사 180, 181  
 삼포 161, 178, 179, 181, 191~194

삼품 슈퍼마켓 290  
 삼학 278  
 상공 학교 170  
 상권 수호 운동 244  
 상무 학교 170  
 상무 회의소 170  
 상미전 90  
 상법 회사 175  
 상의국 109  
 상의원 109, 110, 113, 119, 121  
 상인 연합회 244  
 상회 규칙 174  
 상회사 174~176, 249  
 상회소 175  
 새로나 백화점 275  
 샘포 간장 278  
 생강 20  
 생피장 124  
 서가장분 236  
 서강미전 90  
 서대문 공설 시장 230  
 서린 공설 시탄 채소 시장 230  
 서명빈 37  
 서상규 196  
 서상집 194~196  
 서울 약품 281  
 서울장분 236  
 서울 중앙 도매 시장 271  
 서울 청과 시장 274  
 서유구 85, 86, 97, 112  
 서재필 169  
 서지포 43  
 씨클K 코리아 291  
 석유 216, 223  
 석장 120  
 석현장 54  
 선공감 119, 123, 128  
 선박 조선소 195

선상 92  
 선일 지물 265, 287  
 선일 지물 주식회사 250  
 선잡제 108  
 선전 113, 189  
 선해청 253  
 설병주 194  
 설용석 194  
 설익주 194  
 설한주 194  
 설효석 194  
 성냥 237  
 성동 시장 272  
 성장 110  
 『성호사설』 99  
 세랍장 54  
 세모시 29  
 세븐 일레븐 291  
 세삼공인 95  
 『세종실록』 126  
 『세종실록지리지』 121, 153  
 세창양행 175  
 소격서 130  
 소기전 224  
 소시장 68  
 손봉상 192  
 손탁 233  
 송도 고무 공업 주식회사 193  
 송도 금융 조합 182  
 송도 상인 96  
 송도목 113  
 송병준 253  
 송우장 57, 92  
 송종 253  
 송과장 36, 37, 39, 92, 137, 152, 162, 189  
 쇠거간 70  
 쇠전 68, 69, 72

수경법 84  
 수남 상회 251  
 수로 전운소 149  
 수부 150, 158, 161  
 수산 시장 274  
 수장 125  
 수참 149, 158, 161  
 수참 전운 별감 149  
 수참간 150  
 수철장 136  
 숭례문 수입 상가 275  
 슈퍼마켓 289  
 스페시 콜라 278  
 『승정원일기』 101  
 시대 백화점 284  
 시변 180  
 시변제 182  
 시비법 87  
 C-스토어 290  
 시인 131  
 시장 규칙 226, 227, 228, 271  
 시장감고 26  
 시장감세 26  
 시장법 228, 274, 283, 288  
 시전 23, 27, 29, 36, 38, 39, 41, 46, 48, 53, 55, 57, 90, 93, 105, 113, 126, 129, 132~134, 136, 137, 159, 174, 188, 189, 253  
 시전 상인 166  
 시점 42  
 시팅 219  
 식산은행 226, 268  
 신구법 252  
 신세계 289  
 신세계 백화점 258, 285, 286, 290, 293  
 신세계 백화점 신용 카드 293  
 신신 283  
 신신 백화점 282, 288

『신증동국여지승람』 125, 157  
 신창 안장 253  
 신천장 57  
 신태익 263  
 신태화 265  
 신태통공 23, 167  
 심마니 93, 94  
 십전 균일점 264  
 ■ ○ ■  
 아바이 시장 274  
 안경수 169  
 안남미 233  
 안동포 107, 113  
 안상진 158  
 안성장 39, 40, 41, 54  
 안주 상인 98  
 안중장 54  
 안창남 234  
 압령 만호 148  
 액점 80  
 야장 119, 124  
 야점 42  
 약령시 63, 65~67, 229  
 양잠 109, 214  
 양키 시장 273  
 양현고 122, 130  
 어물전 56, 69  
 어시장 230  
 언더우드 233  
 엄복동 234  
 엄복만 272  
 AMPM 291  
 LG 280  
 LG25 291  
 여각 59, 66  
 여객 93, 104

여객 주인 92, 159  
 『여도비지』 81  
 『여지도서』 58, 153  
 연사장 110  
 연세 56  
 『연암집』 115  
 연장 124  
 연죽전 104  
 연죽점 42  
 연초 20, 99, 100~104, 160, 169, 182, 183  
 연초세 184  
 연초전 104, 105  
 연초 전매제 184  
 연탄 236  
 연포장 31  
 연행로 139  
 『열하일기』 144  
 엽전 159  
 엽연초 183  
 영남로 40  
 영등포 가축 시장 272  
 영등포 공설 시장 230  
 영등포 삼구 공설 시장 272  
 영등포 시장 272  
 영시 63~65, 171  
 영신사 192  
 영조사 122  
 영통사 158  
 영포 107  
 영흥 금광 178  
 영흥 회사 176  
 예빈시 124, 130  
 오매장 54  
 오복점 235  
 『오사카 매일신문』 267  
 오산장 54  
 『오주연문장전산고』 46

옥수수 117  
 옥양목 208~210, 279  
 올벼 85  
 와서 119, 125  
 완호 별감 149  
 왜관 222  
 왜지삼 105  
 외공장 119, 129, 131  
 외사 126  
 용산 공설 시장 229  
 용산 공작 주식회사 228  
 용산 수산 시장 230  
 용산엽전 159  
 『용재총화』 121  
 우금 71, 72  
 우수참 150  
 우시장 54, 68, 69, 72  
 우전 68  
 우하영 80, 102  
 운암사 158  
 웅포 44  
 원기소 281  
 원산장 46, 48  
 원주 약령시 66  
 위봉족 110  
 유기 39, 41, 42, 75  
 유기전 135  
 유길준 167, 174, 195, 196  
 유득공 100  
 유수원 80, 81  
 유의양 88  
 유재선 252  
 유점 42  
 유증립 102  
 유형원 32, 50, 79  
 육의전 23, 53, 105, 113, 167, 174, 229  
 윤치호 233  
 윤효정 169

의영고 122  
 의전 133  
 의주 상인 98  
 의친왕 234  
 이강 234  
 이규경 46  
 이덕무 84  
 이덕신 106  
 이돈의 252  
 이마트 290  
 이명래 고약 281  
 이승만 282  
 이시수 160  
 이식법 103  
 이양법 78, 84  
 이완용 253  
 이용익 180, 181  
 이운사 176  
 이익 79, 81, 99  
 이정재 275  
 이조연 166  
 이중환 29, 31, 40, 44, 59, 60, 102, 111, 141, 145  
 2001 아울렛 290  
 이철보 38, 39  
 이포장 162  
 이현 56, 92, 137, 200, 223  
 이현 시장 256  
 이현장 144  
 이형재 117  
 이화양행 175  
 인공 양잠 전습소 170  
 인문장 110  
 인삼 20, 66, 93~95, 97, 178, 179, 181, 182, 192~194, 213~215,  
 인삼공물주인 95  
 인천 객주 상회 199  
 인천 신상 협회 199

인천항 194~196, 198  
 인출장 125  
 인터넷 쇼핑 292  
 인터넷 쇼핑몰 292  
 인터파크 292  
 일본 광업 진남포 제련소 228  
 일본 제일은행 213  
 『일성록』 72  
 일한 시장 229  
 일화 불매 운동 246  
 『임원경제지』 41, 71, 72, 85~87, 97,  
 105, 112, 113, 160  
 임제원 71  
 인천 모시 112  
 입전 113  
 입점 42

## ■ ㅈ ■

자유 상가 274  
 자전거 233  
 자행거 233  
 잠상 96  
 잠실 108  
 잠업 109, 169  
 잠곡전 90  
 잠기 76  
 장날 27, 75, 77  
 장문 16, 17  
 장세 24~26, 40, 49, 79, 81  
 장악원 124  
 장원서 130  
 장인세 120, 129  
 장적법 130  
 장청 26  
 장포 120  
 장흥고 122  
 재건 국민 운동 285

재금장 110  
 재무국 전매과 개성 출장소 181  
 지포 20, 29, 189  
 지포전 114  
 전매국 179  
 전매국 개성 출장소 181  
 전매국 출장소 181  
 전방 80  
 전사 79  
 전설사 130  
 전옥서 132  
 전자 상거래 291, 292  
 전장 120  
 전주 약령시 67  
 전합사 126, 130  
 전화 280  
 전황 21, 202  
 절초 106  
 절초전 104, 105  
 점막 73, 77  
 접주인 96  
 정기시 173  
 정만교 42  
 정몽주 149  
 정약용 81  
 정자옥 241  
 정천익 111  
 정크선 213  
 『제국신문』 233  
 제생원 158  
 제용감 119, 123, 130  
 제일 290  
 제일 모직 279  
 제일은행 289  
 『제중신편』 94  
 조각장 124  
 조도 85  
 조미 수호 통상 조약 205, 206

조선 권업 주식회사 256  
 조선 농업 주식회사 253, 254  
 조선 무역 주식회사 256  
 조선 물산 장려 선전의 날 247  
 조선 물산 장려 운동 246~248  
 조선 물산 장려회 246, 247  
 조선 방직 공업 주식회사 228  
 조선 비행기 공업 270  
 조선 유지 공업 주식회사 228  
 조선 청년회 연합회 246  
 조선 총독부 226, 228, 230, 231, 254,  
 268, 270  
 조선 회사령 226, 227, 251  
 조선식산은행 182, 270  
 『조선연감』 268  
 『조선 왕조 실록』 95, 144  
 조선은행 177, 226, 239  
 『조선일보』 267  
 조신태 52  
 조업 117  
 조영 수호 통상 조약 206  
 조윤손 128  
 조일 통상 장정 205, 212  
 조지서 119, 122, 123  
 조지야 267, 269  
 조지야 백화점 263, 282  
 조지야 상점 260  
 조창 155, 162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206, 208  
 종로 공설 시장 229  
 종로 상인 244  
 종자전 116  
 좌도 수참 전문 판관 158  
 좌수참 150  
 주금 77  
 주막 73  
 주자소 124, 125  
 주장 124

주점 42  
죽장 126  
중도아 37, 56, 92, 159  
중생버 85  
중앙 도매 시장 255, 258  
중앙 물산 시장 255  
중앙 물산 주식회사 230, 254  
중앙 백화점 282  
중추원 270  
『증보문헌비고』 95, 138  
『증보산림경제』 102, 117  
증포소 98  
지장 119  
직장 110  
직조 학교 170  
진고개 231, 238~240, 258, 261, 262  
진두장 48, 49  
진로 278  
진부 153  
진삼초 102, 105  
진언대장경 158  
진흥 기업 283

## ■ 元 ■

차조도 85  
차탄장 57  
참선 158  
참운선 150  
창준 125  
채소전 115  
채제공 23, 52  
『천일록』 102  
철시 174  
철야장 126  
『청구야담』 102, 103  
청량리 시장 272  
청엽장 110, 123

최남 235, 250, 262, 263, 265  
최무룡 286  
최무선 124  
최익모 193  
최지희 286  
최해산 124  
추전상회 224  
춘포사 193  
철의전 56  
칠장 124  
칠패 55, 56, 92, 116, 137, 200, 223, 253  
칠패장 134  
침선장 123

## ■ ㄱ ■

커피 233, 278  
코스모스 290  
코스모스 백화점 289  
콜라 278  
김스 클럽 290

## ■ ㅌ ■

타운센드 상사 216  
탁지부 178, 201  
탁지부 전매과 개성 출장소 181  
태창 방직 279  
태현실 286  
『택리지』 29, 44, 61, 102, 111, 141, 145  
텔레비전 280  
토산 애용 부인회 248  
토산 장려 기생 동맹 248  
토지 조사령 227  
토포 216, 219  
통공 발매 23  
통공 정책 174  
통신 판매 291

통영 160  
투전 76  
특허 객주계 198

## ■ ㅍ ■

팔탄장 54  
편거 143  
편의점 289, 290  
평안 백화점 269  
평양 선교리 정당 회사 227  
평양 야소교서원 246  
평전 241  
폐점 · 철시 운동 242, 244  
포목점 189  
포사 72  
포삼 무역 215  
포삼 별장 98  
포삼 주인 98  
포자 32, 33, 44, 48, 79  
포전 48, 56, 114  
푸줏간 72  
프라이스 클럽 290  
피점 42

## ■ ㅎ ■

하멜 100, 234  
『하멜 표류기』 100  
하미전 90  
하상기 196  
하이퍼마켓 289  
『한경지략』 116  
한국 모직 279  
한국 무역 협회 282, 283  
한국 슈퍼마켓 290  
한미 식품 회사 278  
한보 그룹 289

한산 모시 112, 189  
 『한성순보』 174  
 한성은행 177, 182, 256  
 한술 292  
 한양 스토어 291  
 한양 식품 278  
 한양 유통 291  
 한지 42  
 함태영 256  
 합명 회사 252  
 합사장 110  
 해선 150  
 해운 관관 148  
 해운 회사 177  
 향상 92, 105  
 향시 16  
 향약 64  
 향직원 111  
 허공 103  
 허시 16  
 허장강 286

현대 백화점 293  
 현릉원 51  
 협성 학교 246  
 해민국 158  
 해상공국 166  
 혜전 133  
 혜점 42  
 호남로 40  
 혼마치 238  
 홍만선 85  
 홍삼 94, 98, 99, 178, 179, 181, 193,  
 207, 210, 214, 215  
 홍삼 전매법 181  
 홍양호 145  
 홍염장 110  
 홍원 111  
 홍충현 256  
 화성 50, 51, 53, 75  
 화신 262, 282, 283  
 화신 무역 287  
 화신 백화점 250, 266, 268, 270, 286,

287, 289  
 화신 산업 288, 289  
 화신 상회 250, 262, 263  
 화신 연쇄점 268, 270, 287  
 화신 재벌 268  
 화신 평양 지점 270  
 화양 잡화점 252  
 화업경 158  
 화원정 공설 시장 229  
 화폐 개혁 189  
 『황성신문』 168, 233  
 황현 168  
 회령포 113  
 회사령 184  
 회사설 174  
 훈련원 234  
 웨미리 마트 291  
 히노마루 수산 시장 230  
 히라다 269  
 히라다 백화점 239, 261